

소피아 벨, 왕밍(王明) 교수

홍
진

금
광

RED DUST, GOLDEN LIGHT

중국에 숨겨진 신비와 진실

홍진 • 금광

(紅塵 · 金光)

중국에 숨겨진 신비와 진실

저자: 소피아 벨, 왕밍(王明) 교수

Copyright © 2025 THE LIVES MEDIA. 모든 권리 보유.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편집자 주

이 책은 실제 이야기, 사건, 배경을 바탕으로 집필되었습니다. 하지만 특정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미칠 영향을 피하기 위해, 등장인물의 이름과 일부 신상 정보는 변경, 축약되었거나 문학적인 형태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책의 일부 내용은 관련 인물의 개인적인 시각에서 서술되었으며, 이는 당시 그들의 경험과 인식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THE LIVES MEDIA 의 공식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문체에 있어서 편집부에서 필요한 수정을 거쳤지만, 원래 인물을 존중하고 이야기의 정신과 생동감을 지키기 위해, 저희는 인물의 꾸밈없는 어조와 본래의 목소리를 최대한 보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편집부



작가의 말

이 책에 담긴 여정은 온전히 왕밍(王明) 교수님의 것입니다. 작가로서 저의 역할은 교수님과 긴밀히 협력하며 그분의 경험에 귀 기울이고, 그 비범한 이야기를 이 책으로 엮어내는 데 기여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이 책이 저희의 협업으로 탄생했지만, 여기에 실린 이야기, 회상, 그리고 깊이 있는 진리는 모두 오롯이 그분의 것입니다.

소피아 벨 (Sophia Bell)

서문

저는 한때 과학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의학 교수이자 사업가로서, 저는 논리, 증거, 그리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았고, 삶에 대해—성공과 인간의 한계에 대해—꽤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해 여름의 중국 여행은, 처음에는 단지 전통 의학과, 오랜 세월 떠나 있던 고향의 변화에 대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닥쳐올 일에 대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세계로 통하는 문은 실험실이나 대학 강의실이 아닌, 고요한 찻집에서, 안개 낀 산봉우리에서, 시간이 멈춘 듯한 작은 마을에서, 그리고 비범한 지혜를 품은 평범한 사람들의 눈빛을 통해 열렸습니다. 저는 은사들을, 기이한 방법으로 병을 고치는 치유사들을, 과학의 시야를 훌쩍 뛰어넘는 것들을 꿰뚫어 보는 이들을 만났습니다.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저의 굳건한 세계관이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대 동양 문화의 신비로운 것들을 탐험하는 여정은 또한 아내 칭링(慶玲)과 저를 또 다른 현실, 중국의 화려한 현대적 외양 뒤에 숨겨진 어둡고 잔혹한 현실 속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참된 수련의 길, 진(眞)·선(善)·인(忍)의 원리에 기반을 둔 하나의 법문(法門)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부조리한 박해, 외부 세계는 거의 알지 못하는 잔혹한 신앙 탄압의 민낯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 책은 그 파란만장했던 약 7 개월간의 여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회의적인 과학자에서 진리를 찾는 구도자로, 호기심 많은 여행객에서 위대한 선과 극단적인 악 모두의 원치 않는 증인이 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이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굳건한 마음, 역경 속에서의 신념의 힘, 그리고 가장 깊은 칠흑 같은 밤에도 결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빛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설득하기 위함이 아니라,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은 하나의 경험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어쩌면 이 여정 속에서, 당신 또한 당신 자신만의 무언가, 하나의 실마리, 한 줄기 빛, 당신이 늘 마음속에 품어왔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동방이 진정으로 빛을 발하는 여정으로, 저와 함께 첫걸음을 내디뎌 주시길 바랍니다.

왕밍 (Wang Ming)

제 1 장: 각본에 없던 순간

기묘한 초대와 이질적인 공간

나는 603 호가 새겨진 짙은 색 나무 문 앞에 말없이 서 있었다.

그 방은 1 층 복도 맨 끝, 외진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컨퍼런스 센터의 창백한 형광등 불빛조차 잊어버린 듯한 곳이었다. 내 손에는 시간이 흘러 빛바랜 낯익은 문패의 차가운 감촉이 아직 남아 있었다. 희미한 불빛 아래, 그 숫자는 마치 바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다. 그런 막연한 느낌이었다.

십 분쯤 전, 나는 3 층의 넓은 홀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그곳에서는 끊임없는 경주 속의 글로벌 의료 산업처럼, 복잡한 도표를 담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들이 쉴 새 없이 번쩍이고 있었다. 그때 문득 한 가지 충동이 일면서, 학회 첫날 쓰레기통에 버리려 했던 아주 작은 종잇조각이 양복 조끼 주머니에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것은 전혀 눈에 띄지 않는 것이었다. 상아색 종이 한 조각에, 그저 영어 한 줄이 소박하게 인쇄되어 있을 뿐이었다.

"고대의 치유술과 미지의 가능성 (Ancient Healing Arts and Uncharted Possibilities)"

그리고 이름 하나. 장평(張豐) - 중국에서 옴.

개최일: 603 호.

그때, 나는 기억한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던 것을. 한편으로는 제목이 어느 외진 시골의 주말 명상 수련회 광고처럼 다소 진부하게 들렸기 때문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그리고 아마 더 큰 이유로는, 내가 숫자의 사람, 검증된 연구와 명확한 데이터 분석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언어학자인 아내 칭링(慶玲)은 내 사고방식이 내가 차고 다니는 스위스 시계의 무브먼트처럼 빈틈없고 정확하다고 비유하

곤 했다. 나는 보통 침묵하며, 그것을 나의 확고함에 대한 은근한 칭찬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 종잇조각은 뻑뻑한 일정과 중요한 만남들 속에서 이틀 동안 내 주머니에 가만히 누워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게를 지닌 채, 어느 한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오늘 오후, 갑자기 40 분 정도의 빈 시간이 생기고, 끝없이 반복되는 듯한 통계 도표에 머리가 지끈거릴 때까지는 말이다. 그때 내 손이 마치 저절로 주머니에 닿더니, 천천히 그 종잇조각을 꺼냈다.

"잠깐 본다고 손해 볼 건 없지." 나는 신중한 결정이라기보다는 스쳐 지나가는 생각처럼 중얼거렸다.

그리고 지금, 나는 여기 603 호실 앞에 서 있다. 가까워질수록, 주 회의실들에서 들려오던 소란과 잡다한 소음들이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걸려져 사라지는 듯했다. 두꺼운 카펫 위를 밟는 내 발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이상하리만치 고요한, 거의 형태가 있는 듯한 정적 속으로 천천히 떨어지는 작은 물방울 같았다.

나는 가볍게 문을 밀었다. 문은 오래된 나무의 한숨처럼, 아주 나지막한 "삐걱" 소리를 냈다.

안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눈부신 프로젝터도, 격식 있는 연단도 없었다. 차가운 백색 조명이나 최신 음향 시스템에서 울려 퍼지는 마이크 소리도 없었다. 대신, 방 안은 천장 가까이 매달린 몇 개의 한지 등롱에서 퍼져 나오는 부드럽고 따뜻한 황금빛으로 밝혀져 있었다. 맑고 깨끗한 약초 향기가 코끝을 부드럽게 스쳤다. 침향나무 향 같았지만 더 맑고 섬세해서, 웬지 모르게 내 머리가 뜻밖에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방 안에는 십여 명 남짓한 사람들만이 소박한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단정하고 조용히, 모두 앞을 향해 앉아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음악, 의식의 깊은 층으로만 느낄 수 있는 선율을 함께 듣고 있는 듯했다. 아무도 휴대폰을 보지 않았다. 아무도 바쁘게 메모하지 않았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이곳의 침묵은 단순히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형태와 부피를 가진 살아있는 실체처럼 방 구석구석을 감싸고 스며들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나는 문지방에서 몇 초간 멈칫했다. 잘 다려진 비즈니스 정장, 줄무늬 실크 넥타이, 가슴에 단 반짝이는 금속 명찰. 나의 지위와 자신감의 상징이었던 것들이, 지금 여기서는...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고요한 합창 속의 불협화음처

럼.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청객을 보는 듯한 시선은 하나도 없었다. 그들의 시선이 나를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지만, 심판이나 호기심 어린 탐색은 전혀 없었다. 그것은 마치... 이런 일이나 비슷한 일을 전에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의 눈빛 같았다. 조용한 수용.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아주 가볍게 안으로 들어가 맨 뒷줄의 빈 의자를 택했다. 의자 등받이는 살짝 뒤로 기울어져 있었고, 천 덮개는 닳아 있었지만, 내 평생 이렇게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의자에 앉아본 적은 없었다.

앞쪽,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낮은 소박한 나무 의자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종이에 적힌 이름으로 보아, 장평이리라. 가장 가까운 등롱에서 나온 황금빛이 그의 뺨과 관자놀이 한쪽에 비스듬히 드리워져 있었다. 그 얼굴은 언뜻 보면 그다지 눈에 띄는 것이 없었지만, 시선을 땔 수 없게 만드는 무언가를 품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꿰뚫어 보거나 살피지 않았다. 그저 존재할 뿐이었다. 잔물결 하나 없는 가을 호수처럼 고요하고 깊었으며, 너그럽고 침착했다.

나는 여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이 방에 들어서기로 결정했을 때 내가 무엇을 기대했는지도 더 이상 기억나지 않았다. 전통 의학에 대한 심오한 강연? 다채로운 비전 기공 시연? 아니면 더 나쁘게는,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에 대한 교묘한 설득?

이곳의 분위기는 그 어떤 것도 암시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이상할 정도로 진짜였다. 너무나 진짜여서, 늘 자신의 통제력과 분석력을 자신하던 내가, 조금씩… 방향을 잃어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여전히 그곳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만히 얹고, 숨을 최대한 느리고 가볍게 조절하려 애썼다. 공간 전체를 뒤덮은 거의 신성하기까지 한 정적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였다. 1 분 1 분이 납덩이처럼 무겁게 흘러갔다. 낯선 감각, 전에 없던 호기심이 내 마음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었다. 마치 내가 지금, 아주 거대한 무언가의 가장자리에, 내가 전혀 몰랐던 세계의, 이름 붙여지지 않은… 진실의 가장자리에 우연히 서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살짝 자세를 고쳐 앉으며, 끈적하게 굳어가는 정적 속에 녹아들려 애썼다. 내 시선은 나도 모르게 장평이라는 남자를 향해, 기다리고 있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 나 자신도 알지 못했다.

침착하고 신비로운 사람들

나는 뒷줄의 눈에 띄지 않는 자리를 골라, 어느새 막이 오른 무언극에 우연히 발을 들인 관객처럼 몸을 움츠리려 애썼다.

어떠한 소음도, 어떠한 말도 없었다. 그들은 그저 거기에 앉아 있었다. 이상할 정도로 바르고 자연스러운 자세로, 마치 그 자세가 그들의 일부인 것처럼. 등은 곧게 펴지만 어깨는 완전히 이완되어 있었고, 손은 무릎 위에 고요히 놓여 있었다. 억지로 애쓰는 기색도, 과시하려는 모습도 없는,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평온함이었다.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내게서 가장 가까운 곳에는 예순이 넘었을 법한 한 노부인이 소박하고 짙은 갈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은발 머리를 목덜미 뒤로 단정하게 말아 올린 모습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있지 않았지만, 시선은 마치 희미한 안개층을 꿰뚫고 방 끝의 벽 너머 어딘가, 정해지지 않은 한 점을 향해 있는 듯했다. 다른 쪽 구석에는 꽤 젊은 남자가 있었다. 그의 눈

은 맑고 고요했지만 호기심 어린 탐색의 기색은 없었고, 서론도 채 안 되었을 나이에 불구하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사람의 침착함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한 노인이 의자에 가볍게 등을 기대 채 한가롭게 앉아 있었는데, 그 무심한 표정에 나는 그가 이 자리에서 잠이 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누구도 서로 눈을 맞추지 않았다. 의례적인 미소도, 의미 있는 고갯짓도, 심지어 찰나의 눈썹 찌푸림조차 없었다. 그런데도, 그들 각자의 존재감은... 가득하고, 농밀했다.

나는 차가운 무관심을 느끼지 못했고, 흔히 볼 수 있는 '형식적으로 앉아 있는' 모습은 더더욱 아니었다. 그들은 진정으로 그곳에 있었다. 매 순간, 매 호흡 속에 온전히. 이상한 느낌이 내 안으로 스며들었다. 마치 보이지 않고, 소리도 형태도 없으며, 내가 아는 어떤 기구로도 측정할 수 없는 무언가가 공기 중에 부드럽게 퍼지고 있는 것 같았다. 이것이 우리 과학이 아직 정의하지 못한 일종의 에너지일까, 아니면 이 특별한 공간 속 나만의 환각일까?

나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혹은 그들의 일상이 어떤지 알지 못했다. 그들이 서로 아는 사이인지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여기, 이 방 안에서 그들은 마

치 거대한 강물 속의 고요한 옛 바위들 같았다. 시선을 끌려 하지 않지만, 굳건함과 말 없는 비밀들을 품고 있는.

다시 한번, 이질감이 나를 덮쳤다. 명품 정장, 명망 있는 의학 교수 학위, 국제 학술지에 수백 번 인용된 연구 논문들. 나의 자부심이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이 방 안에서는 아무런 무게도 없는 듯했다.

침묵이... 만연했다. 하지만 텅 빈 것이 아니었다. 마치 내가 깊이를 알 수 없는 오래된 우물 앞에 서 있고, 그 깊은 곳에서 무언가 신비로운 것이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듯, 막연한 설렘이 내 안에 피어오르는 것 같았다.

앞쪽에서는 장평이 여전히 조용히 앉아, 아직 입을 열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 그가 살짝 움직였다.

고요한 호수 표면을 스치는 바람처럼, 아주 가볍게 고개를 기울였을 뿐인데도, 방 전체가 그를 따라 미세하게 움직이는 듯했다. 나는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를 향하는 것을 보았다. 서두름도, 압박도 없이, 느리고 자연스럽게. 하나의... 말 없는 동의였다.

나 또한 나도 모르게 그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단순히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다. 마치 거부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인력이 작용한 것처럼.

장평과의 만남

가볍게 고개를 기울인 후, 장평은 몇 차례 숨을 고르는 동안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방 안은 더욱 고요해졌다. 이윽고, 어떠한 소개도, 불필요한 몸짓도 없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으며, 한 글자 한 글자가 또렷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다. 내가 알던, 청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거나 감정을 조종하려 애쓰는 전문 연설가들의 웅변적인 화술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중국어로 말했는데, 마치 사람들이 마이크나 화려한 슬라이드 발표가 아닌 진심으로 서로 대화하던 시대에서 전해 내려온 듯, 고풍스럽고 소박한 억양이 묻어 있었다.

그는 기(氣)에 대해 이야기했다. 몸속의 보이지 않는 에너지 흐름에 대해. 심장의 박동과 우주의 미세한 변동 사이의 연결에 대해. 맥상(脈象), 즉 몸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들에 대해. 모두 내가 동양 전통 의학을 공부하며 책에서 스쳐 지나갔지만, 한 번도 진지하게 여겨본 적 없는 개념들이었다. 서양에서 정식으로 교육받은 의학 교수의 렌즈를 통해, 내게 '기'는 '용감한 정신'이나 '뜨거운 심장'처럼 모호한 것이었다. 아름답고 상상력이 풍부한 수사(美辭)일 뿐, 어떻게 정량화하고, 어떻게 실험실로 가져올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장평이 말하는 방식은 전혀 달랐다. 그는 이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이야기를 했다. 옛 명의들이 약을 쓰기도 전에 환자의 마음 상태를 바로잡는 것만으로 난치병을 고쳤던 이야기. 복잡한 병증에서 현대적인 혈액 검사 결과보다 더 깊은 것을 드러냈던 맥상에 대한 이야기. 나는 처음에는 예의상 들었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빠져들었다. 믿어서가 아니라, 듣지 않을 수 없어서였다. 그의 목소리 톤, 담담한 이야기 방식 속에 나를 붙잡아두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때 갑자기, 그가 말을 멈췄다.

이미 고요했던 공간이, 이제는 끈적하게 굳어버린 듯 정지했다. 기침 소리 하나, 거친 숨소리 하나 없는 거의 절대적인 침묵이 모든 것을 뒤덮었다.

그는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천천히 한 바퀴 둘러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시선이 유일한 낯선 손님인 내게 멈췄다.

호기심 어린 탐색도, "당신이 누군지 안다"는 식의 의미심장한 눈짓도 없었다. 그저 무심하지만 깊이 있는, 정면의 응시였다. 기묘한 느낌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그 시선 아래, 나라는 사람을 규정하던 것들—값비싼 정장, 학위 증서들—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심지어 단단히 잠가 두었다고 생각했던 마음속 깊은 구석마저 건드려진 것 같았다.

그는 입가에 아주 희미한, 스쳐 지나가는 미소를 머금었다. 그러고는 말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고르했으며, 크지도 않았고, 경고나 심판의 어조 또한 조금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정적 속에서 울려 퍼지는 한마디, 마치 나 자신도 애써 잊으려 했던 깊은 상처를 그가 부드럽게 건드리는 것 같았다.

"당신의 맥이," 그는 여전히 나를 보며 말했다. "조금 가라앉아 있고, 막힌 곳이 있군요. 마치 시냇물 속에 큰 바위가 가로막혀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혈(氣血)이 그로 인해 정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주목할 만한 것은, 당신 마음속에 무언가 걸리는 것이 있는 듯합니다. 아직 가시지 않은 옛일, 이름 붙일 수 없는 압박감이, 몸 안의 기가 본래의 균형 상태로 돌아가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 온몸이 굳어버렸다. 귀가 멍멍해졌다.

나는 그에게 한마디도 한 적이 없었다. 고갯짓으로 인사 한번 한 적도 없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는 내게 다가와서 그의 길고 가는 손가락으로 내 손목을 짚지도 않았다. 내가 수년간 의학을 연구하며 배우거나 알게 된 그 어떤 방식으로든 '맥을 짚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가 방금 한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안 것일까?

과학자로서의 뿌리 깊은 회의와 본능이 즉시 내 머릿속에서 강하게 일어났다. 이것은 혹시 정교한 심리적 속임수일까? 관찰을 통해 치밀하게 준비된 '독심술'의 일종? 아니면 그가 이 강연 전에 나에 대해 '조사'를 해둔 것일까?

하지만 아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가? 그가 방금 한 말은... 어떻게 낯선 사람이 알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나 혼자만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거나, 기껏해야 내 아내 칭링이 어렵 뜻이 느낄 수 있는 것들이었다. 심지어 어떤 것들은 너무나 깊숙한 나머지, 가장 가까운 그녀에게조차 털어놓은 적 없는 것들이었다.

나는 그곳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떨리지 않도록 애썼지만, 가슴속은 형클어진 실타래 같았다.

내 안의 과학적 이성은 논리적인 설명을 외치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한 부분—내가 늘 무시해왔던 직관,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그 부분—은 침묵하며, 관찰하고 있었다.

나는 문득 거대한 세계 지도 앞에 처음 서 본 아이가 된 것 같았다. 그리고 익숙한 그 종이 뒤에, 기묘한 선들과 이름 붙여지지 않은 땅들을 가진, 더 복잡하고 더 깊이 있는 두 번째 지도가 숨겨져 있음을 문득 발견한 것이다. 테두리도, 범례도 없는 지도.

그 테두리 없는 지도 앞에 서자, 나는 문득 내 익숙한 잣대들이 얼마나 한정적인지를 느꼈다. 과학의 정량적 능력을 벗어나는 어떤 진실들이 존재하는 것일까?

말 없는 대화와 깊은 인상

나를 향한 그 기묘한 한마디 이후로, 장평은 더 이상 내게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그는 마치 아무런 중단도 없었다는 듯, 처마에 내리는 가랑비 소리처럼 여전히 부드럽고 고른 목소리로 자기 이야기를 이어갔다.

나는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도저히 평온할 수 없었다.

그가 이후에 한 말들—기와 마음의 관계, 작은 인간과 광활한 천지 사이의 조화에 관한 이야기들—은 지금 내게 그저 귓가를 떠도는 소리에 불과했다. 나의 모든 집중력이 답이 없는 단 하나의 질문, "그는 어떻게 나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알았을까?"라는 질문 주위를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최대한 태연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고, 내면의 동요를 드러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내 얼굴이 분명 다소 굳어 있고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따금 고개를 들어 그를 볼 때면, 아주 잠깐 나를 스쳐 지나가는 그의 시선

과 마주쳤다. 그 눈빛에는 설명하려는 의사도, 미안해하는 기색도 전혀 없었다. 그저 하나의... 존재감이 있었다. 고요하고, 깊었다. 마치 그가 내 마음속에서 휘몰아치는 작은 폭풍을 온전히 느끼면서도, 심판 없이 그저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우리 시선이 마주쳤을 때의 그 느낌은 이름 붙이기 어려웠다. 그것은 평범한 대화도, 의도적인 설득도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말 없는 감응, 언어가 필요 없는 연결 같았다. 매우 모호하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나는 본래 영적인 것들을 쉽게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무언가가 나를 건드리고 있음을 알았다. 논리적인 이성이 아니라, 바로 그 침묵과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으로. 그것은 강렬한 충격을 주지는 않았지만, 인식 속에 천천히 깊은 흔적을 남겼다.

그리고 아마, 내 안의 어떤 부분은, 더 이상 그 기묘한 느낌에 저항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

강연이 끝났을 때, 방 안은 놀라울 정도의 정적을 그대로 유지했다. 박수갈채도 없었다. 연사에게 악수를 청하려 앞으로 서둘러 나가는 사람도 없었다. 사람들은 차례로 일어나 장평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인 후, 한 사람씩 조용히

자리를 뒀다. 그 모습은 너무나 익숙하고 익숙해서, 마치 이것이 특별한 학회가 아니라, 아주 오랜 옛날부터 서로를 알고 지낸 사람들—내가 아직 닿지 못한 어떤 인식의 차원에서—사이의 다정한 만남, 일상적인 활동인 것 같았다.

나는 왜인지 모르게 머뭇거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방 안에 몇 사람만 남았을 때, 나는 나도 모르게 앞으로 걸어 나갔다.

장평이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처음과 같이 여전히 침착하고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다.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으시겠지요."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는 기색이 전혀 없었고, 마치 이 일을 예상했다는 듯했다.

나는 처음에 아무 말도 할 생각이 아니었기에,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억눌렀던 의문들이, 비록 조금 머뭇거리기는 했지만, 결국 말로 터져 나왔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제 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어떻게 그런 것들을 아셨는지..."

그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내 질문을 끊지도, 서둘러 대답하지도 않았다. 몇 초간의 침묵 후, 그는 바람결처럼 가벼운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것은 한 인간의 몸과 마음 사이의 밀접한 관계에 대한 초보적인 이해일 뿐입니다. 당신들의 현대 과학은 신체의 유형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 비범한 성취를 이루었지만, 아마도 무형적인 측면들, 미세한 에너지의 흐름 앞에서는 아직 조금 낯설어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잠자코 들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느렸지만, 시선은 나를 똑바로 향했고, 그 안에는 무언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짧은 강연 한 번으로 모두 상세히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책 속의 이론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아마도, 중국은 당신이 가야 할 곳일 겁니다."

내 심장이 살짝 내려앉았다.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마지막 말을 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큰 무게가 실려 있었고, 마치 익숙한 문 하나를 닫으면서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길 하나를 열어주는 것 같았다.

"만약 당신이 감히 그 여정에 발을 들인다면, 아마 지금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는 내게 다시 한번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기묘할 정도의 평온함 속에서 남은 몇 사람과 섞여 방을 나갔다. 그의 모습은 너무나 빨리 문 뒤로 사라져, 나는 마치 한순간의 환영을 본 것 같았다.

나는 싸늘해지기 시작하는 방 안에 홀로 서 있었다. 도쿄의 바깥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방금, 진정으로 움직였다.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도저히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한 여정으로의 초대

마지막 사람들의 그림자가 문 뒤로 사라졌다. 나는 여전히 텅 빈 방 안에 서서, 헝클어진 생각들을 정리하려 애썼다. 장평 선생의 중국으로의 초대는, 비록 모호했지만, 계속해서 마음속에 메아리쳤다. 알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나는 복도로 서둘러 나갔다. 그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행히, 그는 멀리 가지 않았다. 그는 출입구 근처 복도 끝에 홀로 서서,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혹은 어쩌면 나를 기다리는 듯한 사색적인 모습이었다.

내가 다가가자 그가 나를 보았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그 침착하고 깊은 기운을 간직하고 있었고, 마치 내가 그를 찾아온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듯했다.

"왕밍 선생,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라도 있으신가요?"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하고 고르며, 마치 고요한 정원의 나뭇잎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 같았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더 알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무엇을 물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장평은 미소를 지었다. 드물지만 진심 어린 미소였다. "거창하게 '시작'하려 애쓸 필요 없습니다. 때로는 그저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는 침묵하며, 단순해 보이지만 내가 온전히 파악할 수 없는 어떤 의미의 층을 품고 있는 그 말 앞에서 나의 작은 존재를 느꼈다. 마치 익숙한 모든 지도가 쓸모없어지는 깊고 오래된 숲 앞에서 서 있는 기분이었다.

"조금 전 강연에서 제가 나눌 수 있었던 것들은," 그가 여전히 고른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사실 망망대해 표면의 물 몇 방울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이해하고, 느끼고 싶다면, 당신 스스로 그 흐름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나는 살짝 미간을 찌푸리며 그의 뜻을 헤아리려 애썼다.

"이것은 당신이 어떤 대상을 연구하러 가는 일이 아닙니다." 그는 내 생각을 읽은 듯 말을 이었다. "지식 창고에 새로운 이론 하나를 추가하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사는 것입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것들이 여전히 일상의 숨결 속에 존재하는 곳에서, 온전히, 충분히 오래 사는 것."

그러고는, 그는 품위 있는 태도로 양복 안주머니에서 작은 종잇조각 하나를 꺼냈다. 빛이 바랜 낡은 수첩에서 찢어낸 듯한 것이었다. 그는 그것을 내게 건넸다. 그 위에는 꽤 또렷한 필체로 중국 구이저우성(貴州省)의 한 주소와 전화번호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시간을 낼 수 있다면, 아마 올여름이 적절할 겁니다." 그가 말했다. "제게 미리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오세요. 만약 당신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오고 싶고, 때가 되었다고 느낀다면."

나는 그 종잇조각을 받아 들었다. 손바닥에서 그의 손에서 남은 미미한 온기와 종이의 얇음이 나도 모르게 느껴졌다. 수십 개의 질문이 허끝에서 맴돌았지만, 무언가가 나를 말문이 막히게 했다.

"부인과 함께 오시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그가 덧붙였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나를 향해 있었는데,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제 느낌에, 그녀는 고대 전통 문화와 아주 자연스러운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곳의 어떤 것들은, 아마 논리적인 설명 없이도, 당신보다 그녀가 더 빨리 감지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고개를 꺾 들었다. 가슴속에서 차오르는 경악을 드러 내지 않으려 애쓰면서. 그가 칭링에 대해 알고 있다니. 어떻게? 불과 몇 분 사이에, 어떻게 그런 사적인 것들을 알 수 있었을까?

장평은 내 표정에 개의치 않는 듯했다. 그는 가볍게 몸을 바로 세웠다. 그의 체구는 크지 않았지만, 그가 옷매무새를 고칠 때, 나는 그 등에서 기묘한 굳건함이 느껴졌다.

"이것은 평범한 여행이 아닐 겁니다, 왕밍 선생." 그가 마지막 말을 했다. 목소리는 낮고 분명했다. "당신이 무언가를 검증하기 위한 과학 실험도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의 인연의 시작, 하나의 기회로 여기십시오. 나머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밖의 분주한 도쿄의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마치 그가 내 마음속을 스쳐 지나간 하나의 생각인 것처럼 빠르게 사라졌다.

나는 다시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는 복도에 홀로 남았다.

손으로 쓴 주소가 적힌 작은 종잇조각이 내 손바닥 안에 기묘하게 따뜻하게 놓여 있었다. 마지막 줄의 잉크 자국이 살짝 번져 있었다.

나는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 동요,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부름이,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구석으로 스며들기 시작한 것 같았다.

* * *

제 2 장: 낯선 땅에 내딛는 첫 걸음

출발의 결심

그날 저녁, 나는 마치 한낮의 짧은 꿈에서 막 깨어난 사람처럼 기묘한 기분으로 603 호실을 나섰다. 컨퍼런스 센터의 중앙 홀은 여전히 불이 환했고, 옆 강연실들에서는 마이크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익숙한 소리들은 멀리 밀려나 희미해지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지금 내 양복 조끼 주머니에는 장평 선생이 준 작은 종잇조각이 있었다. 회사 로고도, 직함 한 줄도 없이, 그저 손으로 쓴 중국 구이저우성(貴州省)의 주소 하

나, 전화번호 한 줄, 그리고 그 기이했던 만남에서 남은 이름 붙이기 어려운 여운만이 있을 뿐이었다.

호텔로 돌아와 늘 그랬듯 호화로운 방으로 들어섰지만, 느낌은 예전 같지 않았다. 그 방은 여전히 따뜻한 황금빛 조명, 가지런히 배치된 목제 가구, 테이블 위에 놓인 신선한 과일 바구니까지 그대로였지만, 오늘 밤은 유난히 텅 빈 듯한 느낌을 주었다. 본래 편안했던 정적은 이제 내 안에서 피어오르는, 설명할 수 없는 모호한 것들을 더욱 증폭시키는 듯했다.

나는 주머니에서 종잇조각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리저리 뒤집어 보았다. 그저 소박한 몇 줄의 글씨일 뿐이었다. 그런데도 내 시선은 그 낯선 지명에 자꾸만 끌렸다. 마치 내가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어딘가로 열리는 문인 것처럼, 형언할 수 없는 느낌이었다.

나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았다. 뒤섞인 생각들의 균형을 조금이라도 되찾기 위해서였다. 나는 수화기를 들어 칭링에게 전화했다.

"자기, 오늘 학회는 어땠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 익숙하고, 부드러우며, 따스함이 가득했다.

"다 괜찮았어... 근데 방금 좀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 당신
신이 들어보아야 할 것 같아."

나는 모든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천천히,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쓰며, 어떤 세부 사항도 덧붙이거나 과장하지 않았다. 나는 1 층의 기이한 회의실에 대해, 형언하기 어려운 침착한 분위기의 조용한 사람들에 대해, 그리고 장평이라는 이름의 남자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그의 눈빛, 몸에 닿지도 않고 '먼 곳에서 맥을 짚었던' 일, 그리고 나의 상태에 대한 그의 말들을 묘사하려 애썼다. 나 자신과, 어쩌면 청링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으리라 믿었던 것들이었다.

수화기 저편이 한동안 조용했다. 나는 그녀의 생각에 잠긴 얼굴을 그려볼 수 있었다.

"...자기가 상상한 거 아니에요, 밍?" 마침내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날카로운 의심이 아니라, 마치 언어학자가 새로운 개념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찾으려 애쓰는 듯한 목소리였다. "며칠 동안 계속된 뻑뻑한 학회 일정 때문에 좀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나 완전히 멀쩡했어, 링." 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다. "그리고 당신 내 성격 알잖아. 난 과학적 근거 없

는 것들을 쉽게 믿는 타입이 아니야. 하지만... 이 일은, 너무나 실제 같았어. 솔직히 말해서, 내가 지금까지 알고 배우고 경험한 것들 중 어디에 이걸 분류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장평 선생과 말 없는 교감을 나누는 듯했던 그 기묘한 느낌에 대해서도 이어서 이야기했다. 분석적인 이성을 통하지 않고, 마치 더 깊은 어떤 인식의 차원에서 온 듯한 연결이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중국에 초대했어, 아마 이번 여름쯤에." 나는 최대한 평범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다. "꽤 외진 곳이야, 구이저우 저 멀리. 거기서 뭘 할지, 누구를 만날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어. 그저... 겪었던 일들을 정말로 더 잘 이해하고 싶다면, 그곳에 가야 한다고만 했어."

칭링은 다시 침묵했다. 이번에는 침묵이 조금 더 길었다.

나는 그녀가 중국 문화를 사랑하고, 많은 고전에 능통하며, 심지어 동양 철학 학파에 대해 강의한 적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기공', '수련', 혹은 '잠재 능력의 개방'과 같은 개념들은 그녀에게 있어 지금까지 주로 문학이나

사상사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었지, 결코 삶 속에서 체험하거나 실천할 수 있는 현실은 아니었다.

"그분이... 어떤 종류의 수련인이라고 생각해요?" 칭링이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명확한 정보도 없고, 검증할 수 있는 이력도 없잖아요? 그럼 만약... 만약 모든 게 아주 교묘하게 짜인 연극이라면요? 어떤 특별한 심리적 영향력을 만드는 기술 같은 거요?"

"나도 그 모든 가능성을 생각해 봤어." 나는 솔직히 인정했다. "하지만 내가 이 모든 일을 쉽게 떨쳐버릴 수 없는 이유는, 그가 내 상태에 대해 한 말들이야. 아무도 그렇게 정확하게 짐작할 수는 없어. 그리고 그의 눈빛은... 정말 내가 평생 만난 그 누구와도 달랐어."

나는 그녀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나 자신도 이해하려고 애쓰는 중이었으니까.

칭링은 매우 신중한 사람이다. 그녀의 신중함 덕분에 내가 사업상 불필요한 모험적인 결정을 피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단지 통상적인 해석을 벗어난다는 이유만으로 무언가를 선불리 부정하지 않을 만큼 깊이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자기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녀는 한참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저도 좀... 이상하게 느껴져요. 저 신비로운 일 같은 거 쉽게 안 믿는 거 알잖아요. 하지만 저도 궁금하네요. 구이저우라고요? 그 땅은 고대 문화 이야기 속에서도 신비로운 것들을 많이 품고 있는 곳인데... 좋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더 단호해졌다. "자기가 정말 그렇게 가고 싶다면, 제가 준비해서 같이 갈게요. 어쩌면 책에는 기록되지 않은 문화적 측면들을 더 알아보기 위한 현장 답사라고 생각하죠, 뭐. 하지만 우리 계획을 신중하게 세워야 하고, 아마 우리 둘 다 방학인 여름에만 가는 게 좋겠어요, 괜찮죠?"

나는 살짝 미소 지었다. 따뜻한 기운이 가슴속에 퍼졌다. 그녀가 곁에 있으니 훨씬 마음이 든든했다.

"고마워." 나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전 그냥 자기가 그런 모호한 것들을 가지고 낯선 곳에서 혼자 헤매는 걸 원치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또..." 수화기 저편,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한결 가벼워지며 장난기 어린 투로 말했다. "그렇게 이성적인 왕밍 교수님을 당황하게 만든 그 신비로운 남자가 누군지 저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전화가 끝났다. 호텔 방의 커다란 유리창 밖으로 도쿄 시는 화려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지만, 지금 내 마음속에는... 마치 또 다른 빛 하나가 켜진 듯했다. 화려하거나 눈부시지는 않지만, 은은하고 끈질기며, 다가올 발걸음을 비춰주기에 충분히 따뜻한 빛이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창밖, 도쿄의 밤하늘이 희미한 별들과 뒤섞인 먼 곳을 바라보았다.

구이저우로의 여행. 칭링과 함께. 그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다.

통련으로의 여정

과학자로서의 이성은 장평이라는 신비로운 남자와 그의 기묘한 초대에 대해 끊임없이 수많은 질문을 던졌지만, 어떤 호기심, 어떤 막연한 믿음이 내 안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 결국, 여러 날 밤을 뒤척인 끝에 중국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여행은 약 3 개월간으로 예정되었고, 초여름

에 시작하기로 했다. 유창한 중국어 실력과 동양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칭링은 당연히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가 되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고, 비록 필요한 신중함을 잃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녀의 눈 속에서 책으로는 결코 묘사할 수 없는 문화적, 영적 측면들을 탐험하고 싶어 하는 조용한 설렘을 느낄 수 있었다.

동양 특유의 덥고 습한 기운이 퍼지기 시작하던 초여름, 우리는 긴 비행 끝에 상하이(上海)에 도착했다. 칭링이 유년 시절을 보낸 도시였다. 내가 중국 본토에 발을 디딘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광대한 나라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하이의 현대적인 모습과 그 규모는 실로 나를 놀라게 했다. 거대하고 분주한 국제공항, 도심 한복판에 위풍당당하게 솟은 마천루들, 복잡하지만 원활하게 운영되는 도시 교통 시스템... 이 모든 것이 경이로운 발전과 놀라운 활력을 증명하고 있었다.

"상하이 정말 많이 변했죠, 그렇죠?" 공항을 떠나는 택시 안에서 칭링이 약간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오늘날 중국의 아주 작은 일부일 뿐이에요. 이 나라는 정

말 넓고, 내륙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더 많은 다른 점들을 보게 될 거예요."

기술 분야에 배경을 둔 내게 가장 강한 인상을 남긴 것은 중국 고속철도 시스템의 효율성과 현대성이었다. 상하이에서 우리는 그런 기차를 타고 구이저우성으로 이동했다. 기차는 쏜살같이, 부드럽게 달리며, 끝없이 펼쳐진 푸른 논과 완만한 차밭 언덕들을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점차 평야의 풍경은 멀리 지평선에 나타나기 시작한 석회암 산들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나는 마치 시간이 더디게 흐르고 삶의 박자 또한 한결 여유로워진, 다른 땅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구이저우 경내로 깊이 들어갈수록, 길 양옆의 경관은 더욱 웅장해졌고 형언할 수 없는 원시적인 아름다움을 띠었다. 겹겹이 이어진 석회암 산맥은 푸르른 초목의 용단을 두르고, 마치 조물주가 무심코 떨어뜨린 부드러운 흰 비단 띠처럼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안갯속에 시시각각 모습을 드러내거나 감추며, 거대하고 생동감 있는 한 폭의 수묵화를 그려냈다. 이것은 실로 현대적인 거대 도시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과는 매우 다른 중국이었다.

성의 더 큰 도시에 도착한 후, 우리는 장평 선생이 종이에 적어준 주소가 있는 작은 마을, 퉁런(銅仁)으로 가기 위해

자동차로 여정을 계속했다. 이 여정은 우리를 구불구불한 고갯길로, 원시의 모습을 간직한 울창한 숲 속으로, 그리고 차갑고 맑은 시냇가를 따라 이끌었다. 이곳의 자연은 그 장엄한 아름다움으로 나를 진정 놀라게 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 수천 년의 비밀을 간직한 듯한 깊고 아득한 계곡. 때로는 멀리서, 자욱한 안갯속에 모습을 드러내는 판정산(梵淨山)의 장엄한 봉우리를 얼핏 보기도 했다. 그곳은 현지인들 사이에서 깨달은 자들이 거쳐하는 성스러운 산으로 구전되는 곳이었다.

길 위에서, 차는 때로 작은 마을들을 지나쳤는데, 그곳에는 목조나 대나무로 지어진 전통 가옥들이 웅장한 산기슭 아래 평화롭게 자리 잡고 있었다. 소박한 지붕 위로 저녁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황금빛으로 익은 벼가 심어진 계단식 논이 언덕 비탈을 따라 펼쳐져 있었다. 이곳 사람들은 햇볕에 그을린 피부와 온화한 미소를 지닌 채, 도시인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분주함이나 경쟁과는 거리가 먼 소박한 외양을 하고 있었다.

"여기 정말 고요하고 평화롭네요, 밍." 칭링이 길가에서 한 가로이 풀을 뜯는 물소 떼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구이저우가 이렇게 소박한 아름다움과 맑은 공기를 가졌을 줄은 몰랐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현대 세계의 소음과 끊임 없는 압박에 익숙했던 나는, 이곳의 맑은 공기, 산림의 정적, 그리고 다소 느린 삶의 리듬이 매우 다른 느낌을 자아내는 것을 느꼈다. 어딘가 매력적이면서도, 조금은 낯설었다. 그것은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게 가라앉게 했고, 일이나 기다리고 있는 사업 프로젝트가 아닌 것들에 대해 생각할 여유를 주었다.

마침내, 우리는 통련에 도착했다. 그곳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작은 마을로, 겹겹이 이어진 산들의 품속에 평화롭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곳은 유명한 평향고성(鳳凰古城)에서 멀지 않다고 들었지만, 마치 대중 관광의 흐름에 전혀 흔들리지 않은 듯한 고요하고 깊은 멋을 지니고 있었다. 화려하고 현대적인 상하이의 모습과 달리, 통련은 산간 지방의 숨결이 짙게 배어 있는 고풍스럽고 차분한 아름다움을 입고 있었다. 세월에 닳아 반들반들해진 돌길, 이끼 낀 기와가 엮힌 전통 건축 양식의 집들, 그리고 다소 북적이지만 결코 시끄럽거나 혼잡하지 않은 현지 시장들이 어우러져 있었다. 대대로 내려오는 한약방에서 말리는 약초 특유의 향기, 길가 작은 식당에서 풍겨 나오는 토속 음식의 향긋한 냄새, 그리고 강과 산이 있는 지역의 축축하고 부드러운 냄새가 서로 어우러져 아주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우리는 마을의 중심으로 보이는 삼거리 근처에서 차를 내렸다. 짐이라고는 가벼운 배낭 몇 개와 장평 선생이 준 주소가 적힌 종잇조각이 전부였다. 우리는 그 주소로 곧장 찾아가는 대신, 먼저 잠시 머물 곳을 찾기로 했다. 한편으로는 긴 여정 후에 둘 다 휴식이 필요했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솔직히 말해, 어떤 만남을 갖기 전에 이곳의 삶의 리듬과 사람들을 좀 더 명확히 느껴볼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칭링은 언어 능력과 재치를 발휘하여, 현지인 몇 명에게 말을 걸어 길을 묻고 적당한 여관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가 상하이에서 산 적이 있긴 하지만, 퉁런은 분명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사람들이 여전히 따뜻하고 소박한 현지 사투리로 서로를 부르고, 우리 같은 낯선 손님을 온화하고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러면서도 어딘가 조심스럽고 거리를 두는 태도로 맞이하는 곳이었다.

마침내, 우리는 강가를 따라 이어진 작은 돌길로 접어들었다. 그곳에는 노란 회칠을 한 넓은 여관 몇 채가 넓게 펼쳐진 고목 그늘 아래 겸손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때 내 마음속에는 아주 막연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내가 결말을 전혀 알 수 없는 이야기 속으로 막 발을 들여놓으려는 것 같았다.

통런의 공기와 사람들

마침내 차는 장평 선생의 종잇조각에 적혀 있던 작은 마을, 통런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려 첫 공기를 들이마시는 순간, 나는 마치 보이지 않는 문턱을 넘어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선 듯한 기분을 느꼈다.

이곳의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맑았다.

상하이에서처럼 시끄럽게 울려대는 자동차 경적 소리도, 번쩍이는 전자 광고판이나 고층 빌딩의 유리창을 훑고 지나가는 화려한 네온사인도 없었다.

오직 돌로 포장된 좁은 골목길, 세월의 이끼를 뒤집어쓴 들쭉날쭉한 기와지붕, 그리고 불어오는 저녁 바람결에 실려 오는 산과 땅의 아주 독특한 축축한 냄새뿐이었다.

칭링이 숨을 깊게 들이쉬더니, 살짝 놀란 목소리로 내게 돌아서서 말했다.

"여기 공기... 정말 다르네요. 제가 옛 소설책에서 읽었던

곳들이 생각나요. 그런데 이 느낌... 정말 이상할 정도로 진짜 같아요."

작은 마을은 겹겹이 이어진 석회암 산맥 사이에 꽤나 평화롭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곳의 작은 길들은 저마다 다른 차원의 공간으로 이어지는 듯했다. 꽤 붐비는 듯 보이지만 전혀 시끄럽거나 혼잡하지 않은 시장 거리도 있었고, 길을 오가는 사람들도 한결 덜 서두르는 모습이었다. 작은 식당 하나하나, 대대로 내려오는 한약방, 수공예품 가게 모두가 어딘가 느긋하고, 조금은 고루하지만 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를 풍겼다. 팔각 향, 각종 마른 찻잎 냄새, 오래된 젖은 나무 냄새, 그리고 집집마다 부엌에서 풍겨 나오는 친숙한 연기 냄새가 공기 중에 퍼져 뒤섞여 있었다. 모든 것이 아주 깨끗하거나 현대적으로 반짝이지는 않았지만, 대신 지극히 진솔했다.

나는 어느새, 낡은 목조 처마 밑에서 부지런히 약초를 펼쳐 놓는 노인을 넋 놓고 바라보거나, 빛바랜 교복을 입은 한 무리의 학생들이 이끼 낀 작은 골목을 즐겁게 자전거로 지나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몇 번이나 발걸음을 멈췄는지 모른다.

통련은 여행객에게 '인상'을 남기려 전혀 애쓰지 않았다. 하지만 아마도 바로 그 꾸밈없고 자연스러운 모습 때문에,

내 마음이 아주 진실하고 평화로운 무언가에 가만히 닿는 것 같았다.

미리 계획한 대로, 칭링이 주도적으로 여관을 찾았다. 중국어에 능통하고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도 어느 정도 있었기에, 그녀는 재빨리 현지인 몇 명에게 물어보고 정보를 교환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나를 강가를 따라 이어진 작은 돌길로 이끌었다. 그곳에는 삼 층짜리 목조 외관의 여관 한 줄이 있었는데, 그다지 새것 같지는 않았지만 아주 깔끔하고 아늑해 보였다.

여관 주인은 사십 대쯤 되어 보이는, 풍채가 좋고 인상이 후덕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우리를 꽤 반갑게 맞았지만, 결코 과하거나 강요하는 기색은 없었다. 우리가 미국에 사는 중국계 대학 교수이며, 전통문화를 더 배우고 싶어 이곳에 왔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녀는 그저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희 마을에는 옛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여기 온다고 해서 누구나 다 볼 인연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말에 나는 살짝 놀랐다. 그녀의 말에 담긴 깊은 함의 때문인지, 아니면 그저 그 여인의 지극히 진솔하고 소박한 말투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우리가 빌린 방은 이층에 있었는데, 멀리 푸른 나무로 뒤덮인 나지막한 언덕이 내다보이는 작은 발코니가 있었다. 출입문과 창문은 모두 미닫이식 목재였다. 방 안의 가구도 지극히 단순했다. 튼튼한 목제 침대 하나, 작은 대나무 찻상 세트, 전기 주전자, 그리고 벽 한구석에 놓인 자그마한 책장이 전부였다. 평면 TV 도, 서너 개 언어로 된 규정 안내판도 없었다.

나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활짝 열린 창밖을 내다보았다. 옅은 황금빛의 저녁 햇살이 맞은편 집 처마에 비치고 있었고, 그 아래에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코코넛 껍질로 만든 바가지로 화분 몇 개에 한가로이 물을 주고 있었다.

"우리 머물기에 꽤 괜찮은 곳인 것 같아요, 밍." 칭링이 방을 한 바퀴 둘러본 후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저 적당한 편의시설이나 저렴한 가격 때문만은 아니었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내가 진정으로 '가라앉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과학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도, 앞으로의 며칠을 위한 상세한 일정을 짜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그저 이 소박하고 다

소 낮선 세상이, 내게 무엇을 속삭이고 싶어 하는지 들어 보기 위해서였다.

그날 밤, 여러 날의 고된 이동과 마음의 혼란 끝에, 나는 처음으로 아주 깊은 잠을 잤다. 꿈도 꾸지 않았다. 중간에 한 번도 깨지 않았다.

오직 밤바람이 나무 문틈으로 살며시 스며드는 소리, 그리고 아주 가볍고 평화로운 느낌만이 있었다... 마치 내가 천천히, 더디게,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장평의 소박한 거처

통련에 사흘간 머물며 산간 지방의 느긋한 삶의 리듬과 특유의 정적에 점차 익숙해진 후, 나와 칭링은 장평 선생이 작은 종잇조각에 적어준 주소를 찾아갈 때가 되었다고 결정했다. 지난 며칠간 나는 조금 망설였다. 의심 때문이라기보다는, 아마도 내면을 진정으로 가라앉히고, 이전의 그 어떤 만남과도 다를 것이라고 직감한 만남을 준비할 시간

이 조금 더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바로 이 땅의 평화롭고 맑은 기운이 오히려 그에 대해, 그리고 도쿄에서의 짧은 만남 이후로 남겨진 인상과 풀리지 않은 질문들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안내에 따라 돌로 포장된 작은 골목으로 들어섰다. 그곳에는 이끼 낀 고택들의 담벼락이 푸르른 고목 그늘 아래 겸손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통런의 오후는 하루 중 다른 시간보다 언제나 더 짙고, 더 고요한 듯했다. 돌 위로 울리는 우리 발소리는 나지막했고, 마치 아주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공간을 무심코 깨우는 길 잃은 소리 같았다.

마침내, 나무 대문이 눈앞에 나타났다. 비바람에 검게 변하고, 푸른 덩굴로 뒤덮인 소박한 문이었다. 너무 낡아서 마치 이곳 자연의 일부인 것처럼 보였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손을 들어 가볍게 세 번 두드렸다. 그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내 가슴을 살짝 울리기에는 충분했다.

그날은 토요일 주말이었다. 우리는 미리 전화하지 않았지만, 그가 집에 있기를 속으로 바랐다.

잠시 후, 나무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자그마한 체구에 백발을 단정하게 쪽진 노부인이 걸어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자애로웠고, 수많은 세월의 주름으로 빛났으며, 눈은

맑은 시냇물처럼 자비롭고 투명하게 반짝였다. 그녀는 우리에게 미소 지었다. 격식이나 탐색의 기색이 전혀 없는, 순박한 미소였다.

"두 분, 안으로 드시지요." 칭링이 표준 중국어로 인사를 건네고 이름을 밝히자, 그녀가 따뜻한 현지 억양으로 말했다. "영감님께서 안쪽 다실에서 두 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녀를 따라 작은 뜰을 지났다. 안쪽 공간은 완전히 다른 세계처럼 펼쳐졌다. 형이상학적이거나 신비로운 기이함이 아니라, 아주 고요하고, 아주 가볍고, 생명력으로 가득한 모습이었다.

우거진 나뭇잎 그늘 아래, 작고 아기자기한 정원이 나타났다. 색색의 비단잉어 몇 마리가 노니는 작은 연못, 온갖 종류의 야생화가 활짝 피어 있었고, 조약돌로 쌓은 작은 석가산에서는 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가 나지막이 들려왔다. 이곳의 모든 것은 어떤 디자인 학파를 따르는 것 같지도 않았고, 의도적으로 공들여 가꾼 기색도 없었다. 마치 여러 해 동안 그곳에 사는 사람의 삶의 리듬에 따라 저절로 형성되고, 저절로 배치된 공간 같았다.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진실한 조화였다.

본채는 소박한 전통 건축물로, 빛이 바랜 목조 기둥, 흰 회벽, 그리고 정원을 따라 굽이치는 붉은 벽돌 복도가 있었다. 현대적인 기술 제품들은 어디에도 전시되어 있지 않았다. 호화롭거나 불필요한 장식품도 없었다. 오직 오랜 세월 사용되어 윤이 나는 소박한 목제 가구들만이 시간과 삶의 흔적을 짙게 품고 있었다.

장평이 거기에 앉아 있었다. 정원이 내다보이는 작은 방, 오후의 햇살이 창살을 비스듬히 통과하며 그가 입은 짙은 갈색 옷 위로 열은 황금빛을 뿌리는 곳이었다. 우리가 들어서자 그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맑았고, 얼굴은 변함없이 고요하고 평온한 기색을 유지하고 있었다. 마치 그가 이 순간이 올 것을 아주,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아, 두 교수님 오셨군요." 그는 여전히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며 천천히 일어섰다. "저의 이 소박한 거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답례했다. 번거로운 소개 절차도, 형식적인 인사치레도 없었다. 오직 따뜻하고 이상할 정도로 편안한 공간만이 있었고, 그 덕분에 우리는 자리에 앉아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다고 느낄 정도였다.

그가 우리에게 차를 권했다.

아까 그 노부인은 눈치 있게 자리를 비워, 우리만의 공간을 남겨주었다. 장평은 손수 새하얀 자기 찻잔 세트와 손바닥에 싹 들어오는 작은 찻종들을 꺼냈다. 그는 여유롭게 끓는 물로 찻주전자와 찻잔을 행군 뒤, 작은 나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짙푸른 색의 구불구불한 마른 찻잎이 들어 있었다.

"이것은 산설차(山雪茶)입니다."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판징산 높은 산비탈에서 자생하는 고목 차나무 잎이지요."

나는 그가 조심스럽게 찻잎을 찻주전자에 넣고 물을 따르는 동안 그의 손가락을 잠자코 지켜보았다. 그의 동작은 느리고 여유로웠으며, 형식적인 시연의 느낌이 전혀 없었다. 그저 아마도 평생 수천, 수만 번 차를 우려냈을 사람의 순수한 집중과 자연스러움이었다. 하지만 매번, 바로 그 현재의 순간에 대한 온전한 존중과 정성을 잃지 않는 듯했다.

끓는 물이 찻주전자에 부어졌다. 차향을 품은 열은 김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아주 부드럽고 맑으며, 강하지 않은

향기였다. 나뭇잎에 맺힌 아침 이슬 냄새 같기도 하고, 소
나기 지난 후 산 정상에 구름 냄새 같기도 했다.

그는 차례로 작은 찻잔에 차를 따르고, 우리에게 권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찻잔을 들어 코 가까이 가져가 향을 가볍
게 들이마신 후, 작은 모금을 마셨다. 차 맛은 내가 생각했
던 것처럼 전혀 쓰지 않았다. 뽀얀맛도 진하지 않았다. 맑
고 부드러웠다. 마치 맑고 투명하며, 적당히 따듯한 물줄
기가 천천히 가슴을 타고 흐르며, 이상할 정도로 상쾌한
기분을 가져다주는 것 같았다.

칭링도 차를 마시고는, 저녁 햇살에 잠긴 작은 정원을 조
용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눈빛이 더 이상 연구 대상을 관찰하는 교수의
날카로운 분석적인 시선이 아니라, 마치... 이 고요한 공간
으로부터 무언가를 진정으로 듣고 있는 듯한 것을 보았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나지막이 물었다. "장 선생님, 이곳
에서 사신 지 오래되셨습니까?"

장평은 가볍게 미소 지었다. "삽니다. 하지만 아마, 이곳에
서만 사는 것은 아닐 겁니다."

나는 그가 더 설명해주기를 기다렸지만,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기 찻잔에 차를 더 따랐다.

모호하지만 끈질긴 생각 하나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특정 장소에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 상태 '안에' 사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이 장소, 이 집, 이 정원은... 아마도 그 상태의 외부적인 표현일 뿐일까?

나는 소박한 다실을 둘러보았다. 굳이 애써 해석해야 할 특별한 것은 없었다. 비밀의 장막을 걷어내야 할 신비로운 것도 없었다.

그리고 아마도—내 평생 처음으로, 수년간 논리와 과학적 증거를 좇아온 끝에—나는 왜인지 명확히 이해할 필요 없이, 이상할 정도의 평안함을 느꼈다.

더 깊어진 첫 대화들

대화는 누구의 강요나 의도적인 이끌림 없이,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사이의 이야기는 조용히 다른 흐름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더 느리고, 더 깊고, 내가 일상적인 대화에서 익숙했던 것들보다 훨씬 더 멀리 뻗어 나가는 듯했다.

나는 장평을 바라보았다. 그는 내 맞은편에 평온하게 앉아 있었다. 다소 마른 체구에 머리카락에는 희끗희끗한 빛이 감돌았지만, 눈은 여전히 맑았고, 날카롭지 않으면서도 기묘한 따스함을 품고 있었다. 나는 그가 칠순을 넘겼으리라 짐작했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히 밝고 총명한 기색을 유지했고, 피부에는 그 나이대에 흔히 볼 수 있는 깊은 주름이 드리워져 있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는 실제 나이를 가늠하기 어렵게 만드는 특별한 깊이가 있었다.

그와 마주 앉아 있자니, 내가 늘 지니고 다니던 의학 교수라는 역할이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다고 문득 느꼈다. 지식과 뿌리 깊은 편견들을 잠시 내려놓고, 완전히 열린 마음으로 귀 기울이고 싶다는 내면의 충동이 일었다.

"장 선생님,"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입을 열었다. "지난번 도쿄 학회에서... 선생님께서는 몸과 마음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 '맥을 짚

으셨던' 그 방식도... 솔직히, 저는 지금까지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한 박자 쉬고, 숨을 가볍게 들이마신 후 말을 이었다.
"제가 배우고 가르쳐 온 현대 의학의 지식으로는, 그때 선생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실험적인 측정과 검증의 능력을 벗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장평은 가볍게 미소 지었다. 반박이나 조롱의 뜻이 전혀 없는 미소였다.

"당신들의 과학은 육안으로 볼 수 있고, 기계로 측정할 수 있으며, 실험실에서 복제할 수 있는 것들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 실로 뛰어나고 비범합니다." 그가 느리고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 세상은—그리고 우리 인간 자신도—단지 그 유형적인 물질의 차원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에 속하고, 에너지에 속하는, 더 미세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현대 과학은 아직 그것들에 닿고 느낄 수 있는 적절한 도구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마치 자신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한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듯했으며, 내게 무언가를 설득하거나 강요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그는 '기(氣)'라는 개념을 다시 언급했다. 그것은 각 사람의 몸 안과 주위를 항상 유동하는 미묘한 에너지의 한 형태로, 그 사람의 생각, 감정, 그리고 전체적인 심성(心性)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에 차면 그 기의 흐름이 막히거나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반대로, 마음이 맑고 평화로우면 기는 부드럽고 막힘없이 유통된다. 나는 들으며, 나도 모르게 도쿄에서의 그 순간을 떠올렸다. 그의 시선이 나를 똑바로 향하고, 나를 경악하게 했던 그 한마디. "당신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있군요."

지금까지 조용히 듣고 있던 칭링이 살짝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선생님, 방금 하신 말씀은... 고대 전통 한의학의 기본 이론과 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가(道家)나 불가(佛家)의 경전에서도 비슷한 개념들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장평은 그녀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민족의 전통 문화는 실로 지극히 심오하고 완전한 지식 체계를 소유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의학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신체, 정신, 그리고 자신의 생명(生命) 사이의 깊은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도록 돕는, 하나의 전면적인 인생학(人生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학술 연구가나 공허한 이론가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깊이 스며든 체험에서, 진정으로 사색하고 증험한 삶에서 걸려져 나온 듯했다.

그리고 그는 느릿하게, 억양의 변화 없이 덤덤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여러 해 전에, 제가 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의료계에 종사하며, 어느 정도 성공도 거두었고, 매우 원칙적으로 살며, 적지 않은 책임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었지요. 겉보기에는, 누구나 그가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고, 걱정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이름 없는 압박감과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고뇌가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지요. 그때, 그 사람의 심장에는 아주 작은 종양이 형성되고 있었는데, 현대 의료 장비로는 아마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육안이 아니라, 아주 모호하고 미세한 감응의 흐름으로..."

그는 그 이야기를 할 때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다. 하지만 한 마디 한 마디가 마치 내 영혼 속 어느 비밀의 문, 내가 그 존재조차 몰랐거나 아주 오래전에 애써 잊어버린 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것 같았다.

나는 나도 모르게 등골을 타고 흐르는 한기를 느꼈다.

내 심장이 살짝 아려왔다. 육체적인 통증이 아니라, 갑작스럽고, 경악할 정도로 명확한 깨달음 때문이었다. 나는 알았다. 그가 단지 어떤 '한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나에게 대해 말하고 있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정말로... 그걸 아셨단 말입니까?!" 나는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온, 통제할 수 없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장평은 그때서야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만이나 과시가 조금도 없었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억지로 만들려 하지도 않았다. 오직 자애로움과 기묘한 평온함만이 있었다.

"그것은 작은 감응일 뿐입니다, 왕 선생." 그가 여전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별다른 신통력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한 사람의 마음이 충분히 고요해지면, 때로는 육안으로 보기 어려운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는 위로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제가 느끼기에, 두 분 부부는 몸과

마음을 닦는 옛 가르침과 아주 큰 인연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당신에게 이 여정을 위해 시간을 내보라고 진심으로 권했던 주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때가 되면, 아마 그리 머지않아... 다른 사람, 다른 길이 나타나, 두 분이 진정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도록 도와줄 겁니다."

나는 완전히 침묵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다시 품위 있게 우리 찻잔에 차를 더 따르고는, 마치 혼잣말처럼 나지막이 말했다.

"사람들이 수련을 찾는 것은, 주로 초능력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내면 깊은 곳에 본래부터 있던 가장 순수하고 선량한 부분을 다시 찾아 돌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는 저녁 바람이 푸른 나뭇잎들을 부드럽게 흔드는 작은 정원을 내다보았다.

"반본귀진(返本歸眞)." 그는 그 네 글자를 나지막이 읊조리고는 덧붙여 설명했다. "근본으로 돌아가, 본래의 모습, 생명의 가장 진실한 본원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나는 들었지만, 솔직히 바로 다 이해할 수는 없었다. 그 단어들이 너무 어렵거나 복잡해서가 아니었다. 그보다는...

그 진정한 의미가 단순히 글자 표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는 느낌 때문이었다.

그것은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사찰의 종소리 같았다.
그다지 크지도, 연이어 울리지도 않지만, 그 소리는 길게
울려 퍼지며, 내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가시지 않고 맴돌았
다.

칭링도 꽤 오랫동안 침묵했다. 나는 중국 문화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그녀가 '마음을 닦고 성품을 기르는
것(수심양성, 修心養性)'에 대해, 옛 은사들과 진정한 수행
자들에 대해 쓴 수많은 책을 읽었음을 알고 있었다. 하지
만 아마도, 그녀가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눈앞에서, 살과
피를 가진 한 인간이, 이전까지는 오직 낡은 책장을 통해
서만 보아왔던 것들을 그대로 살며 구현하고 있는 모습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나는 나도 모르게 칭링 쪽을 보았고, 그녀의 눈가가 살짝
젖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방금 솟아오른 감정을
숨기려는 듯 서둘러 고개를 돌렸다.

우리의 대화는 그렇게 정오 가까이까지 이어졌다. 다실 안
의 공기는 여전히 부드럽고 맑았다. 누구도 어떤 것에 대
해 최종 결론을 내리려 애쓰지 않았다. 어떤 '정답'이 확정

되지도 않았다. 그저 한때 살아보았고, 체험해 보았던 한 사람이, 여전히 길을 찾는 두 사람에게 다시 나누어주고 있을 뿐이었다.

장평은 점심 식사를 하고 가라며 우리를 붙잡았다. 그것은 지극히 간단한 식사였다. 갓 지은 흰쌀밥, 푸릇푸릇하게 데친 텃밭 채소 한 접시, 그리고 표고버섯을 넣고 끓인 두부 국 한 그릇. 진하고 복잡한 양념도 없었고, 형식적인 권유의 말도 없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나는 그것이 내가 호화로운 레스토랑에서 맛보았던 대부분의 성대한 만찬보다 더 맛있다고 느꼈다.

우리가 작별 인사를 하려고 일어섰을 때, 해는 이미 머리 꼭대기에 와 있었다. 장평은 우리를 더 붙잡지도, 구체적인 다음 만남을 약속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우리를 문까지 배웅하고,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막 싹튼 한 조각 인연에 대한 조용한 긍정의 표시처럼.

덩굴로 뒤덮인 그 나무 문을 나서, 작은 돌길로 다시 돌아왔을 때, 나와 칭링은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 둘 다 침묵을 지켰다. 마치 각자의 마음이 여전히 그 고요하고 따뜻한 공간에, 아직 남은 차향과 식지 않은 말들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 * *

제 3 장: 산봉우리 위의 은사

새로운 곳으로의 준비와 출발

우리가 통런을 떠나기 전, 장평 선생은 우리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인연이 닿는다면 우리가 "만나봐야 할" 몇몇 사람들을 추천해 주었다. 그중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은 통런 시내에서 약 30 킬로미터 떨어진 작은 산에 은거하고 있다는 한 수행자였다. 그곳은 유명한 명승지도, 관광객을 끄는 순례지도 아니었고, 현지 주민들도 거의 언급하지 않는 듯했다. 하지만 장평 선생의 말투를 통해, 나는 그곳에 무언가 특별한 것, 계속해서 탐험할 기회가 숨겨져 있음을 느꼈다.

그리하여 통련에서의 나날은 더 긴 여정을 위한 부드러운 서곡처럼 막을 내렸다. 장평 선생과 두 차례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깊은 고대 문화를 지닌 이 중국 땅에, 실로 아직 수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진정으로 느꼈다. 앞으로 어디로 가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었음에도, 내 안에 강한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이 여정을 계속하도록 재촉하기에 충분했다.

우리는 산으로 갈 준비를 위해 통련에 며칠 더 머물기로 했다. 칭링은 인근 마을 주민 몇 명에게 조심스럽게 물어 보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산 일대를 알고 있었다. 끝 없는 대나무 숲, 일 년 내내 물이 흐르는 작은 폭포 몇 개, 그리고 더 높은 곳으로 이어지는 낡은 오솔길 몇 개가 있는 곳. 어떤 이는 그곳에 버섯이나 죽순을 캐러 가본 적이 있다고 했다. 또 어떤 이는 정부에서 생태 관광 개발 프로젝트를 조사하고 있다는 소문을 어렵풋이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칭링이 산속에 은거하는 사람이 있는지 교묘하게 묻자, 거의 모두가 고개를 저었다. "만약 거기 사람이 산다면, 아마 숲 아주 깊은 곳에 살 겁니다. 우리는 가더라도 산기슭 근처에서만 맴돌 뿐이에요."

누구도 의심하거나 단호하게 부정하는 기색은 없었다. 그
저... 그 일이 그들의 관심을 끌 만한 적이 전혀 없었던 듯
했다.

우리는 시내 시장에 가서 여행에 필요한 몇 가지 물품을
더 샀다. 내가 신고 있던 운동화보다 더 좋은 등산화 한 켤
레, 더 가벼운 배낭, 가지고 다니기 쉬운 마른 음식 약간,
그리고 갑작스러운 비나 햇볕에 대비할 얇은 옷 몇 벌. 나
는 여전히 미국에 있는 동료들과 규칙적으로 연락을 유지
하며, 매일 이메일을 확인하고 저녁에는 짧은 화상 회의에
몇 차례 참여했다. 특히 아직 중요한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인 단계였기에 일을 완전히 놓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 정해진 업무 시간 외에는, 나는 의식적으로 마음을 편
안하게 하고 생각을 덜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하고 평범한
것들에 더 많이 주목하기 시작한 자신을 문득 발견했다.
갑자기 소맷부리를 스치는 서늘한 바람, 여관의 목조 처마
위로 비스듬히 쏟아지는 순수한 아침 햇살, 혹은 아침 안
갯속에서 멀리 산속 어느 사찰에서 들려오는 장엄한 종소
리 같은 것들. 비록 뿌리 깊은 습관들을 완전히 떨쳐내지
는 못했지만, 나는 점차 느리게 사는 법을, 모든 것을 통제
하려는 욕구를 잠시 내려놓는 법을, 그리고 삶의 자연스러

운 흐름이 나를 이끌도록 맡겨보는 법을 배우고 있는 자신을 느꼈다.

우리는 통련을 이룬 아침, 산봉우리 주위에 흰 안개가 자욱하게 드리워져 있을 때 떠났다. 미리 빌려둔 현지 자동차는 꽤 평탄한 포장도로를 따라 우리를 태우고 갔다. 산기슭을 향해 더 작은 길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부터, 길바닥은 점차 자갈로 울퉁불퉁해졌다. 어떤 구간은 붉은 흙이었고, 어떤 구간은 꽤 험하고 미끄러웠지만,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에는 충분했다. 드문드문 보이던 논과 옥수수밭은 점차 완만한 언덕과 무성한 숲으로 바뀌었다.

한 시간여를 달린 후, 차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려 배낭을 메고, 잡초와 우거진 숲 아래 거의 사라져 버린 좁은 오솔길을 바라보았다. 안내판 하나, 현대적인 개입의 흔적 하나 없었다.

"우리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요?" 칭링이 약간 주저하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눈은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오솔길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모험 영화 속 한 장면 같아요."

나는 속으로 그녀보다 더 확신이 없었지만, 가볍게 웃었다.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어, 링. 근데 웬지 모르게, 이 방향

이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논리적인 이유는 전혀 없고, 그냥... 일종의 감각이야."

"감각이요?" 그녀는 그날 가장 이상한 말을 들은 듯한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자기가 의학 교수라는 거 잊었어요? 우리 전문 산악인도 아니고, 경험도 없잖아요."

"알아. 하지만 장평 선생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때로는 자연에 순응하고, 자기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아마, 지금 이 순간, 그게 내가 하려고 애쓰는 전부인 것 같아."

칭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솔길을 한동안 조용히 바라보다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숲 속으로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다른 세계로 조금씩 더 들어가는 것 같았다. 상세한 지도나 미리 정해진 경로의 세계가 아닌, 매혹적인 모호함의 세계로. 오솔길은 때로는 꽤 높고 가파른 오르막이었다가, 때로는 돌 위에 두껍게 낀 푸른 이끼 때문에 미끄러웠다. 몸은 지쳐갔지만, 머리는 반대로 이상할 정도로 맑고 또렷했다. 그것은 진한 커피나 아드레날린의 자극에서 오는 것과는 아주 다른 종류의 깨어 있음이었다. 마치 산림의 광활한 정적 그 자체에서 비롯된 듯했다.

우리는 그렇게 계속 걸었다. 가끔 잡담을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그저 높은 나뭇가지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에 조용히 귀 기울였다. 길이 험한 구간에서는 졸졸 흐르는 작은 시냇가에서 잠시 쉬어갔다. 시냇물은 얼음이 막 녹은 것처럼 맑고 차가웠다.

"나는 아직도 자기가 왜 이 모든 것에 그렇게 끌리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칭링이 시냇가 큰 바위에 앉아 쉬면서, 손가락으로 물 위에 의미 없는 원을 그리며 문득 말했다. "이건 예전의 그 실용적이고 이성적인 자기와는 전혀 안 어울려요."

나는 그녀 옆에 앉아, 산림의 맑은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아마도... 내가 너무 오랫동안, 너무나 익숙하게, 이성으로 측정하고, 계산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들과 살아왔기 때문일 거야. 하지만 여기서는, 바로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것들, 내 통제를 벗어난 것들이, 오히려 나를... 더 편안하게 해줘. 그것들을 명확히 이해해서가 아니라, 아마도 내 평생 처음으로, 모든 것을 속속들이 이해해야만 그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느끼기 때문일 거야."

칭링이 나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부드러워졌고, 그 안에 이해의 빛이 떠올랐다. "그 느낌 알아요. 누군가에게 이치로 설득당하는 것과는 달라요. 마치 아주 거대하고, 아주 다른 무언가 앞에 섰을 때 같아요. 비록 그것을 파악하거나 정의할 수는 없지만, 결코 외면할 수도 없는."

나는 살짝 미소 지었다. 아마도, 아직 완전히 같은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새로운 것들 앞에서 같은 시선, 같은 열린 마음을 나누기 시작한 것 같다.

우리는 손에 지도도, 앞에 명확한 경로도 없이 계속 걸었다. 오직 보일 듯 말 듯 한 오솔길과, 더 천천히 걷고, 더 자세히 보고, 더 많이 들어야 한다는 느낌만이 있었다. 주변 산림의 소리뿐만 아니라, 어쩌면, 내면 깊은 곳의 조용한 목소리까지도.

산 정상으로의 여정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산비탈로 이어지는 오솔길을 계속 따라갔다. 길이 아주 험난하지는 않았지만, 결코 쉽지도 않았다. 어떤 구간은 아주 오랫동안 잊힌 듯했다. 돌 표면은 푸른 이끼로 뒤덮여 있었고, 썩은 낙엽이 두껍게 쌓여 있었으며, 잡초는 거의 무릎까지 차올랐다. 간밤에 내린 비로 땅은 축축하고 미끄러웠고, 때문에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에 더 많은 주의와 신중을 기울여야 했다. 때로는 완만한 경사로를 지날 때 길가에 자란 나무줄기를 붙잡고 균형을 잡아야 했고, 혹은 지팡이로 길을 가리는 무성한 풀숲을 헤쳐 나가야 했다. 이것이 모험적인 정복을 위한 등산은 아니었지만, 거의 완벽한 산림의 침묵 속에서 몇 시간 동안 계속 걷다 보니 나와 청링은 지쳐 말문이 막힐 정도였다.

해가 점차 높이 떠올라 아직 남아 있던 안개를 걷어내자, 숲은 서서히 내 눈앞에 여러 풍경을 펼쳐 보였다. 그것은 내가 이전 출장이나 여행에서는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는 풍경들이었다. 너무 특별하거나 장엄해서가 아니라, 아마도 내가 진정으로 마음을 멈추고 관찰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높이 솟아 푸른 잎으로 시원한 그늘을 드리운 고목들, 푸른 풀밭 옆에서 조용히 피어난 연보랏빛 야생화 몇 송이, 나뭇잎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에 섞인 벌레들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 그 모든 것들

이, 그 자체로는 아마 화려하게 아름답지는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치 함께 아주 평화로운 무언가를 속삭이는 듯했다.

우리는 한 고목 그늘 아래, 푸른 이끼가 덮여 시원한 큰 바위 옆에서 잠시 쉬기로 했다. 칭링이 앉아, 조용히 작은 배낭을 어깨에서 내려놓고는, 손으로 발목을 가볍게 문질렀다. 아마 아까 어디선가 살짝 뽀 모양이었다. 그녀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주위를 둘러보았고, 시선은 멀리 안개 낀 계곡에 꽤 오래 머물렀다. 그러다 문득 살며시 미소 지었다. 마치 기억 속 아주 친숙한 무언가를 다시 만난 듯한 부드러운 미소였다.

나는 무언가 말을 걸려다가, 그만두었다. 주위 공간이 너무 고요해서, 어떤 말이든 불필요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노란 잎사귀 하나가 가지를 떠나, 바람 속에서 몇 바퀴 맴돌더니, 내 발 바로 옆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바로 그 짧은 순간,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 나는 지금껏 한 번도 이렇게 삶의 사소한 디테일 하나하나에 온전히 '존재'해본 적이 없었다.

우리는 다시 여정을 계속했다. 길은 더 가팔라지기 시작했고, 바위 비탈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졌다. 높이 올라갈수록 바람은 더 거세졌고, 흙의 쿼퀴한 습기, 썩은 나뭇잎 냄새

새, 그리고 덩불 어딘가에 숨어 있는 어떤 야생화의 맑은 향기를 실어 날랐다. 숨은 점점 가빠지고 심장 박동도 빨라졌지만, 머리는 반대로 이상할 정도로 맑고 또렷했다. 더 이상 예전처럼 머릿속을 맴돌던 잡념이나 일상의 걱정거리는 없었고, 오직 내딛는 발걸음, 뛰는 심장, 그리고 저 앞에서 들려오는 나뭇잎 스치는 소리의 순수한 존재감만이 있었다.

어느 순간, 청링이 길가에 아슬아슬하게 놓인 큰 판석 앞에서 문득 멈춰 섰다. 그녀는 돌 표면을 가만히 손으로 만졌다. 그곳에는 아주 자연스러운 곡선이 하나 있었는데, 그 때문에 바위 전체가 마치 몸을 웅크리고 엎드린 거대한 용의 형상처럼 보였다. 아무 말 없이, 그녀는 그저 나를 돌아보았다. 시선에는 어딘가 아득한 기색이 담겨 있었고, 그러고는 다시 깊은 숲 속을 향했다. 그 눈빛 속 무언가 때문에, 나는 그녀 역시 이곳의 특별한 분위기에 이끌리고 있음을 느꼈다.

길을 가는 동안, 우리는 기묘한 형태의 바위들을 꽤 많이 더 마주쳤다. 어떤 것은 명상에 잠겨 앉아 있는 사람의 모습 같았고, 어떤 것은 작은 돌문 같았다. 모두 깊고 오래된 숲 속에서 조용히, 묵묵히 자리 잡고 있었다. 인공적인 개입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그저 자연의 손길이, 우연인지

의도인지, 독특한 형태들을 만들어내어, 지나가는 이의 마음을 잠시 멈춰 서서 감상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나는 그것이 장평 선생이 암시했던 "옛사람들의 흔적"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점점 더 명확하게 느낄 수 있었다. 이곳은 아주 다른 종류의 정적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사람 없는 황량한 곳의 쓸쓸함이나 적막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특별한, 무게감 있는 정적이었고, 사람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가라앉게 하여, 더 이상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거나 생각하고 싶지 않게 만들었다.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오르막을 오른 후,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마침내 산 정상 부근의 꽤 평평한 땅에 도착했다. 멈춰 쉴 곳을 찾으려던 참에, 나는 문득 저 앞에, 멀지 않은 곳에, 길가 크고 평평한 바위 위에 대나무와 나뭇잎으로 임시로 지은 작은 오두막이 있는 것을 보았다. 오두막 아래에는, 아마 경치를 보러 왔거나 소풍 온 현지인인 듯한 젊은 남녀 한 쌍이 앉아서 물을 마시며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 옆에는, 백발이 성성하고 기품 있는 풍모의 한 노인이 작은 바둑판 옆에 앉아 골똘히 몰두해 있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젊은 여자는 우리에게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인사했고, 젊은 남자는 여전히 흥미가

득한 표정으로 바둑판의 형세를 주시하고 있었다. 노인은 여전히 그곳에, 기묘할 정도로 침착하게 앉아 있었다. 그는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두 낯선 손님의 출현에 전혀 동요하지 않는 듯했다.

나는 바둑을 잘 몰라서, 그저 몇 분 훑어보다가 그들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자리를 뜨려 했다. 막 등을 돌려 몇 걸음 떼었을 때, 등 뒤에서 낮고 아주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신이 왕밍, 맞소?"

나는 멈칫했다. 심장이 나도 모르게 한 박자 더 빨리 뛰었다. 고개를 돌려 다시 보니, 노인은 여전히 나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의 손은 방금 바둑판의 한 위치에 검은 돌 하나를 가만히 내려놓았을 뿐이었다.

나는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쓰며, 천천히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인지 더 물어보려던 참에, 그가 다시 말을 이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고르며,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어떤 분이 내게 여기서 잠시 머물며... 자네에게 길을 알려달라고 부탁했소."

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손으로 흰 돌 하나를 가만히 들어 바둑판에 놓았다.

잠시 후, 자기 차례의 수를 둔 후에야 그가 다시 말을 이었다. 마치 이전에 들은 지시를 아주 꼼꼼하게 다시 읽어주는 듯, 느긋한 목소리였다.

"이 오솔길을 계속 따라가시오. 큰 대나무 덩굴이 있는 삼거리가 나오면, 오른쪽으로 가시오. 한 시간쯤 더 가면, 또 다른 삼거리가 나올 것이요. 그때는 왼쪽으로 가서, 그대로 쪽 가시오. 그 길 끝에서, 당신들이 찾던 곳을 보게 될 것이요."

나는 그의 말을 하나하나 기억하려 애썼다. 지시는 길지 않았지만, 그가 말을 끊고 각 단어를 강조하는 방식에서, 나는 마치 모든 것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억지스러움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우연도 아니었다.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어쩌면 장평 선생이 이 노인에게 전화로 우리의 출현을 미리 알려준 것은 아닐까? 하지만 즉시, 나는 기억해냈다. 이 산속 깊이 들어오기 시작한 후로, 내 휴대폰은 완전히 신호가 끊겼다. 산기슭의 작은 마을들을 지날 때 몇 번 확인해봤지만, 희미

한 신호 한 칸조차 없었다. 칭링도, 자기가 알기로는 이 산악 지역이 아직 통신망이 완전히 구축되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비록 현지 정부가 앞으로 이곳에 생태 관광을 개발할 계획이 있다는 소문이 있기는 했지만.

그 생각을 하니, 나는 나도 모르게 등골을 타고 흐르는 한기를 느꼈다. 만약 미리 연락한 것이 아니라면... 이 노인은 어떻게 내 이름을, 그리고 내가 이곳을 찾아온 이유까지 알 수 있었을까?

칭링이 나를 보았다. 그녀의 눈에도 놀라움과 감추지 못하는 당혹감이 가득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우리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았다. 이 여행은 우리를 초기 예상보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 속으로 이끌고 있는 듯했다.

은사와의 만남

우리는 바둑 두던 노인의 간결한 지시를 따라 조심스럽게 걸었다. 큰 대나무 덩불이 있는 삼거리를 지나 오른쪽으로 꺾어, 푸른 이끼가 덮인 미끄러운 완만한 비탈길을 따라가

니 거의 한 시간이 걸렸다. 그 후, 넓고 무성한 대나무 숲 옆의 좁은 길에서 다시 왼쪽으로 꺾었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 때, 우리는 문득 열린 안갯속과 푸른 대나무 숲 뒤로 모습을 드러낸 작은 초가집 한 채를 발견했다. 너무나 소박하고 꾸밈없어서, 주의 깊게 보지 않았다면 아마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쳤을 것이다.

처마 앞의 다진 흙마당은 아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싱싱한 청경채 두둑 몇 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양도(楊桃)나무 한 그루, 그리고 이름 모를 고목 그늘 아래 겸손하게 자리 잡은 작은 옛 돌 우물이 있었다. 이곳의 공간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해서, 저녁 바람이 대나무 숲을 부드럽게 스치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릴 정도였다.

집 뒷마루 위에는 한 남자가 정좌(靜坐)하고 있었다. 그는 밝은 갈색 무명옷을 입고 있었고, 어깨까지 내려오는 백발 머리와 가슴까지 닿는 은빛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그의 몸은 야위어 보였지만, 결코 메마르거나 초췌한 느낌은 없었다. 오히려, 반쯤 감은 눈과 고르고 부드러운 호흡에서 생동감 넘치는 내력과 장엄한 침묵이 뿜어져 나왔다. 그는 소박한 돛자리 위에 등을 곧게 펴고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만히 얹고 있었다. 그 견고하고 평온한 자세는, 마치

시간과 주변 세계의 모든 변동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더 이상 흐르지 않는 듯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멈춰 서서, 아주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었다. 우리 중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는 어떤 말도 필요 없었을 것이다. 그의 존재감, 그
를 둘러싼 고요한 기운 자체가, 이곳의 모든 공간을 다르
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을 두렵게 하는 장엄함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가라앉게 하는 깊은 평
온함이었다.

잠시 후, 우리의 존재를 감지한 듯, 그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 눈은 맑고 고요했으며, 사람들이 흔히 서로를 보듯 살
피거나 심판하는 '보는' 기색이 없었다. 마치 사물을 비추
었다가 부드럽게 내려놓는 거울 같았다. 깊은 골짜기 아래
가을 호수처럼 평온하고 심오했다.

그가 나를 보더니, 거의 알아챌 수 없는 아주 희미한 미소
가 입가에 피어났다.

"자네가 왕명이군." 그것은 질문이 아닌, 단언이었다.

내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그가 조금도 놀라는 기색 없
이 고른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두 분이 올 줄 알고 있었네. 먼저 기별을 전한 이가 있었지. 하지만 사실, 그 기별이 없었더라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네."

그 말에 나와 칭링은 모두 나도 모르게 멈칫했다.

또 그 익숙한 느낌이었다. 도쿄의 봄비는 찻집에서 장평 선생이 처음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느꼈던 그 느낌, 내 모든 계산과 사전 준비가 완전히 불필요하게 느껴졌던 그 느낌. 하지만 이번에는, 내 안에 더 이상 예전 같은 놀라움은 없었다. 나는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나 자신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만남이 언젠가 올 것이라고 막연히 알고 있었던 것처럼, 단지 그 시기를 몰랐을 뿐.

"네, 어르신께 인사드립니다." 나는 최대한 공손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다. "제 이름은 왕밍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제 아내, 칭링입니다. 저희는... 장평이라는 친구분의 소개로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남자는 다시 한번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시선은 칭링을 잠깐 스쳐 지나갔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인연이 없다면, 우연히 만나더라도 함께 앉아 이야기하기 어렵다네. 두 분이 이곳까지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마

음속에 찾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 사이에 예전에 이어졌던 어떤 뿌리가 있기 때문일세."

그는 아주 부드러운 손짓으로 우리를 청했다.

"자, 안으로 들어와 물 한 잔 들게나. 먼 길 오느라 피곤했을 테니. 그리고 나서 묻고 싶은 것이 있거든, 천천히 말하게."

우리는 그의 뒤를 따라 작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바닥은 아주 평평하고 깨끗하게 다져진 진흙 바닥이었다. 바닥에는 돛자리 몇 장이 깔려 있었고, 소박한 목제 찻상 하나, 그리고 대나무로 만든 간이 선반 위에는 낡은 책 몇 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전기도, 현대적인 편의 시설도 없었다. 우리가 막 떠나온 산업 시대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전혀 부족하거나 불편한 느낌을 받지 않았다. 이곳의 모든 것은 마치 딱 필요한 만큼만 있었고, 너무나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어서 발을 들여놓기가 망설여질 정도였다.

그는 손수 우리에게 물을 따라 주었다. 물은 뜰의 돌 우물에서 길어 온 것으로, 맑고 짙은 색의 질그릇 병에 담겨 있었다. 시냇물은 맑고 차가웠으며, 뚜렷한 맛은 없었지만, 목으로 넘길 때 나는 마치 마음에 걸려 있던 무언가가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내가 사는 이곳에는, 평소에 찾아오는 사람이 많지 않다네." 우리가 자리에 앉은 후 그가 말했다. "길이 험해서가 아닐세. 아마도, 이처럼 외지고 황량한 곳에 찾아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일 걸세. 예전에 왔던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저 뜰에서 잠시 안을 들여다보다가 발길을 돌렸지. 또 뒷마루 바로 앞까지 왔다가, 결국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도 있었네."

그는 깊은 시선으로 나를 보았다.

"자네는 인연이 있기에, 이 단계까지 올 수 있었던 걸세. 자네 친구 장평은 그것을 이미 꿰뚫어 보았지. 그리고 나는... 나는 내가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만날 뿐 일세."

나는 침묵했다. 무언가가 내 마음속에서 아주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무거운 문이 살짝 열리는 것처럼. 그가 한 구체적인 말 때문이라기보다는, 아마도 그가 말하는 방식, 무언가를 설득하거나 증명하려 전혀 애쓰지 않는 그 방식 때문일 것이다. 그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부드럽고 평온했지만, 마치 내 영혼의 가장 깊고 고요한 곳에 정확히 떨어지는 물방울 같았다.

칭링은 내 옆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만히 모으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집안 구석구석을 조용히 살피다가, 고요한 뜰이 내다보이는 창틀에 멈췄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녀의 얼굴에서 낯선 사색의 빛을 보았다.

잠시 후, 찻잔이 비워질 무렵, 그가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처럼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다.

"두 분 막 도착했고, 먼 길 오셨으니, 우선 좀 쉬면서 기운을 차리게. 내가 차 한 주전자 끓여 대접하겠네."

그는 일어서서, 가볍고 느린 걸음으로 집 한구석, 아직 숯불이 남아 있는 작은 화로로 다가갔다. 그리고 화로 위에 놓인 다른 질그릇 주전자에서 물을 조심스럽게 따랐다. 소박하고 맑은 차향이 산의 상쾌하고 시원한 공기 속으로 부드럽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무도 지금 이 순간 말을 꺼내고 싶어 하지 않았다. 마치 그의 침착하고 서두르지 않는 리듬 속 무언가가, 내 마음속 모든 생각과 혼란을 잠시 뒤로 물러나게 한 것 같았다.

그가 뜨거운 찻잔을 내 앞에 놓아주었을 때, 그는 나를 다시 한번 살짝 보더니 말했다.

"만약 두 분이 일로 너무 바쁘지 않다면... 며칠 이곳에 편히 머물다 가게나. 이렇게 조용한 곳이, 시끄럽고 바쁜 삶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좋을 것이라 믿네."

나는 감사 인사를 하거나 무언가 더 물어보려다가, 그만두었다. 공간과 시간은 지금 너무나 평화롭고, 너무나 잠겨 있었다. 나는 그저 그곳에, 칭링과 함께 앉아, 그가 내 찻잔에 물을 더 채워주기를 조용히 기다릴 뿐이었다.

은사와의 대화

해가 저물기 시작했다. 화창했던 하루의 마지막 빛줄기가 텃마루 앞 푸른 대나무 숲 위에서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은사는 여유롭게 낡은 등잔에 기름을 더 채우고, 다시 새물주전자를 화로에 올렸다. 우리는 여전히 작은 나무 탁자 주위에 둘러앉아 있었다. 소박하지만 이상하게 따뜻한 느낌을 주는 집 안이었다. 공간은 완전히 고요했고, 오직 뜰 어딘가에서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하는 벌레 소리와, 세월

의 흔적이 묻어나는 질그릇 주전자에서 물이 규칙적으로
보글보글 끓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나와 청링 모두 선불리 질문을 더 던지지 않았다. 마치 이
곳의 고요하고 장엄한 분위기 자체가, 모든 질문은 제때가
되면 스스로 찾아올 것이라고 일러주는 듯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르고, 나지막이 차 따르는 소리만이 들려
온 후, 나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쓰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르신, 저는 본래 실증 과학이 모든 앎과 진리의 근간으
로 여겨지는 세계 출신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제가 도쿄
에서 우연히 겪었던 일들, 그리고 장평 선생께서 암시해주
신 것들… 이곳의 아주 특별한 분위기와 더불어… 이 모든
것이 저로 하여금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
다. 저는 더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옛사람들의 수련의 길
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무엇이 어떤 이들로 하여금 기꺼이
그 길에 투신하여 평생을 바치게 했는지 말입니다."

은사는 온화한 미소를 살짝 지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뜨
거운 찻잔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수련이란, 사실 그
리 새롭거나 낯선 것이 아니라네, 왕 선생. 그것은 아주 먼
옛날부터 이 세상에 존재해 왔지. 우리 아시아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수많은 다른 문명 속에서

도 말이네.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은 다를 수 있어도, 모든 참된 수련의 길의 핵심은 모두 같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가장 선량하고 원초적인 본성으로 돌아가, 인생의 미혹과 고통에서 점차 벗어나는 여정일세."

그는 옛사람들이 자신을 닦기 위해 선택했던 여러 다른 길들에 대해 느릿하게 이야기했다. 어떤 이는 사찰이나 깊은 산속의 고요함을 찾아갔고, 또 어떤 이들은 삶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심성을 단련하는 길을 택했다. 그는 사람마다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진정으로 선량함과 고결함을 향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사는 이 우주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리 단순하지 않다네.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파장처럼 서로 겹치고 관통하는 무수한 다른 차원의 공간들이 있지. 우리 인간의 생명(生命)도 마찬가지일세. 단순히 이 물질적인 신체뿐만 아니라, 더 미세한 다른 부분들이 있다네. 정신이라 부를 수도, 영혼이라 부를 수도, 혹은 원신(元神)이라 부를 수도 있지. 이름은 각 사람, 각 문화의 이해에 따라 다를 수 있네. 내가 보기에, 당신들의 현대 과학은 아직 그 표면의 아주 얇은 일부만을 관찰하고 연구하고 있을 뿐이야."

그는 살짝 나를 돌아보았다. 시선은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형언할 수 없는 깊이가 있었다.

"자네는 의학을 연구하는 사람이지. 그렇다면 혹시 자문해 본 적 있나? 두려움, 믿음과 사랑, 혹은 진심 어린 위로 같은 감정들이... 대체 한 인간의 신체 어디에 있는지 말이네?"

나는 그 뜻밖의 질문에 나도 모르게 멍칠했다.

그는 내 구체적인 대답을 기다리지 않는 듯, 말을 이었다.
"심장은 감정을 담아두는 곳이 아니네. 뇌 또한 새로운 생각을 하나 했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무거워지지 않지. 하지만 바로 그 보이지 않고, 잡을 수 없으며, 무게를 재거나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이, 인간의 모든 물질적 신체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있다네."

그는 내 찻잔에 다시 차를 따랐다. 목소리는 여전히 고르며, 조금의 변화도 없었다.

"요즘 사람들은 흔히 눈에 보이고, 기계로 측정할 수 있는 것들만 믿지. 하지만 진정으로 생명을 만들고, 생명을 이루는 것은... 늘 숨어 있고, 인간이 애써 만든 모든 공식과 법칙의 밖에 있다네."

나는 손안의 뜨거운 찻잔을 조용히 응시했다. 열은 수증기가 피어올라, 나 자신도 이유를 알 수 없는 내 손가락의 아주 미세한 떨림을 따라 살짝 기울었다.

그는 여전히 따뜻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옛 수련 방법들에서는, '업력(業力)'이라는 개념을 자주 언급하네. 그것은 단순히 도덕이나 선악에 속하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는 미세하고 보이지 않는 일종의 물질일세. 그것은 인간이 과거 무수한 생애 동안 저지른 것들—모든 행위, 모든 생각, 모든 말을 통해—바로 그것에 의해 형성되고 축적되지. 그 물질은 다른 공간에 존재하여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질병, 불운, 불행을 야기할 수 있고, 심지어 좋지 않은 성격이나 영혼의 비뚤어짐을 만들 수도 있네. 참된 수련의 목적 중 중요한 일부는, 바로 그 업력을 소멸시켜, 자신의 영혼을 날마다 더욱 맑고 가볍게 만드는 것일세."

"도쿄의 장평 선생께서도 그 점에 대해 슬쩍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흠어진 조각들을 맞추려는 듯 중얼거렸다.

은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는 과연 인연이 있는 사람이군. 누구나 이 말을 듣는다고 해서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해한다고

해서 바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네. 하지만 만약 한 사람이 진정으로 고결함을 위해 살 줄 알고, 모든 생각과 행동에서 늘 선량함을 추구한다면, 설령 그가 '수련'이라는 두 글자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더라도, 그의 생명은 사실 이미 좋은 변화를 시작한 것이라네."

칭링은 여전히 내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넓은 나무 탁자 면을 살짝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고 아주 주의 깊게 듣고 있었다. 이따금, 나는 그녀가 아주 부드럽게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것을 보았다. 마치 방금 들은 것들, 아마도 아주 새롭지만 동시에 그녀에게는 매우 익숙한 것들 앞에서 마음의 균형을 잡으려는 듯했다.

"그럼 저희가 올라오는 길에 봤던 흔적들—기묘한 모양의 바위들, 희미한 조각들... 그것들도 옛사람들의 수련 방법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 나는 문득 산비탈에서 마주쳤던 특이한 모양의 판석들을 떠올리며 물었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지." 그가 평온한 목소리로 답했다. "아주 먼 옛날, 인간이 아직 순박함을 간직하고 있던 시절에는, 하늘과 땅, 우주의 미묘한 에너지 흐름을 감지할 수 있었네. 그들은 자신이 깨달은 것들, 이 세계에 대한 자신들의 이해를 기록으로 남기려 애썼지. 하지만 세월이 흐르

면서, 그 진실한 이해는 점차 사라지고, 후대 사람들에게 잊혔네. 지금, 사람들이 그 판석들을 볼 때, 그들은 흔히 그것을 그저 돌로만 보지. 그 뒤에 한때 숨겨져 있던 깊은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다네."

어떤 확실한 단언도, 완전히 명쾌한 대답도 없었다.

나는 아직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지금 내 머릿속에는, 아주 많은 생각과 개념들이 서로 부딪치고 있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논쟁이 아니라, 마치 그것들이 어떤 틈, 어떤 발판을 찾아 천천히 내려앉고, 침전될 수 있기를 애쓰는 것 같았다.

밖에서는 대나무 숲에서 불어온 바람이 다시 살며시 불어와, 산림의 밤의 한기를 실어 날랐다. 탁자 위의 등잔 불빛이 살짝 흔들렸다. 은사는 품위 있게 일어나 화로로 다가가, 마른 장작 몇 개를 더 넣었다.

"날이 추워지기 시작하는군." 그가 여전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밤은, 아마 산 위 달이 아주 밝을 걸세."

달밤과 의문의 손님

달이 높이 떠올랐다. 산 위의 밤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은은하고 몽환적인 달빛이 뒷마루 앞 작은 흙마당 위로 부드러운 빛의 막을 드리웠다.

은사는 찻상 위에 작은 등잔 하나를 더 놓았다. 등잔의 따뜻한 황금빛이 바깥의 달빛과 어우러졌다. 그는 다시 품위 있게 새 차를 한 주전자 따르고는, 나지막이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산속에는 평소 나 혼자뿐이라네. 두 분 부부가 별다른 일이 없다면, 며칠 더 이곳에 머물며 마음을 맑게 하고 가게. 여기엔 얽매이는 일정 같은 것도 없고, 나 또한 바쁜 일이 없으니."

그는 살짝 미소 짓고는,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오늘 밤 혹시 왕 선생은 바둑 몇 판 둘 생각은 없는가? 장기(象棋)든 바둑(圍棋)이든, 나도 조금은 둘 줄 아네."

내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그가 문득 멈칫하며, 밤바람에 술렁이는 대나무 숲 쪽으로 시선을 들었다.

"오, 도우(道友) 한 분이... 곧 찾아올 모양이군."

나와 칭링이 그 뜻을 미처 다 이해하기도 전에, 대나무 숲 뒤로 난 오솔길에서 키가 흰칠한 사람의 그림자가 문득 나타났다. 그는 단정하게 깎은 짧은 머리를 하고 있었고, 그 걸음걸이는 이상할 정도로 가벼웠다. 그의 움직임에는 내가 본 적 없는 아주 특별한 무언가, 어떤 청아함이 있었다.

그가 더 가까이 다가와, 우리와 십여 걸음 정도 거리에 이르렀을 때, 나는 문득 믿을 수 없는 것을 깨닫고 경악했다. 저 사람이 마치 날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높이 솟아오르지는 않았고, 그저 땅에서 한 뼘 정도 떨어진 채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하지만 분명 허공을 가르고 있었다. 그의 발뒤꿈치는 바스락거리는 마른 잎사귀 위를 전혀 밟지 않았고, 그의 그림자 또한 달빛 아래 우리 그림자처럼 뚜렷하게 비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내 눈앞에서,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명확하게 일어났지만, 동시에 내 모든 상식을 뛰어넘는, 너무나 비이성적인 것이었다.

칭링이 나도 모르게 내 팔을 꼭 잡았다. 나는 우리 둘 다 이 믿기 힘든 광경의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 숨을 죽이고 있음을 느꼈다.

은사는 품위 있게 일어나, 아주 오래된 방식으로 가슴 앞에 두 손을 모았다.

"류원(劉雲) 도우, 오셨구려."

낮선 손님 또한 합장하며 답례하고는, 더 가까이 다가왔다. 이때, 그의 걸음걸이는 완전히 평범해져, 다른 사람들처럼 땅을 밟고 있었다. 그는 사십 대쯤 되어 보였고, 소박한 열은 회색 무명옷에 부드러운 바닥의 천 신발을 신고 있었다. 몸은 아주 유연하고 건강해 보였고, 야외 노동을 자주 하는 사람의 검게 그을린 피부에, 눈은 예리하고 총명하게 빛났다.

은사는 우리를 돌아보며 자연스럽게 소개했다.

"이쪽은 류원, 내 친구라네. 그는 보통 아랫마을에 살면서 자유롭게 장사를 하지. 가끔 이렇게 나를 보러 들르곤 한다네. 이번에 올라온 걸 보니... 아마 내게 줄 것이 있는 모양이야."

류원은 미소 지으며 우리에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하고는, 꽤 정성스럽게 싼 작은 천 꾸러미를 찻상 위에 놓았다.

"네, 형님. 아래에 있는 형제 몇몇이 힘을 모아 이 책들을 다시 인쇄했습니다. 형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 한 권 가지고 왔습니다."

내 시선은 더 이상 책 꾸러미에 머물지 않았고, 마음은 여전히 그가 방금 나타났던 방식에 대한 생각으로 어지러웠다. 그들 세 사람 사이에 아주 부드러운 몇 마디 대화가 오간 후, 나는 더 이상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어, 용기를 내어 물었다.

"류원 선생... 실례지만 한 가지 여쭙봐도 되겠습니까? 혹시... 혹시 방금 정말로 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평소 일하러 가실 때도 그런 방법을 쓰시는지, 아니면 이곳처럼 특별하고 외진 곳에 올 때만 그러시는지요?"

류원이 웃음을 터뜨렸다. 조금도 숨김없는 상쾌한 웃음이었다.

"저는 매일 다른 사람들처럼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닙니다, 왕 선생. 그리고 이건..." 그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함부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천리(天理)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지요. 정말로 조용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오가지 않으며,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곳에서만 아주 가끔 조금 쓸 수 있을 뿐입니다."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품위 있게 일어섰다.

"자, 저는 이제 이 밤에 바로 가봐야겠습니다. 아랫마을에

아직 처리할 일이 좀 남아서요. 바쁘지 않을 때, 분명 다시 만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는 은사와 우리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다시 조용히 떠났다. 그의 모습은 마치 올 때처럼 가볍고 신비롭게, 순식간에 산림의 어둠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작은 집 안의 공기는 다시 본래의 고요함으로 돌아왔다. 탁자 위 등잔의 불꽃은 여전히 살짝 흔들리며, 생각에 잠긴 얼굴들을 비추고 있었다.

칭링이 무언가를 깨뜨릴까 두려운 듯, 속삭이는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다.

"저... 저는 한 번도 누가... 그렇게 정말로 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나 또한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둘은 여전히 그곳에, 멍하니 앉아, 방금 목격한 것을 소화하려 애쓰고 있었지만, 그것을 우리 인식의 어디에 두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은사는 류원이 방금 가져온 책을 조용히 덮고는, 탁자 한 쪽으로 밀어 놓았다.

"바깥세상에서 애써 찾아다닌다고 해서 진상(眞相)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네." 그가 여전히 부드럽고 아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때로는, 그저 조용히 앉아, 마음을 가라앉힐 줄 알면, 저절로 다른 문들이 열리게 되지."

우리는 은사의 집에 사흘을 더 머물렀다. 그날들은 참으로 평범하게 지나갔다. 아침에는 때로 그와 함께 인근 언덕에 올라 약초 몇 종류를 캐다. 점심에는 함께 뒷마루 앞 흙마당에 앉아 햇별을 쬔었다. 저녁에는 다시 뜨거운 찻주전자 주위에 둘러앉아, 조용히 달이 뜨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고, 심오한 무언가를 설파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 그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록 아주 소박했지만, 종종 나로 하여금 하루 종일, 심지어 며칠 뒤까지도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다. 어떤 날은, 우리 셋이 몇 시간 동안이나 서로 말없이 앉아 있기도 했다. 아무도 묻지 않고, 그 또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바로 그 고요한 순간들 속에서, 내가 한때 아주 묻고 싶었던 것들, 나를 번뇌하게 했던 의문들이, 점차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더 이상 구체적인 해답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사흘째 되던 날, 내가 몇 가지 개인 물품을 정리하며 산을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가 여전히 바람결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내게 나지막이 말했다.

"저 아래에 자네를 기다리는 다른 사람이 있네. 이 여정의 다음 문은… 자네가 그곳에 발을 디디면 저절로 열릴 걸 세."

나는 그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때, 나는 단 한 가지만을 알았다. 이곳에서 보낸 짧은 나날은, 비록 대부분이 침묵 속이었지만, 내 안에 아주 새롭고, 아주 다른 무언가를 진정으로 열어 주었다는 것을. 마치 우리가 이곳에 온 첫날 밤의 그 밝은 달빛처럼, 시끄럽지도, 눈부시지도 않았지만, 비록 그 길이 여전히 희미하고 미지의 것들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내 앞길을 비춰주기에는 충분했다.

기이한 만남의 끝, 계속되는 여정

아직 이른 시간이었다. 얇은 구름 띠가 멀리 산봉우리들을 가로질러 느긋하게 떠다녔다. 순수한 아침 빛이 뒷마루 앞 흙마당 위로 부드러운 은회색 빛을 드리웠다. 작은 부엌에서는 화로 위에서 물 끓는 소리가 나지막이,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은사는 여느 아침과 같이, 여유롭게 불을 더 지

피며 새 차를 한 주전자 준비하고 있었다. 어떠한 송별의 자리도, 어떠한 작별의 말도 없었다.

나와 칭링은 조용히 얼마 안 되는 짐을 꾸렸다. 우리는 어느덧 이곳에서 사흘을 머물렀다. 처음에는 그저 한나절 들를 생각이었지만, 우리 중 누구도 떠난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고, 그렇게 날들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하고 평화롭게 흘러갔다. 매일같이 은사는 아주 소박하고 평범한 일들만 했다. 때로는 인근 언덕에 올라 몇 종류의 산나물을 캐 오고, 때로는 화로 옆에 앉아 부지런히 약을 달이는 모습이 보였으며, 때로는 그저 묵묵히 불을 지피고 차를 우릴 뿐이었다. 그는 거의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고, 우리에게 먼저 나서서 무언가를 이야기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바로 그 거의 완벽한 침묵 속에서, 우리는 아마 어떤 언어로도 온전히 표현할 수 없는 아주 많은 것들을 느꼈다.

어느 날 오후, 내가 뒷마당에서 그가 약초 잎을 채반에 널어 말리는 것을 돕고 있을 때, 그가 문득 나를 보지 않은 채, 여전히 고른 목소리로 물었다.

"자네가 사는 나라에서는, 아직도 사람이 정말로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가?"

나는 순간 손을 멈추고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여전히 나를 보지 않고, 그저 대나무 채반 위에 약초 잎 한 줌 한 줌을 정성껏 펼쳐 놓을 뿐이었다. 나는 약간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어르신, 제 생각에는... 아마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보통 영혼이 실제로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 점에 대해 진정으로 마음을 쓰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오후 이후로, 나는 나도 모르게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 아주 평범한 소리들에 더 많이 주목하기 시작했다. 바람이 문득 불어와 대나무 앞으로 엮은 처마를 바스락거리게 할 때, 찻주전자 속 물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 혹은 구름 한 조각이 지나갈 때마다 흙마당 위 햇살의 색이 변하는 모습...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내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듯했다. 아주 오래되고, 아주 가까운 무언가, 아마도 내가 아주 오래전에 무심코 놓쳐버렸던 무언가를.

오늘 아침, 우리가 산을 내려갈 모든 준비를 마쳤을 때, 은사가 집 안에서 나와, 한지로 싼 작은 꾸러미를 내게 건넸다. 안에는 맑은 향기를 풍기는 마른 산나물 약간과, 손으로 쓴 글씨 몇 자가 적힌 작은 종잇조각이 있었다.

"병을 고치기 위함이 아닐세. 그저 산림의 향기를 기억하라고."

나는 그것을 소중히 받아들이고, 그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 또한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답례할 뿐이었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다.

우리는 그 소박한 작은 집을 조용히 떠났다. 산기슭으로 이어지는 대나무 숲 속 익숙한 오솔길은 며칠 전의 그 길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오늘 우리 두 사람의 발걸음은 어딘가 달라진 듯했다. 길을 가는 내내 아무도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이른 아침 산바람은 약간의 차가운 습기와 쿵쿵한 들풀 향기를 실어 왔다. 칭링은 내 곁에서 걸었고, 가끔 길가의 앙상한 나뭇가지를 부드럽게 쓸어내리곤 했다. 마치 조용한 작별 인사를 건네는 것처럼.

산기슭에 거의 다다랐을 때, 나는 나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 뒤를 보았다. 은사의 작은 초가집은 이제 무성한 푸른 나무들 뒤로 완전히 모습을 감추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의 고요하고 맑은 눈빛, 그리고 아침 안갯속에 섞여 있던 그 친숙한 부엌 연기 냄새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계곡 아래에서 불어온 바람이 옷깃을 살며시 파고들며, 일상의 숨결을 실어 왔다. 나는 배낭 어깨끈을 고쳐 메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 * *

제 4 장: 신비의 법의학자

생사의 기로에 선 이야기

은사가 은거하던 산 정상을 떠난 후에도, 내 마음속에는 숲 속 나뭇잎과 아침 이슬의 향기가 여전히 남아 있었고, 말로는 온전히 표현하기 힘든 신비로운 여운이 어딘가에 감돌았다. 산의 맑은 공기와 절대적인 정적이 마음속에 쌓였던 속세의 먼지를 잠시 씻어내 준 듯했지만, 동시에 그것은 내가 가진 현대 의학 지식의 보고로는 도저히 만족스러운 답을 내놓을 수 없는 무수한 새로운 질문들을 심어주었다. 아내 청링은 나와 같이 은사와의 깊은 대화에 모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 아주 이질적인 분위기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들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평소보다 말수가 줄었고, 이따금 먼 곳을 바라보는 그녀의 시선 속에 호기심과 아직 말로 표현되지 않은 약간의 회의가 담겨 있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시끄럽고 번잡한 대도시로 서둘러 돌아가지 않기로 했다. 대신, 산기슭에서 헤어지기 전에 고용했던 현지 길잡이의 다소 모호한 제안에 따라, 우리는 청시(淸溪)라는 이름의, 다른 산맥 기슭에 평화롭게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을 찾아갔다. 그 작은 마을은 사실 건축이나 경관 면에서 그다지 화려하거나 특별할 것은 없었지만, 마치 분주한 시간의 톱니바퀴가 살며시 멈추었거나 의도적으로 이곳을 잊은 듯, 이상할 정도로 평화롭고 고요한 멋을 지니고 있었다. 이끼 낀 고풍스러운 기와지붕이 아직 회반죽 냄새가 나는 몇몇 새 건물과 섞여 있었고, 돌로 포장된 구불구불한 작은 골목길, 그리고 아마도 그 이름처럼 청시라 불리는 맑은 시냇물이 마을의 일부를 부드럽게 감싸고 흘렀다. 이곳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주하고 바쁜 모습과는 달리, 한결 느긋하고 여유롭게 사는 듯했다.

우리는 시냇가가 내다보이는 발코니가 있는 작은 여관방을 빌려, 며칠 머물며 지난 풍부한 경험들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여정 방향을 함께 결정할 생각이었다. 여관 주인은 천(陳) 씨 성을 가진 노인으로, 아주 온화하고 후덕해 보였

으며 말수가 적은 듯했다. 그리고 바로 그 노인에게서, 어느 늦은 오후 우리 셋이 뒷마루에 놓인 대나무 평상에 앉아 차를 마실 때, 창시에서의 첫 기묘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찾아왔다.

처음에, 그 이야기는 천 노인의 이웃 몇몇이 놀러 와 차를 마시며 나누는 작은 수군거림에 불과했다. 그들은 며칠 전 마을에서 있었던 한 장례식, 마을 끝에서 평생을 살아온 늙은 목수 왕 노인의 장례식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후에 일어난 아주 기묘한 일들만 아니었다면, 그 이야기는 아마 별로 할 것도 없는 이야기였을 것이다.

이웃 손님들이 돌아간 후, 천 노인은 우리 부부가 꽤 관심 있어 하고 호기심을 보이는 것을 보고는, 천천히 손수 차를 더 따르고 나서, 차분하게 이야기의 자초지종을 들려주었다. 왕 노인은 올해 일흔이 넘었고, 아내가 죽은 후 낡은 집에서 혼자 살았으며, 자식들은 모두 먼 대도시로 돈을 벌러 나갔다고 했다. 며칠 전 어느 오후, 노인은 갑자기 심한 심장 발작을 일으켰다. 이웃들이 발견하여 급히 마을 보건소로 데려갔지만, 이미 늦었다고 했다. 보건소에서 일하는 젊은 의사는, 도시의 한 의과대학을 갓 졸업하고 이곳에 부임했다고 하는데, 꼼꼼히 검진한 후 노인이 심장과 호흡이 멈추었고, 양쪽 동공이 모두 확장되었으며, 더 이

상 어떤 반사 작용도 없다고 확인했다. 모두 죽음의 아주 명확한 임상적 징후들이었다. 먼 지방에 사는 노인의 가족들에게도 소식이 전해졌고, 그들은 장례를 치르기 위해 서둘러 돌아오고 있었다.

현지 풍습에 따라, 왕 노인의 시신은 가족과 이웃들에 의해 집으로 옮겨져, 깨끗이 씻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진 후, 친지와 이웃들이 마지막으로 조문할 수 있도록 본체의 목제 침대 위에 안치되었다. 장례식은 다음 날 거행될 예정이었다. 모든 것이 상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슬프고 비통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듯했다.

하지만 가장 기이한 일은 발인을 준비하기 바로 전날 밤, 자정 무렵에 일어났다. 노인의 맏아들이 가물거리는 등잔불과 자욱한 향 연기 속에서 아버지의 영구를 지키고 있을 때, 그는 문득 아버지의 가슴이 희미하게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처음에는 너무 피곤하고 슬퍼서 헛것을 본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희미한 등잔불과 아른거리는 향 연기 속에서, 가슴의 그 미약한 움직임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하게 다시 나타났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노인은 살짝 몸을 뒤척이더니, 천천히 눈을 뜨고, 그러고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그는 아주

길고 깊은 잠에서 막 깨어난 사람처럼 멍한 표정으로 주위를 휘둥그레 둘러보았다.

노인의 아들이 얼마나 무서웠을지는 말할 필요도 없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마당으로 뛰쳐나가 사람들을 불렀다. 집에 있던 가족들과 장례를 돕기 위해 남아 있던 이웃 몇몇이 모두 경악하며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모두가, 불과 하루 전 보건소 의사에게서 사망 선고를 받았던 왕 노인이, 지금 침대 위에 멀쩡히, 살아 있는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을 직접 보고는, 벼락 맞은 듯 얼어붙어 할 말을 잃었다.

"이건... 말도 안 돼!" 나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오랜 의사로서의 직업적 반사 신경이 문득 튀어나왔다. "혹시 가사(假死) 상태(apparent death)였던 건 아닐까요? 아니면 그 보건소의 젊은 의사가 오진했을 가능성은요?"

천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처음에는 다들 그렇게 생각했지요, 교수님. 왕 노인 가족들이 서둘러 그 젊은 의사를 다시 모셔왔습니다. 그는 왕 노인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핏기 하나 없더군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노인의 맥박, 혈압, 호흡을 다시 확인했는데... 모든 수치가 있었어요. 비록 미약했지만, 분명히 살아 있었지요. 젊은 의사는 더듬거리며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고, 그저 자기가 이전에 검사했을 때는 노인이 분명히 심장과 호흡이 완전히 멈췄고, 어떤 생존 징후도 없었다고 우길 뿐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노인의 사망 진단서까지 이미 써놓았다고 하더군요."

지금까지 내 옆에서 조용히 듣고만 있던 청링이 가만히 내 손을 잡았다. 나는 그녀 또한 이 믿기 힘든 이야기에 빠져 들고 있음을 알았다. 그녀가 천 노인에게 나지막이 물었다. "그럼... 어르신, 왕 노인께서는 '살아나신' 후에 상태가 어떠셨나요? 무언가 기억하는 게 있으셨나요? 그리고 건강은요?"

천 노인은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아졌고, 시선은 앞마당 먼 곳을 향했다.

"그것이야말로 이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기이한 점입니다, 부인. 왕 노인께서는 분명히 살아나셨지만, 더 이상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집안 자식들을 알아보지 못했고,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집이 어디인지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는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거나, 가끔 집 안을 배회하며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때로는, 아주 먼 옛날에 일어났던 일들, 이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노인들조차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들을 줄줄 꿰기도 했지요. 평소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고 생기

가 없었지만, 가끔씩, 어찌 된 일인지, 사람을 소름 돋게 하는 날카로운 빛이 번뜩이곤 했습니다."

"가족을 못 알아본다고요? 완전한 기억상실증인가요?" 나는 합리적인 설명을 찾으려 애쓰며 중얼거렸다. "혹시 심장이 멈췄던 기간 동안 뇌 산소 부족 상태가 길어져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게 심각하고 회복 불가능한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이것이 아마 현대 의학의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설명일 것이다.

"보건소의 젊은 의사도 그렇게 말했었지요." 천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조차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왕 노인께서는 원래 목수셨고, 글은 겨우 읽고 자기 이름 정도만 쓸 줄 아셨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사람들이 그가 붓을 들고 아주 멋진 필체의 옛 한자로 무언가를 쓰는 것을 보았는데, 글을 아는 마을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이 신선이 되는 도리나 그 비슷한 것에 대한 시구라고 하더군요. 또 어떤 때는, 그가 마당에 내리는 비만 보고도 다음 비가 언제 몇 시에 올지 정확히 맞추거나, 이웃의 얼굴색만 보고도 그 사람 몸속에 숨겨진 병, 심지어 본인조차 모르는 병을 줄줄 읊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저 뇌 손상 때문이라고만 하면 어떻게 제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천 노인의 이야기는 나를 정말로 매우 혼란스럽게 했다. 과학자로서,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의학 교수로서, 나는 본래 관찰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으며, 실험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들만 믿도록 훈련받았다. 내게 죽음은 아주 명확하고 확정적인 생물학적 상태였다. 혈액 순환의 정지, 호흡의 중단,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뇌사. 전문 의사에게서 거의 하루 동안 임상적으로 사망했다고 확인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극히 드문 일이었고, 희귀한 의료 과실이나 세계적으로 극히 보기 드문 가사 현상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 왕 노인에게서 갑자기 나타난 정신, 지식, 그리고 '예언' 능력의 기이한 변화야말로 내 모든 이해의 한계에 도전하는 것이었다. 일반적인 뇌 손상은 신체 기능의 저하를 가져올 뿐인데, 어떻게 그렇게 초월적으로 보이는 능력들을 '열어줄' 수 있단 말인가?

칭링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용히 듣고 있었고, 그녀의 수려한 눈썹은 생각에 잠겨 살짝 찌푸려져 있었다. 나는 언어와 문화 교수로서, 그녀가 분명 옛날부터 중국 민간 문화 속에 전해 내려오는 '신들림'이나 '차시환혼(借屍還魂, 시체를 빌려 영혼이 돌아옴)'에 대한 기이한 이야기들을 떠올리고 있으리라 짐작했다. 그것들은 모두 이전에는 우리

둘 다 그저 옛사람들의 풍부하고 다소 미신적인 상상력의 산물로만 여겼던 개념들이었다.

"그럼... 현재 왕 노인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칭링이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여전합니다, 아무 변화도 없어요." 천 노인이 약간 안타까운 목소리로 답했다. "그 집 자식들은 지금 기쁘면서도 걱정입니다. 아버지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신 것은 기쁘지만, 그분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아 걱정이지요. 그들도 무당 몇 분, 도사 몇 분을 어디선가 모셔와 봤지만, 아무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노인이 '귀신'에 씌었다'고 하고, 어떤 이는 이것이 '큰 복과 인연'이라며, 어떤 수행자의 영혼이 옛날에 못다 한 일을 계속하기 위해 노인의 육신에 들어온 것이라고 하더군요. 어느 쪽 말을 믿어야 할지 알 수가 없지요."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천천히 우리 찻잔에 차를 더 따랐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망설이는 듯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우리 이 작은 마을에서는, 기이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거미줄처럼 위태로워지는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한 사람에 대해 속삭이곤 합니다. 바로 묵노선생(墨老先生)이시지요. 사람들은 그분이 우리 범인

(凡人)의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것들까지 꿰뚫어 보신다고 수군거립니다. 그분은 의사도, 법사나 무당도 아니지만, 사람들은 그분이 특별한 눈을 가졌고, 보통 사람이 볼 수 없는 것들, 특히 삶과 죽음 사이의 지극히 위태로운 경계와 관련된 신비한 일들을 꿰뚫어 보신다고들 합니다."

묵 노선생에 대한 소개는 우리에게 정말 자연스럽게, 거의 왕 노인의 기이한 이야기의 필연적인 결과처럼 다가왔다. 강렬한 호기심이 내 안에서 문득 솟아올랐다. 혹시 이것이 이 여정이 우리 눈앞에 서서히 펼쳐 보이고 있는 신비로운 그림의 다음 조각이 아닐까? 날카로운 수술 칼과 최첨단 현미경의 범위를 넘어서, 삶과 죽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인간? 내 안의 과학적 이성엔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지만, 내 심장은 지금 이 순간 이 특별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강하게 재촉하고 있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칭링을 보았고, 그녀의 눈 속에서도 비슷한 기다림과 갈망이 빛나고 있음을 보았다. 마치 우리 둘 다, 동방의 신비로운 세계로 통하는 또 다른 문이 다시금 열리려 하고 있음을 막연히 느끼고 있는 듯했다.

묵 노선생과의 만남

다음 날 이른 아침, 억누를 수 없는 호기심에 나와 청링은 어젯밤 천 노인이 언급했던 목 노선생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 여관 주인 노인과 우리가 조심스럽게 물어본 몇몇 마을 사람들의 다소 모호한 안내에 따르면, 그 선생의 거처는 흔히 볼 수 있는 변화한 주택가가 아니라, 마을 변두리,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낡은 공동묘지 근처에 있었다. 그곳은 나무가 꽤 무성하고 다른 곳보다 훨씬 더 고요하고 한적한 분위기였다. 그곳으로 이어지는 길은 세월에 닳아 울퉁불퉁하고 축축한 작은 돌길이었는데, 마치 시끄러운 세상에서 벗어나 이끼 낀 돌담 사이를 구불구불 통과하며, 우리를 더 고요하고 더 오래된 듯한 공간의 세계로 이끄는 별개의 통로 같았다.

마침내, 한참을 찾은 끝에, 우리는 거대한 고목 그늘 아래 겸손하게 자리 잡은 작고 낡았지만 여전히 아주 깨끗하고 튼튼한 목조 주택 앞에 멈춰 섰다. 그 나무는 울퉁불퉁한 뿌리를 마치 거대한 구렁이처럼 땅속 깊이 박고 있었다. 간판 하나, 이곳이 누군가의 작업실이나 영업 장소임을 알리는 어떤 표시도 없었고, 그저 짙은 갈색의 나무 문 하나가 살짝 닫혀 있을 뿐이었다. 주변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근처 공동묘지의 황량하고 다소 음산한 분위기와는 다른, 마치 보이지 않는 내력이 가득 담겨 있어,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절로 목소리를 낮추고 발

걸음 또한 자연스럽게 더 가볍고 차분하게 만들게 하는 특별한 정적이었다.

나는 손을 들어 나무 문을 가볍게 세 번 두드렸다. 즉시 안에서 어떤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나와 칭링은 서로를 보았다. 두 사람의 눈에는 모두 약간의 망설임이 스쳤다. 우리가 멋대로 들어가도 될까? 아니면 혹시 우리가 잘못 찾아온 것은 아닐까? 바로 그때, 낮고 따듯하며 다소 씩씩한 목소리가 문득 집 안에서 들려왔다.

"들어오게, 문은 잠겨 있지 않네. 먼 길 온 손님들이니, 밖에서 찬 바람 맞지 말고."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아주 기묘한 투과력이 있었고, 마치 그 주인이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알고 있었으며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려 초대의 말을 건네는 듯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를 쳐다보고, 내가 가만히 문을 밀고 들어섰다. 칭링이 바로 뒤를 따랐다.

안은 평범한 진료실도, 내가 상상했던 것처럼 신령을 모시는 도관(道觀)도 아니었다. 그것은 고풍스러운 서재와 다소 어수선했던 연구실이 기묘하게 섞여 있는 듯했다. 창호지를 바른 창문들을 통해 들어온 자연광이, 마치 금빛 실타래처럼 부드럽게, 시간이 숨죽여 귀 기울이는 듯한 고요한 공간 속에 떠다녔다. 그 빛은 천장 가까이 닿는 책장들을

비추고 있었다. 책장에는 낡은 천 표지의 고서들, 정성스럽게 묶인 죽간(竹簡)들, 그리고 현대적으로 인쇄된 자료 묶음들이 가득했다. 소박한 목제 책상들 위에는 내가 즉시 이름을 댈 수 없는 온갖 물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구리로 만든 작은 인체 모형, 다양한 색과 모양의 돌들, 옛 날식 나침반, 크고 작은 돋보기 몇 개, 붓, 화선지, 그리고 특히, 방 한구석에 놓인 아주 생뚱맞아 보이는 현미경까지. 낡은 종이 냄새, 먹물 냄새, 그리고 어떤 마른 약초 냄새가 은은하게 서로 뒤섞여, 어딘가 장엄하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방 중앙에 놓인 가장 큰 책상 뒤, 출입문을 마주 보고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아주 늙어 보이지는 않았고, 아마 예순을 갓 넘었을 정도였지만, 머리카락은 실처럼 새하얗게 세어, 간단한 비녀로 목덜미 뒤에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그는 소박한 디자인의 남색 무명옷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청아하고 비범한 기운이 풍겨 나왔다. 체구는 크지 않고 오히려 다소 작았지만, 눈은 이상할 정도로 밝고 총명했다. 우리가 들어서자 그가 고개를 들었다. 그 시선은 나와 청링을 재빨리 훑어보았는데, 아주 깊었고, 우리의 겉모습에만 머물지 않는 듯했다.

"두 분, 이 늙은이를 무슨 일로 찾으셨는가?" 그가 처음과 같이 낮고 따뜻하며 다소 쉼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가볍게 헛기침을 한 번 하고, 비록 이 사람의 풍모와 특별한 공간에 다소 압도되는 것을 느끼기는 했지만, 과학자로서의 평정과 자제력을 유지하려 애썼다.

"네, 선생님. 저는 왕밍이고, 이쪽은 제 아내 칭링입니다. 저희는 미국에서 여행차 왔고, 또한 전통 문화를 더 배우고 싶어 왔습니다. 저희가 우연히 마을 분들께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가볍게 미소 지었다. 아주 부드러운 미소였지만, 우리가 왜 이곳까지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이미 명확히 아는 듯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냥 나를 묵 선생이라 부를 뿐이네. 그리고 두 분이 아마 들었을 '신비의 법의학자'라는 칭호는, 사실 그들이 상식으로 풀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는 우스갯소리일 뿐이지. 나라는 사람은 그저, 인간 생명(生命)의 운행 방식, 그것이 명확하게 밖으로 드러날 때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숨어 들어갈 때 모두에 대해 호기심이 많은 사람일 뿐일세."

그가 '생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것의 '숨어 들어감'에 대해 말하는 방식이 내 특별한 주의를 끌었다. 그것은

의사가 신체의 생물학적 기능에 대해 말하는 일반적인 방식과는 달랐고, 더 깊고 철학적인 함의를 지닌 듯했다.

"선생님, '숨어 들어간다'고 하셨을 때… 혹시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칭링이 문득 물었다. 문화와 언어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그녀의 타고난 호기심이 초기의 회의감을 압도한 듯했다.

묵 선생은 칭링을 보았다. 그의 눈에 칭찬의 빛이 스쳤다. "그대 말이 일리가 있네. 세상 사람들은 흔히 그것을 죽음이라 부르지. 하지만 '죽음'이 과연 완전한 끝, 영원한 소멸일까? 아니면 그것은 단순히 생명의 상태 전환, 또 다른 문이 열리거나 닫히는 것일까?"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내 눈을 똑바로 보았다. "왕 교수께서는 의료계에 종사하시니, 분명 적지 않은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하셨을 터. 그렇다면, 당신의 경험으로, 무엇을 '죽었다'고 정의하겠는가?"

그의 갑작스럽고 직설적인 질문에 나는 순간 멈칫했다. 나는 내가 늘 가르쳐 온 표준 의학적 정의들—심장 활동의 정지, 호흡 중단, 뇌사, 기본 생명 기능의 상실—을 설명하려 애쓰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동안, 묵 선생의 시선은 그 모든 과학적 언어와 전문 용어들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것들은 모두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들, 당신들의 도구와 기계가 이 유형적인 육체 위에서 측정할 수 있는 징후들일 뿐이네." 내가 설명을 마친 후, 그가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이 육체를 활동하게 만든 바로 그 '무언가', 의식과 감정, 그리고 우리 각자의 끝없는 생각의 흐름을 만들어낸 바로 그 '무언가'... 그렇다면 그 생물학적 현상들이 멈췄을 때, 그 '무언가'는 어디로 갔는가? 그것이 과연 안개처럼 허무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것일까?"

나는 완전히 침묵했다. 이것이야말로 핵심적인 질문, 우리 현대 과학이 답을 찾기 위해 밤낮으로 고심하는 심연, 물질과 의식, 순수 생물학과 영적 삶이라 불릴 수 있는 것 사이의 지극히 위태로운 경계선이었다.

"나는 교수처럼 수술 칼이나 현미경을 쓰지 않네." 목 선생이 말을 이었다. 그의 손이 책상 위에 놓인 기묘해 보이는 물건들을 가만히 가리켰다. "내게는 '보는' 다른 도구들, 다른 방법들이 있지. 미세한 에너지의 흐름을 보고, 옛사람들이 '영혼'이나 '신식(神識)'이라 부르던, 육체를 떠난 후 남겨진 흔적들을 보고, 한 인간의 생(生) 또는 사(死)라는 사건으로 조용히 이어진 인과(因果)의 연결 고리들을 보는 것 말일세."

"에너지? 영혼이요?" 나는 나도 모르게 그 두 단어를 되뇌었다. 내가 늘 사용하던 과학 사전 밖의 단어들이었다. "선생님, 정말로 그런 것들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그는 내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고, 그저 어딘가 신비로운 미소를 살짝 지었다.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사실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며 그 자체의 법칙에 따라 운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네, 교수. 마치 바깥의 바람과 같지. 우리는 그 형태를 볼 수 없지만, 그것이 가져다주는 시원함을 느낄 수 있고, 나무와 물 표면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을 볼 수 있네. 육안으로 볼 수 없고, 기계로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닐세."

그는 품위 있게 일어나, 천천히 창가로 걸어가, 저 멀리 넓은 공동묘지의 고요하고 희미한 공간을 내다보았다.

"두 분이 이곳을 찾은 것은, 분명 마을 끝 왕 목수 노인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겠지?"

그의 질문은 사실 대답이 필요 없었다. 분명, 그는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나는 솔직히 인정했다. "저희는 그분께 일어난 일들을 통상적인 의학적 지식으로는 도저히 설명

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에게서 완전히 사망했다고 확인된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그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다니요..."

묵 선생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이제 전보다 더 아득하고 깊어진 듯했다.

"그것은 실로 아주 흥미로운 사례일세."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사람들이 '삶'과 '죽음'이라 부르는 것 사이의 경계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태롭고 복잡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꽤 전형적인 예이지. 그것은 단순히 전등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과 같지 않네. 그것은 기묘함으로 가득 찬 회전문과 같아. 그곳에서 각각의 생명은, 그들이 마음에 지닌 업장(業障)의 무게나 선량함의 빛에 따라, 완전히 다른 길로 인도되지. 그것은 수많은 요인들에 따라 다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회전문과 같아. 평범한 우리로서는 도저히 인식하기 어려운 요인들 말일세."

그는 창상 근처에 놓인 소박한 나무 의자에 앉으라는 손짓을 살짝 했다.

"만약 두 분이 정말로 더 알고 싶다면, 이 늙은이가 내 나름의 몇 가지 관점을 나눌 수는 있네. 하지만 이것은 당신들이 현대 과학 서적에서 찾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주게. 그것은 우리에게 더 열린 시각, 단순히

분석적인 이성만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자세를 요구하네."

나와 청링은 서로를 보았다. 내 안의 뿌리 깊은 과학자의 회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호기심과, 우리가 지금 완전히 다른 지식의 세계로 열리는 문 앞에서 서 있다는 느낌이 승리했다. 이 남자, 목 노 선생은, 아주 평범해 보이는 외모를 가졌지만 꿰뚫어 보는 듯한 눈과 수많은 깊은 함의를 담은 말을 하는, 분명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육체적 사망 원인을 찾기 위해 시신을 부검하는 법의학자와는 달랐다. 그는 마치 삶과 죽음 그 자체의 더 깊은 비밀들을 '해부'하는 전문가인 듯했다. 우리는 함께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침묵하며 귀 기울일 준비를 했다.

육체를 넘어선 관점

목 노 선생은 품위 있게 비취색의 작은 도자기 찻잔에 우리를 위해 차를 따랐다. 맑고 부드러운 차향이 공기 중에 퍼져나가, 방 안 특유의 낡은 종이 냄새와 마른 약초 냄새와 섬세하게 어우러져, 고요하면서도 어딘가 장엄한 느낌을

자아냈다. 그는 서둘러 설명에 들어가지 않고, 그저 작은 차 한 모금을 마셨다. 그의 시선은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열은 김을 따라 흐르다가, 깊은 사색의 층들 속에서 침전된 후, 평온한 말들로 응축되어 나왔다.

"왕 노인에게 일어났던 것과 같은 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가 이전처럼 낮고 느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마도 우리는 당신들의 현대 의학이 흔히 접근하는 방식인, 물리적 육체라는 측면에만 집중하는 관점을 잠시 내려놓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는 나무 탁자 위에 찻잔을 내려놓고, 나를 똑바로 보았다. "왕 교수님, 제가 이해하기로는, 당신들은 흔히 인체를 아주 복잡한 생물학적 기계로 여기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심장은 순환 펌프로, 뇌는 모든 활동을 제어하는 중앙 처리 장치로, 그리고 다른 기관들은 전문화된 기능들을 수행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그 기계 속 중요한 부품 하나가 멈추면, 그 기계는 '고장' 난 것으로, 즉 죽은 것으로 간주되지요."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실로 현대 의학의 아주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접근 방식이었다.

"하지만," 그가 생각에 잠긴 눈빛으로 나를 보며 말을 이었다. "무엇이 그 '기계'를 애초에 가동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진정으로 의식, 감정, 기억의 흐름, 그리고 각기 다른 성격—이 모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단지 세포와 기관의 집합체가 아닌, 진정한 '인간'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당신들의 의학은 그것을 뇌의 복잡한 기능, 무수한 화학 반응과 정교한 신경 전기 신호의 결과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과연 이야기의 전부일까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 질문들이 방 안의 고요한 공기 속에 매달려 떠다니도록 두었다.

"옛사람들의 관점,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생명의 진정한 본질을 더 깊이 탐구하는 길을 걷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르면, 이 유형적인 육체 외에, 우리 각자는 핵심적인 정신적 본체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각 문화나 인식 학파에 따라 여러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있지요. 가장 보편적이고 쉽게 상상할 수 있는 호칭은 아마 영혼일 겁니다. 수련의 길을 더 깊이 걷는 어떤 이들은 그것을 원신(元神)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진정한 자아, 생명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그것의 의식과 인식 측면을 표현하기 위해 신식(神識)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요. 이름은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은 모

두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의미의 물질이 아니며, 당신들의 과학 기구로는 무게를 재거나 측정할 수 없는, 보이지 않고 미세한 부분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생명의 핵심이며, 각 개인의 독특한 자아, 지나간 기억들, 잠재된 지혜, 그리고 아주 먼 옛 생애들로부터 온 깊은 각인들을 진정으로 담고 있는 곳입니다."

"영혼? 원신이요?" 칭링이 그 두 단어를 나지막이 되뇌었다. 그녀의 눈에는 뚜렷한 호기심과 흥미가 빛났다. "이 개념들은 저도 책이나 문화 자료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묵 선생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비록 민간에서 '영혼'이라는 단어가 때때로 사람들에게 의해 너무 많은 미신과 속설의 껍데기를 뒤집어쓰기는 했지만요. 두 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지요. 우리의 육체는 유형적인 마차와 같고, 그 영혼(혹은 원신, 신식이라 부를 수 있는)은 바로 그 마차를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마부입니다. 마차가 낡고 닳거나 어떤 이유로 멈추게 되면, 그 마부는 여전히 계속 존재하며, 적절한 기회를 기다려 다른 마차를 타고 새로운 여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말을 따라 상상하려 애썼다. 이 아이디어는 사실 내게 완전히 낯선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세계의 여러

주요 종교와 고대 철학 학파에 늘 존재해왔다. 하지만 오늘, 묵 선생처럼 박식하고 심오해 보이는 사람에게서 침착하고 명료하게 설명되는 것을 들으니, 그것은 아주 다른 무게와 설득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렇다면, 죽음은... 이 관점에서 보면 무엇입니까, 선생님?" 내가 입을 열어 물었다.

"육체의 죽음은," 그가 여전히 고른 목소리로 답했다. "바로 영혼이 그 육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순간입니다. '마부'와 '마차' 사이의 연결이 영원히 단절되는 것이지요. 그때, 물질적 육체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분해 과정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영혼은 그런 의미에서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마차를 모는' 과정 동안 축적한 모든 것—그리고 더 먼 옛 여정들로부터 온 것들까지—을 가지고 다른 존재 상태로 들어가, 또 다른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우리 둘을 유심히 보더니 말을 이었다. "그리고 각 영혼이 지니고 다니는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업력(業力)입니다."

"업력(Karma)이요?" 나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이 개념은 나도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었고, 보통 불교의 가르침과 연관되어 있었다.

"그렇습니다. 업력, 가장 간단하게 이해하자면, 바로 인과 법칙의 보이지 않는 흐름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이 생애에서의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동—심지어 지나간 생애들에서의 것들까지—이 모두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운명의 실들을 조용히 엮어내고 있지요. 선하고 좋은 행동들은 좋은 업(선업 또는 복덕이라고도 함)을 만들고, 반대로 나쁘고 그릇된 행동들은 나쁜 업(악업 또는 업장)을 만듭니다. 이 업력은 결코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축적되어 각 사람의 영혼에 단단히 달라붙어, 우리가 이 현세의 육체를 떠난 후를 포함하여, 미래에 마주하게 될 운명, 생활 환경, 그리고 모든 일들을 대부분 결정합니다."

그는 조금도 포교를 하거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강요하려는 기색 없이, 아주 명료하고 분명하게 설명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강과 같아서,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은 그 안에 쏟아지는 물 한 방울과 같습니다. 그 강은 선행의 단맛과 악행의 쓴맛을 모두 싣고 계속 흘러가며, 조만간 우리는 자신이 보았던 바로 그 물맛을 다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서야, 왕 목수 노인의 이야기로 돌아갔다.

"당신들이 들었던 왕 목수의 경우는, 실로 아주 특별합니다. 그가 갑작스러운 심장 발작을 겪고 보건소 의사에게서 사망 선고를 받았을 때, 아주 가능성 있게도, 목수로서의 한평생의 모든 업력을 지닌 그의 본래 영혼은, 삶과 죽음의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실제로 육체를 떠났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 후에 그가 '살아날' 수 있었던 건가요?" 칭링이 참지 못하고 바로 물었다.

"이것이야말로 이 사건의 복잡한 점이자 희유한 점입니다." 목 선생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살짝 낮아졌다. "아주 드문 경우지만, 영혼이 떠나 육체가 막 '비게' 되었으나 그 육체 자체가 아직 분해를 시작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인연, 시간, 공간, 그리고 업력의 보이지 않는 흐름 등 아주 정교하고 복잡한 요소들이 한데 모이는 조건 하에서, 다른 영혼—아마도 아직 갇지 못한 전생의 빛이 있거나, 혹은 먼 옛날의 약속이나 사명 때문에—이 찾아와 방금 비워진 그 육체를 다시 차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거의 얼어붙었다. "선생님의 뜻은... 민간에서 흔히 말하는 '차시환혼'이라는 현상 말입니까?"

"민간에서는 그렇게 부르지요." 그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해주었다. "하지만 그 더 깊은 본질은 아마도 여전히 업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겁니다. 아주 가능성이 있게도, 이 새로운 영혼은 바로 이곳에서 갇아야 할 아주 큰 업의 빔을 지고 있거나, 혹은 전생에 완수하지 못한 특별한 사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인이 막 떠나버린 육체를 '빌리는' 것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지만, 그것은 지극히 드물고 아주 많은 복잡한 인연의 요소들이 동시에 모여야만 합니다."

"그것이 왕 노인께서 살아나신 후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군요?" 나는 이 완전히 비합리적으로 보였던 사건의 실마리에서 약간의 논리가 드러나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전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목 선생이 고개를 끄덕였다. "새로운 영혼이 들어오면, 그것은 자신의 모든 기억, 지식, 성격, 그리고 업력 자체를 가지고 옵니다. 그것은 왕 노인의 이전 목수로서의 삶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으므로,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도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그것은 또한 아주 먼 전생으로부터 온 지식이나 특별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옛 한자를 읽고 쓰거나, 수행의 도리에 대한 시를 짓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또한 업력이나 이전 생애들의 수행을 통해 얻은 특별한 능력들을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곧 일어날 일을 감지하거나 다른 사람 몸속의 잠재된 질병을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이 '시체를 빌리는' 일은 보통 결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영혼과 낡은 육체 사이의 연결이 완전히 호환되지 않을 수 있고, 이는 외부인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어리숙한 상태, 정신이 온전했다 흐려졌다 하는 상태, 혹은 다른 기이한 표현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영혼은 여전히 자신이 지닌 모든 업력과, 또한 바로 이 육체와 관련된 남은 업력의 일부에 의해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묵 노선생의 설명은 마치 내 눈앞에 완전히 다른 문을 열어, 이 모든 사건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듯했다. 그것은 내가 늘 알아왔던 죽음의 생물학적 징후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위에 더 깊은 의미의 층, 존재의 또 다른 차원—즉 영혼과 업력—을 덧붙였다. 이 설명은, 비록 믿기 어려워 보였지만, 우리 현대 의학이 완전히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왕 노인 이야기의 아주 비합리적인 점

들—기적적인 '부활'과 그 이후의 인격, 지식, 그리고 특별한 능력의 완전한 변화—을 설명할 수 있었다.

비록 내 안의 뿌리 깊은 과학자의 이성 여전히 이것들의 진실성, 검증 가능한 구체적인 증거들에 대해 수많은 질문과 회의로 가득했지만, 나는 이 설명이 우리 현대 의학이 설명할 수 없었던 사건의 측면들을 건드리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나는 칭링을 보았다. 그녀는 목 노선생을 향해, 눈을 크게 뜨고 주의 깊게 듣고 있었다. 그녀의 동양 문화와 철학에 대한 배경 지식으로, 나는 영혼과 업력이라는 이 개념들이 그녀에게 그리 낯설지 않으리라 짐작했다. 비록 이것들이 이렇게 생생하고 구체적인 사례와 연결되어 설명되는 것을 듣는 것은 처음일지라도.

방 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오직 찻주전자에서 물이 아주 희미하게 보글거리는 소리와 우리 세 사람의 가벼운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목 노선생의 말들은 여전히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 맴돌고 있었다. 완전한 해답이라기보다는, 내가 이전에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아주 광대한 그림, 하나의 세계관의 첫 스케치 같았다.

회의와 깨달음 사이에서

묵 노선생의 묵조 주택 문턱을 나서는 순간, 나는 마치 아주 다른 세계에서 막 돌아온 듯한 기분을 느꼈다. 바깥 공기는 여전히 청시 마을 변두리의 익숙한 정적이었지만, 이제는 만물 위에 보이지 않는 열은 안개층이 드리워진 듯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어떤 무거운 것이었다. 이곳을 찾아왔을 때의 초기 호기심, 심지어 약간의 흥분마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를 나와 청링 사이에 형언하기 힘든 짙은 침묵이 감쌌다. 우리는 울퉁불퉁한 돌길 위를 나란히 걸었다. 우리 둘의 신발 밑에서 자갈 부서지는 소리가 어찌나 또렷하게 들리는지, 마치 완전히 뒤집힌 내면세계에 존재하는 유일한 소리인 듯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청링도 침묵했다. 우리 둘 다 각자의 공간이, 낡은 종이 냄새와 약초 향이 은은하던 그 작은 방에서 듣고 느꼈던 모든 것을 천천히 소화할 시간이 더 필요했다. 지금 내 머릿속은 낡은 다큐멘터리 필름처럼, 묵 선생의 말과 모습을 끊임없이 되감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필름이 다시 상영될 때마다, 내 마음속에 고뇌에 찬 의문들을 더욱 깊이 새기는 듯했다. 영혼? 업력? 차시환혼?

이 모든 개념들은, 이전까지 내게는 그저 기이한 소설이나 민간 신앙 연구 논문 속에나 존재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총명한 눈빛과 지극히 침착한 풍모를 지닌 한 남자에 의해, 그것들이 내가 늘 알아왔던 유형의 물질세계와 나란히 운행하는 보이지 않는 법칙, 명백한 사실인 것처럼 제시되었다.

말도 안 돼! 내 안의 고집스러운 이성—엄격한 과학 연구를 통해 수년간 단련된 그 부분—이 여전히 맹렬히 반대하며 소리치고 있었다. 마치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내 인식을 침범해 오는 회의의 물결에 맞서 마지막 성벽을 쌓으려는 듯했다. 구체적인 증거는 어디에 있는가? 검증 가능한 데이터는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내가 이처럼 모호하고 비물질적인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인가? 내가 배우고 목격해 온 바에 따르면, 죽음은 명확한 생물학적 현상이며, 기본적인 생명 기능의 돌이킬 수 없는 종결이다. 나는 내 경력 동안 수백 번 그것을 목격했고, 수많은 사망 진단서에 서명했으며, 환자의 가족들에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의학 용어로 설명해야 했다. 그것은 지식의 기반이며, 여러 세대에 걸쳐 과학이 증명한 진실이었다.

하지만 그때, '부활' 후 기이한 변화를 겪은 왕 목수 노인의 모습이 내 마음속에 아주 선명하게 떠올랐다. 거부할 수

없는 도전처럼. 전문 의사에게서 거의 하루 동안 임상적으로 사망했다고 확인된 몸. 평생 흠 묻히며 살아와 글을 겨우 읽고 쓰는 정도였던 목수가, 갑자기 '깨어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심오한 고대 지식과, 평범한 사람이 볼 수 없는 것들을 꿰뚫어 보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뇌 손상? 장기간의 뇌 산소 부족? 내가 떠올릴 수 있는 모든 익숙한 의학적 설명들이 이제는 어딘가 어색하고 미약하게 들렸다. 마치 너무 큰 몸에 억지로 작은 옷을 입히려는 것처럼. 그것들은 그 새로운 지식과 능력들의 갑작스러운 출현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었다.

그리고 목 노선생 또한... 그는 내가 흔히 상상하던 점쟁이나 무당과는 전혀 달랐다. 인위적인 신비감도, 공허하고 현혹적인 난해한 말도 없었다. 오직 기묘할 정도의 침착함, 눈 속에 어른거리는 통찰력, 그리고 아주 황당해 보이는 개념들을 서로 연결하여 비정상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방식의 무서울 정도의 논리적 명료함만이 있었다. 그는 혈관 속 피의 흐름이나 뇌 속 신경 신호의 전달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영혼과 업력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했다. 바로 그 평온함, 과장하거나 꾸밈 필요 없는 그 확신이, 나를 더욱 혼란스럽고 당황하게 만들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손을 들어 관자놀이를 가만히 눌렀다. 내가 늘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자부해왔던 사고의 기반 자체가, 실은 맹렬히 흔들리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내가 늘 완전하고 옳다고 여겼던 세계관이, 사실은 너무나 편협하고 일면적이었던 것은 아닐까? 우리의 연구 도구가 현재 유형의 물질세계만을 측정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다른 차원의 현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인간의 운명을 조용히 지배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법칙들의 존재를 선불리 부정해 버린 것은 아닐까? 며칠 전 산 정상에서 은사를 만났던 일은 내 마음에 첫 회의의 씨앗을 심었고, 이제 묵 노선생은 그 위에 강력한 물줄기를 부어, 그 씨앗들이 꿈틀거리며 싹트게 만든 듯했다. 나는 마치 지금까지 작은 웅덩이를 통해 그 존재를 알았던, 광대하고 신비로운 지식의 대양 앞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나는 살며시 칭링을 훑쳐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내 옆에서 천천히 걷고 있었고, 시선은 발밑의 고풍스러운 돌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나는 그녀의 마음이 지금 그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녀의 수려한 눈썹이 살짝 찌푸러졌고, 이따금 입술을 꼭 다무는 것이 마치 복잡한 생각의 흐름과 싸우고 있는 듯했다. 동양 문화에 대한 그녀의 깊은 지식으로, 그녀는 이런 것들을 나보다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면 바로 그 지식 때문에 이

일이 더욱 복잡하고 설명하기 어렵게 느껴지는 것일까?
나는 목 선생의 집에 있을 때의 그녀 눈빛을 문득 떠올렸다. 처음에는 호기심, 그 후에는 약간의 경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깊은 사색. 그녀는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방금 들은 개념들과 마주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지식과 섬세한 감각을 총동원하고 있는 듯했다.

"무슨 생각 해요, 밍?"

칭링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마침내 우리 사이의 긴 침묵을 깨뜨렸다. 그 목소리는 약간 머뭇거렸는데, 마치 그녀 자신도 어떤 대답을 듣고 싶은지 확신하지 못하는 듯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새날의 아침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그녀의 수려한 얼굴 위에서 춤추는 빛의 조각들을 만들었지만, 그녀의 눈에 뚜렷이 나타난 우수를 걷어내지는 못하는 듯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지금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혼란을 표현할 단어를 찾으려 애썼다.

"나... 나도 정말 모르겠어, 링." 나는 약간 지친 목소리로 솔직하게 답했다. "마치... 마치 내가 절대적으로 정확하다고 믿었던 세계 지도 한 장이, 갑자기 새하얀 백지가 되어 버리고, 나는 완전히 낯선 땅, 이전에 꿈도 꾸어보지 못했던 지평선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아. 낯은 지도에는 전혀

기록되지 않은 새로운 땅, 새로운 길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어."

칭링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나를 향한 깊은 공감으로 가득했지만, 그녀 자신의 당혹감 또한 감출 수 없었다. "이해해요." 그녀가 작게 말했다. "저도 비슷한 기분이예요. 영혼, 업보에 대한 개념들... 예전에도 책에서 여러 번 읽어봤고, 보통 민간 신앙의 일부나 고대 철학 학파의 것으로만 여겼어요. 하지만 묵 선생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 또 왕 노인 이야기와 직접 연결되니... 더 이상 공허한 이론 같지가 않아요. 그것은 생생하고, 구체적이며... 어딘가 기묘하게 무서워졌어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가, 거의 혼잣말처럼 말을 이었다. "마치 거울을 통과한 것 같은 기분이예요. 주위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아 보이지만, 그것들의 본질은 아주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우리는 다시 침묵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 사이의 공기가 더 이상 각자의 회의로 무겁지 않았다. 마치 둘이 함께 한 방향을 바라보며, 막 닥쳐온 아주 거대한 무언가에 함께 맞서고 있는 듯한, 조용한 연결이 있었다.

길이 넓어지고 마을의 익숙한 일상 소리가 점점 더 뚜렷하게 들려오는 골목 어귀에 가까워졌을 때, 내 눈은 우연히 작은 형상 하나를 발견했다. 이끼 끼고 낡은 돌담 위, 가냘

프지만 아주 끈질긴 야생화 한 줄기가, 차갑고 축축한 틈새를 뚫고 희미한 햇살 한 줄에 닿으려 애쓰고 있었다. 모든 역경을 이겨내는 불멸의 생명력에 대한 조용한 증거처럼. 그 작은 꽃잎들의 연보랏빛은 잿빛 돌 배경 위에서 선명하게 두드러졌고, 모든 혹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아주 강렬한 표현 같았다. 나는 나도 모르게 멈춰 서서 그것을 한참 바라보았고, 마음속에 아주 모호한 생각이 떠올랐다. 이 생명은... 과연 단순히 복잡한 화학 반응과 세포 분열의 결과일 뿐일까? 아니면 그것은 어떤 의지, 어떤 보이지 않는 에너지,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늘 자신을 표현하고, 늘 존재하려 애쓰는 그런 것일까?

나는 그 갑작스러운 생각을 칭링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 작은 야생화의 이미지와, 묵 노선생의 의미심장한 말들이, 내 마음속에 아주 오랫동안 남아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작은 마을 칭시의 익숙한 소리들이 더 뚜렷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을 때, 나는 우리가 일상 세계로 돌아왔음을 알았다. 하지만 내 안의, 그리고 아마 칭링 안의 무언가는, 더 이상 완전히 예전 같지 않았다. 내 안의 뿌리 깊은 과학자의 회의는 여전히 강하고 이성적으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옆에, 아주 좁은 문틈 하나가 정말로 열려, 이전에는 감히 생각해 본 적 없는 가능성들의 땅으로 이끄는 듯했다. 존재의 본질에 대한 질문들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고 더 깊어졌다.

* * *

제 5 장: 시간이 멈춘 마을

잊힌 땅에서의 열사흘간의 잠

묵 노선생과의 강렬한 만남과, 청시 마을에서 들었던 영혼과 업력에 대한 충격적인 해석 이후, 나와 칭링은 모두 진정한 고요의 시간을 찾아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은사가 있던 산 정상에서부터 왕 노인의 '차시환혼' 이야기까지, 쉴 새 없이 이어진 경험들은 우리 둘의 기존 사고방식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다. 우리는 믿음의 파편들을 다시 정리하고, 눈앞에 막 드러난 무수한 거대한 질문들과 마주하기 위해, 시간이, 아주 고요한 공간이 필요했다.

묵 노선생과의 마지막 대화에서, 우리가 며칠간 마음을 가
라앉힐 조용한 곳을 찾고 싶다는 뜻을 비쳤을 때, 그는 그
저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무심결에 꽤 낯선 지명
하나를 언급했다. "망우진(忘憂鎭)". 그는 그곳에 대해 많
은 말을 하지 않았고, 그저 살며시 미소 지으며, 그곳에서
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때때로 시간이 기묘하게 늘어났다
줄어들기도 하고, 속세의 번뇌를 잊기도 더 쉽다"고 말했
다. 그 반쯤 농담 섞인 듯한 말과, 듣기만 해도 많은 것을
연상시키는 "망우"(근심을 잊음)라는 이름은, 우리 마음속
에 형언할 수 없는 호기심을 조용히 심어주었다.

망우진으로 가는 길을 찾는 것은 실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곳은 일반적인 관광 지도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았고,
우리가 물어본 인근 마을 사람들도 그저 어떤 외딴 골짜기
가 있다는 것만 막연하게 알 뿐이었다. 우리의 여정은 기
차로 시작하여, 낡은 시골 버스로 갈아타고 구불구불한 고
갯길을 덜컹거리며 달린 끝에, 마침내 높은 산맥 바로 아
래에 자리한 작고 외딴 마을에 멈춰 섰다. 여기서 망우진
에 가려면, 현지 청년 한 명을 고용하여 그가 직접 만든 삼
륜 오토바이를 타고 울퉁불퉁하고 험한 흙길을 넘어가야
했다.

우리가 망우진 골짜기 가장자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있었다. 나와 청링은 하루 종일 계속된 이동으로 지쳐 있었다. 멀리서 보이는 망우진의 풍경은, 저녁 안갯속에 모습을 드러낸 짙은 갈색 기와지붕들이, 고풍스럽고 어딘가 세상과 단절된 듯 아름다웠다. 길을 안내한 청년은 우리를 마을 어귀의 한 인정 많은 현지인 가족에게 소개해 주었다. 그 집에는 길 잃은 나그네를 위해 늘 비워두는 소박한 작은 방이 하나 있었다.

주인 가족은 중년 부부와 어린 아들 하나였는데, 낯선 손님을 거의 본 적 없는 산골 사람 특유의 수줍음이 약간 있었지만 우리를 아주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들은 재빨리 흰 쌀밥, 데친 산나물, 그리고 약간의 짠 시냇물고기 조림으로 된 소박한 저녁상을 차려주었다. 너무 피곤했던 탓에, 나와 청링은 둘 다 많이 먹지 못했다. 저녁 식사 직후, 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무거운 졸음이, 빠르고 강하게, 도저히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둘에게 갑자기 덮쳐왔다. 나는 머리가 핑 돌고,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다가, 모든 것이 불확실한 공간 속으로 가라앉았던 느낌만을 어렴풋이 기억할 뿐이다. 의식을 완전히 잃기 전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간 마지막 생각은, 이곳의 공간이 참으로 고요하다는, 이상할 정도로 고요하다는 것이었다.

나는 문득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이 이상할 정도로 가뿐하고 상쾌했다. 마치 아주 깊고 편안한 잠을 자고 일어난 것 같았다. 머리는 완전히 맑았고, 피로감 하나 남아있지 않았다. 긴 여행 후의 평소 나른한 아침과는 전혀 달랐다. 나는 가만히 몸을 뒤척이며 소박한 목조 방을 둘러보았다. 아침 빛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바닥 위로 옅은 황금빛 햇살을 드리우고 있었다.

칭링도 옆에서 막 깨어나, 나와 비슷한 표정으로 멍하니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어딘가 생기 있고 가뿐해 보였다.

"잘 잤어?" 내가 나지막이 물었다. "몸이 이상하게 개운하고, 머리도 아주 맑네. 잠깐 눈만 붙인 것 같은데, 정말 놀랍군!"

칭링이 고개를 끄덕이며, 가만히 눈을 비볐다. "나도 그래요. 아주 가뿐해요. 근데 이상하네, 방금 아주 선명하고 생생한 꿈을 꿔요."

"꿈?" 나는 놀랐다. 나는 보통 꿈을 잘 기억하지 못했다. "무슨 꿈을 꿔는데?"

"우리 둘이 하얀 안개로 뒤덮인 골짜기에서 길을 잃는 꿈이었어요." 칭링이 여전히 약간 몽롱한 목소리로 이야기

했다. "그러다 아주 높은 산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을 찾았죠. 그 산 정상에는, 처마 끝이 솟아오른 아주 장엄한 고찰이 있었어요.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니, 노란 가사를 입은 많은 스님들이 단정히 앉아 경을 외고 계셨어요. 장엄한 경문 소리, 종과 목탁 소리가 울려 퍼지고... 아주 평화롭고, 아주 맑은 느낌이었는데, 어딘가 아주 익숙했어요. 마치 내가 전에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나는 청링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동요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실로, 나 또한 방금 거의 똑같은 꿈을, 세세한 부분까지 선명하게 꿈 참이었다. 하지만 내가 그녀에게 그 사실을 미처 말하기도 전에, 방문이 살며시 삐걱거리며 열렸다.

여주인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죽 두 그릇과 소박한 데친 나물이 담긴 작은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아, 귀한 손님들께서 일어나셨군요. 속을 덥히시게 죽 좀 드세요. 배도 많이 고프시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나는 그녀의 세심함에 조금 놀라며 말했다. "저희가 너무 깊이 잠들었나 봅니다. 폐를 끼쳤네요."

여주인은 그저 손을 내저으며 웃었다. "폐는요. 꼭 주무셨다니 다행이지요. 두 분이 너무 깊이 잠드셔서, 저희도 감히 깨울 수가 없었습니다."

"네, 저희가 거의 정오까지 잔 모양이네요, 그렇죠?" 칭링이 햇살이 꽤 높이 솟은 창밖을 보며 물었다.

여주인은 우리를 보았다. 그녀의 눈에 약간의 망설임이 스치더니,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저... 두 분... 말씀드려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오늘이 두 분께서 여기 오신 지 열나흘째 되는 날입니다."

"열... 열나흘이요?!" 나와 칭링은 둘 다 경악에 찬 목소리로 동시에 외쳤다. 내 귀를 믿을 수 없었다. 나는 서둘러 손목시계를 보았다. 시계는 언제인지 모르게 멈춰 있었고, 아마 배터리가 오래전에 다 된 모양이었다. 칭링도 급히 자기 휴대폰을 꺼냈지만, 화면은 까맣고, 신호는 전혀 없었다.

"아주머니... 정말입니까?" 나는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듯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더듬거리며 되물었다. "저희가... 저희가 열사흘 밤낮을 내리 잤단 말입니까?"

여주인은 기묘할 정도로 평온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습니다. 처음 며칠간 두 분이 깨어나지 않으셔서 저희도 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마을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길, 아주 먼 옛날에도, 먼 곳에서 온 낯선 손님이 와서 그렇게 긴 잠을 잔 경우가 한두 번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이곳 산림의 공기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고, 어떤 이는 수행할 근기가 있고 이 산의 신불(神佛)과 인연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하더군요. 두 분의 숨소리가 규칙적이고, 얼굴색도 혈색이 돌아서, 저희도 감히 많이 방해하지 않고, 가끔씩 들여다보며 입술이 너무 마를 때 묶은 죽물만 조금 적셔드렸을 뿐입니다."

열사흘! 열사흘 밤낮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흘러갔고, 느낌은 그저 짧은 잠, 스쳐 지나간 꿈만 같았다. 더 믿을 수 없는 것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거의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는데도(그 약간의 묶은 죽이 어떻게 몸을 유지할 수 있었겠는가), 우리는 전혀 허기지거나 기진맥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히려, 나는 이상할 정도로 건강하고 명민함을 느꼈다. 마치 몸이 어떤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채워진 것 같았다. 심지어 화장실에 가고 싶은 느낌조차 전혀 없었다.

나는 청링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도 극도의 경악과 놀라움, 그리고 형언하기 힘든 무언가가 뒤섞여 있었다. 고찰에 대한 꿈, 장엄한 염불 의식에 대한 꿈...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지난 열사흘 동안, 우리는 그 깊은 무의식의 잠 속에서, 정말로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겪었던 것일까?

내 안의 과학자의 이성엔 이것이 완전히 비논리적이며, 내가 아는 어떤 생물학적 법칙으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현실과, 여주인의 꾸밈없는 진솔한 말들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들었다.

망우진. 이 땅은, 묵 노선생이 암시했던 것들을 훨씬 뛰어넘는, 더 많은 비밀과 기이한 일들을 품고 있는 듯했다.

시간과 노화에 대한 남다른 경험 또는 관념을 가진 사람들

밤새 잠을 설쳤다. 낮선 잠자리 탓도 있었지만, 아마 어제 오후부터 마음속에 남아 있던 망우진의 아주 다른 시간의 리듬감 때문이 더 컸을 것이다. 나와 칭링은 이른 아침 첫 햇살이 나무 창문 틈으로 겨우 스며들 때 잠에서 깼다. 이곳의 아침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맑았고, 근처 강에서 올라온 약간의 습기와 산간 지방 특유의 쿼퀴한 흙냄새를 품고 있었다. 다른 곳에서는 이 시간이면 흔히 들리는 소음과 북적임과는 달리, 망우진은 여전히 거의 완벽한 정적에 잠겨 있었다. 오직 멀리서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귀음과 강물의 잔잔하고 졸졸 흐르는 소리만이 그 광활한 고요함을 깨는 드문 소리였다.

우리는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이름을 알게 된, 백발의 여관 주인 임(林) 씨 할머니가 툇마루 앞 작은 흙마당을 여유롭게 쓸고 있었다. 햇살이 이미 꽤 높이 솟았음에도, 그녀의 빗자루질은 서두름 없이 윤택적이었고, 마치 마당 위에 정적의 선을 그리고 있는 듯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눈처럼 희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많았지만 눈은 수정처럼 맑고 아주 총명했다. 손등에는 검버섯이 드문드문 있었지만, 내가 흔히 보던 같은 연배의 노인들처럼 건조하거나 주름지지는 않았다. 그녀는 가볍고 우아하게 움직였고, 노년의 피로나 무거움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좋은 아침입니다, 귀한 손님들." 그녀는 우리를 보고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 또한... 이곳의 모든 것처럼 느꼈다. "어젯밤은 편히 주무셨는지요?"

"네, 안녕하세요. 잘 잤습니다." 칭링이 대답했다. 나는 그녀의 목소리 또한 나도 모르게 더 부드럽고 차분해진 것을 알아챘다. "이 망우진은 정말 평화롭네요, 할머니."

"평화로울 수밖에요." 임 할머니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여전히 규칙적으로 빗자루질을 계속했다. "이곳에서는 서두르거나 조급해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할머니, 이곳에 아주 오래 사셨지요?" 나는 이 특별한 외모와 풍모를 지닌 여인에 대한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고 불쑥 물었다.

임 할머니는 빗자루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그녀의 맑은 눈은 상대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볼 듯했다.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마치 아득한 기억 속에서 무언가를 더듬어 찾는 듯했다. "오래되었지."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목소리는 아주 먼 곳에서 울려오는 듯했다. "너무 오래되어서, 이 늙은이도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비바람이 지나갔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네. 이 망우진에서는, 사람들이 날짜나 달을 세는 습관이 없어요. 그저 그

렇게 살 뿐이지, 하루가 또 다른 하루로 이어지고, 계절이 또 다른 계절로 이어질 뿐."

그녀의 다소 모호한 대답에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얼마나 살았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니? 아니면 그것에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것일까? 그것은 시간과 삶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관념과는 정말로 너무나 달랐다. 그녀는 다시 살짝 미소 지었다. 어딘가 신비로운 미소였다. "이곳의 시간은 저 강물과 같다네. 때로는 바위를 지나 세차게 흐르다가도, 때로는 잔잔한 굽이에서 속삭이듯 조용히 흐르지. 하늘 전체를 비추는 거울처럼 깊은 곳도 있고, 우리 육안으로는 전혀 볼 수 없는 물줄기가 지하에서 소용돌이치는 곳도 있다네. 시간도, 아마 그와 같을 거야. 끝없는 노래처럼, 결코 멈추지 않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특별한 흐름을 느낄 만큼 충분히 고요한가 하는 것일 뿐."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다시 자기 일을 계속했고, 우리는 끝없는 생각에 잠긴 채 그곳에 남겨졌다. 그녀의 말은 언뜻 듣기에는 아주 단순해 보였지만, 내가 아직 온전히 파악할 수 없는 시간의 깊은 철학을 품고 있는 듯했다.

임 할머니가 직접 준비해주신, 뭇게 쏜 흰죽과 깨소금에 찍어 먹는 데친 산나물 몇 가지로 된 소박한 아침 식사 후, 우리는 마을 사람들의 삶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마을

을 한 바퀴 둘러보기로 했다. 그리고 과연, 이곳에서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한 느낌은 내 마음속에서 점점 더 뚜렷해졌다. 길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뿔마루에 앉아 따스한 햇볕을 쬐는 노인들, 등에 아이를 업고 이른 시장에 가는 여인들, 그리고 부지런히 대나무 울타리를 고치거나 초가 지붕을 잇는 남자들까지—그들 모두에게는 아주 공통된 풍모가 있었다. 그것은 여유로움, 차분함, 그리고 삶의 어떤 압박에도 쫓기지 않는 듯한 모습이었다.

우리는 강 지류가 흐르는 독가에 겸손하게 자리 잡은 작은 도자기 공방 앞에서 꽤 오래 멈춰 섰다. 안에서는 오십 대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낡은 물레 앞에 골똘히 앉아, 두 손으로 붉은 갈색의 찰흙 덩어리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빚고 있었다. 그의 동작은 지극히 집중되고 세심했지만, 아주 여유롭고 자유로운 리듬을 띠고 있었다. 마치 그의 손길 하나하나가 대지의 생명력과 함께하는 느리고 규칙적인 호흡인 듯했다. 그의 능숙한 손 아래서 점차 형태를 갖추어가는 도자기는 아주 소박하고 단순하지만, 또한 아주 조화롭고 균형 잡힌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그의 주위에는 이미 완성되었거나 아직 미완성인 수많은 다른 도자기 제품들이 널려 있었는데, 크기와 모양이 다양했고, 모두 우리가 이전에 본 적 없는 어떤 도자기와도 다른 아주 독특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문밖에서 서성거리며 구경하는 것을 보고, 그가 고개를 들어 아주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두 분, 먼 곳에서 오신 손님이지요?"

"네, 저희는 미국에서 왔습니다." 내가 답했다. "도자기가 정말 아름답네요. 이 일은 분명 아주 큰 인내심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그는 껄껄 웃었다. 눈가에 깊은 주름이 잡히는 웃음이었지만, 눈은 아주 밝았다. "인내심이라? 이 늙은이는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네. 그저 그것의 자연스러움을 따를 뿐이지. 흠이 어떤 모양이 되고 싶어 하면, 내 손은 그저 그것에 맞춰 따라갈 뿐이야. 작품을 빨리 완성하느냐 늦게 완성하느냐가, 그 도자기가 자기만의 '흔'을 갖느냐보다 중요하지는 않지."

나는 선반 위에 정중하게 놓인, 아주 아름다운 비취색 유약의 도자기병 하나를 가리켰다. "이 병은, 분명 만드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겠지요?"

그는 내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자신의 정신적 자식을 보는 듯 애정이 가득했다. "그걸 만드는데 걸린 시간이요?" 그는 다시 웃더니,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솔직히 이 늙은이도 이제 기억이 안 나

네. 몇 주가 걸렸을 수도 있고, 몇 달이 걸렸을 수도 있지.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자기가 완전히 그것에 몰입할 때, 시간은 마치 그것에 맞춰 멈추는 것 같아. 시작과 끝만 알 수 있을 뿐이지. 그 중간 과정은, 끊임없는 흐름과 같아서, 굳이 재거나 계산해서 머리 아플 필요가 없네."

문화와 예술에 대한 타고난 감수성을 지닌 칭링은 이 독특한 도자기 제품들에 큰 흥미를 보였다. 그녀는 그에게 현지 고유의 도자기 기술, 그가 사용하는 찰흙의 출처, 병에 새겨진 문양의 의미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모든 질문에 기꺼이 답해주었지만, 우리가 무심코 시간이나 그의 경력, 혹은 바깥세상의 빠른 변화에 대해 언급했을 때, 그는 꽤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바깥세상은 지금 아주 빨리 변하겠지요?" 그가 우리에게 되물었다. "거기 사람들은 늘 어딘가로 서둘러 가고, 무언가를 아주 빨리 하려고 하지. 하지만 우리 이 망우진에서는, 모든 것이 그저 그렇게 천천히 일어날 뿐이라네. 해가 뜨고 지고, 나무가 싹을 틔우고 계절 따라 잎을 갈지. 서두를 게 아무것도 없다네."

나는 이 도예가를 유심히 보았다. 그는 아주 강건하고 건강해 보였고, 비바람에 그을린 검은 피부에, 손은 노동으

로 거칠었다. 하지만 무언가 잘 맞지 않는 듯했다. 만약 그가 정말 걸모습처럼 오십 대에 불과하다면, 저 고풍스러운 스타일과 뚜렷한 시간의 흔적을 지닌 도자기 제품들은 누가 만든 것일까? 아니면, 이 남자는 사실 자신의 건장한 외모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것일까? 나는 그가 언짢아할까 봐 감히 직접 묻지는 못했지만, 그 질문은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다.

작은 도자기 공방을 떠나, 우리는 강가를 따라 산책했다. 거대한 고목 아래, 무성한 잎사귀가 넓은 흙마당 전체를 덮은 그늘에서, 노인 몇 분이 한가롭게 바둑을 두고 있었다. 돌로 만든 바둑판은 세월에 닳아 반들반들했고, 흑백의 바둑돌 하나하나 또한 윤기가 흘러, 마치 그 안에 수많은 고요한 오후가 담겨 있는 듯했다. 노인들은 아주 천천히 바둑을 두었고, 한 수 한 수를 지극히 신중하게 생각했으며, 때로는 오후 내내 겨우 서너 수만 두기도 했다. 주위 공기는 지극히 고요했고, 오직 돌판 위에 바둑돌을 놓을 때 나는 "탁" 하는 마른 소리와, 노인들의 고르고 부드러운 숨소리만이 들렸다.

우리는 한참 동안 조용히 구경했다. 나를 기묘하게 만든 것은 노인들의 대화였다. 그들은 단지 판 위의 현재 형세에 대해서만 논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주 먼 옛날에

일어났던 일들을, 마치 바로 어제 일어난 것처럼 자연스러운 어조로 언급했다. 한 노인은 어느 해인가 이 지역 전체를 파괴했던 큰 홍수에 대해 언급했고, 다른 노인은 자신이 젊었을 때의 풍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과거와 현재가 그들의 의식 속에서 더 이상 명확한 경계가 없는 것 같은 기묘한 느낌을 받았다. 그들에게 시간은 과연 완전히 다른 흐름인 것일까?

"알아했어요?" 칭링이 내 귓가에 속삭였다. "어르신들이 수십 년 전 일을 마치 바로 어제 일처럼 이야기해요. 그리고 저것 좀 봐요. 머리는 백발이고 피부는 주름졌지만, 정신은 아주 총명하시잖아요. 우리가 다른 노인들에게서 흔히 보는 노망이나 쇠약함의 기색이 전혀 없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랬다. 이 노인들은, 분명히 나이가 아주 많을 텐데도, 심각한 지적 능력이나 건강의 쇠퇴 징후가 전혀 없었다. 그들은 여전히 아주 총명했고,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활기찼으며, 아주 평온하게 공동체 생활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곳의 노화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듯했다. 더 느리고, 내가 흔히 보던 쇠락의 기색이 짙지 않았으며, 오히려 정신의 성숙과 침전 같았다.

망우진 사람들과 더 많이 접촉할수록, 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들이 시간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방식, 그들이

신체의 노화에 대처하는 방식은, 내가 이전에 알던 모든 것과 완전히 달랐다. 그것은 시간의 흐름을 부정하거나 저항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의 그 존재 자체를 잊어버릴 정도의 조화와 수용인 듯했다. 그들은 시간과 경주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훨씬 더 잔잔하고 고요한 다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진정으로 살고 있는 듯했다.

의사로서, 나는 신체의 생물학적 노화 과정이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세포는 점차 늙고, 기관의 기능은 점차 쇠퇴하며, 질병 또한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조물주의 법칙이다. 하지만 이 망우진에서는, 그 법칙이 휘어지거나, 적어도 아주 현저하게 느려지고 있는 듯했다. 맑고 고립된 생활 환경, 늘 고요한 분위기, 그리고 유유자적한 삶의 태도가 정말로 그 생물학적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일까? 아니면, 이 골짜기 깊은 곳에 아직 숨겨진 또 다른 요소, 시간과 공간의 본질 그 자체와 밀접하게 관련된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

나는 칭링을 보았다. 그녀의 눈 속에도 나와 비슷한 질문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 마치 우리는 시간이 의도적으로 잊어버린, 바깥세상의 익숙한 법칙들이 더 이상 큰 의미를 갖지 않는 땅에 길을 잃고 들어선 기분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난 사람들, 세월 앞에서의 기묘한 평온함과 시간에

대한 아주 다른 관념을 가진 그들은, 이곳의 신비를 내 마음속에 더욱 짙게 만들었다.

신축하는 시간과 또 다른 차원의 공간?

망우진의 오후는 아주 다른 길이로 늘어나는 듯했다. 황금빛 햇살이 마치 얇은 명주실처럼, 이끼 낀 고풍스러운 기와지붕 위에, 그리고 조용히 흐르는 강물 위에 부드럽게 머물러 있었다. 내 시계에 따르면 어둠이 이미 가까이 와야 했음에도, 여전히 차마 완전히 스러지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듯했다. 우리는 여관 뒷마루에 놓인 나무 벤치에 앉아, 조용히 강을 바라보며 이곳의 기묘하고 잡기 힘든 리듬을 느끼려 애썼다. 세월에 서두르지 않는 듯한 마을 사람들 이야기, 노화마저 더디게 진행되는 듯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마음속을 맴돌았다.

여관 주인 임 할머니는 오후 일을 마치고, 작은 의자 하나를 가지고 와 우리 옆에 앉았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대나무 살 부채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우리 둘을 보았다. 온화한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주 기묘한 이해심이 담겨 있었다.

"귀한 손님들께서 우리 이 망우진에 대해 생각이 많으신 모양이구려." 그녀가 언제나처럼 고르고 느긋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칭링이 그녀를 돌아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할머니, 이곳은 정말 특별합니다. 저희 느낌에... 여기 시간은 다른 곳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느리게 흘러가고, 이곳 사람들은 그 리듬에 아주 조화롭게 사는 것 같습니다."

임 할머니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시선은 계곡 끝 안갯속에서 희미해지는 산맥을 향해 멀리 뻗어 있었다. "시간이라?" 그녀는 그 단어를 되뇌었다. 마치 아주 친숙하면서도 어딘가 낯선 개념인 듯했다. "바깥사람들은 시계로 그것을 재고, 시시각각 명확하게 나누지요. 하지만 이 망우진에서는, 우리는 보통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느낀다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느긋하게 흐르는 강물을 내려다 보았다. "옛사람들은 이곳에서 그것을 이 강물에 비유하곤 했지. 어떤 구간은 여울을 지나 세차게 흐르다가도, 어떤 구간은 잔잔한 굽이에서 속삭이듯 조용히 흐르네. 하늘 전체를 비추는 거울처럼 깊은 곳도 있고, 우리 육안으로는 전혀 볼 수 없는 물줄기가 지하에서 소용돌이치는 곳도 있

지. 시간도, 아마 그와 같을 걸세. 유형이면서도 무형인 흐름이지."

나는 그녀의 말을 하나하나 주의 깊게 들었다. 그녀의 표현 방식은 참으로 비유가 풍부했지만, 어딘가 모호했고, 전혀 과학적 논리를 따르지 않았다. "할머니의 뜻은... 이곳의 시간은 정말로 속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까?" 나는 과학자로서의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고 더 구체적으로 물으려 애썼다.

임 할머니는 온화하게 웃었다. 내 다소 순진한 질문을 비웃는 기색은 전혀 없었고, 마치 어른이 아이에게 그들에게는 이미 너무나 당연한 것을 설명하려는 듯한 미소였다. "당신들이 흔히 생각하는 방식으로 '속도를 바꾼다'는 것은 아닐세."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곳에서는 때때로, 어떤 순간에는, 하루가 마치 일주일처럼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한 계절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기도 한다네. 듣자 하니, 사람이 어떤 일에 온 마음을 집중하거나, 혹은 마음에 아무런 걸림 없이 완전히 고요할 때, 그것을 특히 더 쉽게 느낄 수 있다고 하더군."

그녀는 살짝 고개를 기울여, 어딘가 묻는 듯한 눈빛으로 우리 둘을 보았다. "두 분은 혹시 기이한 꿈을 꿰 본 적이

있는가? 꿈속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을 보거나, 아주 오랫동안 헤어졌던 가족을 다시 만나는 꿈 말일세."

나와 청링은 나도 모르게 서로를 보았다. 살면서 누구나 그런 기이한 꿈을 한두 번쯤은 껴보지 않았겠는가. 하지만 나는 그녀가 이 질문을 하는 의도가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임을 느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녀는 계속해서, 마치 비밀을 속삭이듯 목소리를 낮추었다. "이곳에서는, 때때로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조각들을 꿈에서 보거나, 혹은 마치 바로 어제 일어난 것처럼 생생하게 아주 먼 옛 기억 속으로 길을 잃기도 한다네. 또 어떤 이는, 그런 꿈속에서 아주 기이한 곳들에 가보았고, 우리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듯한 사람들까지 만났다고도 하지."

"기이한 곳들이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요?" 청링이 되물었다. 그녀의 눈에 뚜렷한 호기심이 드러났다.

임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시선은 이제 어떤 불확실한 공간을 바라보는 듯했다. "이 망우진의 노인들은 '숨겨진 문'의 존재에 대해 입에서 입으로 전해왔네. 사람들이 믿기로는, 우리 이 세계와 다른 세계들 사이의 경계가 아침 안개처럼 얇아져서, 어떤 조화로운 순간을 기다

리기만 하면 완전히 다른 현실이 열릴 수 있는 곳이지. 듣기로는, 특히 해 뜰 무렵이나 해 질 녘 같은 하루의 교차점에서, 혹은 둥글고 밝은 보름달이 뜬 밤에, 저 산속 깊은 숲 속에서는..." 그녀는 멀리 희미한 산맥 쪽으로 턱을 살짝 치켜들었다. "...길을 잃었던 어떤 이가, 아주 잠깐 사이에, 문득 자신이 완전히 낯선 곳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네. 그곳의 나무, 집, 심지어 햇빛조차 전혀 달랐다고. 그러고는 바로 다음 눈 깜짝할 사이에,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와 있었지만, 지나간 시간에 대한 감각은 아주 달랐다고 하더군."

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나도 모르게 등골을 타고 한기가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다른 차원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인가? 다중 우주 개념에 대해서? 그것들은 모두 우리 현대의 가장 최첨단 이론물리학조차도 이제 막 추측을 내놓고 여전히 격렬하게 논쟁 중인 개념들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평범해 보이는 한 노부인이 그것을 마치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수 세대에 걸쳐 존재해 온 믿음처럼 말하고 있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그 '다른 세계'는... 실제로 어떤 곳 입니까?" 나는 마음속이 온갖 생각으로 복잡했지만,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다.

임 할머니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이 늙은이도 그저 그렇게 전해 들었을 뿐이라네, 젊은이. 직접 본 적은 없지.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떤 곳은 지극히 아름답고, 늘 빛과 감미롭고 기이한 소리, 음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또 어떤 곳은 아주 어둡고 무섭다고 하더군. 하지만 그것들은 마치 우리 이 세계와 바로 나란히, 바로 여기에 존재하는 것 같네. 다만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을 뿐이지. 마치 우리가 우리를 둘러싼 공기를 볼 수 없는 것처럼 말이네. 듣자 하니, 마음이 진정으로 고요한 사람들, 혹은 아주 특별한 시기에, 인연이 닿으면, 비로소 희미하게 감지하거나 운 좋게 볼 수 있을 뿐이라고 하더군."

임 할머니의 설명은, 비록 민간 설화나 고대 신앙의 형태로 제시되었지만, 우리가 이 망우진에서의 짧은 나날 동안 겪고 느꼈던 것들과 아주 기묘하게 공명했다. 시간이 '신축'하는 듯한 느낌, 일부 주민들의 노화가 더딘 듯한 모습, 우리 둘이 함께 꾸 기이한 꿈, 그리고 이제는 평행 공간, '숨겨진 문'이라는 개념까지... 그 모든 것들이 서서히 서로 연결되어, 이곳의 진정한 본질에 대한 지극히 복잡하고 신비로운 그림을 만들어내는 듯했다.

이것은 시공간의 휘어짐이나 복잡한 끈 이론에 대한 어떤 심오한 물리 이론이 아니었다. 이것은 마치 완전히 다른

관점—아마도 내 실증 과학이 아직 도달할 수 없었던—에서 우주의 운행 방식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인식하는 한 형태인 듯했다. 이곳에서, 시간은 불변의 직선이 아닌 듯했고, 공간 또한 익숙한 유형의 3 차원에만 국한되지 않는 듯했다. 그것들은 더 유동적이고, 더 변화무쌍하며,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층과 겹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칭링을 보았다. 그녀 또한 생각에 잠겨, 수려한 눈썹을 살짝 찌푸리고 있었다. 아마도 이 개념들은, 비록 기이하고 믿기 어려워 보이지만, 그녀가 어릴 때부터 접해 온 동양 문화—신선 세계, 저승, 그리고 다른 공간을 드나드는 능력을 가진 수행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수천 년 동안 존재해 온 문화—의 기반에서는 완전히 낯선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할머니, 바로 이렇게 특별한 곳에 살기 때문에," 칭링이 임 할머니에게 천천히 물었다. "이곳 망우진 사람들은 다른 곳의 사람들보다 더 평온하고, 시간과 나이에 덜 얽매일 수 있는 것이지요?"

임 할머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살짝 지었다.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군요. 사람이 이 세상이 실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다는 것을 알고, 시간이 언제나 모든 것

을 지배하는 유일한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며, 죽음 또한 아마 완전한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은 저절로 일상생활의 사소한 걱정과 다툼을 줄이게 되지요. 사람은 스스로 더 느리게 살 줄 알게 되고, 더 많이 들을 줄 알게 되며, 더 깊이 느낄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영혼이 진정으로 평온해지면, 아마 흘러가는 세월 또한 그들에게 더 느그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녀는 품위 있게 일어섰다. 손에 든 부채는 여전히 부드럽게 부쳐지고 있었다. "자, 이 늙은이는 이제 저녁 준비하러 들어가 봐야겠군요. 두 분은 편히 앉아 노을 구경이나 하세요."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갔고, 나와 칭링은 혼란스러운 감정과 수많은 풀리지 않은 생각들에 잠긴 채 그곳에 남겨졌다. 그녀의 설명은 과학적이지도, 검증할 구체적인 증거도 없었지만, 그것은 우리 내면의 더 깊은 어떤 인식의 층을 건드렸고, 망우진에 대한 우리의 의문들을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일부 해소해주었다. 그것은 이곳의 신비를 사라지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이한 것들의 존재를 더 명확하게 느끼게 만들었다.

우리는 그곳에 앉아, 보라색의 환상적인 노을이 떠다니는 구름, 푸른 나무 꼭대기마다 서서히 스며드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마치 온 세상이 마음속에 무겁게 자리 잡은 상념들과 함께 같은 호흡을 하는 듯했다. 내 마음은 지금 답 없는 질문들로 가득했다. 내가 늘 알아왔던 이른바 '현실'이라는 것이, 실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다차원, 다층 우주의 지극히 얇은 단면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시간과 공간이 언제나 불변의 상수가 아니라, 인간의 의식 상태나 특정 장소의 특별한 에너지장과 같이 우리 과학이 아직 다 밝혀내지 못한 요인들에 의해 완전히 '신축'하고, '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어떤 것에도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곳에 앉아, 망우진 계곡 위로 서서히 내려앉는 보라색의 환상적인 노을을 보며, 나는 내 사고의 한계가 조금씩 밀려나고 있음을 알았다. 이 세상은, 내 두꺼운 과학 서적들이 묘사했던 것들을 훨씬 뛰어넘는, 너무나 많은 기이하고 신비로운 것들을 품고 있는 듯했다.

알 수 없는 것 앞에서 넓어지는 사유

망우진의 황혼은 실로 아주 다른 경험이었다. 다른 곳들처럼 서둘러 스러지지 않고, 마치 오랜 친구처럼 어딘가 아쉬운 듯, 황금빛, 부드러운 주황빛, 그리고 환상적인 보랏빛을 차례로 온 경치 위에 느릿느릿 뿌렸다. 완전히 어둠에 잠기기 전에 모든 것을 조금 더 붙잡아두려는 듯했다. 나와 칭링은 여전히 여관 뒷마루에 놓인 낡은 나무 벤치에 거의 움직임 없이 앉아, 하늘과 잔잔한 강물 표면의 기적적인 색의 변화를 조용히 눈으로 좇을 뿐이었다. 공기는 점차 서늘해지기 시작했고, 하루 종일 햇볕을 쬔었던 땅의 독특한 습기와 산림 초목의 향기를 실어 왔다.

이곳의 정적은 죽음의 적막함이 아니었다. 아주 깊은 평온함이었다. 가끔씩 망우 강물의 잔잔하고 규칙적인 흐름 소리, 강가의 무성한 덩굴 속에서 밤의 합창을 시작하는 벌레 소리, 가벼운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이 살며시 스치는 소리 같은, 이 골짜기만의 소리들이 그 정적을 수놓을 뿐이었다. 멀리서는, 고풍스러운 전통 가옥 몇 채에서 가물거리는 등잔불이 켜지기 시작했고, 나무 벽 위로 무언가 여유롭게, 서두르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의 그림자를 비쳤다. 시끄러운 TV 나 라디오 소리도, 자동차 엔진 소리도 없었다. 오직 자연과 완전히 하나가 된 듯한, 원초적이고 순수한 삶의 리듬만이 있었다.

나는 또다시 나도 모르게 손목시계로 눈을 돌렸다. 초침은 여전히 외로운 여행자처럼 규칙적이고 부지런하게 움직이며, 시간이 지극히 모호해져 더 이상 낡은 법칙을 따르고 싶어 하지 않는 듯한 이 세계의 순간들을 애써 세고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 기계적이고 정확한 리듬이, 이제는 망우진의 공간 속에서 완전히 낯설고, 처량할 정도로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나는 서쪽 높은 산봉우리 뒤에서 막 솟아오른 초승달을 올려다보았다. 저녁 어스름의 희미한 빛 속에서 참으로 아득하고 환상적으로 보이는 달이었다. 이론적으로는, 하늘 위 그 위치를 바탕으로 시간을 완전히 추정할 수 있었지만, 어떤 아주 모호한 피로감이 나를 막아섰다. 마치 이곳에 구체적인 숫자, 건조한 논리 계산을 억지로 들이대는 것이 완전히 무의미하고, 심지어 다소 난폭한 행위인 듯했다. 나는 가만히 고개를 젖고, 혼자 쓴웃음을 지으며, 더 이상 시계를 보지 않았다.

칭링이 가볍게 숨을 내쉬더니, 살며시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우리 사이의 긴 침묵은 이제 조금도 답답하지 않았고, 오히려 말이 필요 없는 깊은 공감 같았다. 우리 둘은 함께 이 지극히 특별한 분위기를 겪고, 느끼고 있었다.

"밍," 그녀의 목소리가 밤바람에 섞일 듯 작게, 문득 속삭였다. "목 노선생님 말씀이 문득 생각나요... 우리가 칭시

에 있을 때, 그분이 하신 영혼, 업력에 대한 모든 말씀이 그때는 제게 너무 낯설고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지금, 이 공간에 앉아 있으니, 그 말씀들이 마치 제 자신의 숨결처럼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아요. 더 이상 황당하거나 비합리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나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시선은 잔잔한 강물 표면 위로 점점 더 짙어지는 어둠을 향해 있었다. 칭링의 말은 내 안의 아직 모호한 생각의 흐름을 정확히 건드린 듯했다. 지난 시간 동안의 잇따른 경험들, 장평 선생과의 첫 만남에서부터, 산 정상에 은사, 깊은 해석을 들려준 묵 노선생, 그리고 지금 이곳 망우진의 특별한 공간까지. 이 모든 것들이 겉보기에는 흩어진 조각들 같았지만, 실은 함께 이 세계에 대한 훨씬 더 크고 복잡한 그림 하나를 가리키고 있었다. "네 마음 알아." 나도 목소리를 낮추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런 곳들에서는, 마치 아주 다른 법칙들이, 아마도 우리가 한 번도 알지 못했던 법칙들이 운행하고 있는 것 같아."

임 할머니가 저녁 식사를 하러 들어오라고 우리를 불렀다. 집 안의 가물거리는 등잔불이 낡은 나무 바닥 위로 길고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오늘 저녁 식사 또한 아주 소박하고 토속적인 음식들이었다. 싱겁게 조리된 작은 강물고기 한

접시, 갓 따온 산나물을 데쳐 깨소금에 찍어 먹는 것, 그리고 갓 지어 아직 향긋한 밥 한 숟. 우리는 낮은 나무 탁자 주위에 둘러앉아, 천천히, 여유롭게 식사했다. 임 할머니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고, 그저 이따금 우리 그릇에 반찬을 더 얹어주었으며, 그녀의 온화한 눈은 언제나 조용하고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식사 분위기는 참으로 소박하고 친근했다. 내가 이전에 호화로운 레스토랑이나 시끄러운 사교 파티에서 맛보았던 어떤 식사와도 달랐다. 그것은 아주 특별한 진솔함,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주위 자연 사이의 아주 소박한 연결을 가지고 있었다.

그날 밤, 다락방의 삐걱거리는 대나무 침대에 누워, 나는 더 이상 이전 밤들처럼 끝없는 생각에 뒤척이지 않는 자신을 발견했다. 나는 더 이상 모든 것을 건조한 과학 지식으로 분석하거나 해석하려 애쓰지 않고, 그저 조용히 모든 감각을 열어, 내 영혼이 망우의 밤의 느리고 깊은 호흡을 따라 자유롭게 흐르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곳 밤의 거의 완벽한 정적, 오직 뜰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벌레 소리와 멀리 강물의 희미한 흐름 소리에 의해 가끔 깨질 뿐인 그 정적을 느꼈다. 창문 틈으로 살며시 스며드는 시원한 밤바람, 산림의 맑은 향기를 품은 그 바람을 느꼈다. 주위의 소박한 집들, 아마도 아주 평온한 잠에 빠져 있을 사람들의 존재감까지도 느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 어떤 특

별한 정적이 이 골짜기 전체를 감싸고, 모든 생각 속으로 스며들어, 머릿속의 끝없는 흐름을 잠재우는 듯했다. 나는 어느새 잠에 빠져들었다. 꿈도 없는 깊은 잠이었다.

다음 날 아침, 새날의 첫 햇살이 골짜기에 아직 자욱하게 드리워진 짙은 안개를 겨우 뚫고 들어올 때, 우리는 이상할 정도로 가볍고 상쾌한 기분으로 잠에서 깬다. 공기는 너무나 맑아서, 깊게 숨 한 번만 쉬어도 가슴속이 완전히 정화되는 듯했다. 망우진의 삶의 리듬은 여전히 그렇게, 느리고 지극히 평온하게 흘러갔다. 몇몇 주민들은 이른 아침밥을 짓기 위해 불을 피우거나, 쓸 물을 길으러 강가에 가거나, 혹은 먼 풀밭으로 물소 떼를 몰고 가는 등, 익숙한 일과로 새날을 시작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순서대로, 율동적으로, 조금도 서두르거나 조급한 기색 없이 진행되었다.

우리는 얼마 안 되는 짐을 챙겼다. 각자의 마음속에는 형언하기 힘든 아쉬움과 그리움이 있었다. 비록 망우진에 머문 것은 며칠뿐이었지만, 이곳은 우리 둘의 영혼에 지극히 깊은 흔적을 남겼다. 우리가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 임 할머니는 이미 우리를 위해 뜨거운 떡 몇 개와 향긋한 약초차 한 주전자로 아침 식사로 준비해두셨다. 그녀는 우리

가 어디로 가는지,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 전혀 묻지 않았다.

우리가 길을 떠나기 위해 작별 인사를 할 때, 그녀는 우리를 산 위로 다시 이어지는 오솔길이 시작되는 골목 어귀까지 배웅해주셨다. 그녀는 칭링의 손에 작은 천 주머니를 살며시 쥐여주셨다. 안에는 아주 부드러운 향기를 풍기는 마른 나뭇잎들이 들어 있었다. "이건 이 망우 땅의 약초라네." 그녀가 여전히 고르고 변함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잠을 잘 자게 도와줄 걸세. 길 갈 때 몸 조심하게."

칭링은 약초 주머니를 받고, 연신 감사 인사를 했다. 그녀의 눈에 어딘가 감동의 빛이 어렸다. 나 또한 그녀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내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다 표현할 말을 찾으려 애썼지만, 결국 아주 간단한 한마디밖에 할 수 없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저희는 이곳을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임 할머니는 그저 살며시 미소 지었다. 여전히 온화하고, 이 골짜기 자체처럼 어딘가 신비로운 미소였다. "망우진은 언제나 여기 있을 뿐이라네. 언제든 세상 시름을 잊고 싶거든, 편히 돌아오게."

우리는 썩은 앞으로 뒤덮인 오솔길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꽤 멀리 간 후, 나는 나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 뒤를 보았다. 망우진은 이제 여전히 그곳에, 새하얀 아침 안개의 바다 속에 평화롭게 숨어 있었다. 오직 짙은 갈색 기와지붕 몇 채와 느긋하게 피어오르는 부엌 연기만이 희미하게 보일 뿐이었다.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꿈, 바깥 현대 생활의 소음과 분주함과 완전히 분리된 세계 같았다.

나는 내가 과연 망우진의 비밀을 다 "이해"했는지 알 수 없었다. 아마 아닐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그리 중요하지 않은 듯했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아마도 모든 질문이 즉시 명확한 답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비밀이 이성으로 파헤쳐져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어떤 것들은, 그저 존재하는 듯했고, 우리의 할 일은 더 넓게 열린 영혼으로 그것들의 존재를 느끼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다. 우리의 현재 이해와 해석 능력을 뛰어넘는 진실들이 그냥 존재한다. 그리고 그 "알 수 없는 것"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 자기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때로는 자신의 사유를 더욱 확장하고, 더 깊은 인식의 층에 다가갈 수 있는 첫걸음이 된다.

나는 청링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익숙한 온기를 느꼈다. 지난 며칠의 여정은 과학적 관점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것은 더 이상 이전처럼 당혹감이나 약간의 두려움을 가져다주지 않았다. 어떤 호기심, 어떤 막연한 설렘이 가슴속에서 희미하게 피어오르며, 계속해서 나아가고 싶게, 이 신비로운 동방의 베일을 더 벗겨내고 싶게 나를 재촉하고 있었다.

* * *

제 6 장: 운명의 가게

황룡계 고성과 강가의 노부인

망우진을 떠난 후에도, 인연과 업력에 대한 노부인의 이야기는 나와 칭링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개념들은 나 같은 과학자에게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그 나름의 이치가 있는 듯했다. 어쩌면 내가 아직 다 알지 못하는, 더 깊은 다른 법칙들이 이 삶을 운행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여행은 확실히 우리에게 많은 새로운 것들을 열어주고 있었다.

우리는 남쪽으로 계속 나아가기로 했다. 듣기로는 푸허(府河) 강가에 위치한, 옛 건축물과 강을 내려다보는 수상 가

옥, 그리고 넓은 돌다리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고성, 뤼청(羅城)으로 향했다. 꽤 흥미롭게 들어서, 우리는 고성 구역에 있는 작은 여관을 찾아 며칠 머물기로 했다.

어느 날 오후, 햇살도 부드러워진 시간, 우리는 사찰 몇 군데를 둘러보고 강에서 배를 탄 후, 고성 구역의 작은 돌길을 따라 산책하기로 했다. 이 골목길들은 큰길보다 한산했고, 양옆으로는 이끼 낀 넓은 돌담과 굳게 닫힌 나무 대문들이 있었으며, 가끔씩 지나가는 주민들의 모습만 보일 뿐이었다.

이리저리 걷다가, 나는 우연히 한 무리의 향기로운 수세미 덩굴 뒤에 숨겨진, 아주 낡아 보이는 나무 간판 하나를 발견했다. 간판에는 이미 색이 바랜 한자 세 글자가 적혀 있었는데, '수연각(隨緣閣)'이라고 읽었다. 그 바로 아래에는 짙은 갈색의 낡은 나무 문이 살짝 닫혀 있었고, 주변 다른 집들과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였다. 분명 변화한 상점은 아닐 것이다. 주의 깊게 보지 않았다면, 그냥 지나쳤을 것이다.

왠지 모르게 나는 호기심이 생겼다. "링, 저기 좀 봐." 내가 아내의 팔을 톡 쳤다. "수연각이라. 이름이 꽤 특별하지 않아?"

칭링이 그쪽을 보았다. 그녀는 한자에 능통해서 바로 이해했다. "수연... 평범한 가게 같지는 않네요." 아내가 말했다. 그녀의 눈에도 호기심이 어렸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름과 조용한 외관이 나를 들어가 보고 싶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우리는 나무 문을 가만히 밀었다.

작은 풍경 소리가 살짝 울렸다가 멎었다. 안은 숨소리마저 들릴 정도로 고요했다. 가게 안의 빛은 다소 약했고, 창호지를 바른 창문 몇 개를 통해 들어오는 오후 햇살 몇 줄기와, 방 한구석에 놓인 작은 등잔불이 전부였다. 공기는 다소 답답했고, 온통 낡은 나무 냄새, 습기 냄새, 그리고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 어떤 침향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다.

방은 그리 넓지 않았지만, 물건들은 바닥에서 천장 가까이까지 빼곡하게 진열되어 있었다. 선반 위, 책상 위, 심지어 바닥까지, 온통 낡은 물건들이었다. 금이 간 도자기 병, 녹슨 청동 불상, 누렇게 변색된 낡은 그림 두루마리, 빛바랜 옥과 은으로 만든 장신구 몇 점, 옛날식 나침반, 청동 거울, 돌 벼루, 그리고 내가 도저히 뭘지 알 수 없는, 마치 옛 도사들의 도구 같은 기묘한 것들까지. 모든 것이 그렇게 어지럽게 놓여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각자 제자리가 있는 듯,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냈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대부분의 물건 위에는 얇은 먼지 층이 덮여 있었는데, 더러운 먼지가 아니라, 시간의 먼지였다.

이 가게의 분위기는 아주 기묘했다. 고요하지만 어딘가 무게감이 있었고, 우리가 이전에 갔던 곳들과는 전혀 달랐다. 마치 이곳의 낡은 물건 하나하나가 각자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듯했다.

그때 나는 가게 주인을 보았다.

그는 방 한구석, 주변의 낡은 물건 더미와 함께 거의 어둠에 잠겨 있는 높은 나무 계산대 뒤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가물거리는 등잔 불빛이 그의 얼굴 한쪽을 비추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사람이 있다는 것조차 알아채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아주 늙어 보였고, 성긴 백발 몇 가닥을 목덜미 뒤로 단정하게 묶고 있었다. 그는 낡은 검은색 비단 장삼을 입고 있었는데, 목깃이 높았다. 몸은 작고 등이 약간 굽었지만, 눈은 아주 기묘했다. 그의 눈은 묵 노선생이나 실 팔던 노부인의 눈처럼 맑지 않았고, 아주 깊고 철학 같았으며, 우리를 깜박이지 않고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살피는 것도, 호기심 어린 것도, 권유하는 것도 아니었고, 마치 세상의 너무나 많은 일을 보아 온 사람이, 이제

자신의 공간에 막 들어선 두 낯선 손님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듯했다.

그는 우리가 들어섰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일어나 인사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렇게 가만히, 두 손을 계산대 위에 얹고, 우리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지나친 침묵과 가게의 특별한 분위기 때문에 나와 청링도 다소 압도되어, 나무 바닥 위를 살금살금 걸어야 했다.

"저... 안녕하세요." 나는 답답함을 덜기 위해 먼저 목을 가다듬고 입을 열었다. "지나가다가, 가게가 흥미로워 보여서 잠시 구경하러 들어왔습니다."

가게 주인은 아무 말 없이, 그저 가볍게 고개를 한 번 끄덕일 뿐이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있었는데, 그 시선은 마치 내 머릿속 생각을 다 읽는 듯했다. 청링이 내게 더 가까이 다가섰다. 나는 아내 역시 약간 긴장하고 있음을 알았다. 이곳과 이 주인에게는 무언가 평범하지 않은 것이 있었고, 호기심을 자극하면서도 조심해야 한다는 느낌을 주었다.

수연각. 신비해 보이는 주인. 시간의 흔적이 가득한 낡은 물건들. 문득 내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가게 이름처럼, 어

쩌면 '인연'이 우리를 이곳,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어떤
갈림길로 이끌었는지도 모른다.

각 물건에 깃든 선택과 운명의 이야기

가게 주인의 침묵은 가게 안의 분위기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 나와 칭링은 서로를 한번 쳐다보고는, 좀 더 자세
히 구경하기 시작했다. 통로는 좁았고, 선반과 바닥에 놓
인 물건들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야 했다. 나는 수많은 낡
은 물건들을 훑어보았다. 하나같이 신비로워 보였지만, 동
시에 무언가가 우리를 암암리에 이끌고 있다는 느낌이 들
었다.

칭링이 아주 낡아 보이는 작은 유리 장식장 앞에 멈춰 섰
다. 그 안에는 옥과 은으로 만든 장신구 몇 점이 있었다.
아내의 시선은, 아주 정교하게 봉황이 조각되었지만 한쪽
날개에 잘 보이지 않지만 자세히 보면 보이는 작은 금이
간, 질푸른 비취 펜던트 하나에 꽂혀 있었다. 그 옥 펜던트
는 얇은 먼지층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차분하고 고고한 아
름다움을 빛내고 있었다.

"옥이 정말 아름답네요." 칭링이 거의 혼잣말처럼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는 손가락을 유리 표면에 대고, 마치 그것을 만져보고 싶어 하는 듯했다.

바로 그때, 가게 주인의 낮고 쉼 목소리가 계산대 뒤에서 천천히 울려 퍼졌다. 그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날개 부러진 봉황이지. 아름답긴 하지만, 아쉬움의 아름다움이라오."

그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나와 칭링은 살짝 놀랐다. 우리는 돌아보았다. 그는 여전히 거기에 앉아, 검은 눈으로 장식장 안의 옥 펜던트를 똑바로 보고 있었다.

"아쉬움이요?" 칭링이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되물었다.

주인은 우리를 보지 않고, 시선은 여전히 옥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것의 옛 주인은," 그가 덤덤하게 말했다. "재능과 미모를 겸비한, 가문도 평범치 않은 여인이었소. 그녀는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었지. 하나는 가문의 뜻에 따라 부귀영화를 누리며 평안하게 사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랑을 따라, 가난하지만 마음이 맞는 한 화가에게 가는 것이었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는 첫 번째 길을 택했지. 부귀영화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마음은 즐겁지 않았소. 평생 비단옷 속에서 살았지만, 단 하루도 진정으로

편안한 날이 없었지. 저 봉황 날개의 금은... 그 선택의 흔적이오."

그는 간결하게, 아무런 감정 없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지만, 듣기에는 무거운 느낌이었다. 물건을 팔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 같지 않았고, 마치 그가 물건 자체에서 읽어낸 사실 같았다. 칭링은 펜던트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표정이 형언하기 어려웠다. 옥의 아름다움은 이제 더 이상 순수하지 않았고, 어딘가 슬픔이 더해진 듯했다.

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설마 이곳의 물건 하나하나에 각자의 이야기가 있는 것일까?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 나는 가게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내 시선은 먼지가 가득 쌓인 낮은 나무 탁자 위에 놓인 청동 나침반에 끌렸다. 그것은 요즘 나침반과는 달랐다. 자침은 작은 거북이 모양으로 만들어졌고, 거북이 등껍질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고대 기호 몇 개가 새겨져 있었다. 청동 케이스는 색이 바랬고, 유리 표면은 약간 흐렸지만, 거북이 모양의 바늘은 여전히 어둠 속 어딘가를 가리키며 가만히 있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손을 뻗어 나침반의 차가운 유리 표면을 가만히 만졌다. 기묘한 느낌이 손가락 끝을 통해 전해졌다. 마치 어떤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사라지는 것 같았다. 거

대한 상선단이 바다 폭풍을 만난 모습, 거센 파도와 바람, 그리고 갑판 위에 서서 이와 똑같은 나침반을 짊어진 채, 굳건하면서도 약간은 막막한 눈으로 비바람을 바라보는 한 중년 남자의 모습이었다.

"길 찾는 나침반." 가게 주인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며, 내 머릿속의 이미지들을 꿰었다. 나는 돌아보았다. 그가 나를 보고 있었다. 그의 검은 눈은 내가 방금 본 것을 읽어낸 듯했다. "그것은 한때 한 상인이 바닷길을 찾아내어, 셀 수 없이 많은 재물을 가져다주도록 도왔소."

나는 그가 말을 잇기를 기다렸다.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으리라는 직감이 들었다.

"하지만," 그가 여전히 덤덤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 길 위에서, 일을 이루기 위해, 그는 많은 것을 선택해야 했소. 때로는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때로는 친구를 버리는 일을, 때로는 속임수를 쓰는 일을. 이 나침반은 그가 바람의 방향, 물의 방향, 이익의 방향을 찾는 데는 도움을 주었지만, 도리의 방향, 인정의 방향은 가리켜주지 못했소." 그는 아주 나지막이, 거의 들리지 않는 한숨을 쉬었다. "말년에, 그는 아주 부유했지만, 외톨이였소. 황금 더미 위에서 죽었지만 곁에는 친척 하나 없었지. 나침반은 재물의 방향은 정확히 가리켰지만, 마음의 방향은 잃어버렸소."

나침반에 대한 이야기는 선택과 운명에 대한 또 다른 예시였다. 물질적 성공은 때로 마음의 공허함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이 가게의 낡은 물건 하나하나는 인생의 갈림길, 한 인간의 운명을 만든 결정들의 증인인 듯했다. 그것들은 옛 주인의 과거를 비추는 거울일 뿐만 아니라, 지금 그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 지금의 나와 청링 같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선택에 대해 은연중에 묻고 있는 것 같았다. 이 수연각은 단순히 낡은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마치 운명의 교차로, 여러 인생이 침묵 속에서 만나는 곳 같았다.

'정해진 운명'과 수련 속 '자유 의지' 사이에서

날개 부러진 봉황 펜던트와 방향 잃은 나침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수연각의 다른 낡은 물건들을 둘러보는 동안에도 나와 청링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마치 이곳의 물건 하나하나가 선택과 그 결과, 옛 결정들로 인해 만들어진 운명의 길에 대한 교훈인 듯했다.

나는 가게 주인이 앉아 있는 나무 계산대로 다가갔다. 그는 여전히 예전처럼 가만히 앉아, 앞의 허공을 응시하며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했다. 가물거리는 등잔 불빛이 그의 늙은 얼굴에 명암을 드리워, 그를 더욱 신비롭게 보이게 했다.

"어르신," 나는 마음속이 복잡했지만 최대한 평범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쓰며 입을 열었다. "방금 하신 이야기들... 이 물건들의 옛 주인들에 대한 이야기들 말입니다... 마치 그들의 운명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결정된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자신의 길을 바꿀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내가 실 팔던 노부인에게서 인연과 업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날부터 계속해서 나를 번뇌하게 했던 질문이었다. 만약 모든 것이 전생의 업의 결과이고, 모든 인연이 이미 연결되어 있다면, 현세에서의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가게 주인은 천천히 나를 돌아보았다. 이번에는 그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지 않고 내 눈을 똑바로 보았다. 아주 깊은 시선, 마치 내 생각을 다 읽는 듯한 시선이었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가게 안은 다시 무거운 정적에 잠겼다.

고, 오직 방 한구석 낡은 괘종시계의 불분명한 째깍거림만이 들릴 뿐이었다.

이윽고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쉼 듯, 느릿했다. "운명과 자유 의지... 그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오, 젊은이."

그는 앙상한 손가락 하나를 들어, 등 뒤 벽에 걸린 산수화 두루마리 하나를 가리켰다. 그림에는 겹겹이 이어진 산맥과 자욱한 구름, 그리고 산비탈 사이로 구불구불 이어지며 보일 듯 말 듯 한 작은 오솔길이 그려져 있었다.

"각 사람의 인생길은," 그가 말했다. "저 그림 속 오솔길과 같소. 그 길은 산과 강이 어딘가에 따라 이미 형성되어 있지. 그것들은 업력, 태어난 환경, 가족, 사회와 같소. 그것은 자신이 이전에 지은 업, 태어날 때의 가족과 사회에 의해 만들어진 '정해진 운명'의 일부요. 그 길은 험할 수도, 쉬울 수도, 넓을 수도, 좁을 수도 있소."

그는 잠시 멈추고, 나를 살피듯 보았다. "하지만," 그가 힘주어 말했다.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어떻게 걸을지를 전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소. 그는 조심스럽게 걸으며, 웅덩이나 뾰족한 돌을 피할 수 있소. 그는 피곤할 때 멈춰 쉬거나, 더 빨리 가려 애쓸 수도 있소. 그는 함께 가는 다른 사

람을 돕거나, 이기적으로 앞서 나갈 수도 있소. 심지어, 그는 옛길이 더 이상 맞지 않는다고 느끼면, 더 어려울지라도, 다른 길로 꺾을 수도 있소."

"어르신의 뜻은...?" 나는 무언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내 뜻은," 그가 답했다. "초기의 풍경과 길은 과거의 업에 의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수 있소. 그것이 '운명'이지. 하지만 당신이 걷는 방식, 각 갈림길에서의 선택, 그것이 바로 '자유 의지'요. 그것은 누구도 당신을 대신해 결정해 줄 수 없소. 그리고 바로 이 현재의 선택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업을 만들어, 앞길을 바꿀 수 있으며, 심지어 최종 목적지까지도 바꿀 수 있소."

그는 다시 가게 안의 낡은 물건들을 바라보았다. "이 물건들의 옛 주인들, 모두 각자의 길이 있었소. 어떤 이는 부유하게 태어났지만 뒤로 가는 길을 택했고. 어떤 이는 어려움에서 시작했지만 노력하고 올바른 길을 택해 위로 올라갔지. 문제는 출발점이 아니라, 가는 길 내내의 선택들에 있소."

"그렇다면 수련은 어떻습니까?" 칭링이 문득 물었다. 아내는 어느새 내 옆에 와 서 있었다. "수련은 사람이 자신의

길을 더 명확히 보고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도와줍니까?" 그녀의 질문은, 우리가 은사나 목 노선생에게서 들었던 수련에 대한 것들이 그녀를 정말로 많이 생각하게 했음을 보여주었다.

가게 주인은 칭링을 돌아보았다. 거의 보이지 않는 아주 희미한 미소가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다. "아주 옳은 질문을 했소." 그가 말했다. "수련은, 만약 올바른 길을 간다면, 바로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사람의 본래 선한 성품과 명철함을 흐리게 하는 욕망과 집착들을 버리는 방법 이요."

"마음이 맑고 고요해지면, 사람은 사물을 더 올바르게 볼 수 있고, 감정이나 사리사욕에 눈이 멀지 않게 되요. 그들은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알게 되지. 거기서부터, 그들은 도리와 양심에 더 맞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소."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목소리가 조금 더 진지해졌다. "더욱이, 올바른 수련은 사람이 과거에 지은 나쁜 업을 줄이고, 덕과 복을 더 쌓도록 돕소. 업이 변하면, 그 '운명'의 길 또한 따라 변할 수 있소. 험한 길이 더 쉬워질 수도 있고, 어두운 길이 더 밝아질 수도 있소. 그것이 바로 심성을 닦음으로써 운명을 바꾸는 힘이요."

가게 주인의 설명은 우리 머릿속의 많은 것들을 밝혀주는 듯했다. 그것은 업이나 운명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각 개인의 자유 의지와 선택, 특히 그 사람이 올바른 수련의 길을 걸을 때의 선택을 강조했다. 운명은 자신을 묶는 것이 아니라, 강물과 같아서, 자신이 자신의 배를 좋은 흐름을 따라 물고, 위험한 곳을 피하며, 심지어 그 흐름을 더 좋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온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운명을 완전히 지배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영향을 미칠 권리와 책임이 있음을 이해했다. 매일의 모든 선택을 통해. 그리고 그의 말에 따르면, 수련의 길은 바로 그 올바른 일들을 할 수 있는 명철함과 힘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눈앞의 갈림길과 미래의 가능성들

운명, 자유 의지, 그리고 수련에 대한 가게 주인의 설명을 들은 후, 가게 안의 분위기는 다소 달라졌다. 처음처럼 무겁지 않았고, 마치 무언가 막 해명된 듯했다. 나는 머릿속

도 가벼워졌지만, 동시에 앞으로의 모든 선택의 무게를 더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가 주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떠나려 할 때, 내 눈은 자연스럽게 가게의 가장 어두운 구석, 흑단으로 만든 낮은 선반 위에 놓인 한 물건에 끌렸다. 그것은 다른 것들처럼 화려하거나 기이한 골동품이 아니었다. 그저 네모난 작은 나무 상자였는데, 짙은 갈색에, 낡아 보였지만 이상할 정도로 깨끗했고, 마치 누군가 방금 정성껏 닦아놓은 듯했다. 내 주의를 끈 것은 상자 뚜껑에 자물쇠도, 조각된 문양도 없이, 등잔불 아래 희미하게 빛나는 매끄러운 나무 표면뿐이라는 점이였다. 그것은 거기에, 조용하고 은밀하게 놓여 있었지만, 내게 아주 기묘한 느낌을 주었다. 마치 그 안에 아주 중요한 무언가가 들어 있는 듯했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 상자 가까이 다가갔고, 청링도 호기심에 따라왔다. 문득 나는 그것을 열어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동시에 약간의 망설임도 있었다. 만약 이 상자를 열면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 일어날 것 같은, 불분명한 느낌이었다.

나는 가게 주인을 힐끗 보았다. 그는 여전히 계산대 뒤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검은 눈은 이제 그 나무 상자를, 그리

고 우리를 보고 있었다. 알 수 없는 미소가 다시 그의 입가에 스쳤다.

"저 상자는..." 칭링이 약간 머뭇거리는 목소리로 나지막이 물었다. "안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가게 주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우리를, 그리고 다시 그 상자를 보았다. 그의 눈은 아주 깊었다. "안에 말이오?" 그가 되물었다. 목소리는 낮고 쉼 듯했다. "보물 지도일 수도 있고. 옛 저주일 수도 있소. 아니면 혹시... 그냥 텅 빈 상자일 뿐일지도 모르지."

그는 잠시 멈추고, 우리 눈을 똑바로 보았다. "그것은 여는 사람에, 그들의 인연과 선택에 달려 있소."

그의 말은 모호하게 들렸지만 아주 큰 무게가 실려 있었다. 문양 없는 그 나무 상자는 문득 우리가 막 서 있는 듯한 바로 그 갈림길의 상징처럼 보였다. 이 길을 계속 탐험하여, 막 열린 신비로운 정신세계로 더 깊이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익숙한 과학과 이성의 삶으로 돌아갈 것인가? 어느 길을 택하든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저 상자 안에 있을 수 있는 것들과 같았다.

나는 청링을 보았다. 아내의 눈에도 망설임이 가득했다. 그녀는 가게 주인의 뜻을 이해했다. 우리는 마치 보이지 않는 문 앞에서 있는 것 같았고, 그 문을 넘을지 말지는 오직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했다. 그 선택은 앞으로의 며칠뿐만 아니라, 어쩌면 긴 앞길을, 심지어 우리가 들었던 업력과 윤희의 이야기와도 관련될 수 있는 것이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곳에 서서, 어두운 구석에 조용히 놓인 나무 상자를 바라보았다. 우리 중 누구도 그것을 열려고 손을 뻗지 않았다. 아마, 지금은 결정할 때가 아니었을 것이다. 혹은 아마도, 우리가 그런 갈림길 앞에서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이미 중요한 일이었을 것이다.

마침내,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가게 주인에게 돌아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귀한 가르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링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가게 주인은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일 뿐, 눈빛은 변함없이, 여전히 신비하고 깊었다.

우리는 등을 돌려, 골동품과 운명의 이야기로 가득 찬 침묵의 공간을 뒤로하고 수연각을 나섰다. 문 위의 풍경이 다시 살짝 울렸다가 멎었다. 바깥의 저녁 햇살은 이미 많이 약해져, 하루가 저물어감을 알리고 있었다.

돌길 위를 걸으며, 내 마음은 온갖 것들로 복잡했지만, 동시에 무언가 더 명확해진 것도 있었다. 수연각과 그 신비로운 주인은 우리에게 최종적인 답을 주지는 않았지만, 선택의 힘과 책임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었다. 앞길은 여전히 희미하고, 수많은 가능성과 갈림길로 가득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 모든 선택이, 우리가 마주할 바로 그 '운명'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이해했다. 답 없는 나무 상자과 그것이 암시하는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은 분명 우리를 계속 따라다닐 것이다. 다음 날, 그 생각들을 품고, 우리는 진원을 떠나, 이전에 방문하기로 계획했던 유명한 낙산대불이 있는 낙산으로 향하는 여정을 계속했다.

낙산대불과 속세의 관광지

다음 날, 나무 상자과 인생의 선택들에 대한 생각을 품고, 우리는 진원을 떠났다. 차는 우리를 남쪽으로, 내가 오랫동안 이름만 들어왔지만 직접 볼 기회는 없었던 낙산대불이 있는 낙산으로 향했다. 청링 또한 기대하는 눈치였다.

이곳은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불교 유산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낙산으로 가는 길은 그리 멀지 않았고, 길 양옆의 풍경도 계단식 논과 마을들이 어우러져 꽤 아름다웠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나를 가장 먼저 놀라게 한 것은 그 지역의 규모였다. 우리가 이전에 방문했던 작은 사찰이나 외딴 암자와는 달리, 낙산은 거대한 주차장이 온갖 관광버스로 가득 차고, 인파가 끝없이 밀려드는 아주 큰 관광 단지였다.

우리는 인파를 따라 관광 구역으로 들어갔다. 대불의 전경을 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강에서 배를 타는 것이었다. 우리를 태운 배는 불상이 조각된 절벽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거대한 불상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 장엄함은 실로 말로 다할 수 없었다. 70 미터가 넘는 앉아 있는 미륵불상이, 붉은 사암 절벽에 바로 새겨져, 민강, 대도하, 청의강 세 강이 합류하는 지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천 년도 더 전에 지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공사의 규모는 정말 경이로웠다. 나는 옛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위대한 작품을 만들 수 있었는지 상상하려 애썼다. 불상의 머리는 산 정상과 나란했고, 발은 강물 위에 놓여 있었으며, 그 모습은 위엄 있으면서도 자비로운 기색을 띠고 있었다.

멀리서 보면, 불상 전체가 산과 하나가 된 듯, 인간의 손길과 자연의 기적적인 조화였다.

칭링 또한 아주 감동한 듯했다. 그녀는 조용히 바라보며, 이따금 카메라를 들어 몇 장의 사진을 찍었다. 나는 그녀 같은 문화 연구가에게, 이런 유산을 직접 목격하는 것이 아주 특별한 경험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공사의 웅장함과 더불어, 나는 주변 분위기 또한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러 언어로 계속해서 안내 방송을 하는 확성기 소리, 시끄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소리, 강가와 길가를 따라 기념품을 파는 상인들의 외침 소리. 배를 탄 후, 우리는 불상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 절벽 옆의 계단을 올라가 보기도 했다. 높이 올라갈수록 인파는 더 많아졌고, 때로는 서로 밀치며 가야 했다. 불상 주변에는 작은 불상, 팔찌, 염주에서부터 각종 간식거리, 음료수까지 온갖 것을 파는 가판대들이 즐비했다. 많은 사람들은 옛날 의상을 빌려 입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그 풍경은 다소 혼잡하고 시끄러웠으며, 내가 상상했던 성지의 고요하고 장엄한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었다.

산 위 은사의 암자에서의 거의 완벽한 정적이나, 망우진의 시간을 초월한 분위기, 심지어 황룡계의 소박하고 진솔한 분위기와 비교했을 때, 낙산은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

었다. 이곳은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였고, 그에 따르는 모든 번잡함과 상업적인 요소들을 동반하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비판할 생각은 없었다. 많은 관광객을 끄는 곳에서는 필연적인 일일 테니까. 하지만 솔직히, 그 붐비는 인파와 소음 속에서, 나는 이전 장소들에서처럼 어떤 특별한 '에너지'를 느끼거나, 어떤 영적인 기이한 만남을 갖지는 못했다. 이 방문은, 내게는 주로 옛사람들의 신앙과 창의력의 증거인 위대한 건축 및 조각 작품을 감상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는 인근의 또한 매우 영험하다고 하는 몇몇 고찰을 방문하기 위해 낙산에 며칠 더 머물 계획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여관에서 식사를 하던 중, 칭링이 갑자기 미국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받는 동안,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놀라워하다가, 이내 당황하고 목이 메는 듯했다. 나는 아내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보았다. 전화를 끊은 후, 칭링은 나를 돌아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상하이에 있는 제 외사촌 오빠가... 방금 갑자기 세상을 떠났대요. 어머니께서 방금 전화하셨어요."

그는 칭링이 상하이에 있을 때 꽤 친했던 사촌 오빠였지만, 미국에 온 후로는 연락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소식은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우리 둘 다 할 말을 잃었다. 비록 우리

가 기묘한 것들로 가득 찬 탐험의 여정 중에 있었지만, 집 안에 일이 생긴 것은 외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 바로 상하이로 가야 해요, 여보." 칭링이 말했다. 아주 슬펐지만 목소리는 더 차분해져 있었다. "오빠에게 항이라도 하나 피워드리고 싶고, 그쪽 이모님과 외삼촌 분들도 위로해드려야 해요."

나는 아내의 결정을 이해했다. 진행 중이던 여정을 잠시 멈춰야 한다는 아쉬움이 약간 있었지만, 이것은 해야 할 일이었다. "알았어."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가능한 한 빨리 상하이로 갈 준비를 하자."

그리하여, 쓰촨에서의 추가 탐험 계획은 갑작스럽게 바뀌어야 했다. 여행은 예정대로 계속될 수 없었고, 대신 고향에서 온 슬픈 소식과 상하이를 향한 급한 결정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 * *

제 7 장: 운명의 가게

황룡계 고성과 강가의 노부인

망우진을 떠난 후에도, 인연과 업력에 대한 노부인의 이야기는 나와 칭링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개념들은 나 같은 과학자에게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그 나름의 이치가 있는 듯했다. 어쩌면 내가 아직 다 알지 못하는, 더 깊은 다른 법칙들이 이 삶을 운행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여행은 확실히 우리에게 많은 새로운 것들을 열어주고 있었다.

우리는 남쪽으로 계속 나아가기로 했다. 듣기로는 푸허(府河) 강가에 위치한, 옛 건축물과 강을 내려다보는 수상 가옥, 그리고 넓은 돌다리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고성, 황룡시(黃龍溪)로 향했다. 꽤 흥미롭게 들려서, 우리는 고성 구역에 있는 작은 여관을 찾아 며칠 머물기로 했다.

어느 날 오후, 햇살도 부드러워진 시간, 우리는 사찰 몇 군데를 둘러보고 강에서 배를 탄 후, 고성 구역의 작은 돌길을 따라 산책하기로 했다. 이 골목길들은 큰길보다 한산했고, 양옆으로는 이끼 낀 넓은 돌담과 굳게 닫힌 나무 대문들이 있었으며, 가끔씩 지나가는 주민들의 모습만 보일 뿐이었다.

이리저리 걸다가, 나는 우연히 한 무리의 향기로운 수세미 덩굴 뒤에 숨겨진, 아주 넓어 보이는 나무 간판 하나를 발견했다. 간판에는 이미 색이 바랜 한자 세 글자가 적혀 있었는데, ‘수연각(隨緣閣)’이라고 읽었다. 그 바로 아래에는 짙은 갈색의 낮은 나무 문이 살짝 닫혀 있었고, 주변 다른 집들과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였다. 분명 변화한 상점은 아닐 것이다. 주의 깊게 보지 않았다면, 그냥 지나쳤을 것이다.

왓지 모르게 나는 호기심이 생겼다. "링, 저기 좀 봐." 내가 아내의 팔을 툭 쳤다. "수연각이라. 이름이 꽤 특별하지 않아?"

칭링이 그쪽을 보았다. 그녀는 한자에 능통해서 바로 이해했다. "수연... 평범한 가게 같지는 않네요." 아내가 말했다. 그녀의 눈에도 호기심이 어렸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름과 조용한 외관이 나를 들어가 보고 싶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우리는 나무 문을 가만히 밀었다.

작은 풍경 소리가 살짝 울렸다가 멎었다. 안은 숨소리마저 들릴 정도로 고요했다. 가게 안의 빛은 다소 약했고, 창호지를 바른 창문 몇 개를 통해 들어오는 오후 햇살 몇 줄기와, 방 한구석에 놓인 작은 등잔불이 전부였다. 공기는 다소 답답했고, 온통 낡은 나무 냄새, 습기 냄새, 그리고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 어떤 침향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다.

방은 그리 넓지 않았지만, 물건들은 바닥에서 천장 가까이까지 빼곡하게 진열되어 있었다. 선반 위, 책상 위, 심지어 바닥까지, 온통 낡은 물건들이었다. 금이 간 도자기 병, 녹슨 청동 불상, 누렇게 변색된 낡은 그림 두루마리, 빛바랜 옥과 은으로 만든 장신구 몇 점, 옛날식 나침반, 청동 거울,

돌 벼루, 그리고 내가 도저히 뭘지 알 수 없는, 마치 옛 도사들의 도구 같은 기묘한 것들까지. 모든 것이 그렇게 어지럽게 놓여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각자 제자리가 있는 듯,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냈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대부분의 물건 위에는 얇은 먼지 층이 덮여 있었는데, 더러운 먼지가 아니라, 시간의 먼지였다.

이 가게의 분위기는 아주 기묘했다. 고요하지만 어딘가 무게감이 있었고, 우리가 이전에 갔던 곳들과는 전혀 달랐다. 마치 이곳의 낡은 물건 하나하나가 각자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듯했다.

그때 나는 가게 주인을 보았다.

그는 방 한구석, 주변의 낡은 물건 더미와 함께 거의 어둠에 잠겨 있는 높은 나무 계산대 뒤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가물거리는 등잔 불빛이 그의 얼굴 한쪽을 비추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사람이 있다는 것조차 알아채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아주 늙어 보였고, 성긴 백발 몇 가닥을 목덜미 뒤로 단정하게 묶고 있었다. 그는 낡은 검은색 비단 장삼을 입고 있었는데, 목깃이 높았다. 몸은 작고 등이 약간 굽었지만, 눈은 아주 기묘했다. 그의 눈은 묵 노선생이나 실 팔던 노부인의 눈처럼 맑지 않았고, 아주 깊고 칙흑

같았으며, 우리를 깜박이지 않고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살피는 것도, 호기심 어린 것도, 권유하는 것도 아니었고, 마치 세상의 너무나 많은 일을 보아 온 사람이, 이제 자신의 공간에 막 들어선 두 낯선 손님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듯했다.

그는 우리가 들어섰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일어나 인사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렇게 가만히, 두 손을 계산대 위에 얹고, 우리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지나친 침묵과 가게의 특별한 분위기 때문에 나와 청링도 다소 압도되어, 나무 바닥 위를 살금살금 걸어야 했다.

"저... 안녕하세요." 나는 답답함을 덜기 위해 먼저 목을 가다듬고 입을 열었다. "지나가다가, 가게가 흥미로워 보여서 잠시 구경하러 들어왔습니다."

가게 주인은 아무 말 없이, 그저 가볍게 고개를 한 번 끄덕일 뿐이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있었는데, 그 시선은 마치 내 머릿속 생각을 다 읽는 듯했다. 청링이 내게 더 가까이 다가섰다. 나는 아내 역시 약간 긴장하고 있음을 알았다. 이곳과 이 주인에게는 무언가 평범하지 않은 것이 있었고, 호기심을 자극하면서도 조심해야 한다는 느낌을 주었다.

수연각. 신비해 보이는 주인. 시간의 흔적이 가득한 낡은 물건들. 문득 내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가게 이름처럼, 어쩌면 '인연'이 우리를 이곳,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어떤 갈림길로 이끌었는지도 모른다.

각 물건에 깃든 선택과 운명의 이야기

가게 주인의 침묵은 가게 안의 분위기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 나와 칭링은 서로를 한번 쳐다보고는, 좀 더 자세하게 구경하기 시작했다. 통로는 좁았고, 선반과 바닥에 놓인 물건들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야 했다. 나는 수많은 낡은 물건들을 훑어보았다. 하나같이 신비로워 보였지만, 동시에 무언가가 우리를 암암리에 이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칭링이 아주 낡아 보이는 작은 유리 장식장 앞에 멈춰 섰다. 그 안에는 옥과 은으로 만든 장신구 몇 점이 있었다. 아내의 시선은, 아주 정교하게 봉황이 조각되었지만 한쪽 날개에 잘 보이지 않지만 자세히 보면 보이는 작은 금이 간, 질

푸른 비취 펜던트 하나에 꽂혀 있었다. 그 옥 펜던트는 얇은 먼지층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차분하고 고고한 아름다움을 빛내고 있었다.

"옥이 정말 아름답네요." 칭링이 거의 혼잣말처럼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는 손가락을 유리 표면에 대고, 마치 그것을 만져보고 싶어 하는 듯했다.

바로 그때, 가게 주인의 낮고 쉼 목소리가 계산대 뒤에서 천천히 울려 퍼졌다. 그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날개 부러진 봉황이지. 아름답긴 하지만, 아쉬움의 아름다움이라오."

그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나와 칭링은 살짝 놀랐다. 우리는 돌아보았다. 그는 여전히 거기에 앉아, 검은 눈으로 장식장 안의 옥 펜던트를 똑바로 보고 있었다.

"아쉬움이요?" 칭링이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되물었다.

주인은 우리를 보지 않고, 시선은 여전히 옥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것의 옛 주인은," 그가 덤덤하게 말했다. "재능과 미모를 겸비한, 가문도 평범치 않은 여인이었소. 그녀는 두 갈래 길 앞에서 있었지. 하나는 가문의 뜻에 따라 부귀영화를 누리며 평안하게 사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랑을

따라, 가난하지만 마음이 맞는 한 화가에게 가는 것이었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는 첫 번째 길을 택했지. 부귀영화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마음은 즐겁지 않았소. 평생 비단옷 속에서 살았지만, 단 하루도 진정으로 편안한 날이 없었지. 저 봉황 날개의 금은... 그 선택의 흔적이지요."

그는 간결하게, 아무런 감정 없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지만, 듣기에는 무거운 느낌이었다. 물건을 팔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 같지 않았고, 마치 그가 물건 자체에서 읽어낸 사실 같았다. 칭링은 펜던트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표정이 형언하기 어려웠다. 옥의 아름다움은 이제 더 이상 순수하지 않았고, 어딘가 슬픔이 더해진 듯했다.

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설마 이곳의 물건 하나하나에 각자의 이야기가 있는 것일까?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 나는 가게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내 시선은 먼지가 가득 쌓인 낮은 나무 탁자 위에 놓인 청동 나침반에 끌렸다. 그것은 요즘 나침반과는 달랐다. 자침은 작은 거북이 모양으로 만들어졌고, 거북이 등껍질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고대 기호 몇 개가 새겨져 있었다. 청동 케이스는 색이 바랬고, 유리 표면은 약간 흐렸지만, 거북이 모양의 바늘은 여전히 어둠 속 어딘가를 가리키며 가만히 있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손을 뻗어 나침반의 차가운 유리 표면을 가만히 만졌다. 기묘한 느낌이 손가락 끝을 통해 전해졌다. 마치 어떤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사라지는 것 같았다. 거대한 상선단이 바다 폭풍을 만난 모습, 거센 파도와 바람, 그리고 갑판 위에 서서 이와 똑같은 나침반을 짊어진 채, 굳건하면서도 약간은 막막한 눈으로 비바람을 바라보는 한 중년 남자의 모습이었다.

"길 찾는 나침반." 가게 주인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며, 내 머릿속의 이미지들을 꿰었다. 나는 돌아보았다. 그가 나를 보고 있었다. 그의 검은 눈은 내가 방금 본 것을 읽어낸 듯했다. "그것은 한때 한 상인이 바닷길을 찾아내어, 셀 수 없이 많은 재물을 가져다주도록 도왔소."

나는 그가 말을 잇기를 기다렸다.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으리라는 직감이 들었다.

"하지만," 그가 여전히 덤덤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 길 위에서, 일을 이루기 위해, 그는 많은 것을 선택해야 했소. 때로는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때로는 친구를 버리는 일을, 때로는 속임수를 쓰는 일을. 이 나침반은 그가 바람의 방향, 물의 방향, 이익의 방향을 찾는 데는 도움을 주었지만, 도리의 방향, 인정의 방향은 가리켜주지 못했소." 그

는 아주 나지막이, 거의 들리지 않는 한숨을 쉬었다. "말년에, 그는 아주 부유했지만, 외톨이였소. 황금 더미 위에서 죽었지만 곁에는 친척 하나 없었지. 나침반은 재물의 방향은 정확히 가리켰지만, 마음의 방향은 잃어버렸소."

나침반에 대한 이야기는 선택과 운명에 대한 또 다른 예시였다. 물질적 성공은 때로 마음의 공허함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이 가게의 낡은 물건 하나 하나는 인생의 갈림길, 한 인간의 운명을 만든 결정들의 증인인 듯했다. 그것들은 옛 주인의 과거를 비추는 거울일 뿐만 아니라, 지금 그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 지금의 나와 칭링 같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선택에 대해 은연중에 묻고 있는 것 같았다. 이 수연각은 단순히 낡은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마치 운명의 교차로, 여러 인생이 침묵 속에서 만나는 곳 같았다.

'정해진 운명'과 수련 속 '자유 의지' 사이에서

날개 부러진 봉황 펜던트와 방향 잃은 나침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수연각의 다른 낡은 물건들을 둘러보는 동안

에도 나와 청링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마치 이곳의 물건 하나하나가 선택과 그 결과, 옛 결정들로 인해 만들어진 운명의 길에 대한 교훈인 듯했다.

나는 가게 주인이 앉아 있는 나무 계산대로 다가갔다. 그는 여전히 예전처럼 가만히 앉아, 앞의 허공을 응시하며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했다. 가물거리는 등잔 불빛이 그의 늙은 얼굴에 명암을 드리워, 그를 더욱 신비롭게 보이게 했다.

"어르신," 나는 마음속이 복잡했지만 최대한 평범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쓰며 입을 열었다. "방금 하신 이야기들... 이 물건들의 옛 주인들에 대한 이야기들 말입니다... 마치 그들의 운명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결정된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자신의 길을 바꿀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내가 실 팔던 노부인에게서 인연과 업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날부터 계속해서 나를 번뇌하게 했던 질문이었다. 만약 모든 것이 전생의 업의 결과이고, 모든 인연이 이미 연결되어 있다면, 현세에서의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가게 주인은 천천히 나를 돌아보았다. 이번에는 그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지 않고 내 눈을 똑바로 보았다. 아주 깊은 시선, 마치 내 생각을 다 읽는 듯한 시선이었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가게 안은 다시 무거운 정적에 잠겼고, 오직 방 한구석 낡은 괘종시계의 불분명한 째깍거림만이 들릴 뿐이었다.

이윽고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쉼 듯, 느릿했다. "운명과 자유 의지... 그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오, 젊은이."

그는 앙상한 손가락 하나를 들어, 등 뒤 벽에 걸린 산수화 두루마리 하나를 가리켰다. 그림에는 겹겹이 이어진 산맥과 자욱한 구름, 그리고 산비탈 사이로 구불구불 이어지며 보일 듯 말 듯 한 작은 오솔길이 그려져 있었다.

"각 사람의 인생길은," 그가 말했다. "저 그림 속 오솔길과 같소. 그 길은 산과 강이 어딘가에 따라 이미 형성되어 있지. 그것들은 업력, 태어난 환경, 가족, 사회와 같소. 그것은 자신이 이전에 지은 업, 태어날 때의 가족과 사회에 의해 만들어진 '정해진 운명'의 일부요. 그 길은 험할 수도, 쉬울 수도, 넓을 수도, 좁을 수도 있소."

그는 잠시 멈추고, 나를 살피듯 보았다. "하지만," 그가 힘주어 말했다.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어떻게 걸을지를 전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소. 그는 조심스럽게 걸으며, 웅덩이나 뾰족한 돌을 피할 수 있소. 그는 피곤할 때 멈춰 쉬거나, 더 빨리 가려 애쓸 수도 있소. 그는 함께 가는 다른 사람을 돕거나, 이기적으로 앞서 나갈 수도 있소. 심지어, 그는 옛길이 더 이상 맞지 않는다고 느끼면, 더 어려울지라도, 다른 길로 꺾을 수도 있소."

"어르신의 뜻은...?" 나는 무언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내 뜻은," 그가 답했다. "초기의 풍경과 길은 과거의 업에 의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수 있소. 그것이 '운명'이지. 하지만 당신이 걷는 방식, 각 갈림길에서의 선택, 그것이 바로 '자유 의지'요. 그것은 누구도 당신을 대신해 결정해 줄 수 없소. 그리고 바로 이 현재의 선택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업을 만들어, 앞길을 바꿀 수 있으며, 심지어 최종 목적지 까지도 바꿀 수 있소."

그는 다시 가게 안의 낡은 물건들을 바라보았다. "이 물건들의 옛 주인들, 모두 각자의 길이 있었소. 어떤 이는 부유하게 태어났지만 뒤로 가는 길을 택했고. 어떤 이는 어려움

에서 시작했지만 노력하고 올바른 길을 택해 위로 올라갔지. 문제는 출발점이 아니라, 가는 길 내내의 선택들에 있소."

"그렇다면 수련은 어떻습니까?" 칭링이 문득 물었다. 아내는 어느새 내 옆에 와 서 있었다. "수련은 사람이 자신의 길을 더 명확히 보고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도와줍니까?" 그녀의 질문은, 우리가 은사나 묵 노선생에게서 들었던 수련에 대한 것들이 그녀를 정말로 많이 생각하게 했음을 보여주었다.

가게 주인은 칭링을 돌아보았다. 거의 보이지 않는 아주 희미한 미소가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다. "아주 옳은 질문을 했소." 그가 말했다. "수련은, 만약 올바른 길을 간다면, 바로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사람의 본래 선한 성품과 명철함을 흐리게 하는 욕망과 집착들을 버리는 방법ियो."

"마음이 맑고 고요해지면, 사람은 사물을 더 올바르게 볼 수 있고, 감정이나 사리사욕에 눈이 멀지 않게 되오. 그들은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알게 되지. 거기서부터, 그들은 도리와 양심에 더 맞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소."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목소리가 조금 더 진지해졌다. "더욱이, 올바른 수련은 사람이 과거에 지은 나쁜 업을 줄이고, 덕과 복을 더 쌓도록 돕소. 업이 변하면, 그 '운명'의 길 또한 따라 변할 수 있소. 험한 길이 더 쉬워질 수도 있고, 어두운 길이 더 밝아질 수도 있소. 그것이 바로 심성을 닦음으로써 운명을 바꾸는 힘ियो."

가게 주인의 설명은 우리 머릿속의 많은 것들을 밝혀주는 듯했다. 그것은 업이나 운명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각 개인의 자유 의지와 선택, 특히 그 사람이 올바른 수련의 길을 걸을 때의 선택을 강조했다. 운명은 자신을 묶는 것이 아니라, 강물과 같아서, 자신이 자신의 배를 좋은 흐름을 따라 몰고, 위험한 곳을 피하며, 심지어 그 흐름을 더 좋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온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운명을 완전히 지배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영향을 미칠 권리와 책임이 있음을 이해했다. 매일의 모든 선택을 통해. 그리고 그의 말에 따르면, 수련의 길은 바로 그 올바른 일들을 할 수 있는 명철함과 힘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눈앞의 갈림길과 미래의 가능성들

운명, 자유 의지, 그리고 수련에 대한 가게 주인의 설명을 들은 후, 가게 안의 분위기는 다소 달라졌다. 처음처럼 무겁지 않았고, 마치 무언가 막 해명된 듯했다. 나는 머릿속도 가벼워졌지만, 동시에 앞으로의 모든 선택의 무게를 더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가 주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떠나려 할 때, 내 눈은 자연스럽게 가게의 가장 어두운 구석, 흑단으로 만든 낮은 선반 위에 놓인 한 물건에 끌렸다. 그것은 다른 것들처럼 화려하거나 기이한 골동품이 아니었다. 그저 네모난 작은 나무 상자였는데, 짙은 갈색에, 낡아 보였지만 이상할 정도로 깨끗했고, 마치 누군가 방금 정성껏 닦아놓은 듯했다. 내 주의를 끈 것은 상자 뚜껑에 자물쇠도, 조각된 문양도 없이, 등잔불 아래 희미하게 빛나는 매끄러운 나무 표면뿐이라는 점이였다. 그것은 거기에, 조용하고 은밀하게 놓여 있었지만, 내게 아주 기묘한 느낌을 주었다. 마치 그 안에 아주 중요한 무언가가 들어 있는 듯했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 상자 가까이 다가갔고, 찡릿도 호기심에 따라왔다. 문득 나는 그것을 열어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동시에 약간의 망설임도 있었다. 만약 이 상자를 열

면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 일어날 것 같은, 불분명한 느낌이였다.

나는 가게 주인을 힐끗 보았다. 그는 여전히 계산대 뒤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검은 눈은 이제 그 나무 상자를, 그리고 우리를 보고 있었다. 알 수 없는 미소가 다시 그의 입가에 스쳤다.

"저 상자는..." 칭링이 약간 머뭇거리는 목소리로 나지막이 물었다. "안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가게 주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우리를, 그리고 다시 그 상자를 보았다. 그의 눈은 아주 깊었다. "안에 말이오?" 그가 되물었다. 목소리는 낮고 쉼 듯했다. "보물지도일 수도 있고. 옛 저주일 수도 있소. 아니면 혹시... 그냥 텅 빈 상자일 뿐일지도 모르지."

그는 잠시 멈추고, 우리 눈을 똑바로 보았다. "그것은 여는 사람에, 그들의 인연과 선택에 달려 있소."

그의 말은 모호하게 들렸지만 아주 큰 무게가 실려 있었다. 문양 없는 그 나무 상자는 문득 우리가 막 서 있는 듯한 바로 그 갈림길의 상징처럼 보였다. 이 길을 계속 탐험하여, 막 열린 신비로운 정신세계로 더 깊이 들어갈 것인가, 아니

면 익숙한 과학과 이성의 삶으로 돌아갈 것인가? 어느 길을 택하든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저 상자 안에 있을 수 있는 것들과 같았다.

나는 칭링을 보았다. 아내의 눈에도 망설임이 가득했다. 그녀는 가게 주인의 뜻을 이해했다. 우리는 마치 보이지 않는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았고, 그 문을 넘을지 말지는 오직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했다. 그 선택은 앞으로의 며칠뿐만 아니라, 어쩌면 긴 앞길을, 심지어 우리가 들었던 업력과 윤회의 이야기와도 관련될 수 있는 것이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곳에 서서, 어두운 구석에 조용히 놓인 나무 상자를 바라보았다. 우리 중 누구도 그것을 열려고 손을 뻗지 않았다. 아마, 지금은 결정할 때가 아니었을 것이다. 혹은 아마도, 우리가 그런 갈림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이미 중요한 일이었을 것이다.

마침내,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가게 주인에게 돌아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귀한 가르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칭링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가게 주인은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일 뿐, 눈빛은 변함없이, 여전히 신비하고 깊었다.

우리는 등을 돌려, 골동품과 운명의 이야기로 가득 찬 침묵의 공간을 뒤로하고 수면각을 나섰다. 문 위의 풍경이 다시 살짝 울렸다가 멎었다. 바깥의 저녁 햇살은 이미 많이 약해져, 하루가 저물어감을 알리고 있었다.

돌길 위를 걸으며, 내 마음은 온갖 것들로 복잡했지만, 동시에 무언가 더 명확해진 것도 있었다. 수면각과 그 신비로운 주인은 우리에게 최종적인 답을 주지는 않았지만, 선택의 힘과 책임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었다. 앞길은 여전히 희미하고, 수많은 가능성과 갈림길로 가득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 모든 선택이, 우리가 마주할 바로 그 '운명'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이해했다. 답 없는 나무 상자과 그것이 암시하는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은 분명 우리를 계속 따라다닐 것이다. 다음 날, 그 생각들을 품고, 우리는 진원을 떠나, 이전에 방문하기로 계획했던 유명한 낙산대불이 있는 낙산으로 향하는 여정을 계속했다.

낙산대불과 속세의 관광지

다음 날, 나무 상자와 인생의 선택들에 대한 생각을 품고, 우리는 진원을 떠났다. 차는 우리를 남쪽으로, 내가 오랫동안 이름만 들어왔지만 직접 볼 기회는 없었던 낙산대불이 있는 낙산으로 향했다. 청링 또한 기대하는 눈치였다. 이곳은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불교 유산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낙산으로 가는 길은 그리 멀지 않았고, 길 양옆의 풍경도 계단식 논과 마을들이 어우러져 꽤 아름다웠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나를 가장 먼저 놀라게 한 것은 그 지역의 규모였다. 우리가 이전에 방문했던 작은 사찰이나 외딴 암자와는 달리, 낙산은 거대한 주차장이 온갖 관광버스로 가득 차고, 인파가 끝없이 밀려드는 아주 큰 관광 단지였다.

우리는 인파를 따라 관광 구역으로 들어갔다. 대불의 전경을 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강에서 배를 타는 것이었다. 우리를 태운 배는 불상이 조각된 절벽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거대한 불상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 장엄함은 실로 말로 다할 수 없었다. 70 미터가 넘는 앓아 있는 미륵불상이, 붉은 사암 절벽에 바로 새겨져, 민강, 대도하, 청의강 세 강이 합류하는 지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천 년도 더 전에 지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공사의 규모는 정말 경이로웠다. 나는 옛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위대한 작품을 만들 수 있었는지 상상하려 애썼다. 불상의 머리는 산 정상

과 나란했고, 밭은 강물 위에 놓여 있었으며, 그 모습은 위엄 있으면서도 자비로운 기색을 띠고 있었다. 멀리서 보면, 불상 전체가 산과 하나가 된 듯, 인간의 손길과 자연의 기적적인 조화였다.

칭링 또한 아주 감동한 듯했다. 그녀는 조용히 바라보며, 이따금 카메라를 들어 몇 장의 사진을 찍었다. 나는 그녀 같은 문화 연구가에게, 이런 유산을 직접 목격하는 것이 아주 특별한 경험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공사의 웅장함과 더불어, 나는 주변 분위기 또한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러 언어로 계속해서 안내 방송을 하는 확성기 소리, 시끄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소리, 강가와 길가를 따라 기념품을 파는 상인들의 외침 소리. 배를 탄 후, 우리는 불상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 절벽 옆의 계단을 올라가 보기도 했다. 높이 올라갈수록 인파는 더 많아졌고, 때로는 서로 밀치며 가야 했다. 불상 주변에는 작은 불상, 팔찌, 염주에서부터 각종 간식거리, 음료수까지 온갖 것을 파는 가판대들이 즐비했다. 많은 사람들은 옛날 의상을 빌려 입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그 풍경은 다소 혼잡하고 시끄러웠으며, 내가 상상했던 성지의 고요하고 장엄한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었다.

산 위 은사의 암자에서의 거의 완벽한 정적이나, 망우진의 시간을 초월한 분위기, 심지어 황룡계의 소박하고 진솔한 분위기와 비교했을 때, 낙산은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곳은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였고, 그에 따르는 모든 번잡함과 상업적인 요소들을 동반하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비판할 생각은 없었다. 많은 관광객을 끄는 곳에서는 필연적인 일일 테니까. 하지만 솔직히, 그 불비는 인파와 소음 속에서, 나는 이전 장소들에서처럼 어떤 특별한 '에너지'를 느끼거나, 어떤 영적인 기이한 만남을 갖지는 못했다. 이 방문은, 내게는 주로 옛사람들의 신앙과 창의력의 증거인 위대한 건축 및 조각 작품을 감상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는 인근의 또한 매우 영험하다고 하는 몇몇 고찰을 방문하기 위해 낙산에 며칠 더 머물 계획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여관에서 식사를 하던 중, 칭링이 갑자기 미국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받는 동안,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놀라워하다가, 이내 당황하고 목이 메는 듯했다. 나는 아내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보았다. 전화를 끊은 후, 칭링은 나를 돌아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상하이에 있는 제 외사촌 오빠가... 방금 갑자기 세상을 떠났대요. 어머니께서 방금 전화하셨습니다."

그는 칭링이 상하이에 있을 때 꽤 친했던 사촌 오빠였지만, 미국에 온 후로는 연락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소식은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우리 둘 다 할 말을 잃었다. 비록 우리가 기묘한 것들로 가득 찬 탐험의 여정 중에 있었지만, 집안에 일이 생긴 것은 외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 바로 상하이로 가야 해요, 여보." 칭링이 말했다. 아주 슬펐지만 목소리는 더 차분해져 있었다. "오빠에게 항이라도 하나 피워드리고 싶고, 그쪽 이모님과 외삼촌 분들도 위로해드려야 해요."

나는 아내의 결정을 이해했다. 진행 중이던 여정을 잠시 멈춰야 한다는 아쉬움이 약간 있었지만, 이것은 해야 할 일이었다. "알았어."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가능한 한 빨리 상하이로 갈 준비를 하자."

그리하여, 쓰촨에서의 추가 탐험 계획은 갑작스럽게 바뀌어야 했다. 여행은 예정대로 계속될 수 없었고, 대신 고향에서 온 슬픈 소식과 상하이를 향한 급한 결정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 * *

제 8 장: 표지 없는 책

현대적인 상하이와 우연한 소개

쓰촨의 산간 지방에서 상하이로 이동하는 것은 마치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건너가는 것 같았다. 편안한 고속철도로 불과 몇 시간 만에, 우리는 이끼 낀 고성과 안개 자욱한 산들을 뒤로하고,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하고 변화한 상하이 한가운데 서게 되었다. 마천루들이 뽁뽁하게 솟아 있었고, 밤에도 네온사인이 현란했으며, 차량의 흐름은 언제나 분주했다. 내게는 대도시의 꽤 익숙한 모습이었지만, 칭링에게는 감정이 훨씬 더 복잡했을 것이다. 이곳은 그녀가 태어난 곳, 미국으로 가기 전 어린 시절의 추억이 깃든 곳이었다.

우리가 갑작스럽게 상하이에 온 주된 목적은 칭링의 외사촌 오빠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함이었기에, 약간의 당혹감과 슬픔을 안고 도착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이곳 가족들 모두를 놀라게 하고 슬픔에 잠기게 했다. 역에 내리자마자, 우리는 칭링의 이모와 이모부를 만날 수 있었다. 두 분의 얼굴에는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우리는 주로 친척 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그들과 함께 의례에 참여하고 풍습에 따라 조문객을 맞았다. 어쨌든 칭링의 외가 쪽 친척이었기에, 이런 시기에 함께하는 것은 가족에 대한 존중과 정을 표현하는 마땅한 도리였다. 비록 오랜 세월 떨어져 지내면서 관계가 예전처럼 아주 가깝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집안 분위기는 꽤 침울했다. 칭링도 사촌 오빠와의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며 약간 슬퍼하고 그리워했지만, 주로 가족들과 슬픔을 나누고 예의를 지키는 데 집중했다.

그런 와중에, 나는 틈틈이 미국에 있는 아이들에게 전화해 안부를 물었다. 다행히 아이들은 모두 컸고 이해심이 있어서, 부모님이 집안일 때문에 예상보다 중국에 더 오래 머물게 된 것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칭링의 사촌 오빠 장례식이 끝난 후, 집안 분위기도 조금은 누그러졌다. 사람들은 함께 앉아 더 많은 이야기를 나

눌 시간을 갖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가족 식사를 하던 중, 칭링 이모부의 친구 한 분이 놀러 왔다. 그는 천(陳) 씨였고, 이모부와 비슷한 연배에, 온화하고 잘 웃는 인상이었다. 가족 안부를 물은 후, 이야기는 점차 시사 문제나 건강 문제로 옮겨갔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천 아저씨가 문득 요즘 자기 동네 사람들이 많이 하는 수련법에 대해 언급했다. "요즘 저희 동네에 파룬궁(法輪功)이라는 기공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가 아주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와 칭링은 천 아저씨의 말을 듣고 서로를 쳐다보았다. 파룬궁이라는 이름이 어딘가 익숙하게 들렸다. 아마 예전에 미국에서 영문 인터넷이나 신문 몇 군데에서, 이 수련법이 중국에서 탄압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스치듯 읽었던 것 같았다. 그때는 자세히 알아보려 하지 않았고, 그저 그런 일이 있다는 것만 막연히 알고 있었다.

"파룬궁이요?" 칭링이 약간 놀랍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되물었다. "천 아저씨, 혹시 그게... 여기서 정부의 탄압을 받고 있다는 그 기공 아닌가요? 제가 미국에서 관련 뉴스를 몇 번 읽었던 것 같아요."

칭링의 질문을 듣고 천 아저씨는 살짝 놀라는 듯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목소리를 조금 낮췄다. "아... 네, 그 일도 아시는군요? 맞아요, 그런 일이 있지요. 건강에 좋고, 사람들에게 진(眞)·선(善)·인(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수련법인데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한숨을 쉬고는, 평범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쓰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믿고, 몰래 수련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 노인분들이 이걸 따라 하시는데, 다들 건강해지고 정신도 한결 밝아지셨어요. 전에는 허리가 계속 아파서 걷기도 힘들었던 할머니 한 분은, 몇 달 수련하시더니 지금은 걸음걸이도 빠르고 안색도 아주 좋아지셨지요."

그는 이 대목에서 목소리를 더욱 낮추고, 주위를 더 경계하듯 둘러보았다. "에휴, 이 이야기는 복잡하니, 여기서 깊이 얘기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는 분명 이 민감한 문제를 깊이 파고들고 싶지 않은 듯, 재빨리 다른 화제로 돌렸다.

천 아저씨의 말은, 비록 짧고 다소 회피적이었지만, 나와 칭링의 마음속에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치듯 읽었던 정보들은 사실이었던 것이다. 좋아 보이는, 많은 민중이 따르는 기공 수련법이, 정부의 탄압을

받고 있다니. 여기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의 초기 호기심에 이제는 약간의 의문과, 사태를 더 명확히 알고 싶다는 충동이 더해졌다. "파룬궁... 진·선·인... 탄압..." 그 단어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더 뚜렷해지기 시작했다.

거리에서의 인연과 귀한 책

칭링 이모부의 친구인 천 아저씨와 대화를 나눈 며칠 후에도, "파룬궁", "진·선·인", 그리고 그가 언급했던 "민감한" 분위기가 계속해서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내 또한 그 일에 대해 많이 생각하는 듯했다. 비록 스쳐 지나간 정보였지만, 그것은 형언할 수 없는 호기심과 약간의 불안을 자아냈다.

상하이에서의 어느 주말 아침, 날씨가 꽤 좋았다. 며칠간 주로 친척 집에서 집안일을 돌본 후, 우리는 기분 전환을 위해 산책을 나가기로 했다. 칭링은 그녀가 어릴 때 자주 놀러 갔던, 이모 댁 근처 공원에 가고 싶어 했다. 이 공원은 도심 한가운데 있었고, 꽤 넓고 나무가 많았으며, 아침

운동을 하러 온 사람들로 매우 붐볐다. 이곳의 분위기는 우리가 지나왔던 고성들의 정적과는 달리 활기차고 현대적이었다.

우리는 나무 그늘 아래 벤치를 찾아, 조용히 사람들을 구경했다. 어떤 이는 태극권을 하고, 어떤 이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또 어떤 이는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었다. 칭링은 수첩을 가져와, 이따금 무언가를 적었다. 나는 늘 메던 서류 가방을 어깨에 멘 채, 겪었던 일들과 천 아저씨가 했던 말들에 대해 여전히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과연 그 파룬궁이라는 것이 그가 말한 것처럼 정말 좋은 것일까, 그리고 왜 정부의 방해를 받는 것일까?

생각에 잠겨 있던 중, 나는 문득 근처에서 들려온 심상치 않은 소란에 깜짝 놀랐다. 우리가 앉아 있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공원 입구 쪽에서, 안경을 쓰고 소박한 셔츠 차림의 사십 대로 보이는 지적인 풍모의 한 남자가, 꽤 험상궂어 보이는 사복 차림의 다른 두 남자에게 길을 가로막혀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꽤 팽팽해 보였고, 지적인 남자는 무언가를 설명하려 애썼지만 다른 두 사람은 들으려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한 명은 그의 어깨를 강하게 밀치기까지 했다.

막연한 불안감이 솟아올랐다. 저 두 남자의 행동은 평범한 사람 같지 않았고, 오히려 사복 경찰 같았다. 내가 점차 알아차리는 법을 배우게 된 그런 모습이었다. 지적인 남자는 다소 겁먹은 듯 보였지만 여전히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고, 탈출구나 도움을 청하려는 듯 주위를 슬쩍 둘러보았다.

그리고 사건은 아주 빠르게 일어났다. 두 사복 경찰이 한 눈파는 사이, 지적인 남자는 갑자기 한 걸음 뒤로 물러나더니, 재킷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번개같이 꺼내 우리가 앉아 있던 나무 밑 장식용 큰 바위 두 개 사이 틈새에 교묘하게 밀어 넣었다. 그 행동은 너무나 은밀하고 빨라서, 만약 바로 그 순간 그 방향을 우연히 보고 있지 않았다면, 나는 결코 볼 수 없었을 것이다. 그 직후, 두 사복 경찰은 바싹 다가와 그의 팔을 단단히 붙잡고 몸수색을 시작했다.

나와 칭링은 얼어붙은 채 서로를 보았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분명 저 남자는 큰 곤경에 처했고, 그가 방금 숨긴 물건은 틀림없이 저 경찰들이 찾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무엇일까? 천 아저씨가 언급했던 파룬궁과 관련된 것일까?

두 경찰은 지적인 남자를 살살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짜증과 의심이 역력했다. 그들은 우리가 앉아 있는 곳을 포함하여 주변 지역을 훑어보기 시

작했다. 그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이리저리 쏘다녔다. 나는 아무 관심 없는 척,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속은 타들어 가는 듯했다. 만약 그들이 저 물건을 찾아낸다면, 저 남자는 분명 위험에 처할 것이다.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무언가 해야 한다. 그들이 저것을 찾게 되서는 안 된다. 약자를 돕고 싶은 반사적인 마음, 그리고 아마도 들었던 이야기들 때문에 숨겨진 저 물건에 대한 약간의 호기심에서, 나는 칭링을 돌아보며 눈짓을 보냈다. 그녀는 얼굴에 뚜렷한 걱정을 드러냈지만, 내 뜻을 알아차리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애썼다. 나는 일어나서, 어슬렁거리며 산책하는 척, 물건이 있는 바위틈을 무심코 지나갔다. 그곳을 지날 때, 두 경찰이 등을 돌려 지적인 남자를 심문하는 틈을 타, 나는 재빨리 땅에 떨어진 무언가를 줍는 것처럼 몸을 숙였고, 순식간에 내 손은 바위틈의 딱딱하고 두툼한 물건에 닿았다. 표지 없는 작은 책, 차갑고 단단했다. 나는 그것을 교묘하게 집어 들어, 어깨에 멘 서류 가방에 재빨리 쑤셔 넣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계속 걸었다.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나는 몇 걸음 더 건다가, 평범한 표정을 유지하며 칭링이 앉아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칭링은 걱정스러운 눈빛과 동시에 내 대담함에 약간 감탄하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두 사복 경찰은 주변에서 수상한 것을 찾지 못하자, 그리고 아마도 공공장소에서 너무 큰 소동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는지, 마지못해 지적인 남자를 풀어주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그들은 여전히 그를 주시하며 위협적인 어조로 무언가 말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분명 그는 아직 감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다.

두 경찰이 사라진 후, 지적인 남자는 잠시 멍하니 서서 옷과 안경을 고쳐 썼다. 그의 얼굴에는 아직 약간의 충격이 남아 있었지만, 더 차분해져 있었다. 그는 바위틈 쪽을 보더니, 그의 시선이 우리에게 멈췄다. 그는 무언가 알아차린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천천히 우리 쪽으로 걸어왔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약간 긴장되었다. 책은 이제 내 서류 가방 안에 고이 들어 있었다.

"감사합니다." 남자가 가까이 다가와 작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방금의 위험한 상황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부드럽고 정중했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보았다. "당신이... 저를 도와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별말씀을요." 나도 목소리를 낮춰 대답했다. "그들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이 좀 옳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것이... 당신 것입니까?" 나는 조심스럽게 가방 쪽으로 손을 뻗으며, 책을 꺼낼 준비를 했다.

남자는 황급히 손을 내저으며, 주위를 훑어보는 눈빛에 경계심을 드러냈다. "잠깐만요."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들이 아직 멀리서 저를 지켜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물건을 돌려받는 것은 당신과 저 모두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나는 알아차렸다. "그럼...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요?" 나는 본의 아니게 아주 민감해 보이는 물건의 보관자가 되어 다소 당황스러움을 느끼며 물었다.

남자는 깊은 감사가 담긴 진심 어린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머칠만 말아주시겠습니까? 좀 더 안전해지면, 제가 다시 연락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섬세하게 살피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당신은 외국인이지요? 중국에 여행 오셨습니까?"

"네, 저희는 미국 화교입니다." 내가 답했다.

그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 사색적인 표정이 떠올랐다. "아마도... 당신이 이 책을 우연히 좁게 된 것은 아닐 겁니다." 그가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책이 들어 있는 내 서류 가방 쪽을 보았다. "이것은 아주 귀한 책입니다. 그것은 우주와 인간의 심오한 도리를, 자신의 선량한 본성으로 돌아가는 참된 수련의 길에 대해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내 눈을 똑바로 보았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그것과 인연이 있다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쩌면 그것이 당신과 부인께서 이 여행에서 고민하고, 찾고 있는 것들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고는, 그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저는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디 몸조심하십시오!" 그는 서둘러 자리를 떴고, 이따금 경계하며 뒤를 돌아보면서, 재빨리 거리의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나와 칭링은 그곳에 서서, 그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표지 없는 책이 이제 내 서류 가방 안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물리적인 무게는 무겁지 않았지만, 나는 마음속에서 그것의 무게를 느꼈다. 귀한 책? 우주의 도리와 참된 수련의 길에 대해 설파하는 책? 또 '인연'? 낯선 남자

의 그 말들과, 우리가 방금 목격한 위태로운 상황이, 내 안에 강렬한 호기심과 함께, 어떤 책임감과 운명의 기이한 이끌림에 대한 느낌을 불러일으켰다.

그날 저녁, 이모 댁으로 돌아온 후, 우리는 의논했다. 가족들의 도움에 매우 감사했지만, 이 책을 조용히 연구하고, 만약 이 책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민감하다면" 친척들에게 불필요한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따로 머물 곳을 찾기로 결정했다. 며칠 후, 이모 댁 가족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작별한 후, 우리는 상하이 중심에서 약간 떨어진, 꽤 조용해 보이는 작은 호텔 하나를 찾았다.

'전법륜'과의 첫 만남 – 충격과 이끌림

새 호텔에 자리를 잡고, 사적이고 조용한 공간을 확보한 후에도, 며칠 전 공원에서 있었던 일로 내 마음은 여전히 진정되지 않았다. 나는 서류 가방에서 표지 없는 책을 조심스럽게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처음 느꼈던 것처럼, 이것은 전문적으로 인쇄된 책이 아니었다. 표지는 전혀 없었고, 그저 상아색 종이 뭉치를 가장 자리에 성긴 스테이플러 몇 개로 묶어놓은 것이 전부였다. 첫 페이지에도 저자나 출판사 이름은 없었고, 서론의 제목으로 굵게 인쇄된 한자 "논어(論語)"만이 있었다. 자세히 보니 인쇄 품질이 군데군데 약간 흐릿한 것이, 분명 사람들이 직접 인쇄해서 돌려보는 자료임에 틀림없었다. 그 소박한 외양이 오히려 이것이 귀하지만 금지된 무언가라는 느낌을 더 강하게 주었다.

"정말 읽을 거예요?" 칭링이 내가 책을 살피는 것을 보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좀... 평범해 보이지 않아요. 게다가 공원에서 있었던 일과도 관련 있고요. 만약 곤란한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알아." 나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 남자가 우리에게 말아달라고 부탁했고, 또 아주 간절하게 말했잖아. 안에 뭐가 쓰여 있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 그리고, 나도 궁금해." 게다가, 나는 이 만남과 이 책을 얻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어쩌면 이번 여행에서 어떤 안배가 있었던 것이라는 느낌이 계속 들었다.

나는 책장을 넘겼다. 전부 간체자 한자였다. 나보다 중국어에 훨씬 능통한 칭링이 옆에 앉아, 첫 부분들을 천천히 소리 내어 읽기 시작했다.

책의 언어는 실로 매우 직설적이고 소박했으며, 내가 칭링에게서 들었던 많은 고대 경전들처럼 화려하거나 난해한 은유를 사용하지 않았다. 저자는 마치 독자에게 직접 이야기하듯, 아주 일상적인 말로 우주, 생명, 그리고 인간으로 사는 진정한 목적에 대한 지극히 심오한 개념들을 표현하고 있었다. 책은 "법(法)", "수련(修練)", 그리고 "심성(心性)"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 주의를 끈 한 가지는, 책에 표지나 이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내용 속에서 자신이 강의하고 있는 책의 이름을 이따금 언급한다는 점이었다. 바로 "전법륜(轉法輪)"이었다. 예를 들어, 어떤 구절에는 "나의 이 『전법륜』이라는 책은 아주 높은 층차에서 법을 강의하는 것이다..." 또는 "내가 『전법륜』을 전하는 진정한 목적은 사람을 높은 층차로 제도(濟度)하려는 것이다..."라고 쓰여 있었다. 이 세부 사항들 덕분에 우리는 우리가 손에 든 책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책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 "진(眞)·선(善)·인(忍)", "업력(業力)", "덕(德)", "층차(層次)",

"법륜(法輪)" 같은 많은 단어들이 우리가 알던 것과는 아주 다른 깊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우주의 다층 구조, 여러 공간의 동시 존재, 먼 옛날의 문명들, 그리고 질병의 근본 원인이 업력이라는 것에 대한 구절들은, 내가 배우고 늘 믿어왔던 현대 과학 지식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처럼 들렸다. 내 과학적인 머리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고, 많은 부분에서 정말 믿기 어려웠다.

"정말 믿기 힘드네요, 그렇죠?" 칭링이 외계인과 그들이 인류 사회에 개입한 것에 대한 구절을 읽은 후 말했다. "글은 아주 솔직한데, 내용은...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맞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충 훑어보기만 하면, 사람들이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겠어. 하지만..." 나는 망설였다. "...왠지 모르게, 나는 읽는 걸 멈추고 싶지가 않아."

이 소박한 책장들에는 아주 기묘한 흡인력이 있었다. 초기 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새 모르게 빠져들었다. 더 깊이 읽을수록, 우리는 "전법륜"에 제시된 법리(法理)들의 명료함, 합리성, 그리고 아주 탄탄한 체계에 더욱 놀랐다. 책은 단순히 개념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가장 큰 것에 이르기까지, 그 근원, 본질, 그리

고 그것들 사이의 관계를 놀라울 정도로 일관되고 깊이 있게 설명했다.

그리고 기이한 것은, 이 법리들이 마치 우리 여정 동안 겪었던 의문들과 기이한 일들을 완벽하게 설명해주는 듯했다는 점이다. 책이 참된 기공과 수련 법문에 대해 강의할 때, 장평 선생과 산 위 은사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다. 책이 영혼, 업력, 윤회, 그리고 운명을 바꾸는 가능성에 대해 강의할 때, 묵 노선생, 실 팔던 노부인, 그리고 수연각 주인의 말들이 더 명확해지고, 더 높은 차원에서 이해되는 듯했다. 책이 다른 공간과 시간의 상대성에 대해 강의할 때, 망우진에서의 경험들이 더 이상 완전히 비합리적인 일이 아니게 되었다.

특히, "전법륜"이 "진·선·인"을 우주의 최고 특성이자,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가늠하는 유일한 표준이며, 모든 수련의 근본이라고 강의했을 때, 나는 마음속에서 강렬한 충격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하고 직설적이었지만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늘 찾아 헤맸지만 전혀 알지 못했던 바로 그 근본, 그 지침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칭링을 보았다. 아내의 눈 또한 크게 뜨여 있었고, 형언할 수 없는 감동과 기쁨으로 가득했다. "

밍," 그녀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책... 제 느낌에... 진짜 같아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법(眞法)이에요!"

나는 아내의 느낌을 이해했다. 나 자신도 비슷한 깨달음을 겪고 있었다. 마치 어두운 밤길을 걷다가 아침 빛을 본 사람처럼. 마치 사막에서 목마른 사람이 시원한 샘물을 찾은 것처럼. 이전의 영적인 경험들의 흩어진 조각들이 "전법륜"에 의해 하나의 완전하고, 명확하며, 의미로 가득 찬 진리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듯했다. 비록 내 과학적인 머리는 아직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몇몇 지점들이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아주 귀한 무언가를 찾았음을 알았다.

심오한 법리와 깊은 내면의 충격

상하이에서의 다음 며칠 동안, 우리의 삶은 마치 "전법륜"이라는 표지 없는 책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듯했다. 이 화려한 도시의 유명한 관광지를 둘러보는 대신,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호텔 방에서 함께 책을 읽고 사색하며 보냈다. 그 책에는 우리를 떨 수 없게 만드는 기묘한 흡인력이 있

었다. 낮에는 교대로 읽었고, 때로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소리 내어 읽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조용히 각자 곱씹기도 했다. 밤에는 등잔불 아래서 아주 늦게까지 깨어, 방금 읽은 내용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었다. 때로는 마음에 와 닿았던 부분에 대해, 때로는 아직 이해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 이야기했다. 마치 둘이서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가장 위대한 탐험에 함께 나선 기분이었다.

이 책은 정말로 특별했다. 읽을수록, 나는 모든 문장에 담긴 이상할 정도로 깊은 의미를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내가 알던 어떤 종교나 철학 서적과도 달랐다. 책은 무수한 다른 공간을 가진 우주 같은 아주 큰 것들에서부터, 물질 속 아주 작은 것들, 심지어 내가 아는 현대 과학을 뛰어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책은 또한 인간의 진정한 근원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단지 이 육신만 가진 것이 아니라, 원신(元神)이라 불리는 더 핵심적인 무언가가 있으며,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단지 물질적인 것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수련하여 자신의 본래 선한 본성으로 돌아가기 위함이라고 했다.

우주의 기본 특성으로서의 "진·선·인"이라는 개념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다. 책은 이것이 단순히 도덕적 표준이 아니라, 우주의 법(法)이며, 모든 것의 근간이라고 설명했다.

참된 수련이란 바로 이 세 글자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며, 매일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책은 또한 인과 관계, 업력과 덕—한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며, 행동과 심성 수련을 통해 바꿀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했다. 이런 것들은 나로 하여금 묵 노선생과 실 팔던 노부인의 말을 떠올리게 했지만, 여기서는 모든 것이 훨씬 더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설명되어 있었다.

"이 구절 좀 봐요, 밍." 어느 날 저녁 칭링이 책의 한 페이지를 가리키며 작게 말했다. "책에서 심성 수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공능이나 신체 변화 같은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심성을 제고하는가에 따라 온다고요. 단순히 명상을 많이 하거나, 공을 많이 연마한다고 되는 게 아니래요. 일상생활, 직장, 가정에서의 갈등에 직면해서, 자신이 어디서 잘못했는지 찾아보고, 다투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과시하는 마음 같은 좋지 않은 마음들을 버려야만 비로소 향상할 수 있대요."

나는 주의 깊게 따라 읽었다. 그랬다. 책은 수련이 반드시 일상생활과 연결되어야 하고, 현실과 부딪치며 시련에 직면해야만 진정한 수련이라고 강조했다. 이것은 수련하려면 절에 들어가거나 산으로 가서 속세를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던 내 이전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다.

하지만 과학자로서의 나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인류 역사와 현대 과학의 한계에 대해 쓴 내용이었다. "전법륜"은 내가 늘 옳다고 여겼던 다윈의 진화론과는 완전히 다른, 인류의 기원에 대한 관점을 제시했다. 책은 지구상의 인류가 여러 문명을 거쳤으며, 선사 시대의 어떤 문명들은 현재보다도 훨씬 높은 과학 기술 수준에 도달했지만, 결국 사회 도덕이 타락하여 멸망했다고 말했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책은 현대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거나, 기존 이론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몇몇 고고학적 발견들을 언급했다. 예를 들어, 가봉 오클로에서 발견된 20 억 년 전에 가동되었던 원자로, 여러 곳에서 발견된 거인의 발자국, 기이한 생물이나 미확인 비행물체를 묘사한 동굴 벽화, 혹은 문명화된 인간이 존재할 수 없었을 지층에서 발견된 믿기 힘들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된 물건들 같은 것들이었다.

"말도 안 돼!" 나는 이 부분들을 읽으며 중얼거렸다. 내가 수년간 배우고 가르쳐 온 역사와 생물학에 대한 모든 지식이 뿌리째 흔들리는 듯했다. 나는 비합리적인 점들을 찾으려 애썼고, 이러한 현상들에 대한 과학적 설명들을 떠올리려 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정통 과학계가 아주 어색하게 설명하거나 "미스터리"로 분류하는 비정상적인 고고학

적 발견들이 너무나 많았다. 설마 진화론이 단지 불완전한, 심지어는 틀린 가설이었을까? 설마 지구와 인류의 역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오래되었을까?

그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나를 아주 많이 생각하게 만들었다. 한편으로는, 내가 평생 따라온 과학과 실증 방법에 대한 믿음을 쉽게 버리고 싶지 않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법륜"의 내용과 책이 제시하는 증거들이, 과학이 손을 든 듯한 것들까지 설명해주는 아주 기묘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현대 과학의 한계를 깨닫기 시작했다. 그것은 너무나 자신이 볼 수 있는 물질세계에만 집중한 나머지, 정신, 영혼 부분을 간과했다. 그것은 관찰 도구와 실험 방법에 갇혀 있었다. 그리고 때로는, 이미 가진 지식을 벗어나는 것들을 감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경직되어 있었다.

과학에 대한 시각 변화와 함께, 내가 삶의 모든 것을 보는 방식 또한 달라지기 시작했다. 나는 내 경력의 성공, 내가 가진 돈, 사회적 관계들을 다시 생각했다. 책이 말하는 업력과 덕, 인생의 진정한 목적의 빛 아래서, 나는 그것들이 더 이상 그리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다. 이전에 내가 평범하고, 심지어 필요하다고 여겼던 직장 and 삶에서의 야망,

손익 계산, 다툼들이, 이제는 버려야 할 좋지 않은 것들로 보였다.

나는 또한 우리가 겪었던 기이한 만남들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 장평 선생과 그의 기묘한 '맥 짚기', 은사의 가르침, 묵 노선생의 영혼과 업력에 대한 설명, 망우진에서의 시간 체험, 실 팔던 노부인의 윤회 이야기, 수연각에서의 선택에 대한 교훈...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교묘한 안배, 내가 물질만 믿는 경직된 시각을 점차 버리고, 인연이 닿았을 때 진정한 대법(大法)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준비 단계 같았다.

우리는 또한 파룬궁이 우리가 알거나 들어왔던 다른 수련 법이나 종교와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수련법은 번거로운 종교 의식도, 의무적인 사찰이나 예배 장소도, 금전이나 기부금을 받지도 않았다. 그것은 수련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바로 진·선·인 표준에 따라 심성을 닦고, 동시에 5 가지 부드러운 공법을 연마하여 신체를 정화하는 데 곧장 집중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아주 심오한, 사람의 마음을 곧장 향하는 대도(大道)의 수련 길이었다. "전법륜"에 담긴 법리들의 체계성, 전면성, 그리고

그 깊이는 우리가 어떤 학설이나 종교에서도 본 적 없는 것이었다.

비록 책 속에는 우리가 아직 바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었고, 머릿서속에는 여전히 의문점들이 남아 있었지만, 평온함과 거대한 희망이 우리 둘에게 찾아오기 시작했다. 마치 오랜 표류 끝에 정박지를 찾은 느낌, 긴 밤 끝에 빛을 찾은 느낌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보았다. 눈빛에는 더 이상 부부의 사랑뿐만 아니라, 막 위대한 길 위에서 첫걸음을 떤 동행으로서의 공감과 격려가 담겨 있었다. 우리의 관계는, 함께 마음의 변화를 나누고, 우주의 심오한 법리를 발견하는 기쁨을 나누면서, 더욱 깊고 단단해지는 듯했다.

거의 "전법륜"에 완전히 몰입한 며칠 후, 우리는 더 많이 알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책에는 다섯 가지 공법과, 이 책을 쓰신 사부(師父)님의 다른 설법들도 언급되어 있었다. 우리는 그 동작들이 어떤지, 그리고 다른 경문들을 더 찾아 읽고 싶었다.

습관처럼, 내가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인터넷 검색이었다. 나는 노트북을 열어 호텔 네트워크에 연결했다. 칭링도 옆에서 설레며 기다렸다. 나는 익숙한 검색 엔진에 "파룬궁"을 영어와 중국어로 모두 입력해 보았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대부분의 링크는 접속할 수 없거나, 웹페이지에 오류가 뜨거나, 더 나쁘게는 우리가 책을 읽은 후 사실이 아님을 확신하게 된, 조작하게 왜곡된 부정적인 정보들뿐이었다. 나는 여러 번 다시 시도하고, 다른 키워드를 사용해 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왜 이렇게 이상하죠?" 칭링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이렇게 좋아 보이는 수련법이고, 이렇게 심오한 책이 있는데, 왜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기가 이렇게 어렵죠?"

나는 문득 중국의 인터넷 검열, 이른바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에 대해 들었던 것을 떠올렸다. 아마 이것이 이유일 것이다. 파룬궁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체계적으로 차단된 듯했다. 이것은 천 아저씨가 언급했던 "민감한" 성격이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더욱 느끼게 했다.

나는 기술자들이 가끔 사용하는 우회 도구 몇 가지를 사용해 볼까 생각했지만, 솔직히 나는 그런 것들에 대해 잘 몰랐고, 중국에 있는 상황에서 안전한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 미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검색한 후 보내달라고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시간이 걸리고 직접적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다소 막막해했다. 그때 칭링이 문득 말했다. "밍, 아니면... 천 아저씨께 다시 한번 여쭙보는 건 어때요? 그분 이웃 중에 이 수련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어쩌면 그분이 누군가를 알거나, 적어도 그들이 어디서 자주 수련하는지 아실 수도 있어요."

칭링의 의견은 일리가 있었다. 천 아저씨는 좋은 분 같았고, 비록 "민감한" 이야기에 대해 조심스러워했지만, 파룬궁에 대해 긍정적인 것들을 공유해주었다. 그것이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었다.

테이블 위의 책을 보고, 다시 칭링을 보며, 나는 더 깊이 알고 싶다면, 공법을 배우고 싶다면, 이곳의 인터넷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책을 준 그 남성과 다시 연락할 방법은 없었지만, 어쩌면 천 아저씨를 통해, 우리는 이곳 상하이에서 진정으로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들을 찾을 기회를 얻게 될지도 모른다.

새로운 길을 걸어보기로 한 결심

인터넷에서 파룬궁 정보를 찾는 것이 막혔다는 것을 깨닫고, 칭링이 천 아저씨를 찾아가자는 아이디어를 낸 후, 우리는 우리가 방금 겪은 일들과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더 진지하게 이야기하기 위해 마주 앉았다. 호텔 방은 작았지만 조용했고, 노란 등불과 우리 둘 사이에 놓인 표지 없는 책만이 있었다. 지난 사흘 동안, "전법륜"이 가져다준 것들은 실로 우리 둘의 세상과 자신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칭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내의 눈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 감동과 어딘가 장엄함이 섞여 반짝이고 있었다. "여보," 그녀가 나지막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난 사흘... 마치 아주 긴 여정을 거친 것 같아요. 이 책은..." 그녀가 "전법륜" 위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제가 알던 모든 것과 완전히 달라요.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정말 믿기 어려운 내용도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지극히 진실되고, 지극히 옳다고 느껴져요. 이것은 제가 이번 여행 내내 고민했던 것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해왔던 질문들에 모두 답을 해주었어요."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 눈을 똑바로 보았다. 결단력이 뚜렷했다. "제 느낌에... 마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은 것 같아요, 밍. 내면의 강한 충동이 제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법(眞法), 아마도 제 영혼이 아주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대도(大道)라고요."

나는 조용히 들었다. 내 심장은 그녀의 모든 말에 공명하고 있었다. 나 또한 인식의 혁명을 겪고 있었다. 내 견고했던 과학적 세계관은 "전법륜"의 법리들에 의해 심각하게 도전받았다. 탄탄한 논리, 완전한 체계, 우주와 인생의 모든 측면을 설명하는 능력, 특히 역사와 선사 문명에 대한 논증... 이 모든 것이 내가 믿어왔던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이해해, 칭링." 나도 감정이 벅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도 그렇게 느껴. 비록 내 이성엔 아직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이 법리들의 심오함과 힘을 부정할 수 없어. 그것들은 완벽한 내재적 논리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양심, 인간의 선량한 본성을 건드린다는 점이야. 그 진·선·인이라는 표준... 나는 이것이야말로 보편적인 진리, 가장 올바른 길이라고 느껴."

나는 아내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내 생각에... 우리는 아마 우리가 찾던 길을 정말로 찾은 것 같아."

침묵이 다시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동의의 침묵, 서서히 형태를 갖추어가는 중대한 결정의 침묵이었다. 우리는 알았다. 그저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만약 이것이 참된 길이라면, 우리는 그 위를 걸어야 했다.

"그럼... 우리 천 아저씨를 다시 찾아가서 더 여쭙보는 것부터 시작할까요?" 칭링이 이전에 우리가 논의했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물었다. 그녀의 눈빛은 설렘과 동시에 약간의 망설임이 섞여 있었다. "그분은 사정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공법을 가르쳐 줄 사람을 찾아주시거나, 적어도 파룬궁 수련자들이 어디서 활동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은 나 또한 생각하던 바였다. 진·선·인에 따라 심성을 닦는 것은 바로 시작할 수 있었다. 일상 모든 일에서 자신을 비추어보며 노력하는 것이다. 하지만 5 가지 공법은, 정말로 올바르게 배우려면 반드시 누군가의 구체적인 지도가 필요했다. "좋아." 나는 뚜렷한 결심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혹은 가능한 한 빨리, 우리 이모부를 방문해서 천 아저씨에 대해 교묘하게 물어보자. 아주 재치 있고 조심스럽게 해야 해. 이 일이 간단해 보이지 않으니까."

결정은 내려졌다. 우리는 책을 읽는 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즉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시작할 것이다. 모든 생각과 행동에서 진·선·인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인연이 허락한다면 천 아저씨의 도움을 통해 5 가지 공법을 배울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을 것이다. 파룬따파(法輪大法) 수련의 길이 눈앞에 열렸고, 비록 아직 미지수가 많았지만, 우리는 방금 찾은 진리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함께 첫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했다.

첫 초상적인 체험

그 솔직한 대화와 중대한 공동의 결정 이후, 흥분과 어딘가 장엄한 느낌이 우리 호텔 방을 감쌌다.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 많은 여행객이 아니었고, 마치 완전히 낯설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갈망하던 것들을 약속하는 새로운 문턱 위로, 새로운 길 위로 자발적으로 발을 들여놓은 듯했다.

천 아저씨를 다시 만나 공법을 가르쳐 줄 사람을 찾을 희망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지만은 않기로

했다. "전법륜" 책은 법리만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다섯 가지 공법에 대한 간략한 묘사도 있었다. 그중 다섯 번째 공법, 정공(靜功) 명상법은 앉는 자세에 대해 꽤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었다.

"아니면... 우리 한번 앉아볼까요?" 어느 날 저녁 칭링이 제안했다. 그녀의 눈에는 결심과 호기심이 섞여 빛나고 있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실천해 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한번 해보자. 책에서 정공은 주로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하니, 아마 머리를 비우고 조용히 앉아 있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을 거야."

그리하여, 호텔 방의 조용한 공간 속에서, 우리는 책에 따라 실천하려는 첫 시도를 시작했다. 나는 책에 묘사된 곁가부좌 자세를 흉내 내려고 애썼지만, 평생 의자에만 앉아 익숙해진 내 뻣뻣한 두 다리는 겨우 반가부좌 자세로 한쪽 다리를 다른 쪽 허벅지 위에 올리는 것이 전부였다. 통증과 저림이 금세 찾아왔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몸의 불편함을 무시하며, 책의 지시대로 마음속 잡념을 없애는데 집중하려 애썼다. 하지만 잡다한 생각들이 초대받지 않

은 파도처럼 계속해서 밀려왔다. 실로, 이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

나는 칭링을 힐끗 보았다. 그녀는 나보다 좀 더 잘하는 듯했다. 아마 선천적인 유연성 때문이거나, 동양인의 전통적인 앉는 자세 몇 가지에 익숙해서일 것이다. 그녀는 반가부좌 자세로, 등을 곧게 펴고, 두 손을 배 앞에 결인(結印)하고, 눈을 감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녀가 미간을 살짝 찌푸리는 것을 보았다. 아마 그녀 역시 다리의 통증을 견디거나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쓰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 잠시 후, 나는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칭링의 몸은 완전히 부동자세였고, 호흡은 규칙적이었지만, 그녀의 감은 얼굴 위로, 두 줄기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려 뺨을 타고 있었다.

"링?" 나는 약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나지막이 불렀다. "당신... 왜 그래? 다리가 많이 아파?"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마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태에 잠겨 있는 듯했다. 눈물은 계속 흘렀다. 나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고, 그저 조용히 지켜보며, 마음속에 질문만 가득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심오한 법리에 너

무 감동해서일까? 아니면 단순히 처음 명상을 할 때 나타나는 신체 반응일까?

한참 후에야, 그녀가 천천히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경이로움과 감동, 그리고 형언하기 힘든 어떤 초탈한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돌아보며,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밍... 저... 제가 방금 봤어요..."

"뭘 봤는데?" 나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음을 느끼며 바로 물었다.

칭링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명확하게 말하려 애썼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책대로 마음을 고요히 하려고 애쓰는데... 갑자기 제 눈앞이 더 이상 어둠이 아니었어요. 저는... 다른 눈으로 봤어요, 여기요." 그녀가 손을 들어 두 눈썹 사이 이마를 가리켰다. "저는 빛을 봤어요... 세상에서 본 적 없는, 이상할 정도로 찬란한 색깔들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마치 믿을 수 없는 꿈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리고 저는 다른 세계를 봤어요. 아주 아름답고, 지극히 휘황찬란했어요. 저는... 제가 그곳에 있는 걸 봤어요, 이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

으로, 아주 화려한 의상을 입고... 마치... 마치 그 세계의 왕(王), 그 세계의 주(主)처럼..."

아내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나왔다. "저는 심지어... 저 자신과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세계와 작별하고, 아래로... 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는 장면도 봤어요... 마치 이 시기에 대법(大法)을 기다리기 위한 어떤 맹세, 어떤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나는 멍하니 앉아, 칭링의 이야기에 완전히 압도되었다. 휘황찬란한 세계? 왕과 주? 세상을 내려오는 맹세? 이런 것들은 내 모든 상상을 뛰어넘었지만, 그녀의 강렬하게 감동한 표정, 멈추지 않는 눈물, 그리고 진실함이 담긴 눈빛은 나로 하여금 믿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나는 문득 "전법륜"에서 천목(天目), 생명의 진정한 근원, 그리고 다른 차원의 공간들에 대해 말했던 구절들을 떠올렸다. 설마... 설마 칭링이 처음 명상을 시도하면서 정말로 천목이 열린 것일까?

그녀가 그런 기이하고 초상적인 체험을 하는 동안, 바로 옆에 앉아 있던 나는, 다리의 저린 통증과 머릿속의 혼란스러운 생각들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뚜렷한 차이였다. 하지만 실망이나 의심 대신, 칭링의 체험은 오히려 내 인식에 강한 충격을 주었다. 비록 내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아내의 이야기와, 우리가 읽었던 것들, 그리고 이전의 만남들이 결합되어, 내 믿음을 강하게 굳혀주었다. 그것은 내게 책에 쓰인 것이 공허한 이론이 아니라, 사실이며, 수련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경지임을 보여주었다. 나는 각 사람의 수련의 길과 상태는 다르며, 중요한 것은 자신의 끈기와 깨달음의 성질(悟性)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당신을 믿어." 나는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책에서 말하는 것들은... 아마 모두 사실일 거야."

칭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깊은 감동의 여운이 남아 있었다. 그 체험은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이 삶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가져다준 듯했다.

다음 며칠 동안, 비록 나는 명상 중에 칭링과 같은 특별한 체험을 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둘은 다른 미세한 변화들을 느끼기 시작했다. 정신이 더 상쾌해지고, 머리가 이상할 정도로 맑고 투명해졌다. 삶의 사소한 번뇌들이 이전보다 우리를 덜 괴롭히는 듯했다. 때때로 나는 기이한 꿈을 꾸었는데, 불분명했지만 평온함을 가져다주거나 무언가를 암시했다. 어떤 때는, 작은 일에 대한 갑작스러운 직감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맞기도 했다.

이런 일들은 우리 마음을 훨씬 더 굳건하게 해주었다. 이 길이 정말로 우리가 찾아야 할 길인 듯했다. 하지만 계속 나아가기 위해, 특히 공법을 올바르게 배우기 위해서는, 분명히 지도해 줄 사람을 찾아야 했다.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었다.

* * *

제 9 장: 법리가 깨우쳐 주고 수련 공동체에 어울리다

탐색과 첫 연결

"전법륜"을 읽고 사색하며 보낸 며칠, 그리고 칭링이 겪은 기이한 체험 이후, 우리는 모두 아주 큰 충동을 느꼈다. 분명, 이것은 단지 평범한 책이 아니라, 우리가 운 좋게 만난 하나의 길, 하나의 지침이었다. 하지만 내가 말했듯이, 계속 나아가기 위해, 특히 다섯 가지 공법을 올바르게 배우기 위해서는, 지도해 줄 사람을 찾아야만 했다. 이곳 중국에서 인터넷으로 찾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었다.

칭링 이모부의 친구이자, 가족 식사 자리에서 무심코 파룬궁을 언급했던 천 아저씨를 찾아가자는 아이디어가 우리 머릿속을 맴돌았다. 비록 그때 그가 이 이야기에 대해 다소 조심스러워하는 듯했지만, 적어도 그는 그것에 대해 알고 있었고, 심지어 많은 이웃들이 수련한다고도 했다. 그것이 지금 여기 상하이에서 우리가 가진 유일하고 가장 가능성 있는 단서였다.

"천 아저씨를 다시 만나야겠어요, 여보." 어느 날 아침, 우리가 호텔을 나서려 할 때 칭링이 내게 말했다. "이렇게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어요. 제가 이모님께 전화해서, 천 아저씨를 집에 초대할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라도 받을 수 있는지 여쭙볼게요."

나는 그 의견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 이모 댁 가족들에게 더 폐를 끼치는 것이 조금 미안했지만, 이것은 중요한 일이었다. 칭링은 그 후 이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다행히 이모님은 별다른 것을 묻지 않으셨고, 그저 우리가 지난번 문병 와주신 천 아저씨께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셨는지, 기꺼이 그의 전화번호를 주셨다.

전화번호를 받은 후, 칭링이 직접 천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아주 교묘하게 말을 골랐다. 우리가 지난

번 건강 단련법에 대한 아저씨의 나눔에 아주 감명받았으며, 몇 가지 더 여쭙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혹시 잠시 만나 뵈는 시간이 있는지 물었다. 처음에, 전화기 너머 천 아저씨의 목소리는 약간 망설이는 듯했다. 아마 그 또한 우리가 무엇에 대해 묻고 싶어 하는지 짐작했을 것이다. 하지만 칭링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이 그를 설득한 듯했다. 마침내, 천 아저씨는 그날 오후, 자기 집 근처의, 꽤 한적하고 사람이 드문 작은 찻집에서 우리를 만나하기로 동의했다.

약속 시간이 되어, 나와 칭링은 찻집을 찾아갔다. 그곳은 골목 안쪽에 숨어 있는 작은 찻집이었고, 공간은 꽤 조용했다. 천 아저씨는 이미 구석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지난번처럼 온화해 보였지만, 눈빛은 더 신중해 보였다.

몇 마디 의례적인 인사를 나눈 후, 칭링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지만, 여전히 아주 차분하고 존중하는 어조를 유지했다. "천 아저씨, 지난번에 아저씨 이웃분들 중에 파룬궁을 수련하시는 분이 많다고 하셨지요. 사실, 저희도 우연히 인연이 닿아 이 수련법의 주된 책인 『전법륜』을 읽게 되었는데, 그 안의 법리가 지극히 심오하고 아주 의미가 깊다고 느꼈습니다. 저희는 더 깊이 알고 싶고, 특히 공법

을 배우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이곳에 아는 사람도 전혀 없습니다."

칭링은 말을 멈추고, 기대와 약간의 간절함이 담긴 눈빛으로 천 아저씨를 보았다. "저희도 이것이 다소 민감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희는 정말로 간절합니다. 혹시 아저씨께서... 저희를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아니면 이 수련을 하는 다른 분이라도 소개해 주실 수 없을까요?"

천 아저씨는 잠시 침묵하며 우리를 보다가, 다시 창밖을 보았다. 나는 그의 얼굴에 역력한 망설임을 볼 수 있었다. 정부가 주시하는 수련법에 대해 낯선 사람이 알아보도록 돕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닐 것이다. 찻집 안의 공기가 문득 약간 긴장되었다. 나와 칭링도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마침내, 천 아저씨가 가볍게 한숨을 쉬고는, 우리를 다시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처음의 경계심이 줄어들고, 대신 공감과 어쩌면 약간의 동질감이 깃들여 있었다. "두 분이 그 책과 그렇게 인연이 닿을 줄은 정말 몰랐군요." 그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참된 법은 정말 쉽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두 분의 간절한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말을 이었다. "이 일이... 공개적으로 말하기에는 좀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두 분이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 저도 차마 거절할 수가 없군요. 사실, 저에게도 친한 친구 한 명이 있는데, 이웃이기도 하고, 파룬궁을 수련한 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주 좋은 사람이고, 아는 것도 많지요. 아마... 제가 두 분을 그분에게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 아저씨의 말을 듣고, 나와 칭링은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했다. 큰 기쁨과 희망이 마음속에 퍼져나갔다.

"그렇다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칭링이 서둘러 말했다. "저희가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천 아저씨는 손을 내저었다. "별말씀을요. 인연 있는 사람이 좋은 것을 찾도록 돕는 것도 선행을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제게 약속해주셔야 합니다. 모든 일을 아주 신중하고 비밀스럽게 해야 합니다. 요즘 세상이..." 그는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우리는 모두 그 뜻을 이해했다.

그 후, 천 아저씨는 우리에게 그 친구분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주었다. 그의 이름은 류웨이(劉偉)였고, 다들 친근하게 류 아저씨라고 부른다고 했다. 천 아저씨는 우리에게 미리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고, 천 아저씨의 소개로 연락

드렸다고 분명히 말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한 구체적인 공법 학습에 대해서는, 두 분이 류 아저씨와 직접 상의하라고 덧붙였다. 그는 오랫동안 수련했고 경험이 풍부하니, 이 상황에서 두 분을 적절하고 안전하게 도울 방법을 분명히 찾을 것이라고 했다.

천 아저씨와의 만남은 비록 짧았지만, 아주 중요한 문을 열어주었다. 우리는 큰 희망을 품고 찾집을 나섰다. 마침내, 그토록 찾아 헤맨 끝에, 우리는 아마도 곧 진정으로 파룬따파(法輪大法) 수련의 길을 걷는 사람들과 직접 접촉하게 될 것이었다.

법을 배우고 공을 연마하며 공동체에 어울린다

류웨이 아저씨의 연락처를 받고 찾집을 나선 우리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희망을 느꼈다. 그날 오후 호텔로 돌아오자마자, 칭링은 류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신들을 소개하고 천 아저씨의 소개로 연락드렸다고 말하며, 파룬궁에 대해 더 알고 싶고 공법을 배

우고 싶다는 소망을 전했다. 수화기 저편에서 들려오는 류 아저씨의 목소리는 아주 따뜻하고 개방적이었지만, 동시에 어느 정도의 신중함도 있었다. 그는 누군가 알아보고 싶어 한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했고, 청링이 천 아저씨의 소개를 다시 언급하자, 류 아저씨는 다음 날 오후에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자기 집에서 만나자고 약속했다. 그는 또한 우리에게 길을 꽤 자세히 알려주었다.

약속 시간이 되어, 우리는 류 아저씨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다. 그곳은 낡고 특별할 것 없는 연립주택 단지 안의 작은 아파트였다. 흰칠한 키에 인상이 후덕한 중년 남자인 류 아저씨가 온화한 미소로 문을 열고 우리를 맞았다. 우리를 집 안으로 안내하고, 차를 따라주며, 아마도 우리가 수상한 점이 없다는 것을 살핀 후에야, 그는 더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지도해 줄 사람을 찾았다는 기쁨과 안도감은, 류 아저씨의 열정과 진심으로 빠르게 이어졌다. 대화를 나누고 우리의 진심과 배우고 싶어 하는 열망을 느낀 후, 류 아저씨는 우리에게 공법을 가르쳐 줄 시간을 마련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말했다. "공법을 연마하려면 고요함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제가 제 집에서 두 분을 따로 지도해 드리겠습니다. 파룬궁에는 다섯 가지 공법이 있는데, 네 가지는 동공

(動功)이고 한 가지는 정공(靜功)입니다. 배우는 것은 완전히 무료이고, 돈은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첫 수업은 바로 류 아저씨 집의 작은 거실에서 시작되었다. 공간은 넓지 않았지만 아주 깨끗하고 조용했다. 류 아저씨는 또한 그의 친구이자 역시 오래된 수련생인, 아주 인상이 후덕한 천(陳) 씨 할머니(후에 우리도 아주 좋아하게 된 분)를 초대하여, 우리를 더 세심하게 지도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분은 교대로 제 1 공법인 "불전천수법(佛展千手法)"의 동작 하나하나를 가르쳐주었다. 동작은 느긋하고 부드러워 보였지만, 직접 따라 해보니 결코 간단하지 않았다. 내 뻣뻣한 몸은 그들처럼 이완되고 부드러운 상태에 도달하기 어려웠다. 특히 몸을 뺄고 늘이는 동작에서는, 평소 운동이 부족했던 내 관절과 근육의 정체됨을 뚜렷이 느낄 수 있었다.

제 2 공법인 "법륜장법(法輪樁法)", 즉 바퀴를 안고 서 있는 공법에 이르러서는, 실로 진정한 시련이었다. 단지 "두전포륜(頭前抱輪)"(배 앞에서 바퀴를 안음) 자세를 몇 분 유지했을 뿐인데, 양팔은 이미 뻣근해졌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청링을 힐끗 보았다. 그녀는 나보다 좀 나아 보였지만, 이마에도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견디려 애쓰고 있었다. 그런데도 류 아

저씨와 천 할머니는 여전히 굳건히 서서, 마치 아주 가벼운 무언가를 안고 있는 듯 평온한 얼굴이었다.

"힘내세요." 천 할머니가 온화하게 격려했다. "처음에는 다 그래요. 조금 아프고 빠근하지만, 그걸 넘기면 아주 편안해질 거예요. 중요한 건 의지랍니다."

그들의 인내심과 선의는 우리를 지극히 감동시켰다. 그들은 우리의 서투름에 대해 전혀 조급해하거나 탓하지 않았다. 그들은 작은 자세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교정해주고, 각 동작의 요구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며, 우리가 기본을 익힐 때까지 반복해주었다. 다음 며칠 동안, 우리는 약속된 시간에 류 아저씨 집에 꾸준히 가서 두 분과 함께 공법을 배우고 연마했다. 점차, 우리는 다섯 가지 공법을 모두 배우게 되었다. 다섯 번째 정공인 "신통가지법(神通加持法)"은 결가부좌나 반가부좌 자세를 요구했는데, 내 뻣뻣한 다리에는 또 다른 시련이었다. 하지만 청링의 체험과 모두의 격려를 떠올리며, 나 또한 끈기 있게 노력했다. 비록 오래 앉아 있거나 머리를 완전히 비우지는 못했지만, 나는 공을 연마할 때 몸 안에 따뜻한 에너지의 흐름이 퍼지는 것, 매번 수련이 끝난 후 이상할 정도로 편안하고 상쾌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파룬궁 수련은 단지 동작을 연마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류 아저씨는 우리에게, 핵심은 진·선·인 원리에 따라 심성을 닦는 것이며, 책을 읽고 법을 배우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고 설명해주었다.

며칠간 친해지고 공법을 연마한 어느 날 오후, 류 아저씨는 우리에게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그 후에 다른 몇몇 친구들과 함께하는 법 학습 그룹에 참여하라고 초대했다. "저희는 보통 저녁에 모여 함께 책을 읽고 체험을 나눕니다. 작은 그룹일 뿐이고, 비밀과 안전을 위해 개인 집에서 모입니다. 두 분께서 괜찮으시다면, 남아서 함께 참여하시지요."

이 초대는 우리를 아주 소중하게 느끼게 했다. 우리는 현재 중국의 상황에서, 낯선 사람, 그것도 외국인을 개인 집의 법 학습 그룹에 초대하는 것이 그들 편에서 아주 큰 신뢰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날 저녁, 류 아저씨 집에서 소박하지만 따뜻한 채식 식사를 마친 후, 그의 친구 몇 명이 더 도착했다. 작은 거실은 다시 깔끔하게 정돈되었다. 안에는 이미 일고여덟 명이 돛자리가 깔린 바닥에 단정히 앉아 있었다. 류 아저씨와 천 할머니 외에, 몇몇 새로운 얼굴도 있었다. 택시 운전을 하는 젊은 남성, 은퇴한 방직 공장 여공인 중년 여성, 그리

고 초라해 보이지만 눈빛이 아주 온화한, 교외에서 농사를 지으며 가끔씩만 들어온다는 남성도 있었다. 방 안의 분위기는 아주 따뜻하고 어딘가 장엄했다.

법 학습이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교대로 "전법륜"의 구절들을 한 단락씩 읽었다. 목소리는 또렷하고 경건했다. 이전에 혼자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모두와 함께 듣고 배우니, 법리들이 마음속에 더 깊이 스며드는 것 같았다. 한 강의를 다 읽은 후, 사람들은 자신이 깨달은 것, 수련 과정에서의 개인적인 체험, 그리고 법에 비추어 삶과 직장, 가정에서의 어려움과 갈등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나누기 시작했다.

격렬한 논쟁이나 화려한 말은 없었다. 오직 진솔함, 솔직함, 그리고 함께 향상하고자 하는 바람만이 있었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오해받았을 때 어떻게 참으려 노력했는지 나누었고, 다른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려 노력했는지 이야기했다. 그들은 자신의 부족함, 좋지 않은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대법의 요구에 따라 그것을 바로잡으려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이야기했다. 유창한 중국어와 문화적 감수성을 지닌 칭링 또한 법리에 대한 자신의 초기 소감을 나누었고, 모두의 공감과 격려를 받았다.

나는 조용히 들으며, 마음속이 감동으로 가득했다. 여기서는 교수나 노동자, 기술자나 농부, 늙은이나 젊은이를 구분하지 않았다. 모두가 평등했고, 함께 배우고, 수련의 길에서 더 나아지기 위해 서로를 도왔다. 어떤 형태의 조직도, 지도자도, 금전 기부도, 예배 의식도 없었다. 오직 대법책 한 권과, 진정으로 수련하고자 하는 마음뿐이었다. 순수하고 선량한 분위기과, 이 사람들 사이의 진정한 유대감이, 보이지 않지만 지극히 강력한 정신적 힘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것은 내가 알던 어떤 조직, 종교, 단체와도 완전히 달랐다.

다음 며칠 동안, 우리는 점차 이 작지만 따뜻한 공동체에 녹아들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법을 배우고 공을 연마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각자 다른 환경, 다른 운명을 가졌지만, 모두 진·선·인에 대한 공통된 믿음,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자신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공통된 갈망을 가지고 있었다. 이 어울림은 우리가 파룬궁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도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길에 대한 결심과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었다. 우리는 이 여정에서 결코 혼자가 아님을 느꼈다.

기적적인 이야기들과 살아있는 증거들

류 아저씨 집에서 새로 사귄 수련생 그룹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우리는 그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듣게 되었다. 그 이야기들은 어떤 심오한 이론이나 난해한 철학이 아니었고, 아주 평범한 삶의 체험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기이한 일들, 파룬따파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책을 함께 읽은 후의 편안한 대화 시간이나 차를 마실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어떻게 수련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는지 이야기하곤 했다. 의학 교수인 내게, 처음에 특히 주의를 끈 것은 건강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이었다.

우리가 만났던, 온화한 미소를 지닌 천 할머니는, 예전에 심한 심장병과 걷기조차 매우 어렵게 만드는 관절염으로 아주 고통스러웠다고 했다. 그녀는 의사가 자기 병은 약으로 겨우 버티는 수밖에 없고, 삶은 점점 더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하지만, 몇 년 전 파룬궁 수련을 시작한 이후로, 그녀는 정신이 더 밝아졌을 뿐만 아니라, 건강도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다. 지금 그녀는 걸음걸이도 빠르고,

모든 일을 스스로 처리하며, 심지어 자식들의 집안일도 돕는다.

"처음에는 저도 그냥 건강해지려고 시작했어요." 그녀가 웃었다. 중병을 앓았던 사람 같지 않은 환한 웃음이었다. "하지만 류 아저씨가, 병이 나으려면 공법만 연마할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닦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녀가 가슴을 가리키며 말했다. "다투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쓸데없는 걱정 같은 것들을 버려야 한다고요. 저는 책에서 리(李) 사부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진·선·인에 따라 살려고 노력했어요. 점차, 마음이 더 가벼워지고, 더 이상 운명을 탓하거나 자식들에게 화내지 않게 되더군요. 그러자 병이 어느새 저절로 좋아졌어요."

내가 배운 의학 지식으로는, 천 할머니의 회복은 거의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생명력 넘치고, 안색이 좋으며, 걸음걸이가 빠른 할머니의 모습이라는, 눈앞의 현실을 믿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녀만이 유일한 경우가 아니었다. 택시 운전을 하는 젊은 이(李) 씨는, 수년간 자신을 괴롭히고 온갖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아 일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던 만성 편두통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런데 수련을 시작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통증이 점차 줄어들더니 완전히 사라졌다고 했다. 은퇴한 여공인 홍(洪) 씨는, 오랫동안

동안 앓았던 불면증과 신경 쇠약이 더 이상 없어지고, 삶의 기쁨을 되찾게 되었다고 나누었다.

나는 들으며, 내 의학 지식과 이 믿기 힘든 현실들 사이에서 마음속 투쟁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분명, 이 사례들은 흔히 물질적 신체에만 집중하는 현대 의학의 설명 능력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그들에게서 뿔어져 나오는 건강함과 밝은 정신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들은 전혀 과장하거나 꾸며내는 기색이 없었다. 더욱이, 그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강조한 한 가지 점은, 건강의 개선이 항상 심성을 제고하고, 진·선·인 원리에 따라 사는 과정과 함께했다는 것이었다. 마치 정신 상태, 도덕, 그리고 육체적 건강 사이에 우리 과학이 아직 닿지 못한 아주 긴밀하고 깊은 관계가 있는 듯했다.

하지만 나와 칭링을 더욱 감동시키고 존경하게 만든 이야기들은, 그들의 심성, 그들의 삶의 방식의 변화에 대한 나눔이었다.

강(強)이라는 이름의 한 남성은, 예전에 동네에서 심한 알코올 중독자이자 말썽꾸러기로 소문났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좋지 않았던 과거, 아내와 자식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고 이웃들로부터 외면당했는지에 대해, 약간 부끄러워하며 진솔한 목소리로 회상했다. "그때 저는 내일 없이 살

있어요. 돈만 생기면 마시고, 취하면 싸움을 벌였죠. 아내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가 말했다. "다행히 어떤 분이 제게 파룬궁을 소개해 주셨어요. 『전법륜』 책을 읽고,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 고통의 원인이 과거의 나쁜 일들로 만든 업 때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변하려면 심성을 닦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죠." 그는 술을 끊고 성격을 바꾸는 과정이 아주 힘들었지만, 꾸준히 책을 읽고, 공을 연마하며, 항상 자신에게 진실하고, 선량하며, 인내해야 한다고 되뇌인 덕분에, 점차 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금, 강 씨는 술을 완전히 끊고, 책임감 있는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었으며, 사람들과 온화하게 지낸다. 현재 그의 온화하고 차분한 말씨의 모습을 보면, 예전의 그를 상상하기 어려웠다.

류 아저씨 또한 한번은, 예전에 직장에서 명예와 이익을 아주 중시하고, 손익을 따지며, 때로는 좋지 않은 방법으로 동료와 경쟁하기도 했다고 나누었다. "대법을 배운 후에야, 저는 속인들이 평생 다투는 것들이 사실은 헛된 것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사색에 잠긴 표정으로 말했다. "정말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업과 덕뿐이지요. 사람은 진실하고 선량하게 살아야 하고, 모든 일에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관점을 바꾸었고, 더 이상 다투지 않으며, 일은 성심껏 하고, 사

람들을 더 진심으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지니, 삶도 훨씬 더 가벼워졌습니다."

칭링은 이 이야기들을 특별히 주의 깊게 들었다. 그녀는 내게, 그들이 실천하고 있는 진실, 선량, 인내와 같은 도덕적 가치들이 그녀가 연구했던 중국 전통 문화의 가르침과 비슷한 점이 있지만, 여기서는 그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체계적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단지 책 속의 이론이 아니라, 각자가 매일의 생각, 말, 행동 속에서 따르려 노력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이 작은 그룹에서 만난 모든 이야기,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는 증거였다. 그들은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 어떤 심오한 말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의 건강의 좋은 변화, 도덕의 성장, 그리고 그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평온함과 선량함 자체가, 파룬따파의 기적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였다. 이 이야기들과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고,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며, 우리가 수련의 길에서 첫걸음을 더 확고하게 내딛도록 재촉했다.

진·선·인 원리를 마음에 새기다

우리가 들었던 건강과 삶의 방식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은 정말로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나와 청링을 더욱 끌리게 하고 더 깊이 알고 싶게 만든 것은, 그 모든 이야기들을 꿰뚫는 붉은 실, 바로 진(眞)·선(善)·인(忍) 원리였다. 이 세 글자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서 본 모든 좋은 변화의 진정한 기반인 듯했다.

법 학습 시간이나 류 아저씨 및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들이 이 세 글자에 대해 심오하게 분석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 대신, 우리는 그들이 삶의 아주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진·선·인에 자신을 비추어보려 노력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는 깨달았다. 그들에게 '진'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진실하게 살고, 모든 일을 올곧게 하며, 거짓 없이 행동하는 것이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강 씨는, 자신이 변화할 수 있었던 첫걸음이 바로 자신의 잘못을 진실하게 인정하고, 회피하거나 남을 탓하지 않는 것이었다고 나누었다.

'선'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단순히 평범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관용이며, 심지어 자신이 손해를

볼 수 있을 때조차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려 노력하는 것이었다. 천 할머니는 한번은 연금을 잘못 받아 손해를 본 적이 있었는데, 화를 내거나 기어코 받아내려 하기보다는, 상대방 또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가볍게 넘어가기로 선택했다고 했다. "우리는 선(善)을 수련하는데, 작은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또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는 없지요." 그녀가 온화하게 웃었다.

그리고 '인'은, 아마도 우리가 그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을 본 것이었다. 그것은 나약한 체념이 아니라, 존경스러운 내면의 힘이었다. 우리는 홍(洪)씨가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것을 알고 예전 동료 몇몇에게서 조롱을 받았을 때, 맞서 싸우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기 일을 잘 해냈던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는 류 아저씨가 예전 직장에서의 불공정한 일들 앞에서 인내하며, 다투지 않고 그것을 업을 갠고 자신을 닦는 기회로 삼았던 이야기를 들었다. 마치, 그들에게는 모든 갈등, 모든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시험'이었고, '인'을 실천하고, 평정을 되찾으며, 수련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기회인 듯했다.

우리 주의를 특별히 끈 것은, 그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안으로 자신을 찾는(내향하여 찾음, 內向而找)" 것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남을 손가락질하며 탓하는 대신, 그들은 안으로 자신에게 되물었다.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게 어떤 좋지 않은 마음(다투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등)이 있어서 이런 일을 겪게 된 것은 아닌가?". 문제를 바라보는 이런 방식은 우리를 아주 낮설게 했고, 또한 아주 존경하게 했다. 그것은 항상 다른 사람의 잘못부터 찾는 많은 사람들의 습관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들의 진솔하고 소박한 나눔을 듣고, 그들이 서로와 다른 사람들을 매일 대하는 방식을 보며, 나와 칭링은 점차 진·선·인 원리의 깊이를 느끼게 되었다. 그것은 더 이상 낯선 단어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이야기를 통해 아주 생생하게 나타났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고, 얼마나 많은 부족함, 얼마나 많은 이기적인 생각, 얼마나 많은 습관이 된 성급한 반응들이 있었는지 깨달았다.

변하고 싶다는, 저 좋은 것들을 따르고 싶다는 충동이 우리 마음속에 형성되기 시작했다. 우리는 깨달았다. 앞길은 바로 이 세 황금 같은 글자에 따라 살고, 실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수련의 핵심이며,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자신의 진정한 본성으로 돌아가는 열쇠였다. 비록 이 초기 경험들을 통해 이제 막 열렸을 뿐이지만, 진·선·인의 빛은 우리의 앞길을

비추고 우리가 선택한 길에 대한 더 굳건한 믿음을 가져다 주기에 충분했다.

* * *

제 10 장: 붉은 태양 아래 – 감춰진 진실

불안의 첫 물결

상하이에서 약 3 주간 머물며, 류 아저씨와 그의 동료 수련생 그룹에 어울리면서, 우리는 운 좋게 만난 그 선량한 사람들과 더 가깝고 친밀해졌음을 느꼈다. 류 아저씨 집이나 다른 몇몇 은밀한 장소에서의 연공, 그리고 저녁의 법 학습과 나눔은 이곳에서의 우리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되었다. 그 활동들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온과 아주 큰 희망을 가져다주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평안함을

느끼고 있던 바로 그 순간, 마치 다가올 불길한 일을 예고 하듯, 불안의 첫 징후들이 조용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리가 처음 알아차린 것은 연공 약속의 변화였다. 때때로 연공에 참여하는 사람 수가 이해할 수 없이 줄어들었다. 며칠 동안 보이지 않는 익숙한 얼굴들도 있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류 아저씨가 전화해서 그날의 수련이 잠시 보류되었다고 알려거나, 때로는 "그게 더 편해서" 혹은 "갑작스러운 일이 좀 생겨서"라는 불분명한 이유로 만남 장소를 갑자기 바꿔야 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일부 수련생들의 태도 또한 이전보다 더 조심스러워진 듯했다. 법 학습 후의 활기차고 솔직했던 대화는 이제 때때로 주위를 살피는 듯한 시선으로 중단되거나, 어떤 이들은 특정 문제를 언급할 때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곤 했다. 늘 열정적이고 솔직했던 은퇴한 엔지니어 류 아저씨도, 한번은 우리와 단둘이 이야기할 때, 내가 이전에는 본 적 없는 약간의 걱정이 담긴 눈빛으로 이따금 창밖을 보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직접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방식은 내게 불분명한 원인의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

어느 날 오후, 나와 칭링이 류 아저씨 집 근처를 산책하고 있을 때, 나는 맞은편 길모퉁이에서 어슬렁거리는, 꽤 낮

선 얼굴의 사복 차림 남자를 발견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벽에 기댄 채, 이따금 류 아저씨의 연립주택 쪽으로 힐끗 쳐다볼 뿐이었다. 그저 우연일 수도 있었지만, 이 상황에서 그 모습은 내게 약간의 의구심을 갖게 했다. 칭링도 알아차리고, 그녀는 내 손을 더 짊잡았다.

분명,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었다. 초기의 평화롭고 개방적인 분위기는 걱정과 신중함의 옅은 안개로 뒤덮여 가는 듯했다.

한번은, 류 아저씨 집에서의 법 학습 그룹 모임(그날 참여 인원도 처음보다 훨씬 적었다)에서, 우리가 책에서 깨달은 바를 나누고 있을 때, 온화한 천 할머니가 문득 한숨을 쉬며, 마치 혼잣말처럼 작게 말했다. "요즘 날씨가 곧 변할 모양이야..."

나는 놀라서 되물었다. "날씨요? 제가 보기엔 날이 여전히 좋은데요, 할머니?"

천 할머니는 그저 가볍게,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미소를 짓고는, 더 이상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다. 옆에 앉아 있던 류 아저씨가 가볍게 헛기침을 하고는, 우리를 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두 분은 외국인이고, 또 막 오셨으니, 아직 모

르는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이 보이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아요.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때로는 쉽지 않지요. 두 분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류 아저씨와 천 할머니의 에둘러 하는, 의미심장한 말은 내 안의 불안을 더욱 크게 만들었다. 무엇을 조심하라는 것인가? 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인가? 그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나는 지금이 더 물어볼 때와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보이지 않는 어떤 장막이 진실을 가리고 있었고, 그 진실은 우리의 새로운 친구들이 매일 마주하고 있는 듯했으며, 우리는 이제 막 그 가장자리에 닿았을 뿐이었다. 이 불안의 징후들은, 비록 아직 모호했지만, 우리 탐험의 여정이 더 위험하고 더 많은 시련이 있는 굽이길로 막 들어서려 하고 있음을 알리기에 충분했다.

탄압에 대한 속삭임

불분명한 경고와 점점 더 신중해지는 분위기는 나와 칭링의 마음속 불안을 계속 키워나갔다. 비록 공원에서의 사건

과 인터넷 정보 검색의 어려움을 통해 파룬궁의 위험성과 "민감성"을 막연히 감지하고는 있었지만, 우리는 아직 전체 그림을 제대로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더 명확히 이해할 기회는 어느 날 저녁, 우리가 다시 류 아저씨 집에 초대받았을 때 찾아왔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소 달랐다. 류 아저씨와 천 할머니, 그리고 우리뿐이었다. 작은 방은 평소보다 더 고요해 보였고, 차는 탁자 위에 이미 준비되어 있었지만 아무도 손대고 싶어 하지 않는 듯했다.

침묵이 잠시 흐른 후, 류 아저씨가 우리를 똑바로 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처음 만났을 때의 살피는 듯한 기색은 더 이상 없었고, 진지함과 어딘가 아주 무거운 무언가가 가득했다. 그는 마치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 사람처럼 길게 한숨을 쉬었다.

"두 분," 그가 평소보다 낮고 느린 목소리로 시작했다. "요 며칠 두 분이 고민이 많아 보이고, 아마 몇 가지 이상한 점들도 느끼셨을 겁니다. 저희는 두 분을 가족처럼 여기기에, 숨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두 분을 더 걱정시킬까 두렵기도 합니다."

나와 칭링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우리가 곧 듣게 될 이야기가, 우리가 막연히 알고 느끼던 것들을 더 명확하게 해 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류 아저씨는 말을 이었다. "두 분께서도 『전법륜』 책을 통해 이미 아셨겠지만, 파룬궁, 즉 파룬따파는 사람들에게 진·선·인에 따라 살도록 가르쳐, 건강과 정신 모두에 큰 이로움을 주는 불가(佛家)의 상승(上乘) 수련 법문입니다. 예전에, 이곳 중국에서는 거의 1 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수련했고, 공산당원 수보다도 많았지요."

그는 잠시 멈추고, 작은 차 한 모금을 마셨다. "하지만... 두 분께서도 책을 건네준 그 동수(同修)의 일을 통해 어느 정도 느끼셨겠지만, 1999 년 7 월 20 일부터,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가라앉았고, 나는 그 안에 억누른 고통이 있음을 들을 수 있었다. "당시 중국 공산당의 수장이었던 장쩌민(江澤民)은, 개인적인 질투심과 파룬궁의 너무 빠른 성장에 대한 비이성적인 두려움, 즉 국민들이 당보다 진·선·인을 더 믿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정치국 내 다른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파룬궁과 수련하는 모든 사람들을 겨냥한 지극히 잔혹하고 부조리한 탄압을 발동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류 아저씨의 명확한 말을 듣자, 우리가 이전에 얻었던 정보의 조각들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탄압이 있다는 사실에 더 이상 크게 놀라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존경하는, 사건

의 당사자에게서 "전국적인, 지극히 잔혹하고 부조리한 탄압"이라는 말을 직접 확인하니, 문제의 규모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저희가 미국 인터넷에서 읽었던 것들, 그리고 그날 공원에서 목격했던 일들이... 모두 사실이었고, 심지어 훨씬 더 심각했다는 말씀이시군요?" 청링이 사건의 규모에 대한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목소리로 나지막이 물었다. "저는 여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이 단지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온화한 수련법에 대해 그렇게 잔혹한 수단을 사용해야만 했는지요?"

류 아저씨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공산당에게는, 자신들의 절대적인 통제하에 있지 않은 그 어떤 것, 당의 것이 아닌데도 민중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사상 체계도, 모두 자신들의 권력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그들은 국민들이 신불(神佛)을 믿고, 진·선·인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믿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무신론적이고 투쟁적인 본질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국가의 거대한 선전 기구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파룬궁을 비방하고 모함하는 데 사용되었는지 이어서 이야기했다. "그들은 TV, 라디오에서부터 신문, 인터넷까지 모든

매체를 동원하여, 밤낮으로 날조된 것들을 퍼뜨렸습니다. 그들은 파룬궁을 '사교(邪教)'라 부르고, 잘 모르는 민중의 증오심을 부추기기 위해 온갖 나쁜 이야기들을 꾸며냈으며, 한 세대 전체를 세뇌시켰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텐안먼 광장에서 '가짜 분신자살' 사건까지 연출하여 파룬궁에 죄를 뒤집어씌웠는데, 서투른 연극이었지만 국내외의 아주 많은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옆에 앉아 있던 천 할머니는 어느새 눈시울이 붉어져, 목이 멘 목소리로 나지막이 덧붙였다. "우리 수백만 명의 동수 형제자매들이 단지 진·선·인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멋대로 체포되고, 온갖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집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들이닥쳐 수색당했고, 대법 서적들은 압수되어 소각되었으며, 직장에서는 쫓겨나고, 자식들은 학교에서 차별받고, 가족들은 감시당하며 온갖 압력을 받았습니다..."

류 아저씨와 천 할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록 평온했지만, 마치 칼날처럼 내 가슴을 베는 듯했다. 이 박해의 규모와 사악함은 내가 이전에 상상할 수 있었던 것을 훨씬 뛰어넘었다. 이것은 더 이상 "민감한" 문제나 "방해받는" 정도가 아니었고, 의도적이고 체계적이며 지극히 잔인한 신앙 말살 작전이었다. 우리가 아는, 단지 진·선·인에 따라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이 온화하고 착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교'라는 누명을 쓰고 그런 끔찍한 일들을 견뎌야만 한단 말인가?

나는 칭링을 보았다. 아내의 얼굴 또한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에는 경악과 분노가 가득했다. 우리가 막 찾아서 소중한 여기게 된 고귀한 정신적 가치들이, 이제 국가 권력에 의해 의도적으로 짓밟히고 파괴되는 목표물로 드러났다.

"그 규모가... 정말 상상할 수 없군요." 나는 떨리는 것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다. "저희가 이전에 알던 것은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두 분께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전부 상상하기가 아주 어렵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특히 자유로운 환경에서 오셨으니 더욱 그렇겠지요." 류 아저씨가 깊은 공감의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난 20 여 년간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슴 아픈 진실입니다. 그것이 또한 저희가 모든 일에 아주 신중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두 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저희와 다른 수백만 수련생들이 매일 마주하고 있는 실제 상황을 두 분이 더 명확히 이해하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방 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하지만 이번에는 방금 드러난 잔혹한 진실로 인해 무겁고 답답한 침묵이었다. 탄압의 실제 규모, 그 잔혹함의 정도,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친구들이 마주하고 있는 위험들에 대한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류 아저씨와 천 할머니가 방금 들려준 이야기는 훨씬 더 크고 어두운 그림의 일부에 불과했고, 나는 우리가 더 깊이 알아봐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다.

잔혹함과 부조리의 증거

류 아저씨와 천 할머니가 들려준 탄압에 대한 초기 이야기들은 나와 칭링을 정말로 아연실색하게 했다. 그 후 며칠 동안, 내 머릿속은 그 끔찍한 정보들로 혼란스러웠다. 진실이 과연 그토록 잔혹할 수 있을까? 어디선가 오해가 있거나 과장된 것은 아닐까? 내 과학적인 머리는 여전히 합리적인 설명을 찾으려 애썼지만, 우리가 만났던 수련생들의 온화하고 진솔한 얼굴들이 떠올랐고, 그들이 뒤집어쓴 "사교"라는 낙인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다.

며칠 후, 류 아저씨 집에 다시 방문했을 때, 그는 우리가 여전히 많은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을 보고는, 더 깊은 이야기를 하기로 결심한 듯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이전에 만난 적 없는 란(蘭)이라는 이름의 중년 여성 한 분이 더 와 있었다. 란 씨의 얼굴에는 고된 삶의 흔적이 있었지만, 눈에는 기묘한 굳건함이 빛나고 있었다. 류 아저씨는 란 씨가 파룬궁 수련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몇 년간 감옥에 갇혔었다고 소개했다.

란 씨가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덤덤했고, 원망의 기색은 없었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듣는 이의 마음을 파고드는 듯했다. 그녀는 경찰이 집에 들이닥쳐, 두려움에 울부짖는 어린 자식 앞에서 집을 수색하고 자신을 체포해 갔던 그 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구치소, 그리고 그 후의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의 나날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우리를 인간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들은 우리가 진·선·인에 대한 믿음을 버리게 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썼어요. 그들은 우리가 '삼서(三書)'—수련을 포기하겠다는 각서, 반성문, 그리고 다른 수련생들을 고발하는 진술서—를 쓰게 하려고 했어요."

그녀는 자신과 다른 수련생들이 견뎌야 했던 고문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소름 돋게 하는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이었다. "그들은 전기봉으로 몸의 가장 민감한 부위들을 지졌어요. 비참한 비명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죠. 그들은 우리를 며칠 동안 계속 서 있거나 앉아 있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했어요. 잠시라도 졸면 무자비하게 구타당했죠. 어떤 사람은 몇 시간 동안 수갑이 채워진 채 매달려 있다가 기절하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코를 통해 위까지 딱딱한 플라스틱 관을 억지로 집어넣고, 더러운 물과 섞인 음식을 붓는 강제 급식을 당하기도 했어요. 끔찍한 고통과 상처를 남겼죠..."

여기까지 듣자, 칭링은 참지 못하고 가만히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내 가슴은 답답해졌고, 분노와 혐오감이 솟구쳤다. 이것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였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단지 육체적 고문만이 아니었어요." 란 씨가 약간 갈라진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정신적 고문이었죠. 그들은 우리에게 사부님과 대법을 비방하는 선전 비디오를 반복해서 보게 했어요. 그들은 가장 저속한

말로 우리를 욕하고 모욕했죠. 그들은 우리의 의지를 꺾고
믿음을 잃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썼어요."

우리가 더 명확히 보도록, 류 아저씨는 단단히 잠긴 한 찬
장에서, 여러 겹의 천으로 싼 얇은 자료 묶음을 조심스럽
게 꺼냈다. 그가 그것을 펼치자, 안에는 낡은 흑백 사진 몇
장이 있었다. 몸에 남은 멍 자국, 전기봉에 의한 화상 자국
을 찍은 사진들이었다. 또한, 지난 몇 년간 이 지역에서 체
포되거나, 형을 선고받거나, 이유 없이 실종된 일부 수련
생들의 이름과 주소를 꼼꼼히 손으로 적은 명단도 있었다.

"이건 아주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류 아저씨가 비통한 목
소리로 말했다. "이 나라 전역의 감옥, 노동 수용소에서 고
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을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문으로 죽거나, 가족들이 진실을 전혀 알지 못
하는 사이에 의문스럽게 살해당했습니다..."

그 사진들, 그 글자들을 보고, 란 씨의 가슴 아픈 진솔한
이야기를 들으며, 내 안에 남아 있던 마지막 의심마저 사
라졌다. 진실은 적나라하고, 잔혹하며, 지극히 부조리하게
드러났다. 한쪽에는 진·선·인에 따라 건강을 단련하고 도
덕성을 높이고 싶어 하는 온화한 사람들이 있었다. 다른
한쪽에는 거대한 국가 기구 전체가, 거짓 선전에서부터 아

만적인 고문까지 온갖 잔혹한 수단을 동원하여 그들의 믿음을 파괴하고 있었다.

이 대조는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어떻게 그런 부조리가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 법은 어디에 있는가?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인간의 양심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믿어왔던, 과학적 논리와 사회 질서에 기반한 세계관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나는 칭링을 보았다. 아내가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다. 분노가 그녀의 얼굴에 뚜렷했다. 그녀는 중국에서 태어났고, 고국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자랑스러워했다. 이제, 이곳 정부가 가장 아름다운 도덕적 가치들을 짓밟고, 가장 선량한 사람들을 파괴하고 있다는 잔혹한 진실과 마주해야 했으니, 그녀의 고통과 실망은 분명 나보다 훨씬 더 클 것이었다.

그날의 대화는 아주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끝났다. 우리는 방금 알게 된 진실의 무게를 안고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류아저씨 집을 나섰다. 우리가 막 찾은 파룬궁의 아름다운 빛은 이제 박해라는 끔찍한 어둠에 뒤덮여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부에서 지켜만 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며, 우리를 정말로 곤란하고 갈등하게 만들었다.

내면의 갈등과 진실과의 대면

그날 밤, 나와 칭링은 거의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왔지만, 머릿속은 류 아저씨 집에서 보고 들은 것들로 무거웠다. 방 안은 답답할 정도로 조용했고, 오직 칭링의 나지막한 한숨 소리와 내 가슴속에서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만이 들려왔다. 잔혹함과 부조리의 증거들과 함께 드러난 파룬궁 탄압의 진실은 우리 둘을 아연실색하게 했고, 생각과 감정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초기의 충격이 점차 지나가자, 소름 끼치는 공포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나는 현대적인 외관과, 우리가 만났던 온화하고 순박한 사람들을 가진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다른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자국의 온화한 국민들을 고문하고 살해하는 국가 기구를 가질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과학적 논리와 어떤 사회 질서에 대한 믿음 위에 세워졌던 나의 세계관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빛과 어둠, 선과 악, 진실과 거짓... 모든 것이 눈앞에서 고통스럽게 뒤섞이고 있었다.

나는 칭링을 보았다. 아내는 침대 위에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밤의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물은 말랐지만, 고통과 분노는 여전히 그녀의 눈에 뚜렷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그녀가 나보다 더 고통스러워하고 있음을 알았다. 이곳은 그녀가 태어난 고향, 그녀가 사랑하고 늘 가르쳐 온 문화의 땅이었다. 이곳 정부가 가장 아름다운 도덕적 가치들을 짓밟고, 가장 선량한 사람들을 파괴하고 있다는 진실과 마주해야 했으니, 그 상처와 실망은 분명 아주 클 것이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칭링의 목소리가 밤중에 나지막이 울려 퍼졌다. 약하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류 아저씨나, 천 할머니, 란 씨 같은 분들... 그들은 그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왜 그들을 원수처럼 대하는 거죠?"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모든 이치는 이 극단적인 부조리 앞에서 무의미해졌다.

그리고 두려움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내 마음을 차지했다. 우리는 외국인이었지만, 파룬궁 수련생들과 가깝게 접촉했다. 우리는 공법을 배웠고, 법 학습 그룹에 참여했으며, 『전법륜』 책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감시당하고 있는 않을까? 우리가 이 진실을 안다는 사실이 우리를 위협

에 빠뜨리지는 않을까? 우리 자신의 안전에 대한 걱정이 솟아올랐다.

하지만 즉시, 부끄러운 감정이 덮쳐왔다. 우리는 이 일을 안 지 며칠밖에 안 되었는데, 두려움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새로운 친구들은 어떠한가? 그들은 이 두려움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살아왔는가? 그들은 언제든지 체포, 고문, 심지어 목숨을 잃을 위험과 마주해야 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선량하게 살려 애쓰며, 다른 사람들을 도왔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의 두려움은 참으로 작고 어딘가 이기적이었다.

내 머릿속에서 격렬한 투쟁이 벌어졌다. 이성의 한 부분은 내게 즉시 이곳을 떠나, 안전한 미국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다. 중국은 너무 위험하고, 우리는 이 일에 얽여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다른 한 부분, 막 싹트기 시작한 양심과 진·선·인에 대한 믿음은, 내가 외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들의 도움을 받았고, 그들의 신뢰를 얻어 진실을 나누어 받았다. 지금 떠나는 것은 비겁한 짓과 다름없었고, 그들의 선의를, 우리가 막 배우기 시작한 바로 그 가치들을 배신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조용히 떠날까? 아니면 남아서, 위험과 마주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들을 도울 방법을 찾을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아무런 권력도, 이곳에 어떤 연고도 없는, 평범한 두 외국인일 뿐이었다.

빛과 어둠. 안전과 양심. 도피와 직면. 이 갈등이 내 머리를 어지럽혔다. 이것은 더 이상 평범한 문화 탐방 여행이 아니었다. 우리는 선과 악, 정의와 권력의 사악함 사이의 격렬한 대결 한가운데로 휘말려 들어갔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해야만 했다. 진실은 드러났고, 이제 우리는 그것과, 우리 자신의 마음과 마주하여, 앞으로 나아갈 길을 결정해야만 했다.

* * *

제 11 장: 폭풍우 치는 밤의 눈물 - 한 가족의 비극

폭풍 전야의 평온한 작은 가족

탄압의 잔혹한 진실에 대해 더 명확히 알게 된 충격 이후, 나와 칭링은 마음이 무거웠다. 우리는 당분간 법 학습 그룹 모임에 덜 참여했다.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만의 생각할 시간을 더 갖기 위함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점점 더 긴장되는 듯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꽤 자주 연락을 유지하는 한 가족이 있었다. 진심 어린 애정 때문이기도 했고, 그 집의 어린 딸이 칭링을 아주 잘 따랐기 때문

이기도 했다. 그 가족은 Kang(康裕) 씨와 그의 아내 Chen(陳梅) 씨였다.

우리는 류 아저씨 집에서의 첫 법 학습 모임에서 그들을 알게 되었다. Kang 씨는 서른 살쯤 되어 보였고, 기술 좋은 목수였으며, 다부진 체격에 말씨는 소박했지만 눈빛은 언제나 진솔함으로 빛났다. 그의 아내 Chen 씨는 초등학교 교사였지만 일을 그만두었는데(아마도 수련 때문일 것이라 짐작했다), 얼굴은 아주 온화했고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들에게는 샤오롄(小蓮)이라는 이름의,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통통하고 아주 사랑스러운 딸이 있었는데, 크고 둥그란 검은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작은 가족은 도시 변두리의 소박한 연립주택 아파트에 살았고, 재산 면에서 부유할 것은 없었지만, 언제나 웃음소리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다. Kang 씨와 Mei 씨 부부는 둘 다 아주 부지런한 파룬궁 수련생이었다. 진·선·인에 대한 믿음은 그들의 모든 몸짓, 말,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뚜렷이 드러났다. 그들은 소박하게 살았고, 이웃과 화목하게 지냈으며, 할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기꺼이 다른 사람을 도왔다.

우리는 몇 번 그들의 집에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다. 그것은 집에서 기른 채소 몇 가지와 두부로 된 간단한 식사였

지만, 분위기는 지극히 따뜻했다. 캄위 씨는 종종 일하면서 겪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메이 씨는 부드럽게 딸을 돌보았으며, 샤오옌은 재잘거리며 이야기하다가, 이따금 칭링의 품으로 달려와 안기며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다. 그들을 보며, 나는 아주 소박하고 진솔한 행복, 더 나은 삶을 살려 노력하는 사람들의 영혼 바로 그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다.

샤오옌은 특히 칭링을 좋아했다. 아마 칭링 또한 아이들을 아주 사랑하고, 늘 인내심을 가지고 아이와 놀아주고 책을 읽어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갈 때마다, 샤오옌은 기쁨에 겨워 소리치며 달려와 칭링의 다리를 껴안고, "칭이모"에게 안아달라고 졸랐다. 그 순수하고 맑은 아이의 모습은, 우리가 이곳에서 느끼는 점점 더 답답해지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 따뜻한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왜냐하면, 그 작은 가족의 평온함과 병행하여, 우리는 탄압의 검은 그림자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수련생들의 불완전한 이야기들, 우리가 방화벽을 우회하려 애쓰며 읽은 얼마 안 되는 정보들을 통해, 우리는 여러 곳의 상황이 아주 긴장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새로운 체포 물결이 있었고, 수련생들을 괴롭히는 사건들이 더 자주 일어났다. 이곳 상하이에서도,

우리가 들었던 다른 곳들에 비해 평온해 보이기는 했지만, 걱정의 분위기는 어딘가에 암암리에 존재했다.

우리는 캄위 씨와 메이 씨의 눈에서, 무심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스쳐 지나가는 걱정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자신과 다른 동수들이 마주하고 있는 위험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두려워하거나 피하는 대신, 그들은 오히려 자신의 믿음에 대해 더 굳건해 보였다. 그들은 여전히 집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매일 공을 연마했으며, 여전히 딸에게 선량한 것들을 가르쳤다.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은 캄위 씨가 나와 단둘이 이야기할 때, 낮지만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그저 진·선·인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을 뿐입니다. 대법은 제 가족에게 너무나 많은 좋은 것들을 가져다주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모함과 위협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그 굳건함은 우리를 존경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걱정하게 했다. 이 위태로운 평온함이 얼마나 오래갈 수 있을까? 이 작고 행복한 가족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폭풍우 앞에서 굳건히 설 수 있을까? 샤오옌의 천진난만한 미소, 메이 씨의 온화한 눈빛, 그리고 캄위 씨의 강인한 모습을 보며, 내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솟아

올랐다. 나는 그저 그들이 평안하기를 속으로 바랄 뿐이었지만, 이성적으로는 이 상황에서 기도가 너무나 위태롭게 느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밤중의 잔혹한 급습

강위 씨 가족에 대한 내 불길한 예감은, 무섭게도, 내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갑작스럽고 잔혹한 방식으로 현실이 되었다.

그날 밤, 나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마도 탄압에 대한 생각, 수련생들이 마주해야 하는 위험에 대한 생각들이 마음을 계속 맴돌았기 때문일 것이다. 상하이의 여름 날씨는 꽤 무더웠고, 호텔 방에 에어컨이 있었지만 나는 여전히 답답함을 느꼈다. 새벽 한 시가 넘어, 건디다 못한 나는 시원한 밤공기라도 쉴 생각으로 조용히 발코니로 나갔다. 우리가 묵는 호텔은 강위 씨 집의 연립주택 단지에서 그리 가깝지는 않았고, 몇 백 미터는 떨어져 있었지만, 이 높은 층 발코니에서는 그 지역 일부를 조망할 수 있었다.

먼 곳을 바라보며 무거운 생각들을 떨쳐내려 애쓰던 중, 나는 문득 한밤중에 캥위 씨 집 아파트의 불이 비정상적으로 환하게 켜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리고 그 직후, 꽤 먼 거리라 소리가 많이 묻혔음에도, 나는 문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 불분명한 고함 소리, 그리고 불 켜진 창문 안에서 혼란스럽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그림자 같은, 희미하지만 비정상적인 소란을 감지했다. 심장이 멎는 듯했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나는 서둘러 안으로 들어가 청링을 불렀다. 그녀 또한 내 움직임에 잠이 깬 참이었다. "링, 무슨 일이야! 아마도... 아마 캥위 씨 집인 것 같아!"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우리는 급히 겹옷을 걸치고, 조용히 호텔을 빠져나와 캥위 씨 집의 연립주택 단지 쪽으로 빠르게 달려갔다. 우리는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단지 건물 초입의 큰 나무 뒤에 숨어, 거기서 몇십 미터 떨어진 캥위 씨의 아파트를 볼 수 있었다.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 눈앞의 광경은 우리를 얼어붙게 했다. 캥위 씨 가족의 작은 아파트 문은 부서져 경첩이 떨어져 나간 채 활짝 열려 있었다. 경찰 제복을 입은 몇몇 남자와 아주 흥포해 보이는 사복 차림의 몇몇이 문을 가로막고 서 있었다. 아파트 안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고함

소리와 샤오옌의 가슴 찢어지는 울음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캉위 씨를 밖으로 끌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얇은 잠옷 차림이었고, 팔은 등 뒤로 꺾여 있었으며, 얼굴에는 멍 자국이 있는 듯했다. 그는 아파트 쪽을 고통과 무력감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발버둥 치려 애썼다. 그 직후, 천메이 씨 또한 두 명의 사복 차림 여성에게 끌려 나왔다. 그녀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뻘이 나가 있었다. 그녀는 딸의 이름을 부르려 애썼지만, 무리 중 한 명이 그녀의 입을 막았다.

"빨리 가! 차에 타!" 제복 입은 한 명이 소리치며, 캉위 씨와 메이 씨를 근처에 주차된, 번호판 없는 밴 형태의 작은 트럭 쪽으로 밀쳤다.

캉위 씨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리려 애쓰며, 크게 외쳤다. "파룬따파 하오(法輪大法好)! 진·선·인 하오(眞善忍好)! 박해를 타도하라!"

즉시, 한 경찰이 총 개머리판으로 그의 배를 강하게 쳐서 그가 고통에 몸을 구부렸다. 그들은 두 부부를 난폭하게 짐칸에 밀어 넣고 문을 콧 닫았다. 차는 굉음을 내며 어둠

속으로 질주했고, 텅 빈 공간과 황폐해진 아파트에서 여전히 들려오는 샤오옌의 처절한 울음소리만을 남겼다.

남은 무리들은 잠시 더 안을 뒤졌다. 우리는 그들이 몇 개의 상자를 들고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아마도 대법 서적과 관련 자료들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그것들을 다른 차에 던져 넣었다. 원하는 것을 다 가져간 후, 그들 또한 재빨리 차에 올라 떠났고, 부서진 문과 여전히 불 켜진 등, 그리고 외로운 아이의 울음소리만이 남은 아파트를 버려두었다.

모든 일은 30 분도 채 안 되어, 악몽처럼 빠르고 잔혹하게 일어났다. 주위의 다른 아파트들은 여전히 문을 굳게 닫고 있었고, 아무도 감히 내다보지 않았다. 아마도 그들은 이런 장면에 너무 익숙해졌거나,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어떤 반응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공포의 분위기가 연립주택 단지 전체를 감쌌다. 차갑고 무서웠다.

나와 칭링은 나무 뒤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온몸이 떨렸다. 한밤의 추위 때문이 아니라,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경악과 분노 때문이었다. 우리는 이른바 "인민 정부"의 잔혹함, 비인간성을 직접 목격했다. 그들은 한밤중에 민가에 난입하여, 문을 부수고, 구타하고, 사람들을 짐승처럼 체포해 갔으며, 이제 갓 세 살 된 아이를 극도의 공포 속에 내버려 두었다.

무력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우리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는 그저 힘없는 구경꾼일 뿐이었고,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 정권에 대한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그리고 캉위 씨, 메이 씨, 특히 샤오옌의 운명에 대한 걱정은 큰 바위처럼 마음을 짓눌렀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저 가여운 아이는, 이제 텅 빈 집 안에 홀로 남겨져, 어떻게 될까? 아이의 울음소리는 마치 칼날처럼 우리 심장을 베는 듯했고, 잊을 수 없는 고통과 가책으로 남았다.

잇따른 비보 – 부모의 실종

캉위 씨 가족이 체포되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후, 걱정과 불안이 우리와 우리가 알게 된 다른 수련생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당장 해야 할 일은 캉위 씨와 천메이 씨가 어디로 끌려갔는지, 그들의 상태가 어떤지 알아보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정보를 찾는 것은 바다에서 바늘 찾기
와 같았고, 또한 지극히 위험했다. 경찰서나 구치소는,
특히 파룬궁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가족들에게 결코 어떤
정보도 알려주지 않았다. 어떤 문의 시도도 의심을 받고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었다.

류 아저씨와 경험이 더 많은 몇몇 나이 든 수련생들이 아
주 은밀하고 조심스럽게,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소식을
알아보려 애썼다. 그들은 하급 국가 기관에서 일하는 지인
에게 부탁하거나, 인근 지역의 수련생들에게 아는 것이 있
는지 물어보았다. 매일이 초조한 기다림 속에서 지나갔다.
우리는 교대로 샤오렌을 돌보았다. 아이는 당분간 친절하
지만 역시 매우 두려워하는 한 이웃집에서 낮 동안 돌봐주
었다. 우리는 아이를 위로하고 함께 놀아주려 애썼지만,
샤오렌의 멍하고 두려움에 찬 눈빛과 "아빠 어디 갔어요?
엄마 어디 갔어요?"라는 천진한 질문은 우리 마음을 더욱
찢어지게 했다.

그 끔찍한 밤으로부터 약 일주일 후, 첫 비보가 닥쳤다. 류
아저씨가 낮이 나간 얼굴, 수면 부족과 슬픔으로 충혈된
눈으로 우리를 찾아왔다. 그는 구치소 내부의 믿을 만한
소식통(아마도 잔혹함을 견디지 못한 양심 있는 누군가가

몰래 알려준 듯했다)으로부터 소식을 받았다. Kangwi 씨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그들이 말하길... 그들이 말하길 Kangwi가 취조 중에 '돌연사'했다고 합니다." 류 아저씨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목이 메었다. "하지만 소식을 전한 사람은 그 며칠 전에, 그가 죄를 인정하지 않고 '삼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주 잔혹하게 고문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파룬따파는 좋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심장이 멈추는 듯했다. 우리가 막 알게 된, 순박하고 건강했던 목수 Kangwi가, 체포된 지 일주일 만에 '돌연사'할 수 있던 말인가? 그것은 너무나 비합리적이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것은 그 뒤에 있었다. 류 아저씨는 목소리를 거의 속삭이듯 낮추었고, 그의 눈에는 형언할 수 없는 분노와 혐오가 뚜렷했다. "그 사람이 또 말하길... 죽기 전에, Kangwi와 다른 몇몇이 아주 상세한 '건강 검진'을 받으러 끌려갔는데, 그곳이 일반 병원 같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신이 아주 빨리 돌아왔고, 가족들이 자세히 보지도 못하게 했으며, 배에 아주 이상한 봉합 자국만 보였다고... 그들은 혹시..."

류 아저씨는 말을 끝맺지 못했지만, 나와 칭링은 즉시 이해했다. 건강한 파룬궁 수련생들을 상대로 한 살아있는 장기 적출—우리가 풍문으로만 듣고 감히 사실이라고 믿지 못했던 인류에 대한 범죄—에 대한 끔찍한 의혹이,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명확하고 소름 끼치게 떠올랐다. 그들은 캥위 씨를 죽였다. 단지 그의 신념 때문만이 아니라, 아마도 그의 건강한 장기들 때문이었을 것이다.

메스꺼움과 차가운 한기가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이 정권의 잔혹함은 인간 상상의 모든 한계를 넘어섰다. 이것은 더 이상 평범한 정치적 또는 종교적 탄압이 아니었다. 이것은 인성의 파괴, 가장 야만적인 범죄였다. 칭링은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너무나 잔인한 진실을 견딜 수 없었다.

동수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몇 주 후, 천메이 씨에 대한 소식이 또 들려왔다. 양심 있는 한 변호사(비록 파룬궁 사건 변호를 공개적으로 말지는 못했지만, 암암리에 정보 파악을 도와주었다)를 통해, 우리는 메이 씨가 "사교를 이용하여 법률 시행을 파괴했다"는 날조된 죄명으로 8년 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형식적이고 신속한 1심 판결 직후, 그녀는 어느 외딴 산간 지방의 여자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그 이후로, 그녀에 대한 모든 정보

는 끊겼다. 가족 면회는 허용되지 않았고, 편지 또한 차단되었다. 그녀는 마치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듯, 생사를 아무도 알 수 없게 되었다.

비보는 잇따랐다. 단기간에, 행복했던 한 가족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 남편은 고문으로 죽었고, 심지어 장기 적출의 희생자일 수 있다는 의심까지 받았다. 아내는 감옥에 갇혀 소식이 끊겼고,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었다. 오직 어린 딸 하나만이 이 가혹한 세상에 외롭게 남겨졌다. Kang 씨와 천메이 씨 가족의 비극은 깊은 상처처럼, 파룬궁 박해의 사악하고 비인간적인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것은 더 이상 듣는 이야기나 신문 위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아꼈던, 살과 피를 가진 사람들의 고통, 눈물, 그리고 피였다. 이 진실은 우리 마음속에 결코 지워지지 않을 낙인을 새겼고, 동시에 시급한 질문 하나를 던졌다. 우리는 저 가여운 고아, 샤오옌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외로운 아이와 마음에서 우러난 결심

캉위 씨와 천메이 씨의 운명에 대한 가슴 아픈 소식이 확인된 후, 고통스러운 질문 하나가 공기 중에 맴돌았다. 누가 샤오렌을 돌볼 것인가? 이제 갓 세 살 된 아이는 더할 나위 없이 가혹한 상황 속에서 부모를 모두 잃고, 폭풍우 한가운데 외롭게 남겨진 작고 연약한 생명이 되었다.

친절한 이웃 가족은, 비록 아이를 아주 안쓰러워했지만, 샤오렌을 오랫동안 맡아줄 수는 없음이 분명했다. 그날 밤의 잔혹한 체포 광경을 목격한 후의 두려움이 여전히 그들을 괴롭혔다. 그들은 "파룬궁 분자"로 간주되는 사람들의 아이를 도왔다는 이유로 연루될까 봐 불안 속에서 살았다. 한번은 류 아저씨와 이야기할 때, 그들은 자신들의 곤란함과 걱정을 표현하며, 샤오렌을 고아원에 보내거나 다른 친척을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뜻을 던지시 비쳤다. 이는 샤오렌 같은 아이의 미래에 지극히 위태롭고 위험한 선택지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다.

나와 칭링이 샤오렌을 보러 갈 때마다, 우리 심장은 마치 누군가 쥐어짜는 듯했다. 아이는 더 이상 예전의 활발하고 재롱 많던 샤오렌이 아니었다. 이제 아이는 보통 집 한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크고 동그란 눈으로 두려움과 당혹감 가득한 채, 불확실한 허공을 멍하니 응시했다. 아이는 말이 없고, 웃음이 적었으며, 이따금 잠결에 "아빠!

엄마!"를 외치다 깜짝 놀라 깨어, 아무도 달랠 수 없이 흐느껴 울곤 했다. 순수하고 맑은 아이가 박해의 잔혹한 소용돌이에 휘말려, 부모의 신념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모습은, 우리 마음에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분노를 새겼다.

우리는 외면할 수 없었다. 우리가 배우려 노력하는 선(善)의 원리,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인간애가, 우리가 샤오옌의 너무나 비극적인 상황에 등을 돌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아이를 고아원, 즉 차별받고 학대당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은 우리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로 한 결정은 아주 큰 위험을 동반했다. 우리는 외국인이었고, 이런 민감한 상황에서 명확한 서류도 없는 중국 아이를 갑자기 입양하는 것은, 스스로를 정부의 감시망에 올려놓는 것과 다름없었다. 우리는 의심받고, 감시당하고, 심지어 체포되거나 추방될 수도 있었다. 우리 자신의 안전, 미국으로 돌아갈 계획, 모든 것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었다. 그 두려움은 완전히 현실적이었고, 모든 생각 속에 스며들어, 우리를 망설이고 갈등하게 만들었다.

그날 저녁, 샤오옌이 머물고 있는 이웃집을 나선 후, 우리 마음은 무거웠다. 우리는 호텔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침묵

속에서 걸었다.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지만, 모두 이 어려운 문제 하나를 향하고 있었다. 방에 돌아와, 우리는 한참 동안 마주 앉아 있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고, 오직 나지막한 한숨 소리만이 들렸다.

문득, 칭링이 고개를 들어, 내 눈을 똑바로 보았다. 아내의 눈에는 더 이상 평소의 망설임이 없었고, 대신 기묘한 굳건함,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듯한 단호함이 있었다.

"밍,"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아주 분명하고 힘 있었다. "저 깊이 생각해 봤어요. 저... 저는 저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저 아이를 그렇게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우리는 저 아이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해요. 아무리 위험하더라도, 저는 샤오렌이 이 막막한 미래에 혼자 맞서게 둘 수 없어요."

칭링의 말은 마치 전류처럼 내 몸을 훑고 지나갔다. 그것은 의견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확고한 선언이었고, 깊은 선량함, 대법을 통해 느꼈을 법한 사랑과, 샤오렌의 고통 앞에서 양심의 재촉에서 형성된 결정이었다. 내 안의 갈등은 즉시 사라지고, 그 자리를 동의와, 아내의 마음에 대한 감탄이 채웠다.

"이해해." 나도 감정이 벅찬 목소리로 대답하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이 아주 옳은 결정을 했어. 우리 함께 그 일을 하자. 우리가 샤오렌을 데려와서, 돌보고, 지켜주자."

최종 결정은 내려졌다. 우리 자신의 안위를 따지는 계산이 아니라, 마음의 강한 충동, 연민,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진·선·인 가치에 대한 믿음으로. 비록 앞길이 어렵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았지만, 칭링의 굳건한 눈빛을 보며, 나는 기묘한 든든함을 느꼈다.

바로 다음 날, 우리는 우리의 결정을 류 아저씨와 이웃 가족에게 알렸다. 처음에, 그들은 다소 놀라고 우리 같은 두 외국인의 안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이내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고 이해해주었다. 그들의 은밀한 도움으로, 우리는 샤오렌을 우리 호텔 방으로 데려올 모든 필요한 준비를 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샤오렌은 여전히 집 한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바로 칭링이 부드럽게 다가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아,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두 팔을 벌렸다. "샤오렌, 착하지. 이모한테 오렴." 칭링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아이는 몇 초간 멍하니 칭링을 보더니, 마치 아내에게서 뿔어져 나오는 안전함과 진실한 사랑을 느낀 듯, 조심스럽게 일어나, 작은 발걸음으로 칭링을 향해 걸어와 그녀의 품에 안겼다. 칭링이 샤오렌을 꼭 안고, 아이의 형클어진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떨고 있는 작은 등을 토닥여 주는 그 순간, 나는 칭링의 얼굴에서 성스러운 아름다움, 광활한 사랑, 그리고 비범한 힘이 빛나는 것을 보았다.

내가 결코 잊지 못할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우리 삶이 정말로 완전히 새로운 장으로 넘어섰음을 이해했다. 단순할 것 같았던 3 개월 여름 여행은, 8 월 말에 끝날 예정이었지만, 이제는 10 월 말이 다 되도록 길어졌다. 처음에는 단지 이수련의 길을 더 깊이 알고 싶어서 더 머물기로 했지만, 이제 샤오렌의 출현으로, 이 결정은 분명 우리를 이 격동의 땅에 얼마나 더 오래 붙잡아 둘지 모르게 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여행객이 아니었다. 우리는 본의 아니게 부모가 되었고, 방금 비극적인 상황에서 벗어난 작은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신성한 책임을 어깨에 짊어지게 되었다. 선량함과 칭링의 용기에서 비롯된, 우리 둘이 한마음으로 실행한 이 마음의 결정은, 역경 속에서 우리가 얻은 가장 깊고 진실한 진·선·인 실천의 교훈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우리를 새로운 여정, 즉 박해의 폭풍우 속에서 우리

세 사람 모두를 위한 생명의 길을 찾는, 위험하지만 의미로 가득 찬 여정으로 공식적으로 들어서게 했다.

* * *

제 12 장: 어두운 밤을 넘어 - 직면과 탈출

도주 계획의 수립과 시작

칭링이 샤오렌을 품에 안는 순간, 우리는 이곳 상하이에서 누리던 상대적인 안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명확히 깨달았다. 방금 체포되어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실종된 두 파룬궁 수련생의 아이인 샤오렌을 우리가 입양한 사실은, 분명 안보 기구의 눈을 피하지 못할 것이었다. 비록 그들이 당장 행동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나는 샤오렌을 데려온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행동이 아마도 그들의 감시망 안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아주 뚜렷한 느낌을 받

았다. 이 호텔에 하루라도 더 머무는 것은 너무나 위험했다. 우리뿐만 아니라 샤오옌, 그리고 류 아저씨처럼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 모두에게.

그날 밤, 샤오옌이 칭링의 품에서 지쳐 잠든 후, 우리는 호텔 방에 앉아 속삭이며 계획을 논의했다. 상황은 아주 급박했다.

"우리는 즉시 떠나야 해, 오늘 밤이나 늦어도 내일 새벽에는." 나는 심장이 아주 세게 뛰고 있었지만,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다. "여기 머무는 건 그들이 잡으러 오기를 기다리는 것과 다름없어."

칭링은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빛은 아주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로 가죠, 여보?"

"선택지는 하나뿐이야." 내가 답했다. "우리는 미국 영사관으로 갈 방법을 찾아야 해. 다행히 바로 여기 상하이에 영사관이 있어. 그것이 우리의 당면 목표가 될 거야."

칭링은 당장 너무 멀리 이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다소 안도하는 듯했지만, 이내 다시 걱정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곳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영사관 구

역까지는 가깝지도 않고, 만약 그들이 정말로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면..."

그랬다. 비록 목표가 같은 도시 안에 있었지만, 합법적인 서류도 없는 샤오렌과 함께 이동하는 것은 검문을 당할 경우 아주 위험했다. "우리는 여전히 아주 조심해야 해." 내가 말했다. "아마 영사관으로 바로 가지는 않고, 상황을 살피고 적절한 시기를 찾기 위해, 도시의 다른 구역에 있는 아주 은밀한 임시 거처를 먼저 찾을 거야. 우리는 가장 통제가 덜한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할 거야. 짧은 구간은 택시, 우회하는 노선은 버스를 타고, 경찰이 많은 도심 지역은 피하도록 노력해야지."

개략적인 계획이 세워졌다. 오늘 밤이나 이른 새벽에 이 호텔을 떠난다. 상하이의 좀 더 외곽 지역에, 더 은밀한 새로운 임시 거처를 찾는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미국 영사관에 연락하거나 길을 알아볼 방법을 찾을 것이고, 동시에 어떤 추가적인 주목도 끌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떠나기 전에, 나는 우리가 이전에 합의했던 간단한 암호 메시지(직설적인 표현 대신 암시적인 단어만 사용)를 통해 류 아저씨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다시 연락을 시도했다. 그에게 상황과 우리의 계획을 알리고, 동시에 만약 상황이

악화되어 우리가 상하이를 떠나야 할 경우를 대비해, 가능하다면 다른 지역 수련생 네트워크에 알려 우리가 길 위에서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했다. 우리는 이것이 류 아저씨에게 아주 위험한 부탁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준비는 어둠 속에서 빠르고 조용하게 진행되었다. 우리는 가장 필요한 것들만 작은 배낭 두 개에 채웠다. 옷 몇 벌, 남은 현금 약간, 우리 신분증, 그리고 물론, 우리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표지 없는 『전법륜』 책. 칭링은 우리가 며칠 전 급히 사둔 분유, 과자, 그리고 샤오옌의 작은 옷 몇 벌을 추가로 준비했다.

샤오옌은 방금 겪은 끔찍한 일들 때문에 지쳤는지,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다. 칭링은 아이를 조용히 안아 올려, 큰 수건으로 단단히 감쌌다. 우리는 불을 끄고, 호텔 방 문을 마지막으로 잠근 후, 밤의 장막 아래 조용히 떠났다.

상하이의 밤거리는 여전히 약간의 불빛이 있었지만, 작은 골목들은 한산했다. 갑작스러운 소음 하나에도 우리는 깜짝 놀랐다. 나는 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불안감을 늘 느꼈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다. 우리는 시내와 외곽 지역을 오가는 장거리 노선이 있는 도시 변두리 버스 정류장까지 꽤 먼 거리를 걸어갔다.

다행히, 막 출발하려는 심야 버스 한 대가 있었다. 우리가 임시 은신처로 점찍어 둔 외곽의 한 구역으로 가는 버스였다. 우리는 최대한 평범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표를 사고, 재빨리 버스에 올라 어둠 속에 가려진 맨 뒷자리를 택했다. 칭링은 샤오렌을 품에 꼭 안고, 아이가 계속 편히 잘 수 있도록 익숙한 자장가를 나지막이 불러주었다.

버스가 덜컥거리며 바퀴를 굴러, 변화하지만 동시에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 가득 찬 도심 지역을 떠날 때, 나는 비로소 잠시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하지만 단지 일시적일 뿐이었다. 창밖을 보니, 칙흑 같은 어둠이 마치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불확실한 미래 같았다. 우리 세 사람의 위험천만한 도주 여정은, 비록 이 도시 범위 내에서의 첫걸음이었지만, 이미 시작되었다. 우리는 무엇과 마주하게 될지, 영사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샤오렌을 지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어려운 길 위에서 대법과 선량한 마음들의 도움에 대한 믿음뿐이었다.

위험 속 선량한 네트워크

이 거대한 상하이 도시 안에서 새로운 안전한 은신처를 찾는 우리의 여정은, 긴장과 피로로 가득 찬 나날의 연속이었다. 낡은 호텔을 떠나 심야 버스를 타고 도시 외곽으로 나온 후, 우리는 한곳에 너무 오래 머물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이동해야 했다. 서류를 까다롭게 요구하지 않으면서 샤오렌에게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은밀한 여관을 찾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다. 경찰 순찰이 있는 구역을 지날 때마다, 비록 평범한 교통 단속일지라도, 내 심장은 쿵쾅거렸다. 나와 칭링은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고, 칭링은 보통 잠들었거나 잠든 척하는 샤오렌을 품에 꼭 안고,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그들의 주의를 덜 끌기를 바랐다.

음식은 주로 편의점이나 길가의 작은 식당에서 급하게 산 것들이었다. 샤오렌은 아직 어렸지만, 비정상적인 상황과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하는 듯했다. 아이는 평소보다 훨씬 얌전했고, 거의 칭얼거리지 않았으며, 그저 칭링의 품에 조용히 안겨, 스쳐 지나가는 낮선 거리 풍경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런 아이를 보며, 우리 마음은 서둘러 안전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결심으로 더욱 굳어졌다.

어려움으로 가득했고 때로는 완전히 고립된 듯했던 첫 며칠 동안, 우리는 암호 메시지를 통해 류 아저씨에게 보낸

우리의 부탁이 정말로 효과가 있을 줄은 예상치 못했다. 진·선·인에 대한 공통된 믿음으로 연결된, 선의와 상호 부조의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가, 바로 이곳 상하이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우리가 다른 구역에서 임시 거처를 찾느라 꽤 애를 먹고, 하루 종일 빙빙 돌며 이동한 끝에 다소 절망감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 한적한 버스 정류장에서 인상이 후덕한 한 중년 여성이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많은 말을 하지 않고, 그저 칭링에게 주소가 적힌 작은 쪽지를 건네며 나지막이 말했다. "혹시 류 아저씨 친구분들이신가요? 저를 따라오세요."

비록 처음에는 사정을 몰라 약간 망설였지만, 그녀의 진솔한 눈빛과 차분함을 보고, 우리는 믿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우리를 큰길에서 멀리 떨어진, 꽤 조용한 골목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아파트로 안내했다. 그곳은 그녀의 집이었다. 그날 밤, 며칠간의 계속된 이동 끝에, 우리는 처음으로 따뜻한 잠자리, 뜨거운 저녁 식사, 그리고 일시적인 안전감을 얻었다. 그녀는 우리 사정에 대해 많이 묻지 않고, 그저 묵묵히 도와주었다. 그녀는 우리가 가지고 다닐 마른 음식을 좀 더 준비해주었고, 샤오옌에게는 달콤한 과자 몇 개를 주었으며, 만약 내일 계속 이동한다면 검문소나 사복

경찰이 많은 구역을 피하기 위해 어느 노선으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었다.

"두 분, 며칠 여기서 편히 쉬세요. 이곳은 당분간 안전합니다." 그녀가 우리를 쉬게 하기 전에 말했다. "저희 중 많은 이들이 어려운 상황을 겪어봤습니다.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야지요. 사부님을 믿고, 대법을 믿으세요. 모든 것이 다 잘 될 겁니다."

그 도움은 단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다. 상하이에서의 다음 며칠 동안, 우리가 안전을 위해 거처를 몇 번 옮겨야 했을 때, 우리는 류 아저씨 네트워크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지원을 받았다. 때로는 한 젊은 남성이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우리를 맞아, 자기 집에 하룻밤 묵게 해주었다. 때로는 한 노부부가, 주인이 착해서 서류를 많이 묻지 않을 작은 여관으로 우리를 안내해주었다. 한번은, 한 수련생이 자기 차로 우리가 길을 잘 모르는 몇몇 구역을 태워다 주어, 위험할 수 있는 곳들을 피하게 도와주기도 했다.

그런 도움을 받을 때마다, 우리 마음은 깊은 감사함으로 차올랐다. 우리는 알았다. 이곳 상하이 한복판의 이 소박한 파룬궁 수련생들이, 단지 소개로만 알게 된 우리를 돕기 위해 자신과 가족을 작지 않은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선량한 마음, 동수로서의 정, 그리고 자신들이 하는 일의 올바름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었다. 그들의 용기, 침착함, 그리고 이타심은, 이 정권이 퍼뜨리려 애쓰는 잔혹함과 두려움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비범한 정신적 힘을 뿜어내고 있었다.

파룬궁 수련생들뿐만 아니라, 때로는 파룬궁에 대해 잘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하지만, 양심과 선한 마음이 행동을 재촉한 평범한 상하이 시민들로부터도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았다. 한번은, 우리가 길가의 작은 식당에서 지쳐 쉬고 있을 때, 식당 여주인이 샤오옌이 피곤해 보이는 것을 보고는, 조용히 뜨거운 죽 한 그릇을 돈도 받지 않고 가져다 주었다. 또 다른 때는, 한 택시 기사가 우리가 아이를 데리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을 보고는, 길을 돌아가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곳까지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가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 작은 친절한 행동들은, 누구에게서 비롯되었든, 이 불안한 나날 동안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불꽃과 같았고, 인간 본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믿음, 가장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선량함의 빛은 항상 존재하며 조용히 퍼져나간다는 믿음을 더해주었다. 그 보이지 않는 선량한 네트워크는

소중한 정신적 버팀목이 되어, 우리가 영사관으로 가는 길을, 자유와 정의의 빛을 향한 여정을 계속할 수 있는 더 큰 힘과 희망을 주었다.

덧에 걸리다 - 왕밍 체포되다

선량한 네트워크와 동수들, 그리고 마음씨 좋은 상하이 시민들의 용감한 도움 덕분에,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며칠간의 은신과 이동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 낡은 호텔을 떠난 지 거의 2 주 후, 계속해서 임시 거처를 옮기고 도시 안에서 최대한 은밀하게 이동하려 애쓴 끝에, 우리는 마침내 목표, 즉 미국 영사관에 아주 가까워졌다고 느꼈다.

우리가 알아본 정보에 따르면, 영사관은 꽤 중심가에 있었다. 우리는 영사관 근처의 카페나 공공장소를 찾아, 거기서 상황을 살피고 들어갈 적절한 시기를 찾을 계획을 세웠다. 안전과 탈출구에 대한 희망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싹트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미국 영사관에서 약 몇 백 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택시에서 막 내렸다. 우리는 직접적인 주목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서 내렸다. 이 거리는 상점과 사무실이 많아 오가는 사람들로 꽤 붐볐다. 칭링은 도시 안에서의 이동으로 약간 지쳐 보이는 샤오렌을 달래고 있었다.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주위를 살피고 영사관에 더 다가가기 전에 잠시 쉴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었다.

바로 그때, 나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다. 우리가 차에서 내릴 때부터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는 듯했던 사복 차림의 몇몇 남자가, 갑자기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직감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신분증 검사." 그들 중 하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며, 경찰 신분증을 아주 빨리 보여주고는 집어넣었다. 그의 시선은 우리를 한번 훑어보더니, 칭링의 품에서 눈을 비비고 있는 샤오렌에게 꽤 오래 머물렀다.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내 여권과 칭링의 여권을 꺼냈다. 비록 최악의 상황에 대비는 하고 있었지만, 일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일어난 것에 나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아이는 당신들 아이요?" 다른 한 명이 샤오렌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물었다.

"네, 저희 딸입니다." 나는 그들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속으로 알았지만, 자연스럽게 보이려 애쓰며 대답했다.

"아이 서류는 어디 있소?" 처음 그 경찰이 여전히 덩덤하지만 눈빛은 더 날카로워진 채, 마치 우리가 없을 것을 확신하는 듯 다시 물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었다. 우리에게 샤오렌이 우리 아이라는 것을 증명할 어떤 서류도 없었다. 나는 우리가 서류를 분실해서 재발급받는 중이라고 둘러대려 했지만... 그 설명이 전혀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우리를 감시해왔고, 우리가 누구인지 알았으며, 우리가 보호를 찾을 수 있는 곳에 막 도달하려는 바로 이 시점을 골라 손을 쓴 것이었다.

내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한 명이 신호를 보냈다. 즉시, 근처 길모퉁이들에서 몇 명이 더 나타나, 재빨리 우리를 둘러쌌다. 분위기는 갑자기 극도로 긴장되었다. 끝이었다. 그들은 이때를 기다렸던 것이다.

"두 사람, 서까지 같이 가줘야겠소." 우두머리인 듯한 자가 목소리를 굳히며 말했다. "몇 가지 확인할 문제가 있소."

"저희가 뭘 잘못했습니까?" 칭링이 당황하여 소리치며, 샤오렌을 더 꼭 껴안았다. "저희는 미국 시민입니다..."

"조용히! 따라오시오!" 다른 한 명이 소리치며, 칭링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들이 내 손을 잡으려 다가왔다. 반사적으로,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칭링과 샤오렌을 보호하려 팔을 들었다. "당신들 뭘 하는 거요? 우리는 영사관에 연락할 권리가 있소! 영사관이 바로 여기 근처요!" 나는 거리의 행인들의 주의를 끌 희망으로 크게 소리치려 애썼다.

하지만 그 행동은 그들을 더욱 화나게 하고 더 빨리 행동하게 만들었을 뿐이었다. 건장한 두 명이 즉시 달려들어, 내 팔을 등 뒤로 꺾었다. 나는 발버둥 쳤지만 저항할 수 없었다. 차가운 수갑이 내 손목을 꼭 조였다.

"밍! 밍!" 칭링이 소리치며, 나를 붙잡으려 달려들었지만 다른 한 명에게 가로막혔다. 샤오렌은 그 광경을 보고 겁에 질려, 변화한 거리 한가운데서 가슴 찢어지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 사람 놔줘요! 당신들 뭐 하는 거예요?" 칭링이 절망에 빠져, 눈물을 흘리며 외쳤다.

나는 그들에게 질질 끌려, 근처 길모퉁이에 아마도 미리 기다리고 있었을 번호판 없는 차 쪽으로 갔다. 나는 마지막으로 칭링과 샤오렌을 돌아보려 애썼다. 사복 차림의 무리와 호기심 어린 군중들 속에서 서로를 껴안고 흐느끼는 두 소녀의 모습이 칼날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극도의 고통, 무력감, 그리고 걱정이 나를 덮쳤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없이 이 도시에서 칭링과 샤오렌은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나는 짐칸으로 거칠게 밀쳐졌다. 문이 콧 담히고, 나는 어둠과 공포 속에 갇혔다. 차는 질주했고, 뒤에는 샤오렌의 울음소리와 칭링의 절망적인 모습—앞으로의 어두운 나날 동안 나를 괴롭힐 그 모습—만이 남았다. 포위망은 우리가 희망에 거의 닿았을 바로 그 순간에 조여왔다. 나는 뒷에 걸렸다.

어두운 감옥에서의 나날

나는 그들이 "구류 심사 센터"라고 부르는 곳으로 끌려갔다. 실은, 상하이 어딘가에 위치한 임시 구치소, 차갑고 축축하며 언제나 답답하고 두려운 분위기가 감도는 곳이었다. 지문 채취, 사진 촬영, 그리고 모든 개인 소지품 압수(다행히 『전법륜』 책은 그때 칭링의 배낭 안에 있어서,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빼앗겼을 것이다) 같은 형식적인 절차 몇 가지를 거친 후, 나는 거의 스무 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비좁고 악취 나는 감방에 밀쳐 넣어졌다.

이곳의 생활 환경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끔찍했다. 공기는 언제나 땀 냄새, 곰팡이 냄새, 그리고 방구석의 개방형 화장실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로 가득했다. 우리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서 서로 비좁게 누워야 했고, 각자에게는 찢어진 돗자리 한 장이 전부였다. 유일한 빛은 천장에 매달린, 결코 꺼지지 않는 희미한 노란 등불뿐이어서, 밤낮이 뒤섞여 버렸다. 음식은 겨우 몇 손가락의 감방 밥, 보통은 마른 흰밥에 물컹한 데친 채소 조금과 두부 몇 조각이 전부였고, 끊임없이 계속되는 굶주림을 달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하지만 육체적 불편함도 내가 견뎌야 했던 정신적 압박과 계속되는 심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거의 매일, 보통은 한밤중이나 새벽같이 가장 고약한 시간에, 나는 감

방에서 끌려 나와, 작고 차가운 심문실로 끌려갔다. 그곳에서, 얼굴에 똑바로 비추는 환한 전등 불빛 아래, 나는 교대로 심문하는 경찰 몇 명과 마주해야 했다.

그들은 우리가 단지 중국에 온 여행객이며, 연민으로 샤오렌을 입양했다는 내 설명을 전혀 믿지 않았다. 그들은 내가 미국 스파이이며, 여행을 빙자하여 정보 수집 활동을 하고, 중국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목적으로 "샤교 조직" 파룬궁과 결탁했다고 끈질기게 죄를 뒤집어씌웠다. 그들은 심지어 사실을 왜곡하여, 내가 어떤 어두운 목적을 위해 샤오렌을 납치했다고 말했다.

"빨리 불어! 누구한테 명령받았나? 여기 네놈들 조직장은 누구누구냐?" 그들은 책상을 치고, 고함치며,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미국 국적이면 대단할 줄 아나? 여기는 중국 땅이다! 솔직히 자백하지 않으면, 감옥에서 썩게 될 거다!"

그들은 온갖 방법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때로는 칭링과 샤오렌이 어디 있는지 안다며, 내가 협조하지 않으면 그 두 사람이 위험해질 것이라고 위협했다. 때로는 거짓으로 부드러운 태도를 보이며, 만약 내가 "공을 세워 죄를 씻는다면", 즉 날조된 죄명을 인정하고 우리를 도왔던 파룬

궁 수련생들의 이름을 분다면, 관용을 베풀어 일찍 석방되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압박을 더하기 위해, 그들은 정신적, 육체적 고문 형태도 사용했다. 비록 란 씨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야만적인 정도는 아니었지만(아마도 내가 외국인이라서 다소 꺼리는 듯했다), 사람을 쇠약하게 만들기에는 충분했다. 나는 끝없는 심문 동안 종종 몇 시간 동안 아주 불편한 자세로 서 있거나 앉아 있어야 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잠을 충분히 못 자게 했고, 몇 시간마다 깨워서 심문하거나 감방에서 일부러 큰 소음을 냈다. 한번은, 내가 그들이 씌운 터무니없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자, 한 심문관이 화가 나서 내 뺨을 강하게 때리고 나를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그들은 또한 파룬궁과 리홍쯔(李洪志) 사부님을 비방하는 조악한 선전 비디오를 강제로 보게 했다. 그들은 이미 인쇄된 자료들을 주며, 대법을 비방하는 글들을 읽으라고 강요했다. 그것은 내 안에 막 형성된 믿음을 흔들려는, 실로 정신적인 고문이었다.

길고 긴, 어둡고 때로는 절망적이었던 그 나날 동안—나는 이곳에 약 한 달 반, 아마 거의 두 달 동안 갇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칭링과 샤오옌에 대한 걱정과 육체적, 정신적 고문이 나를 쓰러뜨릴 수도 있었을 때, 바로 이 감옥

안에서 내가 목격하고 깨달은 것들이 아주 큰 정신적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내 감방에는, 파룬궁 수련 때문에 체포된 다른 수감자 몇명이 더 있었다. 그들은 자기 사정에 대해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나지막한 말, 온화한 몸짓, 그리고 가혹한 환경에 직면했을 때의 기묘할 정도로 차분한 태도를 통해, 나는 그들을 알아볼 수 있었다. 나는 그들이 교도관의 눈을 피해 가장 조용한 시간에, 비록 몇 분의 짧은 순간일지라도, 조용히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들이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홍음(洪吟)"의 시 구절을 속삭이는 것을 들었다.

나는 또한 그들이 심문을 받으러 끌려갔다가 몸에 새로운 상처를 입고 돌아오면서도, 눈에는 조금의 원망이나 두려움 없이 기묘한 굳건함이 빛나는 것을 목격했다. 심하게 구타당해 걷기조차 힘든 한 나이 든 농부 아저씨는, 다른 수감자가 아플 때, 여전히 자신의 얼마 안 되는 밥을 양보하려 애썼다.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의 그들의 비범한 선량함과 인내는 내게 아주 강한 영향을 미쳤다.

바로 그 모습들과, 내가 머릿속에서 『전법륜』에서 배운 법리들, 특히 진·선·인 원리를 계속해서 되새긴 것이, 내가 이성과 믿음을 굳건히 지키도록 도와주었다. 나는 그들이

왜 그렇게 강인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를,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이 고난이 단지 일시적이며, 자신을 단련하고, 업력을 소멸시키며, 본래의 선한 본성으로 돌아갈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가장 선량한 국민들을 대하는 중국 공산당의 잔혹하고 부조리한 본질을 직접 목격한 것은, 류 아저씨, 천 할머니, 란 씨가 이야기했던 것에 대한 내 안에 남아 있던 모든 의심을 없애주었다. 나는 이것이 어떤 "미신"에 빠진 집단과 정부의 싸움이 아니라, 선과 악, 정(正)과 사(邪)의 진정한 대결임을 명확히 인식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 알았다.

어두운 감옥에서의 거의 두 달은 나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오히려, 그것은 시련의 용광로와 같았고, 파룬따파에 대한 내 믿음을 그 어느 때보다 더 굳건하게 만들어주었다. 비록 몸은 지치고, 굶주리고, 알 수 없는 미래와 마주해야 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기묘한 명철함과 굳건함이 있었다. 나는 언제 이곳을 벗어날 수 있을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다. 나는 결코 악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운 좋게 찾은 참된 수련의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외교적 개입과 극적인 탈출

12 월 초, 상하이의 날씨도 쌀쌀해지기 시작했다. 축축한 감방 안에서, 나는 시간 개념을 점차 잃어가고 있었고, 오직 믿음과 마음속으로 되새기는 법리에 의지하여 환경의 가혹함과 몸속으로 스며드는 추위를 견뎌내고 있었다. 나는 칭링과 샤오렌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아내와 아이가 이 거대한 도시에서 안전한지, 누가 그들을 돕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 걱정은 때로 구타나 심문보다 더 나를 괴롭혔다.

그러던 어느 추운 아침, 내가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서 힘겹게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을 때, 감방 문이 갑자기 열렸다. 한 교도관이 무뚝뚝한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다. "왕밍! 나와!"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다. 또 다른 심문일까? 아니면 나를 다른 곳으로 이송하려는 것일까? 나는 굶주림과 수면 부족, 추위로 지친 몸을 이끌고 비틀거리며 일

어섰다. 마음속으로는 큰 기대를 감히 하지 않은 채, 조용히 교도관을 따라 감방을 나섰다.

하지만 익숙한 심문실 대신, 나는 다른 복도들을 지나, 사무실로 보이는 구역으로 안내되었다. 그곳에는 상급자로 보이는 한 간부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예측하기 어려운 눈빛으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책상 위에 놓인 깨끗한 옷(내 것은 아니었지만) 쪽으로 턱을 까딱했다.

"옷 갈아입어." 그가 명령했다. "당신은 석방이다."

귀가 멍했다. 석방? 거의 두 달간의 감금, 고문, 그리고 터무니없는 죄명 끝에, 이제 그들이 갑자기 나를 풀어준다고? 나는 내 귀를 믿을 수 없었다. "왜...?" 내가 더듬거리며 물었다.

"많이 물을 필요 없어." 그가 참을성 없는 목소리로 말을 잘랐다. "조사 과정에 '오해'가 있었소. 상부에서 당신의 서류를 재검토했지. 당신은 미국 시민이고, 우리는 국제법을 존중하오. 가도 좋소."

'오해'? 나는 그것이 단지 둘러대는 말이라는 것을 잘 알았다. 분명 외부로부터의 강력한 개입이 있었을 것이다. 설마... 칭링이 해낸 것일까? 설마 이곳 상하이의 미국 영사

관이 나선 것일까? 희망의 빛 한 줄기가 마음속에서 피어 오르기 시작했지만, 나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다.

아주 신속하게 몇 가지 간단한 서류 절차를 마친 후, 나는 구치소 문밖으로 안내되었다. 겨울의 희미한 햇살이 눈에 비쳐 나는 눈을 찡그려야 했다. 바깥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그것은 자유의 공기였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겨우 몸을 가누려 애썼다.

그리고 그때, 나는 그녀를 보았다. 칭링이 구치소 문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걱정과 수면 부족으로 얼굴은 수척하고 창백했지만, 나를 보자 그녀의 눈은 환하게 빛났다. 아내 옆에는, 낯선 중년 여인(분명 파룬궁 수련생일 것이라 짐작했다)이 손을 잡고 있는 샤오옌이 있었다. 아이도 많이 야위었고,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의 기색이 있었지만, 나를 보자, 아이는 "밍 아저씨!"라고 나지막이 불렀다.

그 순간, 내 안에 억눌려 있던 모든 힘이 터져 나오는 듯했다. 나는 그들을 향해 달려갔다. 칭링 또한 달려와, 나를 꼭 껴안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나는 아내를 꼭 껴안고, 떨고 있는 야원 몸을 느꼈다. 내 눈에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안도감과, 지나간 고통, 그리고 불가능할 것 같았던 재회의 행복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당신이... 당신이 해냈군요... 당신이 풀려났어요..." 칭링이 내 품에서 흐느꼈다.

"알아... 당신일 줄 알았어..." 나도 목이 메어 대답하며, 아내의 헝클어진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는 몸을 숙여 샤오렌을 보았다. 아이는 여전히 약간 수줍어했다. 나는 조용히 아이를 안았다. "샤오렌, 착하지, 이제 괜찮아. 아저씨가 돌아왔어."

함께 온 여인이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지난 몇 주간 아이는 저희와 함께 있었고, 안전했습니다. 부인께서 남편분을 위해 정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나중이야, 칭링은 내게 그녀의 고군분투 과정을 모두 이야기해주었다. 내가 체포된 후, 아내는 지극히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이 친절한 여인과, 류 아저씨가 어떻게든 연락을 취해준 다른 몇몇 수련생들의 도움으로, 그녀와 샤오렌은 상하이의 한 은밀한 곳에 임시로 안전한 거처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 직후, 위험을 무릅쓰고, 그녀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상하이의 미국 영사관에 도착했다. 처음에는 접근하고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고, 관료주의와 다소 의심스러운 태도에 부딪혔다. 하지만 끈질긴 노력, 내가 부당하게 체포되었다는 증거(그녀는 내 여권을 가지

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파룬궁과의 연관성을 언급한 대담함 덕분에, 아내는 마침내 한 영사를 설득하여 개입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외교 공문을 보내, 중국 측에 사건의 해명과 미국 시민 왕밍의 석방을 요구했다. 거의 두 달간 계속된 외교적 압박은 마침내 상하이 지방 정부가 양보하게 만들었다.

우리의 재회는 짧았지만 감동으로 가득했다. 우리는 아직 완전히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이곳은 여전히 중국 땅이었고, 그들이 나를 '석방'한 것은 단지 일시적일 수 있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이곳을 떠나야 했다.

내가 풀려난 후 영사관의 더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리는 세 사람 모두에게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시간과 싸우기 시작했다. 샤오옌의 여행 서류를 신청하는 것은 아주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영사관의 강력한 개입과 긴급한 인도주의적 사유 덕분에, 우리는 마침내 아이를 우리와 함께 중국에서 데리고 나갈 수 있는 특별 허가를 받았다.

마침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전 세계에 가득하던 12 월의 마지막 날들, 우리는 상하이 푸둥 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표를 손에 들고 있었다. 어두운 밤을 넘어, 위험과 마주하고, 마침내 극적인 탈출에 성공한 이 여정은 끝났다. 우리는 살아남았고, 샤오옌을 지켜냈으

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파괴되기는커녕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해졌다는 것이다. 터널 끝의 빛이 정말로 보이기 시작했다.

* * *

제 13 장: 동방이 빛을 발하다

- 귀환과 전파

귀국 비행과 자유의 땅

상하이 푸둥 국제공항 활주로를 서서히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칭링의 손을 꼭 잡았다. 극에 달했던 긴장감은 비행기가 중국 땅에서 실제로 이륙하고 나서야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출국 수속을 밟는 동안, 대기실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지당하거나 방해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계속해서 우리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제,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중국 땅을 보며, 여러 복잡한 심경이 뒤섞인 가운데, 더할 나위 없는 안도감이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태평양을 건너는 긴 비행은 우리가 위험한 곳에서 벗어났음을 진정으로 인식하는 데 필요한 고요한 시간인 듯했다. 끔찍했던 몇 주간의 피로로 지친 몸에, 나와 칭링은 둘 다 금세 잠이 들었다. 샤오렌도 아마 분위기의 변화를 느꼈는지, 비행 내내 칭링의 따뜻한 품에서 편안히 잠들었다. 이 따금 잠에서 깨어,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칭링과 샤오렌을 볼 때마다, 우리 세 사람 모두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내도록 도와준 어떤 기적적인 보살핌에 대한 형언할 수 없는 감사함이 마음속에 솟아올랐다.

하지만 그 안도감이 마음의 무거운 짐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다. 살해당한 Kang 씨, 감옥에서 실종된 Mei 씨, 그리고 고국에 남아 잔혹한 탄압에 맞서고 있는 류 아저씨, 천 할머니, 란 씨와 수많은 다른 수련생들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을 아프게 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지만, 그들은 어떠한가? 우리의 재회와 탈출의 기쁨은, 그들을 뒤에 남겨두고 떠나야 했다는 막연한 죄책감, 슬픔의 빗줄을 띠는 듯했다.

마침내,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긴 여정 끝에, 비행기는 미국의 한 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이때는 12 월의 마지막 날들이었다. 비행기 문밖으로 나와, 익숙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제 2 의 고향의 친숙한 소리를 듣고 풍경을 보

자, 절대적인 안전감이 우리를 감쌌다. 공항은 반짝이는 장식 조명, 크리스마스트리, 그리고 확성기에서 울려 퍼지는 감미로운 크리스마스 캐럴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이곳의 따뜻하고 활기찬, 그리고 자유로운 분위기는 우리가 중국에서 겪었던 답답하고 긴장되며 위험으로 가득했던 분위기와는 완전히 대조적이었다.

이곳이다, 자유의 땅. 우리는 정말로 돌아왔다.

칭링은 샤오렌을 꼭 껴안았다. 아이는 크고 동그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위 모든 것을 둘러보았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우리가 떠날 때의 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 되어 돌아왔음을 깊이 인식했다. 우리는 새로운 가족 구성원, 바로 폭풍우 한가운데서 형성된 새로운 가족을 데려왔다. 샤오렌은 단지 우리가 맡아 기르는 고아가 아니었다. 아이는 이제 우리의 딸이었고, 방금 지나온 파란만장한 여정의 살아있는 증거였으며, 우리가 기꺼이 짊어질 신성한 책임이었다.

익숙한 미국 땅에 발을 디디자, 안전과 자유의 느낌이 가득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중국에서의 거의 7개월간의 기억들—초기의 호기심에서부터, 기이한 만남들, 대법을 찾았을 때의 기쁨, 그리고 박해를 목격하고 직접 겪었을 때의 공포까지—이 모든 것이 여전히 너무나 새

롭고, 너무나 깊어서, 결코 희미해질 수 없었다. 우리는 자유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우리 영혼의 일부는 마치 동방에, 고난을 견디며 더 밝은 내일을 희망하는 동수들과 함께 남아 있는 듯했다. 이 귀국 비행은 극적인 탈출의 끝을 알렸지만, 동시에 우리 인생의 새로운 장, 이 자유의 땅에서 대법의 빛 아래 살아갈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도 했다.

대법의 빛 아래 새로운 삶을 세우다

미국으로 돌아온 첫 며칠 동안, 우리는 중국에서의 거의 7개월간 완전히 뒤바뀌었던 삶을 다시 안정시키려 애썼다. 우리에게 익숙했던 집은 이제 샤오옌의 재잘거리는 웃음 소리가 더해져, 새로운 분위기를 가져다주었지만, 결코 작지 않은 책임감도 함께 따랐다. 우리는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연락하여, 우리의 꽤 긴 부재와 새로운 가족 구성원의 출현에 대해 최대한 간결하게 설명하려 애썼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라워하고 궁금해했지만, 우리에게 공감과 지지를 표해주었다. 집에 있던 큰 아이들은, 초기 걱정 끝에, 부모가 안전하게 돌아온 것을 아주 기뻐했고, 샤오옌을 작은 여동생처럼 환영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샤오렌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었다. 아이는 겪었던 일들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밤에는 종종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울었고, 아빠와 엄마의 이름을 불렀다. 칭링은 거의 모든 시간을 아이 곁에서 보내며, 아이를 돌보고, 어루만지고, 사랑해주었다. 인내심과 진심 어린 사랑으로, 아내는 점차 샤오렌이 더 안전함을 느끼고, 더 마음을 열며, 영어와 새로운 삶에 익숙해지도록 도왔다. 샤오렌을 돌보는 칭링의 모습을 보며, 나는 한 어머니, 자신이 믿는 바를 실천하려 애쓰는 한 사람의 선량함과 관용을 뚜렷이 볼 수 있었다.

가족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과 병행하여, 우리는 재빨리 현지 파룬궁 수련생 공동체와 연결될 방법을 찾았다. 집에 돌아온 지 불과 며칠 만에, 우리는 가장 가까운 연공장을 찾았고, 아침 연공과 주말 법 학습 그룹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야외에서 자유롭게 공을 연마하고, 감시나 체포의 두려움 없이 공개적으로 대법 책을 읽고 동수들과 수련 체험을 나눌 수 있다는 느낌은, 우리가 중국에서 겪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지극히 소중한 것이었다. 이곳에서 우리는 여러 나라, 여러 다른 문화권에서 온 수련생들을 만났지만, 모

두 진·선·인에 대한 공통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더 나아지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었다. 이곳의 개방적이고, 화목하며, 깨끗한 수련 환경은 우리에게 더 큰 에너지와 힘을 느끼게 해주었다.

꾸준히 책을 읽고 규칙적으로 공을 연마하는 것은 우리 새로운 삶의 굳건한 기반이 되었다. 『전법륜』의 심오한 법리들은 우리가 겪었던 고난의 의미를 더 명확히 이해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앞길을 비춰주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더 평온한 마음으로 마주하는 법을, 그것들을 심성을 제고하기 위해 넘어야 할 시련으로 여기는 법을 배웠다. 우리는 그 좋지 않았던 경험들을 더 부지런히 수련하는 동력으로 바꾸는 법을 배웠다.

끔찍한 풍파를 겪었던 우리의 삶은, 이제 이전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평온해졌다.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외부의 명예나 이익,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련하여 자신의 본래 선한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더 명확히 이해했다.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진·선·인 표준에 비추어보며, 가정과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더 잘 해내려 노력했다.

나와 청링의 관계는 거의 생사를 함께 겪은 시련들 이후 더욱 단단해지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는

단지 부부일 뿐만 아니라, 돌아가는 길 위에서 서로를 일깨워주고 이끌어주는 동수이기도 했다. 우리는 함께 법 책을 읽고, 깨달은 바를 나누며, 상대방에게서 좋지 않은 표현이 보일 때 서로를 일깨워주었다.

우리는 또한 사랑과 진·선·인의 가치가 가득한 환경 속에서 샤오옌을 키우려 노력했다. 우리는 아이에게 선량함, 정직함, 그리고 관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점차, 아이의 입가에 미소가 돌아왔고, 눈빛은 더 맑고 활기차졌다. 비록 대법에 대해 다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렸지만, 우리는 선량함의 씨앗이 아이의 맑은 영혼 속에 심어지고 있음을 믿었다.

비록 긴 여행과 예상치 못한 사건들로 인해 우리가 많은 업무 계획을 잠시 접어두어야 했고, 적지 않은 비용을 소모했지만, 미국에서의 우리의 새로운 삶은 정신적으로 훨씬 더 의미 있어졌다. 대법의 빛은 삶의 구석구석을 비추었고, 우리가 마음의 평온을 찾고, 어려움에 맞설 힘을 얻으며, 더 고귀한 삶의 목적을 찾도록 도와주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단지 물질적인 것들로만이 아니라, 매일의 진·선·인에 대한 믿음과 실천으로 다시 세우고 있었다.

평온 속의 폭풍우

중국 대륙에서의 끔찍한 격변 이후 미국에서의 우리 삶은 점차 안정되어 가는 듯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일군 제약 회사는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제품은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며 가족의 주된 수입원이 되었다. 그와 동시에, 우리 부부는 둘 다 한 대학에서 교편을 잡게 되었다. 이 일에서 얻는 수입은 회사 수익에 비하면 미미했지만, 학문적 환경에서 헌신하는 기쁨, 과학적 명성을 유지하고, 지식인 사회와 교류하며, 우리 둘 다 열정을 가진 연구 활동을 계속할 기회를 주었다. 우리는 개인 수련, 공동 법 학습, 깊은 정좌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고, 현지 파룬궁 수련생들과 함께하는 홍법(洪法) 활동에 참여하며, 같은 문화적 뿌리를 가진 많은 이들과 공감과 유대를 찾았다. 우리 작은 집은 다시 웃음소리로 가득 찼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중국 대륙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동수들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평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첫 물결은 내 제약 회사에서 나타났다. 처음에는 모호하고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작은 계약 몇 건이 막판에 취소되는 정도였다. 사업 경험으로, 나는 그것을 일반적인 위험으로만 여겼다. 하지만 이내, 문제들이 더 찾아지기 시작했다. 유럽으로 수출한 제품 한 묶음이, 내부 품질 관리 절차가 지극히 엄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품질 표준 문제를 겪었다. 이어서, 회사 제품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몇몇 온라인 포럼에 퍼지기 시작하며, 소비자들에게 의심을 심어주었다. 오랜 파트너들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유망했던 몇몇 신제품 연구 개발 프로젝트는 원료 공급 부족이나 중요한 정보의 설명할 수 없는 유출로 갑자기 중단되었다.

내 머리는 끊어질 듯 팽팽했다. 나는 과학자로서의 명철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관리와 운영의 모든 단계를 검토했지만, 치명적인 허점을 찾을 수 없었다. 무력감과 막연한 불안이 내 마음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치명타는, 큰 주주이자 회사의 방향을 아주 신뢰했던 내 처남이, "개인 투자 포트폴리오 재구성"이라는 이유로 갑자기 모든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찾아왔다. 나는 그 이유 뒤에, 악의적인 소문에 대한 당혹감과, 내 회사가 흔들리는 것을 본 그의 가족들로부터의 압박이 있음을

알았다. 내가 친형제처럼 여겼던 처남의 결정은, 회사 전체를 뒤흔드는 폭탄과 같았고, 도미노 효과를 일으켰다. 이전에 환대하며 약속했던 은행들은 갑자기 승인된 대출을 동결하고, 온갖 이유를 대며 지급을 미뤘다. 그동안, 이전 투자에 대한 대출 이자는 꼬박꼬박 독촉하며, 마치 회사의 목을 서서히 조이는 올가미 같았다.

회사의 폭풍우와 병행하여, 비슷한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부부의 교수직 위에도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내 학과에서는 수군거림과 살피는 듯한 시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친하게 지냈던 몇몇 동료들은 이제 거리를 두었다. 학과 지도부는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개선이 필요한 성과"와 "학생들의 긍정적이지 않은 피드백"에 대해 넌지시 언급했다. 아내 칭링도 그녀의 학과에서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다. 보이지 않는 압박은 날로 커졌고, 우리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던 학문적 직장을 잃을 위험이 우리 둘의 머리 위를 맴돌았다.

칭링은 마음이 복잡했지만, 여전히 내 정신적 버팀목이 되어주려 애썼다. 대학 2 학년인 큰 아이와 고등학교 2 학년인 작은 아이, 우리 두 아이는 비록 많이 컸고 많은 일을 스스로 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가족의 적지 않은 지원이 필요했다. 특히 그들 또한 일어나고 있는 혼란을 감지하고

있었기에 더욱 그랬다. 하지만 샤오렌은 달랐다. 아이는 아직 어렸고, 고아원과 도주 길에서의 끔찍했던 나날의 트라우마를 안고 있었다. 아이는 점차 회복하기 위해 특별한 보살핌, 끝없는 사랑과 인내가 필요했다. 저녁이면, 샤오렌을 재운 후, 우리 부부는 다시 마주 앉아, 끝없는 듯한 혼란을 해결할 방법을 논의하기보다는, 함께 법을 배우고 명상 속에서 고요함을 찾았다. 칭링은 종종 내게 법리의 가르침, 역경 앞에서의 '인(忍)', 그리고 내 자신에게 버려야 할 집착이 있는지 안으로 찾아보아야 한다는 점을 부드럽게 일깨워주었다.

업무에서 쌓이는 어려움 외에도, 우리는 가족의 걱정과도 마주해야 했다. 일흔이 넘으신 내 부모님은 은퇴 후 큰형네 가족과 함께 살고 계셨다. 부모님은 중국에서 태어나 자라, 1970 년대에 미국으로 이주하셨기에 중공의 본질을 아주 잘 이해하셨다. 비록 두 분 모두 파룬궁과 우리가 추구하는 바를 아직 명확히 이해하지는 못하셨지만, 아버지는 더 평온한 태도를 보이셨다. 그는 원래 말이 적고 늘 자식들의 선택을 존중하셨다. 어머니는 달랐다. 그녀는 이따금 전화를 하시고, 그때마다 내게는 시련이었다. 내가 중국에서 거의 두 달간 구금되었던 사실을 알게 된 후로, 그녀 안의 중공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 깊어졌다. 그녀는 나를 안쓰러워했고, 우리 가족이 겪는 고통에 마음 아파했

지만, 그녀의 표현 방식은 나를 지극히 피곤하게 했다. 어머니는 종종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반은 충고하고 반은 책망하며 말씀하셨다. "밍아, 엄마는 아무래도 불안하구나. 네가 계속 그렇게 파룬궁과 엮이고, 회사 일, 학교 일까지 계속 꼬이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니? 엄마는 그저... 그들이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까 봐 걱정이다. 중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그녀는 내게 더 "융통성 있게" 행동하고, "상황을 파악하라"고 설득하려 애썼고, 심지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수련을 "잠시 접어두어야" 한다고 넌지시 비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비록 내 마음속에도 이해하기 힘든 우연의 일치들 때문에 약간의 파문이 일기는 했지만, 나는 여전히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그리고 또한 나 자신을 안심시키려 애썼다. 나는 아마 어머니가 옛 트라우마 때문에 과도하게 걱정하신다고 생각했다. 자유롭고 법치를 존중하는 미국에서, 어떻게 그런 정교한 암중 파괴 공작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여전히 회사 문제는 내부 관리, 시장 변동, 혹은 내 능력 부족 때문이라고 믿었다. 나는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을 탓하기보다는, 스스로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야만 했다. 어머니의 말씀은, 비록 사랑과 뿌리 깊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지만, 여전히 나를 더

욱 무겁게 짓눌렸고, 때로는 그녀를 안심시킬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끼게 했다.

"밍," 한번은 어머니와의 그런 전화 통화 후, 청링이 내게 나지막이 말했다. "저는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이것은 사부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일지도 몰라요. 우리 믿음이 굳건한지, 우리가 정말로 속세의 물질적인 것들, 그리고 이 얽매이는 정(情)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지 보시는 걸 거예요."

나는 조용히 아내의 손을 잡았다. 나는 이해했다.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마주하고 극복하는 것은 또 다른 고된 여정이었다. 재정적 압박, 수백 명 직원에 대한 책임감, 가족의 미래에 대한 걱정, 두 아이의 학비 조달, 그리고 특히 샤오옌의 회복을 위한 최상의 환경을 보장해야 하는 일, 부모님을 안심시키지 못하는 고뇌까지, 모든 것이 내 어깨를 짓눌렀다.

상황은 날로 악화되었다. 회사를 구하기 위해, 나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인원 감축이 시작되었다. 500 명이 넘는 직원들로 활기찼던 회사는, 이제 비틀거리는 뼈대만 남았다. 마지막 회의를 감싼 비통한 분위기, 한때 나와 함께했던 사람들의 실망하고 당혹스러운 눈빛이 내 가슴을 찢었다. 마침내, 겨우 20 여 명, 진정으로 헌신

적이거나, 어떤 이유에서든, 가라앉는 배에 남기로 선택한 사람들만이 남았다.

하지만 그 최소한의 인원으로도, 운영비 부담, 특히 은행 대출 이자는 여전히 감당할 수 없었다. 채권자들은 계속해서 독촉하고, 회사 자산을 압류하겠다고 위협했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 여러 밤을 뒤척인 끝에, 나는 칭링과 상의하여 우리가 미국에서 여러 해 동안 모아온 부동산 세 채 중 두 채를 팔기로 결정했다. 투자용 주택 한 채와 임대용 아파트 한 채였다. 자금이 부족하고, 급히 충당해야 했기에, 나는 실거래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급매"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우리 가족은 가장 작은 집으로 이사했고, 모든 불필요한 지출을 줄였다. 우리 부부가 예전에 사용하던, 각각 20 만 달러가 넘는 고급 차들도 팔아야 했다. 대신, 우리는 각각 1 만 달러가 조금 넘는 중고차 두 대를 사서, 겨우 이동 수단으로 사용했다. 주말 저녁 온 가족이 고급 레스토랑에 모이던 일도 완전히 없애야 했다. 대신, 소박하고 따뜻한 집밥이 그 자리를 채웠다. 우리 가족의 물질적 생활은 이제 예전과는 실로 크게 달라졌다.

석 달, 그리고 여섯 달, 폭풍우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했다. 회사는 겨우 연명할 뿐이었다. 우리 부부는,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대학 측으로부터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았다.

우리는 마지막 안정적인 수입원을 잃었고,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전문성을 기여하고, 과학적 명성을 유지하며, 지식인 사회와 연결될 수 있었던 학문적 환경을 잃었다.

그 어두운 나날 동안, 나는 끊임없이 자문했다. 나는 냉혹한 현실과 마주하며, 정직하게(진, 眞) 원인을 파악하려 애썼지만, 모든 노력은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다. 나는 운명을 원망하거나 누구를 탓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견뎌냈다(인, 忍). 회사에 남은 20 여 명의 사람들에게, 나는 그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선량함과 진심으로 그들을 격려했다(선, 善).

많은 밤, 청링이 이전의 화려한 생활 습관을 버리고, 작은 집에서의 더 소박한 삶에 조용히 적응하며, 모든 지출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주말의 레스토랑 파티 대신 직접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며, 동시에 샤오옌을 돌보는 데 온 힘을 쏟아 아이의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려 애쓰는 모습을 보며, 내 마음은 칼로 베는 듯 아팠다. 비록 가족의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는 남은 것들로 보장되었지만, 백만장자의 삶에서 평범한 공무원 가정 수준으로 겨우 충당하는 수준으로의 하락은 내게 보이지 않는 부담감을 안겨주었다. 나는 자문했다. 내가 과학자, 성공한 사업가라는 명성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대학에서의 직위를 잃고, 학

계의 인정을 잃은 것이, 내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명예'를 내려놓게 하려는 시험의 일부는 아닐까? 내가 값비싼 차, 호화로운 식사, 호화로운 휴가 같은 물질적 성과와 안락함에 너무 마음을 두어, 수련자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질문들이 마음속 깊은 곳을 파고들며, 나로 하여금 안으로 찾고, 내 의식의 가장 깊은 층과 마주하게 만들었다.

젯더미에서 일어나, 빛을 향하여

가장 어두웠던 나날들은 마치 바닥을 친 듯했다. 우리 부부는, 비록 일군 거의 모든 것을 잃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믿음을 굳게 지켰다. 회사가 흔들릴 때 남기로 선택했던 20 여 명의 직원들은, 작지만 소중한 원동력이 되어주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가라앉는 배에서 함께 빠져나가려 애쓰는 동반자였다.

미국에서 여러 해 살며 역시 굴곡을 겪었던 한 나이 든 동수와의 우연한 만남에서, 나는 내 회사와 경력에 갑작스럽게 닥쳐온 기이한 변고들에 대해 털어놓았다. 나는 비합리

적으로 취소된 계약들, 악의적인 소문들, 처남의 지분 매각, 그리고 중공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경고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동수는 아주 주의 깊게 듣더니, 생각에 잠겨 말했다. "왕밍 씨, 어머님 말씀이 근거 없는 것은 아닐 겁니다. 미국에서, 중공 특무들은 아주 정교하고 제멋대로 활동합니다. 당신 사업이 잘되다가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곤두박질친 것은, 제가 보기에 우연이 아닙니다. 아마 그들이 파룬궁과 관련 있거나 대륙의 불의에 대해 감히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파괴하기 위해 개입했을 가능성이 큼니다. 한번 자세히 조사해보세요. 어쩌면 단서를 찾을지도 모릅니다."

그 동수의 말은, 특히 어머니의 경고 이후 내 마음속에 희미하게 자리 잡았던 의심들을 일깨우는 경종과 같았다. 이전에는,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며, 나 자신에게서 잘못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소 무시했었다. 하지만 이제, 경험 많은 동수에게서 그런 말을 들으니, 흠어져 있던 조각들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나는 문득 일어났던 비합리적인 세부 사항들,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들을 떠올렸다. 어쩌면 어머니가 옳았을까? '완전히 자유로운 세계'에 대한 나의 순진함이 나를 방심하게 만든 것은 아닐까? 칭링의 격려와 함께, 나는 진실이 아무리 가혹하더라도, 그것을 찾아내기로 결심했다.

과학자의 사고방식으로, 나는 전체 시스템, 거래 내역, 인사 기록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고, 특히 회사가 문제를 겪기 시작한 시기에 새로 채용된 직원들에게 주목했다. 나는 믿을 만한 친구인 한 사이버 보안 전문가에게 조용히 회사 전체의 컴퓨터 시스템과 통신 정보를 점검해달라고 부탁했다. 결과는 나를 경악시키고 고통스럽게 했다. 내가 한때 유능하고 사교적이라고 평가했던 영업부의 한 신입 직원이, 의심스러운 활동의 흔적을 남겼다. 업무 범위를 벗어난 데이터에 접근하고, 외부와 비정상적인 연락을 취했으며, 더 중요하게는, 이 자가 의도적으로 프로젝트 정보를 유출하고 중요한 계약을 파괴했다는 증거가 있었다.

내가 중공 정부의 꼬나풀로 추정되는 다른 중국계에게 파괴 공작을 당했다는 쓰라린 진실과 마주하자, 처음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나는 즉시 내가 수련자임을, 선(善)과 인(忍)에 대한 사부님의 가르침을 상기했다. 나는 분노나 원망이 내 행동을 지배하게 둘 수 없었다. 충분한 증거를 수집한 후, 나는 회사 변호사와 함께 모든 사건을 미국 당국에 신고했다. 그 잠복 특무는 즉시 해고되었고 법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비록 이미 발생한 막대한 손실을 즉시 회복할 수는 없었지만, 이 '독충'을 제거한 것은 회사가 보이지 않는 부담을 덜게 해주었고, 더 중요하게는, 내 의심을 확인시켜주어, 이 박해의 본질—그것이 단지 중

국 국경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더 명확히 이해하게 해주었다.

남아 있는 20 여 명의 헌신적인 사람들과 함께, 나는 회사가 더 이상 이전 모델로 운영될 수 없음을 이해했다. 우리는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하고, 새로운 방향, 진정으로 획기적인 핵심 제품을 찾아야 했다. 긴장되지만 건설적인 정신으로 가득했던 회의들 속에서, 아이디어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내가 대법에서 깨달은 전통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대한 교훈과, 내 현대 과학 지식을 결합하여, 나는 대담한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동양 전통 의학의 정수와 서양의 엄격한 과학적 연구 및 검증 과정을 결합한, 새로운 의약품 라인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 아이디어를 남은 팀원들과 공유했다. 많은 이들이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다. 그것은 우리가 해왔던 것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열정과 비전, 그리고 구체적인 과학적 분석이 점차 그들을 설득했다. 우리는 제한된 자원에도 불구하고 높은 결의로 새로운 모험에 착수했다. 나와 칭링, 그리고 남은 핵심 과학자들은 밤낮으로 연구실에서 매달렸다. 우리는 동의학의 보고 속에 있는 수백 종류의 희귀 약초를 연구하고, 활성 성분을 추출하며, 현대 과학 원리에 따라 그것들을 배합하여 효능을 최적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았다. 연구 과정은 지극히 험난했고, 여러 번의 실패로 포기해야 할 것 같았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함께 법을 배우며, 다시 고요한 마음과 믿음을 찾았다. 사부님의 모습과 법의 가르침이 다시 우리에게 힘을 더해주었다.

거의 1 년간의 고된 노력 끝에, 마침내, 새로운 제품 하나가 탄생했다. 그것은 만성 질환 치료를 돕는 약이었는데, 동의학 지식에 따라 완전히 천연 성분으로 조제되었지만, 서양의 엄격한 기준에 따른 임상 시험을 통해 효능과 안전성이 표준화되고 검증되었다.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던 날, 내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다. 우리는 겪었던 모든 일들 후에 많은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소수의 시범 환자들에게서 좋은 반응이 있었고, 점차 의사와 의료 전문가들도 제품의 독창성과 효능, 특히 안전성과 거의 없는 부작용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제품의 신뢰도는 실제 결과와 사용자들의 추천을 통해 점차 쌓여갔다. 주문량이 뚜렷하게 증가하기 시작했고, 회사가 점차 다시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될 첫 수입원을 가져다주었다.

파산 직전이었던 내 작은 회사는, 갑자기 긍정적인 전환을 맞이했다. 이전에 심각하게 손상되었던 제약업계에서의

내 신뢰도 또한 한 걸음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이 긍정적인 신호들로, 나는 점차 회사를 다시 일으킬 기반을 다지고, 여건이 허락되면 일부 헌신적인 옛 직원들을 다시 초대하며, 신중하게 생산 규모를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재정적인 회복의 징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부부가 더 깊은 기쁨을 느꼈다는 점이다. 우리는 역경을 기회로 바꾸었고, 단지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동양 전통 의학의 지혜와 현대 과학의 투명성을 모두 담아,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제품을 만들어냈다. 앞길은 다시 넓게 열렸다. 단지 한 기업의 미래만이 아니라, 감히 믿음을 굳게 지키고, 시련에 맞서며, 자신의 수련 바로 그 자체에서 빛을 찾은 사람들의 미래였다. 나는 우리가 겪었던 모든 고난이 의지를 단련하고, 집착을 씻어내며, 우리가 돌아가는 길 위에서 더 굳건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음을 이해했다.

폭풍우 속 희망의 노래, 빛을 퍼뜨리다

중국 대륙에서의 끔찍한 격변 이후 미국에서의 삶은 점차 안정되는 듯했지만, 진정한 평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재정적, 직업적 어려움이 겹쳐, 내 헌신적인 회사는 파산 직전에 몰렸고 우리 부부는 교수직을 잃었다. 처음에는 원인 모를 역경에 직면한 후, 우리는 마침내 중공 특무의 암종 파괴 공작을 발견했고 잿더미에서부터 동서양 의학을 결합한 새로운 방향으로 사업을 재건했다.

그 폭풍우를 이겨낸 것은 우리 사업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의지를 단련하고 집착을 씻어내며 대법에 대한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삶이 점차 다시 안정되면서, 나와 칭링은 우리의 책임이 더 커졌음을 더욱 느끼게 되었다.

중국에서 돌아와, 새로운 가족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잔혹한 박해에 대한 진실의 무게를 안고, 우리는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느꼈다. 수백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단지 진·선·인에 대한 믿음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고, 끔찍한 강제 장기 적출 범죄가 여전히 세계의 등 뒤에서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는 침묵할 수 없었다.

이 진실을 전파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특히 서구 대중의 일부가 보이는 무관심, 회의, 심지어 경계심과 마주했을 때는 더욱 그랬다. 하지만 우리가 만났던 캉위 씨, 천

메이 씨, 류 아저씨, 천 할머니, 란 씨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내가 구치소에서 직접 겪었던 끔찍한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시작했다. 가족, 친구, 마음이 열린 동료들. 우리는 우리 여정을 이야기하고, 파룬궁의 아름다움과 탄압의 냉혹한 진실을 나누었다. 점차, 이야기 속의 진실함과 우리 자신에게서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가 많은 이들로 하여금 더 귀 기울이고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개인적인 나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우리는 현지 파룬궁 수련생 공동체가 주최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주말이면, 우리는 다른 수련생들과 함께 중국 영사관 앞에서 평화롭게 서 있거나, 퍼레이드에 참여하고,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회나 진·선·인 국제 미술 전시회를 열었다. 언어 능력과 문화적 이해를 갖춘 칭링은 종종 파룬궁을 소개하고 질문에 답했다. 나는 탄원서 서명을 받고, 국회의원들과 인권 단체에 편지를 보내는 일에 참여했다.

비록 작은 활동일지라도, 모든 활동은 침묵을 깨기 위한 노력이었다. 우리는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무관심, 중국 정부 측의 암암리 방해, 그리고 때로는 오해까지. 하

지만 다른 수련생들, 그들 중 다수 또한 박해를 피해 탈출한 난민이었음에도, 여전히 끈기 있고, 평화로우며, 꾸준히 진실을 알리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다시 힘을 얻었다. 우리는 깨달았다. 진실을 전파하는 것은 중국에서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대한 책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양심과 세계의 미래에 대한 책임이기도 하다는 것을. 왜냐하면 악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바로 악에 동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다시 일으킨 후 시간이 꽤 흘렀다. 샤오옌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 자신을 수련하고 진실을 전파하는 노력은 끊임없는 여정이 되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감회가 새롭다. 실증 과학만을 믿었던 의학 교수이자 사업가에서, 나는 인식과 신념의 완전한 탈바꿈을 겪었다. 그 여정은 나를 회의에서 호기심으로, 발견에서 수용으로, 초기 믿음에서 파룬따파와, 신불(神佛)의 존재와 심오한 우주 법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으로 이끌었다.

나는 한때 속세의 기준으로 명예와 성공의 정점에서 있었지만, 공허함을 느꼈다. 이제, 생사의 시련을 겪고, 극단적인 악과 마주하며, 끝없는 선량함을 목격한 후에야, 나는 비로소 생명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그것은 물질적 향유나 세속적인 명예와 이익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선천적 본성으로 돌아가, 우주의 최고 특성인 진(眞)·선(善)·인(忍)에 동화되는 것이었다. 대법 수련의 길이야말로 하늘로 오르는 사다리였다.

우리가 겪었던 고난들은, 비록 고통스럽고 가혹했지만, 의지를 단련하고, 업력을 소멸시키며, 심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시험이었다. 위험에 직면할 때마다, 자신의 안전과 양심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마다, 우리는 대법의 가지(加持)를 받고, 믿음과 용기를 더욱 굳건히 하게 되었다. Kang 씨와 천메이 씨 가족의 비극, 박해의 잔혹함,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물려서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중공의 사악한 본질과 우리가 선택한 길의 위대함과 정의를 더욱 명확히 인식하게 했다.

나는 진·선·인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굳게 믿는다. 이 빛은 우리 수련자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의 양심을 감화하고 일깨울 힘이 있다. 비록 사악함의 어둠이 여전히 중국 땅을 뒤덮고 있고, 박해가 여전히 잔혹하게 계속되고 있지만, 나는 그것이 단지 동트기 전 마지막 광기일 뿐이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파룬따파는 이미 오대주에 널리 퍼져, 수억 명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렸기 때문이다. 진정한 수련자들은, 진·선·인에 대한 굳건한 마음, 평화로움과 무한한 자비심

으로, 밤낮으로 진상을 명확히 알리고, 거짓을 타파하며, 사악한 정권의 죄악을 폭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치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순결한 연꽃처럼, 그들은 바로 자신의 선량함과 인내로 폭력에 맞서고, 진실로 기만을 이기고 있다.

나는 중국인들이 중공의 진짜 얼굴을 깨닫는 날, 파룬궁 박해의 진실이 여론 앞에 완전히 드러나는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고 믿는다. 그때가 되면, 어둠은 걷히고, 사악함은 도태될 것이며, 전통 도덕 가치가 부흥하는, 자유로운 신앙의 밝은 미래가 진정으로 유서 깊은 중국 땅에 찾아올 것이다. 진정한 새벽이 동방에서 밝아올 것이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진·선·인은 낯설거나 동방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마도 누구나 지향하는 가치들이다. 때로 사람을 길 잃게 하는 현대 세계 속에서, 파룬따파는 맑은 샘물처럼, 내가 균형을 되찾고, 도덕을 높이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도와주었다. 나는 믿는다. 좋고 진실한 것들은 그 자체로 퍼져나가는 힘이 있다는 것을.

* * *

맺음말

"홍진·금광"의 이야기가 막을 내릴 때, 아마 독자들의 마음 속에 남는 것은 특정 인물의 사건이나 운명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조용하지만 강렬한 하나의 대비일 것이다. 먼지 가득한 속세와, 늘 자신을 드러내려 애쓰는 순수한 빛 사이의 대비.

언뜻 보기에, 이것은 흩어진 삶의 조각들의 모음이다. 각자 다른 고뇌, 다른 짐, 세상의 득실 사이에서의 다른 투쟁을 가진. 그들은 운명의 흐름, 야망의 흐름, 상처와 과오의 흐름에 휩쓸린다. 그것이 바로 홍진(紅塵)—답답하고, 혼란스러우며, 매혹으로 가득 찬—의 그림이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관찰하면, 하나의 황금빛 실이 조용히 공동의 양탄자를 짜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가장 어두운 순간들 속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들 사이에서, 금광(金光)이 나타났다. 그 빛은 구원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기적이 아니라, 바로 인성의 가장 깊은 곳에서 비롯된 하나의 선택이었다. 이타적인 행동 하나, 용서의 말 한마디,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 혹은 역경 앞에서 굳건히 지킨 선량한 생각 하나.

그러므로 이 작품은, 단지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비추고 있다. 모든 독자는 각자 자신의 흥진 속을, 자신만의 짐과 자신만의 선택들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책이 남기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인물들이 무엇을 찾았는가가 아니라, 이것일 것이다.

수많은 인생의 먼지 속에서, 과연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빛을 알아보고 붙잡을 수 있을까?

소피아 벨 (Sophia Bell)

THE LIVES MEDIA

* * *

저자 및 THE LIVES MEDIA 프로젝트에 대하여

저자 소개

소피아 벨 (Sophia Bell) 은 정치, 문화, 사회, 과학, 여성 등의 주제를 탐구하는 독립 작가입니다. 그녀의 작품은 진리를 추구하고 양심을 일깨우며, 인류의 운명에 대한 깊은 성찰에 목소리를 부여합니다.

그녀의 작업은 종종 실제 인터뷰에서 출발하며, 정직함과 감정적 깊이, 그리고 깨달음의 정신으로 기록됩니다.

프로젝트 소개

이 책은 THE LIVES MEDIA 에서 출판한 시리즈의 일부입니다. THE LIVES MEDIA 는 시대를 초월하는 메아리를 보존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가진 글로벌 비전의 독립 출

판 프로젝트입니다. 저희는 매일의 뉴스를 쫓기보다는 인간의 의식 깊은 곳에 닿을 수 있는 책을 지향합니다.

연락처

- ✧ 웹사이트: www.thelivemedia.com
- ✧ 이메일: editor@thelivesmedia.com
- ✧ QR 코드:



같은 프로젝트의 다른 작품들

THE LIVES MEDIA 의 다른 출판물들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홍진 · 금광 (Red Dust, Golden Light) → 바로 이 책입니다
 - 권력 그 후: 유산 (After Power: The Legacy)
 - 과학의 황혼과 여명 (Sunset and Sunrise of Science)
 - 붉은 베일 (The Red Veil)
 - 시간 이전의 울림 (Echoes Before Time)
 - 속세로 (Entering The World)
 - 마지막 종소리 (The Last Bells)
 - 우리 이전 (Before Us)
 - 천 개의 삶 (Thousand Lives)
-

이 책을 읽기 위해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리를 탐험하는 당신의 여정에 신과 부처님의 가호가 있
기를 빕니다.